

근·현대제주 교육  
발전 공헌 기록사(II)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들



구술  
자료집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5년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을 통해 근·현대 제주 학교 설립 및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구술자료집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구좌읍·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등 6개 읍면 26개교이며, 해당 학교 공헌자의 후손 및 연고자 총 26명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 구술 내용은 크게 ‘나눔의 기억’, ‘설립의 기억’, ‘공동체의 기억’, ‘그 밖의 기억’으로 분류하였다. 각 장의 제보자 등재 순서는 제보자 성씨 가나다순이며, 열람 편의를 위해 관련 학교명을 함께 표기하였다.
- 각 공헌자의 해설문은 구술 내용과 문헌 자료, 비문 내용을 토대로 공헌자의 생애와 공헌 유래 등을 기술하였다. 다만, 구술 내용은 기초 조사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다. 구술은 제보자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형, 구술 당시의 상황, 개인적 해석 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구술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확정이 아닌 당시를 경험한 이들의 기억과 제보로 이해해야 한다.
- 구술 녹취록은 제보자의 발화를 최대한 충실하게 기록하되, 가독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단, 제주어 표기법을 엄격히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보자가 사용한 제주어는 가능한 한 원형을 살려 표기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 ] 안에 표준어 뜻풀이를 병기하거나 주석을 달았다.
- 한자를 병기하되 발음이 다른 한자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 ] 안에 기술하였다. 판독하지 못했거나 확인이 어려운 인명 등은 ‘○’ 또는 ‘(미상)’으로 표기하였다.
- 제보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한 내용은 일부 생략하거나 익명 처리하였다. 공헌자 및 제보자의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기재 연도와 실제 출생 연도가 다른 경우 이를 병기하였다.
- 이번 자료집에 수록된 각 학교별 주요 설립 연혁, 기부 내역, 공헌자 목록 등 기초 문헌 조사 내용은 2024년 <제주학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 근·현대 학교 설립을 위한 제주인 발굴 기초 조사”의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제주 4·3 관련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였으며, 제보자의 구술 중 제주 4·3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존중하여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 발간사

# 기억으로 쌓아 올린 교육의 터전,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근·현대 제주 교육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는 공식 기록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학교 설립이라는 성과 뒤에는 당시 지역의 여건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실천해 온 사람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근·현대 제주 학교 설립 공헌 기록사(Ⅱ)-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들』 구술 자료집은 그러한 과정을 사람의 기억을 통해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한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제작되었습니다. 함께 발간된 기초 조사 자료집이 문헌과 각종 기록을 토대로 근·현대 제주 학교 설립과 공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였다면, 이 구술 자료집은 기초 조사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억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헌자 본인과 후손, 연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교육 공헌이 이루어진 맥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1900년부터 1970년까지 제주지역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70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제주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수행한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에서 확인된 학교 설립 연혁과 공헌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은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구좌읍, 우도면과 서귀포시 성산읍 등 관련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헌자 본인 또는 후손과 연고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문헌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교육 환경과 학교 설립 과정을 생생하게 채록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스물여섯 분의 제보자가 들려준 스물일곱 명의 공헌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술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 교육 공헌은 국가나 행정 주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토지나 재산을 희사한 개인의 결단, 일본 각지에서 고향 학교를 위해 성금을 모은 재일제주인의 활동, 마을 단위로 뜻을 모아 학교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한 주민들의 참여는 제주의 학교가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술 자료는 기존 문헌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기, 주민과 학생이 함께 노동에 참여하고 학교 운영을 두고 마을 내부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나갔던 경험들은 당시 교육이 지역사회의 일상과 긴밀히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주 교육이 제도적 틀 속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 속에서 주민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온 과정이었음을 일깨워 주며, 오늘날 지역 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기억을 나누어 주신 제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과, 선대의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 주신 후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 자료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지 조사와 자료 정리, 집필에 헌신해 주신 강경희, 김순임 선생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구술 자료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 원고를 집필해 주신 양정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박물관과 본 사업의 연구 책임을 맡아 전체 과정을 이끌어 준 임승희 선생님과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김우리, 박민희, 김다현 선생님의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출판사 디자인리더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집이 근·현대 제주 교육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기록의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 목 차

### 들어가기 전에

기록에서 기억으로, 조사의 여정 .....	07
기억을 전해준 사람들 .....	08
나눔의 뿌리, 공헌자들의 삶 .....	09
학교를 세운 세 갈래 손길 .....	11
구술이 들려준 새로운 이야기 .....	11
이 책의 길라잡이 .....	12
기억의 여정은 계속되기를 .....	13
제보자 정보: 도움을 주신 분들 .....	15

### I. 나눔의 기억: 땅과 재산을 나눈 사람들

1. 강인현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18
2. 강태정 / 시흥초등학교 .....	28
3. 고시종 · 고문종 / 물메초등학교 .....	44
4. 고원일 / 한국부티고등학교 .....	50
5. 고은국 / 온평초등학교 .....	57
6. 김성은 · 김길수 / 성산초등학교 .....	67
7. 김항근 / 우도중학교 .....	81
8. 이병문 / 귀덕초등학교 .....	99
9. 이병추 / 한동초등학교 .....	106
10. 이정렬 / 하귀초등학교 .....	113
11. 진중팔 / 남읍초등학교 .....	120
12. 최신백 / 저청초등학교 .....	130

## II. 설립의 기억: 학교가 세워지던 날의 기억

1. 김석만 / 하도초등학교	140
-----------------	-----

## III. 공동체의 기억: 마을이 함께 세운 배움터

1. 김기황·김두홍 / 송당초등학교	160
2. 김두일 /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175
3. 김정옥 / 수산초등학교(성산읍)	195
4. 김창근 / 평대초등학교·세화중학교	206
5. 문창행 / 신엄중학교	221
6. 임국립 / 저청초·중학교	230
7. 장권아 / 광금초등학교	241
8. 정양수 / 동남초등학교	249
9. 장응선 / 애월중학교	260

## VI. 그 밖의 기억: 못다한 이야기들

1. 강희정 / 성산중·고등학교	268
2. 김진현 / 한림공업고등학교	278

## V.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과 기부 활동

1. 머리말	288
2. 일제강점기 구좌면의 학교 설립 운동	290
3. 근·현대 동부지역 초등학교 설립 경험과 기부자에 대한 구술 분석	291
4. 해방 이후 중학교 설립 경험과 기부자에 대한 구술 분석	299
5. 맺음말	304

## 들어가기 전에

제주 교육의 역사는 마을 공동체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1970년까지, 국가 재정만으로는 학교를 세울 수 없었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 시절 제주의 학교들은 마을 주민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고향을 잊지 못한 재일제주인들의 정성으로 세워졌다. 누군가는 땅을 내놓았고, 누군가는 모금을 독려했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희사했으며, 누군가는 바다 건너에서 성금을 모아 보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25년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 제주 학교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이 구술 자료집은 그 결과물이다. 단순한 교육 공헌사 정리를 넘어, 제주 공동체가 교육을 향해 품었던 열망과 나눔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는 일이다.

### 기록에서 기억으로, 조사의 여정

이번 사업은 1900년부터 1970년까지 제주도 내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기초 조사팀은 근·현대 신문 자료, 마을지, 공덕비 등 문헌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각 학교별 공헌자와 그 공헌 내용을 조사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동지역(추자면 포함), 조천읍, 서귀포시 동지역, 표선면, 안덕면, 대정읍 소재 총 96개교에 관한 학교 설립 및 공헌 기록 자료를 조사·정리하였다.

현지 조사팀은 2024년 기초 조사된 총 70개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구좌읍,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각 학교별 공헌자를 추적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헌자의 생존 여부,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후손 및 연고자를 추적하여 구술을 채록하였다.

올해 조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 문헌에 남은 이름 석 자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공헌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기부를 결심했는지, 당시 마을 형편은 어떠한지 등-을 제보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기억은 기록이 담지 못한 맥락을 품고 있었다. 제보자가 기부

한 공헌자에 대해 전한 기억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특히 가치가 높았으며, 당시 공헌의 실상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었다.

### 기억을 전해준 사람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수행한 제주학 지원사업의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작되었다. 기초 조사 자료와 관련 문헌자료에 기록된 각 학교별 공헌자 목록을 정리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현지 조사 대상 지역과 학교를 나누었다. 이어서 인터뷰의 방향과 내용을 협의한 뒤, 학교 설립 및 발전에 공헌한 인물-직접 공헌자, 토지 및 현물 기부자, 기부를 독려한 이들-의 후손과 연고자를 찾아 제보를 받았다. 본격적인 현지 조사는 5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30회의 방문을 통해 구술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6개 읍면, 26개교와 관련된 27명의 공헌자에 대해 26명의 제보자로부터 구술을 채록하였다.

### 지역별 구술 조사 현황

구분	현지 조사 성과				조사 대상 학교
	읍면	학교(개교)	공헌자(명)	제보자(명)	
제주시	애월읍	7	7	7	곽금초등학교, 제주의국어고등학교(전신 광령국민학교 상전분교장), 납읍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 신엄중학교, 애월중학교
	한림읍	2	2	2	귀덕초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한경면	3	3	4	저청초등학교, 저청중학교, 한국부티고등학교(전신 고산상업고등학교)
	구좌읍	6	6	6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송당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 하도초등학교, 한동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서귀포시	성산읍	7	7	6	동남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성산중학교, 성산고등학교
	우도면	1	1	1	우도중학교
계		26	27	26	

제보자의 연령대는 60대부터 100대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성산읍 시흥리의 강태선(1924년생) 제보자는 101세의 고령으로, 도내 유일의 생존 독립유공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제보자는 공헌자의 자녀, 손자

녀, 조카 등 직계 또는 방계 후손이었으며, 일부는 공헌자 본인이 직접 구술에 참여하였다.

현지 조사를 통해 만난 제보자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헌자 본인이 직접 구술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도중학교의 김항근(1944년생)은 학교 정비에 필요한 토지를 두 차례나 기부하고, 1967년 하우마을문고(현 우도작은도서관)를 창립하는 등 우도의 교육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분이다. 신엄중학교의 문창행(1926년생)은 1969년 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약 3년간 네 개 마을을 묶어 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하도초등학교의 김석만(1927년생)은 1943년 사립하도학교 졸업생으로, 이후 3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분이다. 일제강점기 학교 생활부터 해방기의 교육 현장까지 생생하게 제보해 주었다.

둘째, 공헌자의 직계 후손이 구술한 경우이다. 성산초등학교 공헌자 김성은·김길수 부자(父子)의 손자이자 아들인 김승석(1949년생)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관련 사진과 신문 기사, 심지어 아버지가 1967년부터 10년간 수기로 작성한 농사 일기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평대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 공헌자 김창근의 아들 김성화(1935년생)는 38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교육감 표창, 대통령상 등을 받은 교육자로, 아버지의 교육 공헌 정신을 이어받았다.

셋째, 공헌자의 방계 후손 또는 인척이 구술한 경우이다. 물메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한 고시중·고문중 형제의 조카 고영진(1953년생)은 어린 시절 자택에서 진행되었던 마을 주민 회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저청초·중학교 공헌자 임국립의 며느리 조인숙(1936년생)은 결혼 전부터 시아버지의 지역 내 명성을 익히 들었다며 시아버지의 공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귀초등학교 공헌자 이정렬의 조카손자 이용도(1938년생)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부유한 가문이었고 마을의 유지였던 집안의 역사를 전해 주었다.

넷째, 학교 설립 당시를 직접 경험한 마을 주민이 구술한 경우이다. 송당초등학교 공헌자 김기황의 증손이자 김두홍의 손자인 김호중(1942년생)은 4·3 이후 마을 재건 시기에 고태석의 집 마당에서 교육받은 일, 6학년 때 교실 신축을 위해 지붕에 올릴 기와용 흙을 날랐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현 송당리 노인회장 고수형(1947년생)도 2~3학년 시절 교실 신축을 위해 흙을 날랐던 기억을 함께 전해 주었다.

## 나눔의 뿌리, 공헌자들의 삶

본 조사를 통해 만난 공헌자들의 삶은 다양한 경로를 거쳤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에 성공한 후 고향 학교에 기부한 재일제주인, 해방 후 귀향하여 마을 발전에 헌신한 지역 유지,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일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독지가들의 이야기가 구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재일제주인 공헌자들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물메초등학교 부지를 기증한 고시중은 15세쯤 혼자 오사카에 가서 의자를 제작해 수출하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 단장, 재일제주도민 체육회장, 오사카건국학교를 만든 재단법인 백두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한국부티고등학교(옛 고산상업고등학교) 설립에 힘쓴 고원일(1918년생)은 도쿄에서 전기회사를 설립한 후 학교 설립을 위해 도쿄부터 오사카까지 방방곡곡을 다니며 모금 활동을 벌였고, 본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재일제주개발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밀항한 재일제주민들을 돕는 등 다방면의 사회 공헌 활동을 했다.

납읍초등학교에 2만원을 기부한 진중팔(1915년생)은 일본에서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으로 크게 성공한 후 고향에 감귤 묘목까지 보내 주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되었다. 10년 동안 매년 2천 본, 총 2만 본의 농장을 구상했지만, 4년 차인 1967년 타계하여 계획은 중단되었다. 타계했을 때 마을에서 추도식이 개최될 정도로 그의 공헌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귀향 후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헌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귀덕초등학교 공헌자 이병문(1908년생)은 일본 교토에서 공예품 사업으로 성공한 후 해방 직후 배 2척을 사서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태우고 귀향했다. 강원도에서 목재를 사 와서 한림읍 귀덕리에 당시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지었다. 귀덕초등학교 설립 당시 기성회 대표였던 독립운동가 홍순옥의 권유로 거액의 의연금을 회사했다.

지역의 유지로서 학교 설립을 주도한 공헌자들도 있다. 저청초·중학교 설립에 앞장선 임국립(1910년생)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역의 유지로, 한림협의회장을 역임했다. 1946년 청수국민학교 설립, 4·3 이후 저지국민학교와 청수국민학교 통합·복구, 1964년 저청중학교 설립까지 지역 교육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곽금초등학교 공헌자 장권아(1905년생)는 1914년 곽지리 의숙에 입학한 후 1924년 제주관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46년 곽금공립초등학교 설립 기성회에서 교사 신축 회장을 맡았고, 이후 면의원과 교육위원을 역임했다. 마을에서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독비를 세우자고 제안했으나, ‘비를 세우면 부숴 버리겠다’며 반대하여 세우지 못했다는 일화는 그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준다.

## 학교를 세운 세 갈래 손길

제주의 학교들이 세워지기까지, 사람들의 헌신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독지가의 대규모 기부다. 개인이 상당한 규모의 토지나 현금을 희사한 경우다. 성산초등학교 공헌자 김성은은 1946년 소유 토지 중 1,924㎡(583평)를 학교 부지로 희사했다. 온평초등학교 공헌자 고은국은 당대에 만석꾼으로 불릴 정도로 풍채가 좋고 스스로 일군 재산이 많았는데, 학교 설립 당시 부지를 무상 기부했다. 저청초등학교 공헌자 최신백은 14살에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건설업으로 성공한 후 1969년 토지 500평을 기부했다.

둘째, 재일제주인의 성금 모금이다.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재일제주인들이 고향 학교 발전을 위해 개인 기부는 물론 동향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인 경우다. 신임중학교 설립 당시 추진위원회는 ‘재일설립기성회’를 조직하여 일본에서 건축 관련 모금을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 문창행의 송덕비와 더불어 재일교포 이오만의 송덕비, 백정혁의 동상을 송덕비를 세웠다. 고산상업고등학교(현 한국부티고) 설립을 위해 고원일은 도쿄부터 오사카까지 방방곡곡을 다니며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셋째, 마을 주민의 공동 기부다. 마을 단위로 매호당 일정 금액을 걷거나, 마을 공동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경우다. 1923년 동남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성산, 오조, 고성, 수산, 온평 5개 리에서 ‘매호당 3원 50전씩’의 현금을 모아 건축비 일 만원을 마련했다. 송당초등학교 설립 당시 김두홍 외에도 김묘생 등 마을 사람들이 기부한 토지는 3천여 평에 달한다. 동북리에서는 마을 어촌계에서 툿(해조류) 수입의 일부를 학교 기금으로 사용했다.

## 구술이 들려준 새로운 이야기

제보자들의 구술 채록 과정에서 기존 문헌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첫째, 마을 경제력의 새로운 원천이 밝혀졌다. 하도리의 경우 해녀들의 물질 수입뿐 아니라 남성들의 화물선 운송업이 마을 경제력의 중요한 원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당시 하도리 사람들은 80~90톤 규모의 화물선을 운영하며 함경도 청진까지 오가며 오징어를 운반하는 등 운송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이 자금이 학교 설립에 희사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해녀의 물질 수입에만 주목해 온 기존 연구에 새로

운 시각을 더해주는 발견이었다. 1920년대 구좌면에서 김녕리, 월정·행원리, 하도리 세 지역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러한 경제력이 있었다.

둘째, ‘학교 바당’ 전통이 확인되었다. 제주 해녀들은 일부 어장을 ‘학교 바당’으로 지정하여 그곳에서 채취한 해산물 수익을 학교 육성회비로 충당하였다. 온평초등학교 2대 교장을 역임한 고운학(공헌자 고은국의 아들)은 임기 중에 ‘학교를 위한 미역 바당’ 구역을 정했는데, 이 구역의 미역 수입은 학교를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한다. 동북리에서는 4개 동이 돌아가며 툇 수출 수익 중 일부를 학교에 기부했는데, 해녀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자신의 배당금을 기꺼이 내놓았다. 1970년대까지 약 10년간 이어진 이 전통은 제주 공동체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셋째, 학교 설립 초창기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우도중학교의 경우, 개교 후에도 운동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들이 체육시간마다 삽과 팽이를 들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했다. 1~3학년 학생 110여 명이 학년별로 시간을 나눠 약 3개월간 작업한 끝에야 비로소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송당초등학교의 경우 4·3 이후 학교 재건 시기에 6학년 학생들이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 지붕에 올릴 기와에 계워 넣을 흙을 날랐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등짐으로 돌을 나르고 울타리를 세우며 학교를 세웠던 시절, 학교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일군 꿈이었다.

넷째,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기부 과정의 맥락이 밝혀졌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부지(옛 광령초등학교 상전분교장 터)의 경우, 향토지 등에 ‘고언기 7,021㎡ 기부’라는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강인현의 아들 강창훈(1957년생)의 구술을 통해, 실제로는 강인현이 조상 때부터 소유한 ‘너븐 캐(넓은 들)’라는 땅 700평을 먼저 기부채납했고, 이후 고언기 소유 부지와 맞바꾸면서 현재의 학교 터가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 이 책의 길라잡이

본 자료집은 구술 내용의 성격에 따라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나눔의 기억: 땅과 재산을 나누는 사람들’에서는 토지나 현금 등 개인 재산을 학교에 희사한 독지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강인현, 시흥초등학교 실습지 기금을 지원한 강태정, 물태초등학교 부지 921평을 기증한 고시중·고문중 형제, 온평초등학교 부지를 무상 기부한 고은국, 한국부티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일본 전역에서 모금 활동을 벌인 고원일, 성산초등학교 부지를 희사

한 김성은·김길수 부자, 우도중학교에 두 차례 토지를 기부한 김항근, 귀덕초등학교에 거액의 의연금을 희사한 이병문, 한동초등학교에 물품을 기증한 이병추, 하귀초등학교의 전신인 진흥서당 부지를 기증한 이정렬, 납읍초등학교에 2만원과 감귤 묘목을 보낸 진중팔, 저청초등학교에 500평을 기부한 최신백 등 12편의 구술을 수록하였다.

둘째, ‘설립의 기억: 학교가 세워지던 날의 기억’에서는 학교 설립 당시를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분의 구술 내용을 수록하였다. 1943년 사립하도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3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김석만의 구술을 통해 일제강점기 학교 생활부터 해방기의 교육 현장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셋째, ‘공동체의 기억: 마을이 함께 세운 배움터’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학교를 설립한 과정을 담았다. 송당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마을 유지들이 3천여 평의 토지를 모은 김기황·김두홍 부자,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로 활동한 김두일, 수산초등학교 기성회장으로 마을 교육을 이끈 김정옥, 평대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 설립에 공헌한 김창근, 신엄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4개의 마을을 한데 모아 기금 조성에 앞장 선 문창행, 저청초·중학교 설립의 구심점 역할을 한 임국립, 광금초등학교 기성회장을 맡으며 겸손하게 헌신한 장권아, 동남초등학교 설립 기성회에서 활동한 정양수, 애월중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한 장응선 등 9편의 구술을 수록하였다.

넷째, ‘그 밖의 기억: 못다한 이야기들’에서는 앞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겨야 할 공헌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성산중학원 개교 당시 비어 있던 공장 건물을 교사 건물로 제공한 강희정, 한림공업고등학교 교사를 건축하고 천주교 한림성당 종탑을 남긴 목수 김진현 등 2편의 구술 내용을 담았다.

## 기억의 여정은 계속되기를

이번 조사 성과는 ‘근·현대 제주 교육 발전 공헌 기록사(Ⅰ)·(Ⅱ)’ 두 권으로 발간된다. 제Ⅰ 권은 기초 조사 자료집으로 문헌에서 확인한 학교별 설립 연혁과 기부 내역, 공헌자 관련 자료를 담고 있으며, 제Ⅱ 권은 본 구술 자료집으로 후손과 연고자들의 생생한 구술을 수록하였다.

202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육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2차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학교들, 아직 만나지 못한 후손들,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 특히 고령의 제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 만난 강태선 제보자(1924년생)처럼 100세가 넘는 분들의 구술은 더 늦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어려운 시절, 자식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제주 선인들이 있었다. 땅을 기부한 이, 돈을 희사한 이, 일본에서 고향 학교를 위해 성금을 모은 이들. 그들의 이름은 공덕비에, 기증 대장에, 그리고 후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제보자들의 회고처럼, 1970년까지 학교 설립에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학생들이 직접 운동장을 평탄화하고, 해녀들이 물질 수입을 기부하고, 재일교포들이 약기와 건축자재를 보내왔다. 이 모든 헌신이 모여 오늘의 제주 교육이 가능했다.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공헌자들의 기록이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 늦기 전에,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 분 한 분의 구술이 모여 제주 교육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구술 채록에 응해주신 후손과 연고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여든이 넘는 고령에도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들려주신 어르신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주시신 후손분들이 계셨기에 이 기록이 가능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다며 조심스러워하시면서도, 고향 학교를 위해 헌신했던 선대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그 진심 어린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이 자료집이 제주 교육의 뿌리를 기억하고 전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 선인들의 이야기를 찾아 기록하는 걸음을 계속하고자 한다. 제주 선인들의 헌신을 기록하는 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 정보: 도움을 주신 분들

번호	지역	조사 학교	제보자	출생 연도	조사 일시	녹음 및 영상(시간)	공헌자	공헌자와의 관계
1	구좌읍	평대초·세화중	김성화	1935년생	2025. 10. 18.	0:48:42	김창근	아들
2		하도초	김석만	1927년생	2025. 10. 18.	1:09:15	김석만	본인
3		한동초	이원석	1939년생	2025. 10. 18.	0:28:12	이병추	아들
4		송당초	김호중	1942년생	2025. 10. 20.	0:47:00	김기황, 김두홍	증손(손자)
5		송당초	고수형	1947년생	2025. 10. 20.	0:47:00	김기황, 김두홍	-
6		김녕초	김갑생	1934년생	2025. 11. 01.	0:48:50	김두일	아들
7	성산읍	성산초	김승석	1949년생	2025. 07. 29.	0:32:31	김성은, 김길수	손자(아들)
8		시흥초	강태선	1924년생	2025. 07. 31.	0:43:45	강태정	6촌 동생
9		동남초	정신권	1961년생	2025. 08. 27.	0:35:30	정양수	손자
10		성산중·고	강동은	1945년생	2025. 08. 28.	0:26:09	강희정	아들
11		수산초	김석범	1961년생	2025. 08. 29.	0:37:23	김정옥	손자
12		온평초	고영욱	1961년생	2025. 09. 06.	0:22:10	고은국	증손자
13	애월읍	곽금초	장봉문	1958년생	2025. 06. 23.	0:26:10	장권아	아들
14		물메초	고영진	1953년생	2025. 06. 26.	0:26:21	고시중, 고문중	조카
15		하귀초	이용도	1938년생	2025. 06. 27.	0:37:29	이정렬	외조카손
16		신엄중	문창행	1926년생	2025. 06. 30.	0:24:24	문창행	본인
17		애월중	장도현	1943년생	2025. 07. 04.	0:41:48	장웅선	아들
18		제주외국어고	강창훈	1957년생	2025. 08. 05.	0:37:34	강인현	아들
19		납읍초	진창보	1945년생	2025. 08. 05.	0:25:42	진중팔	조카
20	우도면	우도중	김향근	1944년생	2025. 10. 24.	1:09:44	김향근	본인
21	한경면	한국부티고	고철만	1947년생	2025. 07. 09.	0:28:24	고원일	조카
22		저청초	최순화	1945년생	2025. 07. 10.	0:37:20	최신백	동생
23		저청초·중	조인숙	1936년생	2025. 07. 25.	0:52:27	임국립	며느리
24		저청초·중	임안순	1956년생	2025. 07. 25.	0:52:27	임국립	손자
25	한림읍	한림공업고	김승철	1950년생	2025. 09. 09.	0:34:35	김진현	아들
26		귀덕초	이우백	1945년생	2025. 09. 18.	0:30:46	이병문	아들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  
들



# I. 나눔의 기억: 땅과 재산을 나누는 사람들

1. 강인현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 강태정 | 시흥초등학교
3. 고시중·고문중 | 물메초등학교
4. 고원일 | 한국뷰티고등학교
5. 고은국 | 온평초등학교
6. 김성은·김길수 | 성산초등학교
7. 김항근 | 우도중학교
8. 이병문 | 귀덕초등학교
9. 이병추 | 한동초등학교
10. 이정렬 | 하귀초등학교
11. 진중팔 | 남읍초등학교
12. 최신백 | 저정초등학교

# 01

## 강인현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상전분교장(폐교) 터에  
현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들어섬



강창훈



### 공헌자 강인현 1936년생

강인현은 1936년생으로 애월읍 수산리에서 태어났다. 1967~1968년, 정부의 중산간 개발 및 인구 분산 정책으로 애월읍 고성2리에 양잠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40가구로 구성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다. 강인현 또한 이때 양잠단지에 입주했다. 현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선 부지는 옛 광령초등학교 상전(桑田)분교장이 있었던 터다. 상전분교장의 설립은 학교 부지 관련 강인현의 기부채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인현은 조상 때부터 고성2리에 ‘너븐 캐(넓은 들)’라고 불렀던 가문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의 700평을 기부채납했다. 당시 왕복 8km를 걸어 등하교해야 했던 어린 이들에게 새로운 배움터를 조성해 줄 수 있었고, 현재까지 미래 세대를 위한 배움터로 활용되고 있다.

### 제보자 강창훈 1957년생, 강인현의 아들

강인현의 아들 강창훈은 옛 광령초등학교 상전분교장 설립 당시 10대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애월읍 수산리에서 고성2리 양잠단지로 이주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새로운 마을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천막을 치고 회의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교습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 교습소를 상전분교장으로 발전시킨 과정 또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현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선 옛 상전분교장 터는 또 다른 공헌자 고연기 씨 소유의 부지였는데, 이는 강씨 가문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와 맞바꾸면서 조성된 것이었다. 향토지 등에 남아 있는 ‘고연기 7,021m<sup>2</sup> 기부’라는 간략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학교 부지 기부채납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학교 부지 기부채납 과정

\* 마을 주민 강인종과 이야기하던 중간에 강창훈이 합류했다.

(강인종) 이 사람이 2세인데 강인현 씨 아들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떠났습니다.

강인현 씨는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희는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립 당시에 마을에서 어떤 분들의 공헌 노력이 있었는지, 당사자분이나 가족분을 직접 만나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압니다.

좀 전에 강인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벽하게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게, 여기 분교가, 그걸 그때 분교라고 했습니까?

교습소 말씀이십니까?

교습소 말씀이십니까?

이게 교습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습소 부지는 저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교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땅을 기부채납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인 교습소 부지를 아버지가 기부채납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까?

(강인종) 아니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강창훈)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북제주군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감사패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습소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이제 분교를 지으려니까 ‘땅이 이걸로 모자라다’ 그래서 고언기 씨 땅에다가 짓기로 하고 이 땅을 바꿔주라고 해서 이제 고언기

씨 땅에 가서 분교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던 자료는 원래 북제주군 교육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북제주군 교육청이 제주시 교육청이랑 합쳐지면서 그 자료 좀 떼 달라고 하니깐 ‘아이쿠! 이거, 우리 합병하면서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습소 자리는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강인중) 아니 교습소는 여기 부녀회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40명이 5천원씩 모아서 이제 창훈이 아버지 것 사고 동서 방장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너는 잘 몰라.

(강창훈) 아닙니다. 난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돈을 내기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마을에 그림이 그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저희 농장이 있는데 왜 입구에 그쪽에 집이 안 지어졌는지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집값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 짓지 마라’ 그래서 거기 집이 안 지어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수산에 살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여기 920번지가 입구로 들어오면서, 양쪽이 전부 920번지입니다. 그다음에 923번지가 여기입니다. 그게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수산에서 여기 부르기를, 우리 땅 부르기를 ‘너븐 캐’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920에서 923번지. 그럼 이 땅을 사고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요.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가 (양잠단지)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첫해에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번째에 들어옵니다. 우리 땅으로 그냥 도로를 다 내버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마을 이장이랑 등이 저희 아버지한테, 어차피 그 땅 다 쪼개놓고 다 했는데, 거기 가서 그 나머지 땅이라도 잘 지키라고 해서. 그래서 2년 차에 저희 아버지가 들어온 거죠.

1. 산뉘는 밭 버를 의미하는 제주어다. 제주 전역에서 산도, 산뉘와 함께 많이 쓰인다.

그러면 원래 그 땅을 갖고 계셨다는 거  
는……, 그 땅은 언제부터 소유 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주 옛날부터요.

윗대 조상 때부터 원래 그 땅을 갖고 있었  
다는 겁니까?

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거기 산  
뒤”를 심었습니다. 그 밭만 산뒤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뭐, 다, 저 벌판이었습시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 관  
련해서는 그거 찾아보면 아는데, 그게 몇 년도인지……, 교육  
감한테 감사장 받은 거 보면 알 겁니다.

그럼 혹시 아버님과 함께 기부했다는 김대  
형씨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김대형 씨도 이제 이쪽에 어디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분은 10년 전쯤에 만났습시다. 제가  
왜냐하면 그분도 땅이 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여기 조그만  
땅, 측백나무 심어져 있는 저 땅이 그분 이름으로 되어 있었  
습시다. 그래서 ‘이거 저 마을에 기부채납하십시오’ ‘아 이거  
옛날부터 나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에 기부채납  
받아 온 일도 있고 그렇습시다.

10년 전 말씀이십니까? 학교 설립 때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학교 때는 순수하게 저희 땅에 한 겁니다.

몇 평 정도였습니까?

몇 평인지 잘 모릅니다. 그 교습소부터 하여간.

어쨌거나 교습소 부지 말씀이신 거죠?

예.

좀 전에 윗대부터 갖고 계시던 땅을 기부  
채납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기부  
채납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신 건지, 뭔가 계기가 있으  
셨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태어나  
고 그 다음에 교습소가 생기게 됩니다. 나이는 나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막내가) 태어났을 때 교습소가 지어졌다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학교 방침이 있었던 상황에서 애(막내)보다 1년 앞에 애들, 개네들은 학교 안에 와서 공부하고 애(막내)는 거기 못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해서 보고…….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하시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부지가 너무 작으니까. 교습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분교가 되기에는 너무 작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크지만 가격도 훨씬 싼 겁니다. 맹지였거든요.

아, 당시에. 79년도에 맹지였으면 가격이 아주 저렴했겠네요.

(강인종) 고언기 씨는 또 이걸 팔아가지고 이용하니까 좋고.

그럼 그분은 이곳 교습소 땅을 갖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 거죠.

## 교습소 부지와 분교장 부지의 맞교환 과정

---

교습소 부지를 원래 윗대부터 갖고 있었고 이거를 기부채납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이제 고언기 씨는 기부가 아니고 이거는 맞바꾼 겁니까?

근데 그것도 기부성을 띤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제 이걸 주면서 그 제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예, 그래서 아마 기부자 명단에는 고언기 씨가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전체 기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바꾸기는 했지만 또 일부는 기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학교 부지 평수가 큼니다. 그래서 이거(현재 제주외고 부지)를 여기(옛 교습소 부지)랑 온전히 맞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아니 일부는 교육청에서 돈도 지불했습니다.

않나 생각합니다.

고연기씨한테 말입니까?

예. 약간 그때 당시에 땅 한 평에 몇십 원 했는데 그거 뭐 돈으로 따질 그건 아닌 거고요.

평수가 그래도 좀 큼니다. 2천평 정도. 그런데 그게 온전히 기부가 아니고 맞바꾼 거 더하기 기부도 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일부 좀 보조를 한 거죠.

약간의 보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 광령국민학교에서 학구향토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어서요. 그냥 '고연기 7,021m<sup>2</sup> 기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김대형 씨도 같이. 아마 처음에 그 기부자 명단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랑 합해지면서 그 자료가 다 소실돼 버린 겁니다. 지금처럼 어디 외장하드 속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다 종이로 돼 있었던 거라서 그 종이를 다 옮겨가도 볼 사람도 없고. 그게 다 폐기 처분돼 버린 거죠.

## 양잠 산업의 성쇠와 마을 운영의 어려움

40명 공동체에서 5천원씩 20만원을 갖고 부지를 매입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인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 밑에다 천막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천원씩 한 사람이 건어가지고, 그럼 총 2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 해 가지고 이 광장을 매입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5천원씩 냈습니다.

예. 그럼 5천원씩 내서 20만원 만든 것과 학교 부지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저기유수암 옛날 양잠단지 그 원형 로타리 아시죠? 여기가 원래 거기보다 먼저 생겼고, 여기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북제주군이 땅을 사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북제주군이 사지 않았어요. 돈은 안 내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서로 한 거지. 근데 그게 결국은 다들 우리 땅이라

고 해버리니까……. 아니면 이게 거기 우수암처럼 공동부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이걸 못 줘. 그래서 이름이 개인 이름으로 다 돼 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게 전체 공동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아무도 안 내버린 겁니다.

**그럼 이후에 양잠 단지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진 겁니까?**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래 여기 이 근처, 이 사람도 광령 2리지만, 광령1리와 2리 중에 2리가 사람이 더 많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광령2리 사람들이 여기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귀, 우리 수산, 그 다음에 우수암, 원래 여기 땅이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요 밑에서 여기 오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 집에서 농사짓는 것만 못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바로 1년 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책자금을 25만 5천 원 빌려줬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1인당 땅을 9천 평씩 확보하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 여기 땅이 있었으니까 괜찮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땅이 모자란 사람들은 땅을 더 사야 되고. 여기 농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양잠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90%가 나가버렸습니다. 대략 80% 정도 나갔겠네요.

**그럼 그 당시 1세대들은 아직 남아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강인중)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는 2세이고.  
(강창훈) 양잠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호황기였습니다.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때가 70년대네요.**

70년대 그때는 여기 저, 그, 누에 키우러 많이 왔습니다. 난 그거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누에가 커가면. 누가 어디서 일하러 많이 왔냐면 삼양 같은 곳에서 20대 아가씨들이 와서 일했어요.

제주시 삼양이요?

맞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여기 살면서 봉급 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집집마다 다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  
니다.

양잠 단지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마을이 축소된 거 아닙니까?

마을은 훨씬 커졌습니다.

학생이 적어서 폐교에 이를 정도인데, 학생이 없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그 40가구에서 학생이 있어 봐야……. 지금은 그래도 저 버스 타면 한 열 몇 명 아침에 타고 나가는데. 이 마을 크기에 열 몇 명 있으면 진짜 많은 거죠.

지금 여기 마을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은 가구 수는 꽤 됩니다. 대략 400가구 가까이는 될 겁니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도 폐교되어 버리고, 지금은 마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집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장 찼던 텐데. 외고 있잖습니까?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외고.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을 입장에서 더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 할 수 있죠. 우리 마을이 항상 못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교가 폐교가 될 때, 내가 회사에 곧 다닐 때니까 집에 올 일도 없고. 학교 다닐 때도 안 왔지만. 이제 가끔 와 보면 여기 집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폐교가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원래 이 땅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거니까 도로 내놓으라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려고?’하니까, ‘우리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니까 아버지가 교육청을 찾아갔었습니다. 교육청 찾아가서, 우리가 이걸기부채납한 건데 그냥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이 땅을 내놓겠다’ 했어요. 당신이 아니고 집이 없는 주민들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불하를 못받았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단돈 얼마라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누구는 오래 살았으니까 500평 가져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똑같이 나눠야지라고 하고. 그게 3개월 내에 결정해서 불하 받으라고 한 걸 3개월 내에 불하를 못 받고 원위치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고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외고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냥 비어 있었던 겁니까?

예. 폐교된 지 대략 1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다가 2003년도에 외고가 설립되었으니 20년이 넘었습니다. 폐교되고 나서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야영장이니 뭐니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방치해서 두면 안 되니까. 요즘도 그 폐교 같은 데다가 뭘 임대해주잖아요.

네, 신청들 많이 하죠. 근데 어쩌면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거네요.

잘 된 게 맞지.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어쨌거나 분교를 거기다가 만들게 되면서, 폐교는 됐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외고 부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밑바탕이 된 거죠.

혹시 아버님께서 이런 학교 관련해서 뭔가 활동들을 좀 하셨습니까? 아까 교육청을 찾아갔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폐교가 돼버리니까, 아까 말한 무슨 여기 캠퍼장을 누가 하겠다는 등, 또 이제 그 집 없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 원래 기부채납한 거니까 그 교육청에 가서 달라고 하시라는 등. 근데 이제 그냥은 못 주고 공시지가로 분할을 해주마, 한 거죠.

혹시 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이장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안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저는 이장도 하고, 개발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강인현씨 출생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93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대략 10년 되었습니다.

네. 아버님에 이어서 아드님도 마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02

## 강태정

시흥초등학교



강태선



### 공헌자 강태정 1913년생

강태정은 1913년 2월 15일 성산을 시흥리에서 출생했다. 세 살 정도에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고, 해방 후에 돌아왔다. 일본에서 후키츠케[吹付け, 뿔칠 기술자로 일했고, 1936년 공장을 설립했지만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1942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귀국 후 기술을 살려 부산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했다. 사업이 잘되던 시절, 고향 성산을 시흥에 학교 실습지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 기금을 지원했다. 시흥초등학교가 있었던 옛 부지는 바닷물에 잠기곤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강태정의 기금으로 시흥초등학교의 실습지 부지 215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말년에 고향 제주로 돌아와 살다가 1980년 11월 20일 향년 70세에 작고했다.

### 제보자 강태선 1924년생, 강태정의 6촌 동생

강태선은 1924년 6월 15일생으로 성산을 시흥리에서 나고 자랐다. 지금도 시흥리에 살고 계시며, 101세의 고령으로 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다. 공헌자 강태정의 6촌 동생이다. 강태정의 생애와 시흥초등학교 실습지 부지 공헌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1973년 시흥초등학교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강태정의 공헌으로 마련된 실습지가 방치되고, 공헌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강태선은 관련 내용을 학교에 건의했고, 이를 수용한 학교는 2009년 5월 24일 시흥초등학교 개교 62주년을 맞이하여 강태정 송덕비를 세웠다. 현재 옛 실습지 부지는 마을에 꼭 필요한 저류지로 활용되고 있다.

## 공헌자 강태정과 후키츠케 기술자로서의 삶

강태자 정자, 강태정. 사촌 되시는 분이신  
가요?

강태정?

네. 그분은 (시흥초등학교) 실습지 땅을 기  
부하셨어요. 강태정 이분에 대해서 강태선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해서요, 4촌지  
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6촌지간인데.

6촌지간이세요? 그러면, 6촌이면?

거기가 아마도 세 살, 네 살쯤에 일본으로 갔다가 해방이 돼  
서 여기 왔어요. 가족들은 다 일본에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 일본으로 가셨어요?

한 세 살쯤에, 서너 살 쯤에 갔을 거예요.

세 살? 그러면 부모님이 일본 가 계신 건  
가요?

식구들이 전부. 가족이 전부 갔지.

가족이 전부, 일본 어디에 가셨던 겁니까?

대판.

대판. 그리고서는 왕래가 없었습니까?

그전에.

이 가족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셨는데, 여기  
친척들 모임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지요?

늘 해오다가, 이분이 해방이 돼서 식구들 전부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만 여기 왔어요.

강태정님이 고향으로 왔어요?

왔다가 부산에 정착을 해가지고, 부산에.

부산에 정착하셨어요?

거기서 새 부인을 만나서 동거를 한 10년 해신가. 하다가  
198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8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태정이 형님이 아침에 돌아갔주게. 80년대에.

그러면 이분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한 몇 살 정도에 돌아가신지 알겠어요? 강태정 선생님이 몇 살 정도에 돌아가셨는지요?

글쎄, 1913년도 생인데.

1913년생이예요?

응. 나보다 한 11살 위에. 지금이면 114살, 113살 되는 거. 나는 24년생.

강태선 선생님은 1924년생이시죠?

6월 15일.

6월 15일생. 음력이신가요?

아니, 음력으로는 8월 보름날, 8월 명절날. 주민등록상으로.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은 이렇게 됐고, 원래는 8월 15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강태정 남하고 11살 정도?

11살 나보다 위.

그리고 6촌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쪽으로?

할아버지의 4촌. 우리 아버지 쪽으로 4촌 될 거고.

제일 큰 할아버지네 자식들이신가요?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할아버지네 자식. 그러면 강태정 이분이 땅을 여기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일본에서 와가지고, 배운 것은 후키츠케[吹付け, 뿔칠 기술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

무슨 직업인가요?

일본 말로 후키츠케라고 해. 이게 뭐냐 하면,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꽃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가령 알루미늄 큰 상이 있다고 하면, 상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상품으로 내놓는 거주게. 그런 공장에서 그 상을 내놓으면 그 상을 전부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주게.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거구나? 그걸 후카.....?

후키츠케. 후키츠케라는 건 일본 말로 붙여서 정착시킨다는 말이주게.

예. 붙어서. 부는 거 있어. 이 기계가 꽃을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영 나는 거문 뭐 해놔서 붙어놓고. 이거 익으면, 다음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해서. 완성이 될 것 같으면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럼 그 일을 하신 거네요. 그걸 전문으로 했거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그것을 배우셨나요? 일본에서 그 후키츠케 하다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휴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공장이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실업자가 돼서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라.

본인 혼자만 돌아오셨나요? 혼자만.

해방 후에 오셨다고 하니깐, 한 30대 초반에 부산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해방 후에. 곧 해방돼서 얼마 없어서 와버렸지.

해방돼서. 그러면 강태정 이분은 형제가 몇 분 계셨나요? 사형제. 다음은 무색이, 갱규, 유색이, 태정이 사형제.

이분이 부산에서 살았으면 부산에 자식이 있지 않았나요? 부산에 없어요.

## 부산 정착과 제주 귀환

강태정 이분이 해방 후에 부산으로 와서, 일본에 가족도 있지만 부산에서 다시 결혼을 하신 거잖아예. 결혼해서 부산에서 계속 사셨던 겁니까? 제주 와서 말년에, 죽기 전 한 5년 살았는가? (강태선 아들) 예. 제주에.

제주도에 다시 혼자 오신 겁니까?

응, 혼자.

혼자 부산에서 사시다가 혼자 오셔서 5년 동안 제주도에 사시다가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제주도에 다 장사를 다 치르신 겁니까?

여기서 다 장사 치렀지.

제주도에서.

묘소가 여기 있지.

강태정 선생님의 자식들은 다 일본에 있나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서 연락이 두절 된 지가 벌써 한 3, 40년 돼 가는데. 그전에는 그 아들이 왔다 갔다 좀 했어요.

큰아들이 마씨? 자식은 몇 명입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두절 된 지가. 나중에 들으니까 다 일본으로 귀화했단.

귀화하고, 오사카?

오사카. 동기간은 전부 다.

강태정 선생님의 자식들은 다 일본에서 살고. 강태정 이분만 해방 후에 부산으로 왔다가 또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살 때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우리 종손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터가 없으니까 거기 조그마한 터를 해서. 한 이거 반쯤 될 건가?

예. 집을 만들어서 사셨네요.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년에 좀 고생했지. 그전에는 조그마한 것 얻어서 하다가. 이제 또 이 공장이 말이어 새로운 밧을 타고 들어와 가니까, 이게 옛날 밧이 돼버려서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은 놀면서 먹으려니까, 그때부터 좀 아마도 간경화로…….

간경화 걸리셨나요?

술 좋아하셔서가지고 간경화. 간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간경화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종손이 조그마한 막 하나 지어서 거기서 한 5년 살았을 거야.

5년 정도예요. 그래도 가문에 한 어른신이 학교를 위해서 공헌, 원가를 했다는 거는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정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장례식에는 참여 하셨나요? 아니면 아무도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친척들이 묘소에 묘를 만들었나요?

그때는 말이야 이 시국이 말이여, 아주 왕래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꺼렸거든. 갔다 오면 잘못하면 그냥 간첩으로 몰리니까,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때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누가 왔다면 조금 조사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는 누가 했던 거는 모릅니까?

제사는 원래가 거기서가 안 하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하고는 6촌인데, 이 콜레라인가 무슨 병이 오니까 그전에 우린 고조까지 해났주. 우리 집사람이 살았을 때.

고조.

그러다가 증조로 이제 폐쇄했다가, 지금은 당주까지도 말이여, 3년 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형편이 돼서.

그럼 그 당시에 80년대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대상, 소상을 할 때였는데, 그때 대상, 소상은 안 하고 그냥 장례식만 치르고 이제 마무리를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 시흥초등학교 실습지 기부 경위

---

이 실습지를 어떻게 해서 기증하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원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바로……, 차 어디 세웠는고?

차 바로 요 공터예요.

그 안에 큰 밭이 두 개 있는데, 그 옛날 시흥국민학교 애당초 거기가 학교 부지였는데.

처음예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기 보가 있는데 잔물이 들어 오면 다 바다가 되는 거야.

잠겼구나.

그러면 우리 집하고, 요 집하고, 요 집 세 집만 덩그러니 남은 거라. 주위 다 오다가 요 집하고 요마니 해서 다 물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 냈는데, 나무만 심으면 죽어버려. 염기가 있어서 살지를 앓아. 그러니까 너무 살벌해요. 학교가 너무 볼 상이 없어. 그러니까 강정표, 우리 작은아버지인데, 요 거는 조카 될 거지. 태정이가 일본서 살다가 후키츠케라고 하는 직업을 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부활시켜서 자기가 공장을 차린 거야. 그래서 아주 잘 된 거라. 물건도 잘 나가고. 여기 들어오니깐 자기도 여기 출생인데 다 일본에만 있어서, 나온 상황은 아는데, 내가 ‘흔적을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니까, ‘어디에 뭘 하면……?’ 작은 아버님 말씀은 이 학교 짓는데 첫 번째 기성회장인데, 이분이 많이 노력을 해서 학교를 지어놓긴 했는데, 이 학교가 나무가 안자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다 보니깐. 이제 다른 실습도 하고 말이야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배추도 같고, 감자도 심고 이렇게 실습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할 건데 그 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땅을 좀 기부할 수가 없느냐?’ 한 거예요. 바로……, 지금 봤는가 모르겠네. 비석 세운데?

나가면서 비석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200평 될 건가? 몇 평 하여튼.

실습지가예. 222평을 기증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때 땅은 그때는 지가도 모르다가, 요즘은 거의 막 올라간 게 200만원씩.

예.

한 5년 전에는 한창 여기도 올라가다가 달랑 100만원. 막 시세가 좋을 때 200만원. 우리 집 같은 데는 200만원에 안 팔았어. 지금은 영 거래가 없어서 버렸지만. 근데 학교에다가 그걸 사서 기부를 하면, 실습지로 해서 아이들 공부에 보탬이 되니까. 그거 어떻게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해서, 사가지고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강태정 님은 부산에 계셨고요?

부산에.

이 실습지는 그분이 기부를,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 금전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그 토지를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 땅 자체가 강태정 님의 것인가요?

아니, 그 밭을 갖다가 태정이 형님이 사서 태정이 형님 이름으로 학교에 기증을 했지. 내가.

원래 본인 땅이 아닌데 돈을 줘서 그 토지를 구입해서 실습지로 이용을 했다는 거네요. 그럼 실습지에 무슨 채소 같은 거를 심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 어떻게 돼냐면, 부지로 해놨는데, 학교가 여기서 했어요. 거기서 할 걸로 했는데, 학교가 저 위로 가버렸단 말이야.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저쪽에 가면 땅이 막 남아도는 거야. 거기 실습지가 많은데, 길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어중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잡초가 우거지고 했어요. 무관심 해버린 거예요. 와 보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형님이 나하고 6촌 되는데 이만저만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실습지로 내놓은 걸 이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

나 말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럼 내놓으라고 말이야. 그 돈을 갖다 우리 가문에 줬다면 큰 공덕인데, 가족공동묘지 하나라도.

예.

오실 때는 작은아버지 옷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 돌아가시고 해놓으니까. 담배 피우는 뿔이나 해서 용돈 좀 주고 가고. 큰돈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놓았는데 애들다<sup>2)</sup> 말이야. 우리는 하나도 혜택이 없는데. ‘학교를 위해서 그러면 실습을 해야 할 것 아니냐?’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하고 그 때부터 실습을 시작한 거예요.

견의를 해서 실습을 시작?

잡초만 우거졌다가 내가 얘기한 직후로는 한 몇 년 동안은. 교장 선생님 한 명 바뀌면 또 틀리는 거야. 임대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어리고 하니깐 실습 하려고 안 하고, 임대 줘서. 임대하면 돈을 이 학교에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뭘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 다시 보내는 건지?

그러면 그 땅은 시흥초등학교 소속 땅이긴 하네요.

응. 그런데 이젠 잡초만 무성해지고. 서귀포교육청으로 가 있을 건데.

2. 애들다는 ‘애답게 여기거나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시흥초등학교 강태정 송덕비

## 강태선의 노고로 세워진 강태정 송덕비

서귀포 교육청으로. 예 일단은 다 교육청  
의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거기 총학생회장이 한진이라 낫주, 그때 총학생회장을 찾아갔어. 자네가 이거, 학교에다가 후원하는데 일등 공신인데, 우리 형님의 땅을 이렇게 할 바엔 돌리라고 말이야. 우리 가문 세 먹는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느 뭐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고 경 해수가, 지금 어떻게시든 조쿠가?’ 하길래 비석이라도 하나 해 놔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막 타합해서 교육청에 올리니까 비석을 갖다가 세완.

그렇게 해서 비석이 세워졌구나예.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세워진 송덕비들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강태정 선생님  
의 송덕비는 기록이 없어서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 찍어 가서 보고서 만들 때 그걸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총동창회에서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거네요.

그러니깐 비석을 갖다가 그 동창회에서 송덕비도 세우고, 잔치도 다하고. 한 5, 60명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해서 딱 찾아온 거야.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깐, ‘여기가 이거 큰 비만 오면 여기 다 물바다예요. 옛날엔’ 하는거라.

바닷가 근처에?

아니, 큰 일주도로, 일주도로 바로 옆.

옆이 구나에!

이 안에 다 물바다야. 그러니까 ‘저류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류지를 만들려다 보니깐 이디도 가면 안 된다, 저디도 가면 안 된다……. 그 바로 옆에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서울 사람이 사가지고 딱 점령해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줘. 그 옆이 바로 이거 주게. 그런데 여기만 못하지만은 여기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제 ‘본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고. ‘거기 대표될 만한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서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보내놓고 나중에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류지를 한다고 하니깐 안 할 수도 없고……. 여기 큰 비만 왔다면 물바다. 여기 우리 집만 요 세 집만…….

괜찮은 거?

괜찮고, 그 나머진 전부 물바다야. 어떨 때는 다른 집들은 매립해가지고 옛날 소금, 소금 알아집니까? 여기서 소금밭.

소금밭, 예예 종달리도 소금밭.

종달리처럼.

소금밭 했었구나에?

그 후에 논 만든다고 해서 매립해가지고, 이제 뭘 해다 놓으니까 다 매립이 되고, 집도 지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저류지를 해서 거기 물 가두었다가, 이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빗물하고 용천수에서도 많이 나와요. 저기 다 용천수.

용천수가 바닷가 쪽이니까.

다섯 군데가 있는데 물 나오는 데가. 그 물이 나오고 바다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물이 어디로 다 침수되어 근처가. 이제 저류지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사가 커졌어. 3년 동안 걸려서 완공이 된 거야.

완공은 됐고.

완공되니까 이제 또 무소식이야. 그때 올 때도 그러면 흔적은 남기라 했는데.

그 땅 실습지에?

그러니까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학교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저들끼리 마음대로 넘겼어요. 학부모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기록을 남겨야지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2009년.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 거기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내용 다 나와.  
(강태정 아들) 저쪽에 송덕비 만든 것도 아버지가 전부 돈 들여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기 학교에?

실습지 기부했는데, 송덕비를 만들어 뒀어. 몇 년 전에.

예.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까?

저기 만든 지가 2007년? 아니 2009년.

2009년. 그러면 시흥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송덕비가 있겠네요.

아니, 학교 가는 길에, 큰 길.

큰길에요?

실습지 했던, 실습지 바로 앞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실습지이고, 그 안에 가면 또 부지, 회사했던 분들 있고.

## 또 다른 공헌자 강경표

---

현 기자 속자 알아지겠습니까? 현기숙. 여자 분이신지 남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시흥초등학교에 토지 3,377평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흥리 강 경자 표자, 강경표 알아 지겠습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마씨? 그다음에 고두석.

고두석, 돌아가셨는데. 다 죽은 사람들.

예 예, 다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요. 강 인자 오자, 강인오는?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집안 어른신입니까?

우리 집안은 아니고, 전에 강 면장 얘기하는 모양인데, 강 면장.

그다음에 부희선은?

아, 다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셨는데, 직접 아시는 분들은 아니고 예. 그중에서 토지를 기부하신 현 기자 속 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기숙. 여자 이름 같기도 한데요.

아니, 남잔데 현기숙이면, 아주 막 늙은 분인데 말이여.

그래서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아, 돌아갔는데.

이분이 3,377평 정도 부지를 기부하신 분이예요. 그다음에 '재일성진회'라고 해서, 재일본 관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실 신축비를 희사하셨고, 그다음에 마을 어른들은 학교 부지에서 떨어진 돌산

돌산 여수.

에……; 돌산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돌산에서 석재를 운반하고 마을 주변에 소  
나무를 채취해서 운반하면서 석조 기와 3  
개의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강경표?

아, 경표.

강경표 이분은 작은아버지입니까?

5촌.

강태정 남하고는 5촌지간이구요.

태정이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아까 그 경표 다 4촌지간들  
이고.

그럼 강경표 이분은 작은아버지 되시는 겁  
니까?

나에게 작은아버지고 그 (공헌) 당사자 태정이 하고는 5촌지  
간이고. 5촌이면 큰아버지지.

강태정하고는 5촌지간에?

응.

학교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조직  
했어요. 강경표, 그 작은아버지께서 회장  
님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그 회장을 맡아  
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  
지요?

그때는 이 토지가 다 개인 소유로 돼 있거든 말이야. 그걸 이  
제 기부채납해가지고 한 걸로 돼 있고. 기부 안 해서 어디 해  
외에 가고서 말이야, 돌보지 않는 땅은 그런대로 흡수되어  
버리고. 그 나머지는 개인한테 다 승낙 받아가지고서 일단  
교육청에다가 희사한 걸로 되어 있지.

그러면 그 시흥초등학교 부지가 다 누군가  
가 기증을 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아, 다. 저건 다 산인테 저쪽 위에까지 없혀서.

그당시에 강경표 작은아버지께서 47년도  
에 ‘학교를 만들자’ 해서 동네분들께 얘기  
를 해서, 이 토지들을 기부채납을 받고 학  
교를 설립했다는 거네요. 그때 강경표 작

47년도이면, 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은아버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47년도이면.

8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하고 몇 살 정도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은아버지라고 하니깐.

족보, 족보에 다 나와 있구나예. 여기 시흥에서 이 강씨 문중이 꽤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예. 이런 것들 보면 추진위원회에 회장님도 맡아 하고. 시흥에 강씨가 많습니까?

제비 강?

무슨 파입니까?

강경표?

1898년. 그다음 1985년에 돌아가셨다. 12월 20일생, 수산리 뭐 이렇게 되셨는데. 85년에.

강경표 이분은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까? 마을에서.

이분도 일본에서 사셨습니까?

일본에서 사시다가 오시니까, 좀 생각이 깨어 있었던 분이시다예. 그래서 학교 세워야 된다, 교육면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네요.

글쎄 족보 가져와 보면…….

강씨들이 많아요.

제비 강, 편안 강도 있고. 우리는 제비 강.

우리는 은열공에 충정공파.

작은할아버지, 강경표. 1898, 1898년생이에요.

아까 우리 공동묘지.

일본에서 살다가.

살다가 돌아와서 얼마 없어서 저 학교 세워야 한다고 했어.

그때 다 대부분, 제주도 그때 학교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러면 강경표 이분의 후손들도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은 없구요?

아들은 돌아가시고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지금 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까. 제주에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에 대해서 문중에서 얘기는 합니까? 강태정 이분이 그래도 땅을 기부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시는가요?

그건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구요.

비석 세울 때는 말이야.

다모였습니까?

5, 60명 모였는데.

예.

그 비석은 이미 뭘 해버리고, 이거 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 나도 할망 병에 걸려서 제주시에서만 한 2년 살았주게. 그동안에 2017년인가? 그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한 3, 4년 할망 통원했어.

치료하러 다녔구나예.

치료하려고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기별이 와서, 전화가 온 거야. 비석은 완공이 돼서 세우려고 하는데 와서 좀……. 아 파가지고 갈 수 없다고, 적당히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만 알아서 세웠지. 비석 세울 때 제막식도 안 하고.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다 알아서 해버려서. 내가 있었으면 그 비석을 말이야, 중간에다가 좀 위치를 바꿨을 건데. 너무 요쪽에 치우치니까 저쪽에는 막 굽은 것이 쌓여.

힘쓸려 와서?

아주 뭐 형편없어요.

그러셨구나. 여러 말씀 고맙습니다.

# 03

## 고시중·고문중

물메초등학교



고영진



### 공헌자 고시중·고문중 1920년대생 추정

고시중과 고문중은 4형제 중 첫째와 둘째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921평을 기증했다. 장남 고시중은 15세쯤 혼자 오사카에 갔으며, 이후 의자를 제작해 수출하는 사업을 벌여 크게 성공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일본인들의 투자 제안이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사업을 정리했다고 한다. 고시중은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 단장, 재일제주도민 체육회장, 오사카건국학교를 만든 재단법인 백두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차남 고문중 또한 형을 따라 일본으로 이주했고, 형의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사업 실패 이후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기증했다.

### 제보자 고영진 1953년생, 고시중·고문중의 조카

고영진은 물메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한 고시중·고문중의 조카다. 고시중, 고문중, 고하중, 고해중 4형제 중 막내인 고해중이 고영진의 아버지다. 고시중과 고문중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살았고, 셋째 아버지 고하중은 4·3 당시 작고했다. 고해중의 가족만 고향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고, 성묘와 벌초 제사 등을 도맡아 했다. 고영진은 어린 시절 자택에서 진행되었던 마을 주민 회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건축한 지 60년이 되어가는 자택은 당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 일본식 다다미방 구조로 지어져 마루를 걷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아버지 고해중은 학교 설립 당시 마을 이장이었고, 재일제주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마을 발전을 위해 힘썼다고 한다.

## 물메초등학교 설립 과정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영진입니다.

고시종, 고문종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의 큰아버지, 셋아버지입니다.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해종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4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차례대로 고시종, 고문종, 고하종, 고해종입니다. 셋째는 4·3 때 돌아가셨습니다. 중간에 고모도 한 분 계십니다.

물메초등학교가 1969년에 개교했는데 당시에 고시종, 고문종 형제분께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921평을 학교 부지로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물메초등학교 설립 당시는 제가 어릴 때였지만 저희 집에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부를 한 건 아니지만 큰아버지가 일본에 계시니까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서 이런 학교 설립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까?

학교 부지 마련할 때 원래는 수산 마을에서 지금 저희 집 있는 그쪽에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장차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럼 이제 부지를 내놓겠다’고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당시에 직책을 맡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아마도 총무 같은 걸 맡았을 겁니다. 저희 집이 지은 지가 60년이 거의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식으로 다다미방으로 해서 마루를 활짝 틀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큰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일본에 계셨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부를 하시게 되었나요? 그전부터 왕래를 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때, 큰 아버지가 초청해서 갔을 때, 그때 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폭삭 망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뭔가 하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서 소소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업할 때는 의자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1964년 동경올림픽 때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돈을 대겠다고 했으니까 신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미 사업도 실패하시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여기 갖고 있던 토지를 학교 부지로 내놓았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 공헌자 고시종, 고문종의 일본에서의 삶

---

그럼 두 형제분께서는 언제 일본으로 가셨습니까?

큰아버지는 열다섯쯤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넘습니다.

그럼 해방 전이네요? 일본 어느 쪽으로 가셨습니까?

대판으로 갔습니다.

오사카로 가셨네요. 가실 때는 누구와 같이 간 겁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큰아버지가 먼저 갔다고 들었습니다. 셋아버지는 나중에 간 거 같습니다. 그분도 큰아버지 사업이 잘될 때는 큰아버지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향에 왕래는 자주 하셨습니까?

왕래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할아버지 돌아가신 때 인가 그때 왔었고, 그 후에 성묘할 때, 표석 세울 때 정도 왔습니다.

몇 세쯤 돌아가셨습니까?

80대 중반인가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8~90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셋아버지는 당신 생각에는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은데 자식들이 일본에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30년 전쯤에 여기 와서 혼자 오래 생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일본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계시면서 물메초등학교에 협조도 많이 하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두 분 모두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4촌하고도 연락이 끊기고, 전화도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모든 걸 맡아서 하시고 조상들 별초나 성묘 같은 것도 저희 아버지가 전부 하셨습니다.

별초하러는 오셨습니까?

네, 가끔 왔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단되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민단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 단장도 했었고, 제주도민체육회장도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오사카건국학교 백두학원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4촌 형님도 몇 년 전까지는 거기 이사장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민단 단장을 하셨다면 엄청 큰 역할을 하신 건데, 뭐 기억나시는 건 없으십니까?

예, 그런 일을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설립할 때 직접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지만 기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4촌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정필. 그 형도 박근혜 정부 때 모란장인가 수훈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동백장 받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 모란장일 겁니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학교 부지를 기부하신 게 고향 관련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집에서 회의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진이나 기록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당시의 큰아버지의 회사 이름은 기억  
하십니까?

회사 이름이 '성흥제작소'인가 그럴 겁니다. 첼로 만든 의자  
같은 것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혹시 고향에서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  
찾아가서 취직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일본에 가셨거나 하진 않으셨습  
니까?

아버지가 일하러 갔거나 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경을  
림픽 때 초청받아서 갔던 거밖에 모릅니다.

큰아버지와 셋아버지 자제분들은 몇 분이  
나 계십니까?

큰아버지가 3남 4녀인가 그렇습니다. 셋아버지네는 3남 2녀  
입니다. 4촌 동생들은 있는데 연락들은 안 합니다.

혹시 사촌들 연락처는 갖고 계십니까?

7, 8년 전에는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큰아버지 이름으로 되  
어 있던 밭도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시면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준 건데, 4촌들은 어쨌든 자신의 아버지 명의  
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땅이 마을 옆  
에 지금 제 사무실 짓는 옆 근처입니다. 저희 아버지만 여기  
고향에 있으면서 모든 걸, 산소 관리라던가 다 했습니다만.

## 또 다른 공헌자, 문선학에 관한 이야기

저기 물메초등학교에 있는 저 체육관도 재일교포가 기부한 겁니다. 문선학이라는 분인데. 저기도 큰아버지가 문선학에게 ‘내가 부지를 기증해서 학교를 짓는데 뭔가 기부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고 합니다. 저기 체육관은 학교 지은 지 한참 후에 기증한 건데 사실 큰아버지나 셋아버지가 조언을 해서 기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일을 많이 하셨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고향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꿈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수산리에는 전기, 전화 사업이 제일 빨리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었지만 재일교포들하고 교류 관계를 맺어서 마을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포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아버님도 교포들과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 아버지도 30대 초반에 이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봉사를 하더라도 돈이 아니고 보리 같은 것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몇 년생이십니까?*

33년생입니다.

*33년생이신데 30대에 이장이셨으면 학교 설립 당시에 이장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회의도 하신 거네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 집을, 초가집을 살았는데, 그때는 셋아버지가 여기서 살지 않을 때니까 와서 지낼 때는 불편하니까 아쉬운대로 집이라도 하나 지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하시는데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 04

## 고원일

한국뷰티고등학교



고철만



### 공헌자 고원일 1918년생

고원일은 현재 한국뷰티고등학교의 전신인 고산상업고등학교 설립에 힘썼고, 관련 재단을 운영한 공헌자다. 1918년 제주 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2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1926년 고창의숙 4년 과정을 졸업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 전에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전기회사에 취직해서 일했고, 1945년 다카하시[高橋] 전기상회를 설립했다. 이후 '중앙전기상회'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고향 제주를 자주 왕래하며 고산중학교 설립 시에도 건축 기금을 기부했다. 이후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교부를 방문하며 인가를 받아냈다.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쿄부터 오사카까지 방방곡곡을 다니며 모금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본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재일제주개발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밀항한 재일제주인들을 돕는 등 다방면의 사회 공헌 활동을 했다.

### 제보자 고철만 1947년생, 고원일의 조카

고원일의 조카 고철만은 부산에서 자랐다. 아버지 고장화가 일본에 가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이후 귀국하여 서울에 있다가 부산 국제시장으로 옮겨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부산에 거주할 때 작은아버지인 고원일이 다녀갔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고원일이 부산에 방문할 때면 형의 집에 묵지 않고 늘 호텔에서 지냈는데, 가족 친척들의 편의를 배려했던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철만은 작은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당대의 사람들과 달랐음을 인상 깊게 이야기했다. 고철만은 대학 졸업 이후 제주도로 이주했다. 작은아버지의 공헌을 매개로 학교 서무과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이후 학교 선생이 되었다고 한다.

## 공헌자 고원일의 생애

제가 미리 찾아본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옛날 사진이네요.

네, 제주일보에 예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출생 연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고산리 차귀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산리 차귀는 아닙니다. 정확히 고산리 2026번 지입니다.

아버님 형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2남 4녀이고 고원일은 차남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1926년에 고창의숙 4년 과정을 졸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는 언제 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해방 전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 기 보면 1945년에 동경 우에노에 전기상 회를 차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가신 것 같고 동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사카로 가셨다가 동경으로 가 셧습니까?

제 생각엔 곧바로 동경으로 갔을 겁니다. 오사카엔 인연이 없어요.

동경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친척분이나 연고자가 있었습니까?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혼자 넘어갔습 니다. 그곳에서 그 전기사업 하는 데에 취직해서 일을 한 겁 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를 설립한 걸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여자분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부터 '중앙전기상회'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을 확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엄청 잘 되었었나 봅니다. 어쨌든 고향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숙부님께서 학교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제일제주개발협회를 창립해서 초대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거여서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발각되면 수용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 중에서도 복송선을 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중앙상회. 회사 이름이 중앙상회인데 아마 파친코 부속품 중에 전기 관련 부품 같은 걸 판매했었습니다.

예, 잘 살았죠.

그랬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감투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숙부님이 또 존경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일본에 그 당시에 밀항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숙부님이 숨겨줬습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형사가 찾아와도, 없다면서. 그런 사람 없다면서, 딱 잡아땀습니다. 주변에서 귀화하라고 해도 귀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향에 오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때 고마웠다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숙부에게만 오면 다 살았어요. 그 당시는 제주도 사람이 일본에 가면 삼촌이 조총련계인 거예요. 근데 삼촌인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중정(중앙정보부)에서는 다 알고 있고. 삼촌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삼촌이 그래도 용돈도 얼마 주고 일자리도 주는데. 그리고 그 조총련계 사람들 중에서도 (삼촌이 권하면) 조총련계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사장이니까.

맞아요. 참 불행한 시대였지. 이제는 말해도 되지.

## 학교 설립 과정

혹시 이분이 이렇게 고향에다가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산중학교는 54년도에 공립이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세워야겠다고 해서 그때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교육부, 지금의 문교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받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아닌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1965년도에 설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학교 때는 아닙니다. 당시에 문교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와서 서울 가서 문교부 장관을 만나야 하는데 그 시대에는 호텔도 좋은 호텔에 있지 않으면 잘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두둑하게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소리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은 나라에서 해줘야 할 것을 교포들이 애써서 하는데도 쉽게 안 해줘서 몇 번을 문교부를 찾아가고 그랬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인가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 해서 상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산상고가 된 겁니다.

네, 고산상고 설립에 전 재산을 기부해서 상고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겁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 겁니다. 숙부가 그렇게 큰 돈을 낸 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공로는 그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일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모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금액이 820만원이니까,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니까 당신들도 좀 내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경 쪽에서 고원일 이사장님이 많이 내셨고, 그렇게 해서 동경에서 본인이 주도하시고 오사카 쪽까지 사람들을 규합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장을 계속하셨습니까?

예, 자꾸 하라고 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제주도에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고, 기록에는 고산중학교 설립 당시에 현금 59만 7천원을 고산중 신축 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기부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이어서 회사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숙부님이 회사자 명단에 자식들 이름을 넣어 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자주 왕래하고 하려면 누가 중간에서 연락책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을 계속 하시면서 왕래하신 겁니까?

네, '중앙전기상회'를 계속 했습니다. 1982년에 숙부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 말고 고향에 다른 일들도 하셨습니까?

학교 만든 후에 고산 출신 여자애들을 일본에 간호보조사로 모집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 일본에 간 애들이 대부분 제주도로 다시 와버렸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걸까요?

힘든 것보다는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에 남자 친구가 있거나 하면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몇 명 정도 갔습니까?

대략 2, 3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단체로 갔습니까?

예, 단체로 갔습니다.

단체로 모집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한 겁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 가서 취직해서 살다가. 사촌도 다녀왔는데, 일본어 배워와서 일본어 가이드도 했습니다.

아, 그런 일도 하셨네요. 혹시 다른 기억나는 일도 있습니까?

유행 같은 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 후일담 : 부산에서의 일화

---

(제보자 고철만의) 아버님이 부산에 계십니까?

예, 저는 부산에서 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일반 선비 비슷하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숙부님은 일본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처음엔 아버지가 먼저 일본에 가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나라 서울 소사로 나와 버리고, 그다음에 숙부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서울 옆에 있는 소사에 있다가 결국 얼마 안 살고 부산 국제시장에 와서 터를 잡았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알아줬습니다. 털이 많아서 '국제 털보'라고 불렸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장화.

예. 그러니까 숙부님이 일본에 무작정 가셨다기보다는 형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럴수도 있지만 우리 숙부님 성격상 혼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보면 숙부님이 그 당시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당시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숙부님은 부산에 오시면 호텔에 주무셨습니다. 우리집도 컸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집 놔두고…….’ 그런데 숙부님 생각은, 당신이 우리집에 묵게 되면 다들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호텔 가서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 사고방식과는 아주 달랐던 거지요.

불편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셔서 호텔에 주무셨던 거네요. 그럼 제주도 오셨을 때 모시고 다니시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부산에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당시 나는 대학 졸업하고 제주도에 왔어요. 숙부님이 제주도 오시면 살던 옛날 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숙부님이 공헌하신 일도 있고 그래서, 고산에 그 학교에 취직했습니다. 서무과에서 법인 관련 일을 몇 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몇 년도 쯤입니까?

대략 76년도부터 81년쯤까지 한 것 같습니다. 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조금 더 있다가 82년도에 공립학교 선생으로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선생님을 연결해주셨던 고성남 회장님도 올해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정정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보니 말씀해 주실 분도 안 계시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달해 주실 분도 찾기 힘들어서 이런 작업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드려야지 했습니다. 숙부님 일이라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공개되어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서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만나서 직접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05

## 고은국 온평초등학교



고영욱



### 공헌자 고은국 1893년생

고은국은 1893년 7월 30일에 태어나 1960년 7월 16일에 작고했다. 고은국은 5형제 중 넷째였는데, 품체가 좋고 힘도 좋아 스스로 일군 재산이 많았다고 한다. 당대에는 만석꾼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군도 참여하는 씨름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학교를 설립할 당시 부지를 무상 기부하여 학교 발전에 공헌했다. 고은국의 아들 고운학은 온평초등학교 2대 교장을 역임했다. 고운학 학교장은 임기 중에 '학교를 위한 미역 바당' 구역을 정했는데, 이 구역의 미역 수입은 학교를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한다.

### 제보자 고영욱 1961년생, 고은국의 증손자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살고 있는 고영욱은 1961년 5월 13일생이다. 온평초등학교 공헌자 고은국의 증손자이며, 온평리 이장을 역임했다. 고영욱은 부모뿐만 아니라 고운학 조부, 고은국 증조부 제사까지 도맡아 지내고 있다. 고운학 조부의 처가 세 명 있었으므로, 제삿날에는 자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한다. 자녀들이 모두 한마을에 살고, 손주들이 온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고은국 할아버지의 공헌사가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다. 학교에서 언제든지 공덕비를 볼 수 있고, 동네 이웃들의 칭찬으로 현재까지도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

## 공헌자 고은국의 생애

---

- 이장님 성함은 고 영자 육자. 고영육. 몇 년 생입니까? 61년.
- 1961년. 5월 13일.
-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고자 은자 국자가 증조할아버지입니까? 예.
- 증조이시고. 천팔백……? 93년생.
- 1893년생. 그다음에 돌아가신 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겠습니까? 60년.
- 1960년. 그러면 한 67세 정도. 예.
- 67세에 돌아가셨네요. 예.
- 저희가 자료 조사한 걸로는 토지 2,361평을 기부하셨는데…….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700평 정도라고 들었는데.
- 아마도 마을분들 같이 합쳐서, 제곱미터(m<sup>2</sup>)로는 7,791m<sup>2</sup>……, 1946년에. 평수로 하면 2,361평,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설립할 때. 그게 지금 학교가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학교 저쪽 북쪽으로.
- 학교 북쪽으로? 예.
- 당시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갖고 있었나요? 증조할아버지요?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던 같은데요.

땅 평수는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그럼 증조할아버지 형제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은국 할아버지?

5형제.

5형제에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네 번째. 그런데 네 번째 되는 할아버지께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는 고조부에서 또 땅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요? 보통 큰아들이 갖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증조할아버지가 일군 재산이 많다고.

증조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던 것도 얘기 들었습니까?

농사로.

농사로……; 농사를 하셨고.

그 옛날에는 뭐 만석꾼이라고.

만석꾼?

장타령 만석꾼.

장타령 만석꾼! 그리고 아까 전화로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때 씨름대회에서 (우승도 했다고). 풍채가 좋아났습니까?

아마, 풍채가 좋고 힘이 좋으니까 씨름도 1등 했겠죠.

그 사진이나 이런 것은 없구요?

사진 같은 것은 없고.

그러면 마을에서 꽤, 할아버지가 씨름대회도 나가고 뭘 할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 좀 계셨던 분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성산읍 청년들 모여가지고서 체육 행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일본군들하고.

거기에서 씨름 이겨버리고……. 사실 그 씨름대회는 유명해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거기 반발을 하면서 좀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 고운학 할아버지로 이어진 교육에 대한 관심

---

학교에 이 땅을 기부하게 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온평에 어떤 분들이 했냐 하면 현여문, 고희황, 김창후, 김창범, 이두후. 이두후 이분은 재일교포 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땅을 기부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교육자 이시니까, 아마 그런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어느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

아니, 조부.

조부가 교육자?

예.

교육자 무엇을?

초등학교. 그때 온평초등학교 2대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조부 성함이?

운학.

고운학. 그러면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2대 교장 선생님이었고, 46년에 학교가 설립 되고……?

46년에 설립됐으면, 47년도에 불타실 거우다. 아마도.

47년에, 바로 다음 해?

예, 설립하고 바로 그때 불타실 거우다.

바로 불타고?

47년 아니면 48년도에 불타실 거우다. 그 내용은 학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해녀분들이 나서서 학교를 재건하고……. 조부께서 교장을 할 때가 몇 년도인지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예, 정확하게. 그래서 고운학 조부도 학교에 기부를 하셨습니까?

기부한 거는 없고.

미역 학교?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위한 바당 구역을 정해 놔서, 그 구역에서 나는 미역은 초등학교를 위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미역 채취해서 그걸 소득원으로 해서, 학교 건물을 재건했다는 거죠.

그게 미역바당, 학교바당이라는 거네요.

예. 학교 미역 바당.

학교 미역 바당. 그거를 했다는 거잖아예.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건가요?

예.

(고운학) 할아버지는 몇 년생 입니까?

1920년인가?

1920년.

잠깐만요.

자료 있으면 좀 볼까요?

20년.

20년,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26일.

- 2월 26일. 이왕 보는 김에 고은자 국자 할 아버지도……; 1893년? 7월 30일.
- 7월 30일, 그리고 1960년에 사망하시고요? 60년.
- 돌아가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 7월 16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년도?
- 네. 91년.
- 91년? 아니네. 돌아가신 연도는 여기 안 나올 수도.
- 고운학 할아버지는 교편생활을 계속하시다가……? 5·16 당시에 일부다처제에 대한 교육자들 정리할 때 그만두시고, 그 시기 지나서 바로.
- 5·16 지나서, 뭐라했습니까? 뭐 정리할 때? 일부다처. 그 할머니가.
- 몇 분 계세요? 우리 세 분입니다. 세 분.
- 할머니가 세 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정리를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그다음에는 할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성읍리에서 목장 운영했습니다.
- 고은국 증조할아버지는 계속 농사만 해서 만석꾼이라고. 농사는 무슨 농사를? 그때 당시에는 다 일반적인 보리 같고, 콩 같고 그런 거지요.
- 근데 밭이 많았습니까? 만석꾼이라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 그게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우리 (고운학)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말인데 아버지 밑으로 18남매. 아버지까지 19남매.

저기, 할머니가 많다 보니까……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다른 데로 가면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표선 가면 표선에서 뭐, 성읍리 가면 성읍리에서 현지차를 두고…….

## 자손들에게 전승되는 공헌의 역사

---

증조시장이요. 자손들이라고 할까, 자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이렇게 모일 때 증조할아버지가 학교에 기여했던 얘기들은 좀 나눕니까? 친척들과 함께.

웬만한 4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사촌들 알고 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관심으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하나요?

그 정도. 할아버지까지는 다. 또 우리 손자들은 지금 온평초등학교 다 다니니까.

아, 온평초등학교.

다 알고.

이제 온평초등학교에 가면 공덕비가 있고 해서, 아, 우리 고조할아버지 뭐?

고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거 가르쳐주면서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손자들 같이 사는 겁니까? 온평에?

예, 우리는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동네 삽니다. 큰 놈은 이 앞에서.

이건 펜션입니까?

펜션은 아니고, 그냥 가정집.

넓게 시원하게.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해도 좋네요. 마을을 안 떠나는  
것이.

내일모레 이제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예, 증조, 고은국 할아버지?

예.

7월 16일 오늘이 보름. 오늘 백중이니까  
보름 내일 아십니까?

9월 8일. 7월 17일 돌아가신 전날로 우리……, 아! 저, 다음  
날로.

7월 18일. 그럼 17일. 그럼 만나서 얘기  
하겠네요. 제사는?

뭐,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80명  
은 모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집이 작아요.

80명. 그러면 제사를 지금까지 계속. 장남  
이라서 계속 해 온 겁니까? 증조할아버지,  
조부부터 해서 아버지까지 다. 그럼 친척  
들은 다, 증조 제사를 하기 때문에. 지제를  
안 했구나예. 그러면 이번 모였을 때는 이  
얘기도 하십시오.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조  
사를 해갔다고.

그때 당시에 다른 분들은 다 그 돈을 받고 유상으로 이렇게  
땅을 내놨는데, 우리 증조할아버지만 무상으로 내놨습니다.

무상으로? 다른 분들은 유상으로 했다  
고요?

무상 기부하고.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한  
테 운동회나 뭐 무슨 행사 있으면 꼭 식권을 갖다줬어요. 그  
러면 우린 그 식권 갖고 국수 먹으러 가곤 했어요. 그게 땅값  
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걸 학교에서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걸 매해. 언제부턴가 그  
게 없어졌어요.

증조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사실은 한 25년으로 잡습니다. 증조니까 지금 몇 년일까, 75년 정도 되는 거? 그 세월이라는 게 3대. 증조, 조부해서 거의 75년. 75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면서도 증조할아버지의 제사도 하고, 또 그 증조에 따른 가지가 많으니까 80명이나 모이는, 아이고, 80명 모이는 제사라니……

집 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와글와글하겠 습니다.

그러면 제사 준비는 누가 합니까?

사모님이 하시고, 혼자?

한 번씩 그렇게 만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는데.

네, 직계가 많아서요?

이장님은 할아버지가 이 지역 학교를 복원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장님이 언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 지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건, 한 몇 살 정도 어렸을 때부터?

그럼, 조금, 어깨가 으쓱으쓱했겠네요.

아이고. 증조할아버지 밑에 자식이 딸 둘, 아들 셋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셋, 고모할머니 두 분인데, 그 밑에 자식 치면 엄청나지요. 증손까지 하면은 엄청나지요. 우리 할아버지의 자식이 19남매인데. 우리 4촌만 이렇게 다 모여도 여기 모자라는데.

제사 때라도 웬만한 집 잔치하는 집만큼 손님이 많습니다.

아니 누가 합니까, 집사람이 허는 거주.

아니,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다들 와서 같이 합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계가 많아서.

아직도 기본으로 60명은. 코로나 이후에도 육지 가서 살고 해도, 한 60명은 계속 제사들은 오지요.

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은 안 거 닷아.

아니, 뭐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를 때고. ‘그렇구나’ 하다가, 대학교 졸업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학교 가서 공덕비 볼 때는, 그때는 그런 기분 들어요.

정말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할까,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당연히 느껴지죠.

이런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마을의 유지분들이 ‘너네 증조하르방은 영 했네’ 그럴 때, 다른 주위 동네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또 할아버지께 고마움도 느끼고.

아이고,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의, 뭐라고 할까, 마을에서의 자리를 딱 잡아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06

## 김성은·김길수 성산초등학교



### 공헌자 김성은 189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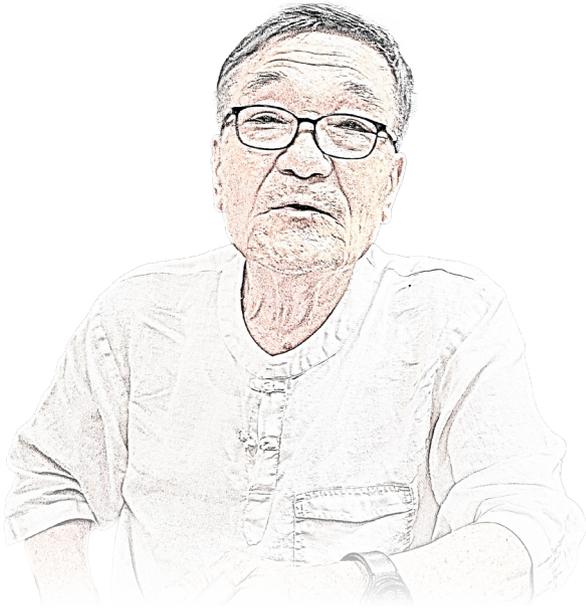
김성은은 1894년 6월 10일(음) 출생, 1964년 12월 29일(양) 작고했다. 본적은 구좌읍 월정리 이고 아내는 해녀였다. 김성은은 아내와 함께 함경도로 출가 물질을 가서 돈을 벌었는데, 주로 감태를 채취했다고 한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산을 성산리로 이주하여 '점방'을 운영했다. 김성은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토지를 매입했고, 1946년 1월 15일, 소유한 토지 중 일부 1,924㎡(583평)를 성산초등학교 부지로 희사했다. 김성은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김길수를 당시 제주 근대교육의 효시였던 '제주북국민학교'에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공헌자 김길수 1912년생

김성의의 아들 김길수는 1912년 9월 13일(음) 출생, 1999년 1월 19일(양) 작고했다. 구좌읍 월정리에서 나고 자랐다. 제주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경신중학교를 다녔다. 서울에서 지내던 시기 1930년 3·1운동 기념일 전후에 '학생전위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 6개월 수감된 이력이 있다. 이후 일본 오사카에서 유학했다. 해방 후 성산을 성산리로 돌아와 정착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소라·전복 통조림 공장을 불하받았고, 창고업도 했다.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교실이 부족해지자 김길수는 자신이 소유한 창고를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제보자 김승석** 1949년생, 김성은 손자이자 김길수 아들

김승석은 1949년생으로 성산초등학교 공헌자 김성은의 손자이자 김길수의 아들이다. 현재 제주시 이도2동에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제주로'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애와 공헌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조사를 위해 관련 사진과 신문 기사 등 자료를 찾아와 보여주며 상세하게 알려 주었다. 특히, 아버지 김길수가 1967년부터 10년간 수기로 작성한 농사 일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김길수는 말년에 일본에서 수입한 온주밀감 묘목으로 성산을 수산리에 농장 3천 평을 조성하고 농업에 종사했다. 김승석 또한 현재 부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김승석 변호사님 개인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1949년 8월 17일입니다.  
**다. 몇 년생이십니까?**

**김성과 김길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김성은은 당할아버지고 김길수는 아버지입니다.

**김 성자 은자 할아버지는 몇 년생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70세쯤 돌아가셨어요. 1964년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1894년쯤 출생했을 거예요.

**아버님은 언제 출생하시고 돌아가셨나요?** 아버님은 88세, 아버님은 1912년생이시고, 199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 공헌자 김성은의 생애

김성은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일제강점기 때는 옛날 말로 점방, 상점 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릴 때 보면 점방했어요.

점방, 모든 걸 다 파는 점방이었나요?

잡화점.

잡화점. 그때 꽤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땅도 좀 사 놓으니까, 땅 있는 거 그때 학교에 내놓은 거죠.

그 점방, 지금 성산리 어느 곳에서 하셨어요?

136-2번지. 거기서 점방을 했어요.

할아버님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김성은 할아버지는 학교는 다녔습니까?

아니, 학교는 어떻게 다닙니까? 내가 기억하기엔 우리 할아버지는 학교 다닌 적은 없고, 독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할머니는 해녀였지요.

할머니가 해녀였어요?

해녀를 하셨고. 제주도 해녀들 물질들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육지에 돈 벌러 나갔어요.

출가물질을 하셨군요.

함경도까지 올라갔대요. 감태, 감태 채취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때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니까.

많이 필요해서요.

감태가 요즘 말하는 옥도정기[jodtink, 요오드탱크의 일본식 한자 음역] 만드는 원료지 않습니까? 총상 입었을 적에 지혈시키는. 그래서 감태를 되게 많이 채취를 해 왔답니다. 감태를 채취를 해야 일본 정부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젊은 시절에 함경북도까지 올라가서 감태를 채취하러 다녔다고 해요.

감태 채취를 하셨군요.

감태 채취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에 와서 점방 차렸어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월정리 출신이십니까?

원래 월정이지요.

원래 월정리인데 성산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방 차리기 위해서 성산으로 온 거죠.

아,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월정에 살면서 함경북도까지 올라가 할머니하고 같이 감태 채취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성산이 본적은 아니시고 점방을 하기 위해서 성산으로 가셨네요.

점방하기 위해서 성산으로 갔지요.

성산에 정착하셨군요.

돈 버니까, 성산에서 땅도 샀지요.

변호사님께서서는 거기서 태어나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생각하시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성산초등학교 교육에 힘을 많이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자부심 같은 것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아버지하고 거의 얘기 나눠보진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를 선각자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북초등학교에 보낸 거예요. 옛날 제주도에는 북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정시대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릴 때 감태 채취해서 돈 벌어가면서 북초등학교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1920년도에 북초등학교 다녔으니까요.

그때 시험 보면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북초등학교를 보낼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가 향학열이 대단히 강했던 분이지요.

할아버지는 교육열이 강한 분이었네요.

교육열이 강했지요.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북 초등학교에 보내고 졸업하니까 서울까지 유학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 놔두니까, 학생운동 1930년대에 전위동맹사건에 연루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수감 되었는데, 가담 범위가 좀 경미하다 해서 풀려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징역도 살고, 제주도 사람들 그때 많이 연루됐어요. 여기에 월정 출신 학생들이 형무소에 간 기록이 나오거든요.

월정 출신 학생들이 조금 깨어 있었네요.

그때는 월정리가 멸치가 많이 생산돼서, 멸치를 일본 말로 이 루꾸(炒り子, 이리코의 변형)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팔았거든요. 돈들이 좀 생겨서, 월정리 주민들 중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 공부시켜야 한다고 서울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가서 뭐 모르니까 무슨 운동한다고, 거기서 만세 운동하다가, 교도소에 붙잡혀 가서 징역 살고 했지요.

## 공헌자 김길수의 생애

당시에 아버님 김 길자 수자, 아버지께서 창고업을 하셨습니까?

예, 창고업을 했어요. 아버지는 창고업도 하고, 통조림 공장도 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셨네요.

예, 사업을 했어요. 창고업을 해서 거기에 물건들을 보관했는데, 그 창고를 교실로 빌려줬어요.

통조림 공장을 하셨어요?

옛날 바닷가에서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가버렸어요. 성산에는 통조림 공장이 2개가 있었거든요. 군납용 고등어 통조림 공장하고, 소라·전복 통조림 공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운영했던 것이 있었지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8월 15일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이 가면서 불하를 시켜줬어요. 우리는 소라·전복 통조림 공장을 불하받았습니다. 그걸 좀 하면서 창고업도 좀 했어요.

불하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창고업을 하셨던 거네요.

응.

아버지께서 감귤농장을 조성했나요?

우리 아버지가 희한하신 분이야. 67년도예요. 1967년 4월에 성산읍 수산리에 감귤 농장을 조성합니다. 3천 평. 일본에서 감귤 온주 묘목을 수입해서. 그때는 제주도에 감귤 온주밀 감 붉이 일기 시작할 때거든요, 67년도에. 그래서 이것 우리 아버지가 10년 동안 자기 농사지은 농사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이거 한 번 보세요.

아버지 사진이네요.

예. 이게 67년도에 자기가 농장을 조성해서 87년도에 농사 일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도 꼼꼼하게도 적었다예.

농사 일기. 매달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10년 동안 감귤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해서요.

지금 수산리에 감귤 농장은 없구요?

그거는 연세가 들어서 처분 해버렸죠.

처분을 해버리고. 그럼 수산리에도 땅을 샀다는 얘기네요.

옛날. 이때 3천 평을 사가지고, 무슨 생각인지, 연세가 55세 때인데. 일본에서 감귤 묘목을 들여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해서 10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농사 일기를, 농장 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꼼꼼하게 만드셨네요.

여기 보세요.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병충해가 생기면 무슨 약을 써야 되고 등등.

요즘 농업기술원에서 말하는 거 미리 본인께서 다 하셨네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전혀 농사를, 이 감귤 농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는 없고. 지금은 나도 농장에서 살고 있지요. 20년 동안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 어디 수산에서 하고 계세요?

아니, 여기 아라동에서.

아라동에서, 그러면 아버님 수첩이 많이  
도움 되겠네요.

아니, 난 아버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는 성산에 살면서  
이렇게 한 거고. 나는 여기 직접 농장에 살면서 하니까.

아라동 어디 부분에서 하고 계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서쪽 편에.

그럼 직접 다 하고 계세요? 약도 뿌리시고?

예 예, 약은 안 하고 우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하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기 자료도 있지만, 독립운동하다가 서대  
문 형무소에 수감 돼서 6개월 동안 형 살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애국지사이신가요?

아니, 아직 표창을 못 받았어.

공적 조사 같은 거는 다 돼 있으세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조선  
학생전위동맹사건에서. 서울에 있는 경신학교 다녔거든요.  
거기에 있을 적에.

아버님 공적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재판 기록 여기 다. 내가 인터뷰한다니깐 일부러 찾  
아왔는데. 이거 조선일보에 나왔던 거. 거기 사진 여기 우리  
아버지 나왔는데요.

조서는 이게 전체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 일부만 나온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아버님 얘기가?

예심판결에 보면. 여기 독립운동사에 이 기록이 나와요. 여  
기 보면 학생 종로경찰사건이에요. 여기 독립운동사 제주 얘  
기에 보면 6개월 면소된 사람 명단에. 판결문에 보면 김길수  
가 나오잖아요. 그 뒷장에 보면 6개월 교도소. 여기요.

지금 공적 신청은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신청 안 했어요. 내가 해볼까 해서 하는 중인데, 거기 보  
면 김길수 나오죠? 거기.

예. 원래 월정이시구나?

예.

원래는 월정이신데.

예, 그때는 월정에 살 때였죠. 30년대.

30년대에 독립운동하시고?

그때는 서울 가서 학교 다녔어요. 경신중학교라고.

김길수 선생님은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  
나요?

제주북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옛날에는 5년제인가, 6년제 학교 했잖아요. 서울경  
신중학교.

서울경신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  
디 다니셨는지요?

고등학교는 일본 가서 다녔어요. 그때 유학 갔던 거예요.

일본 가셨구나.

예, 일본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일본 학교, 일본 오사카 쪽에 가셨나요?

예. 일본 오사카에 가서 공부해서 왔어요.

그다음에 대학교는?

아니요, 대학교는 안 다녔어요.

안 하시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제주도  
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다예.

예.

변호사님의 형제는 2남 4녀이고. 자식들  
이 변호사가 되고, 아버지도 교육에 굉장  
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아버지가 신경 많이 쓰고 그랬죠. 맞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나서 성산  
리로 돌아와서 성산리에 정착을 하신 거  
죠?

예.

어머님도 성산이신가요?

성산 출신이에요.

혹시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고태선. 돌아가셨어요.

이모는 고옥선이신가요?

예.

고옥선, 그분이 또 재일교포이시면서 마을에 회사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일본 가서 물질을 했어요. 그래서 돈 좀 벌어서 마을에 회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회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일본 간 교포들, 제주도에 돈을 많이 회사했지요.

교포들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은 기부를 하시면서 지내셨던 그런 집안이시네요.

## 학교 부지 기증 이야기

---

김성은 할아버지께서는 학교 부지로 583평, 집안의 땅을 기부하셨나요?

내가 기억나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갖고 있던 땅을 학교 운동장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을 기부하셨다. 할아버지 땅을 기부하셨네요.

예 예,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좋은 땅이었어요. 그때 땅이 바닷가에 있고 평평한 땅.

김길수 아버님께서도 기부하셨나요?

돈 내놓고 뭐 했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요.

토지 기부도 하셨나요?

예. 난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그때 기부를 좀 했다고.

성산초등학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기부를 하셨던 것이네요.

할아버지가 학교 운동장 땅을 내놓으니까, 그 동남초등학교에 다녔던 성산의 어린이들이 성산초등학교로 왔지요.

성산초등학교로 왔어요?

성산에 와서 학교 다니게 된 거죠.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다 동남초등학교에 다녔나요?

동남초등학교 걸어서 다녔죠.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46년에 성산에서 동남으로 가려고 하면요?

성산에서 동남으로 가려면 어린이 걸음으로 1시간은 걸렸다고 봐야 돼.

그렇게 많이 걸렸구나예.

킬로수로는 아마 한 4km. 10리길, 옛날부터 10리길이라 했지.

10리길.

10리길 걸어 다녔지. 옛날에는 한 10리길 어린이들은 한 10리길 걸었주게.

어린이들이 10리길을 걸어서 다녔군요. 마을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니다가 불편하니까, 성산초등학교를 만들자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예요.

학교를 만들었네요.

네, 땅 내놓자 해서 만들었네요.

집도 짓고. 그때는 뭐 국가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할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신 적 있었나요? '학교에 대해서 내가 토지를 기부하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신 적이 계신가요?

얘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본인 스스로 자랑해 본 적은 없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부를 했고, 나도'

'돈 내놔다' 아버지도 재력이 있었어요.

몇 남 몇 녀입니까?

우리가 그때 성산에, 2남 4녀인데, 제가 초등학교가 들어간 게 56년도에 들어갔어요. 내 형은 54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 동남초등학교에서 성산초등학교를 설립해서 다녔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무렵에는 한 동밖에 건물이 없었어요. 교실이 4개짜리.

교실 4개짜리?

초창기에는 한 동밖에 없었어. 내가 기억하기에는 비좁아서, 아이들도 많아지고 비좁아서 아버지가 그때 창고업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를 빌려줬어요, 교실로.

아버님께서 창고를 빌려주셨어요?

창고를 빌려줬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두 학년인가, 우리 그 창고에서 임시 교사를 마련해서 창고에서 수업했어요. 57년도에 지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처음에는 목조 건물이 한 동만 있었다가, 교실 두 동을 석조 건물로……, 돌집, 제주도 돌로 석조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5학년, 6학년을, 내가 그 교실에서 마친 걸로 기억나요. 교실이 두 동, 처음에 목조 건물 한 동인데 4학급밖에 수용이 안 됐었어요.

예, 4학급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지원됐는지, 제주도 도로 해서 지은 석조 건물이, 두 학급이 별도 별채가 만들어졌어요.

57년에?

57년에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5학년, 6학년을 그 교실에서 마친 걸로 기억나요.

그러면 아버님이 창고를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운동장 내에?

운동장 내가 아니고, 개인 땅 위예요. 우리 집 옆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수마포, 번지가 몇 번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수마포 해안가 옆에 창고 두 동이 있었거든요. 한 50평 미만 되는데 교실이 모자라니까 창고를 빌려줘서 아이들이 1, 2년 그때 거기서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수업하다가 그다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물이 지어지니까.

돌집, 석조 건물이 지어지니까.

거기로 들어갔지요.

## 또 다른 공헌자들

---

여기에, 당시에 같이했던, 한자 행자 려자 한행력 이분도 함께 하셨나요?

그분은요. 내 기억으로는 아마 성산에도 그 옛날 군납했던 주정공장이 있었거든요, 술 공장.

예.

군인들 먹는 소주 공장. 제주시에 저쪽 부두에 주정공장 있듯이.

예.

술 공장이 있었어요. 그 분이 술 공장 사장님을 했을 겁니다. 그분 돈, 재력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돈을 내놓을 사람이 없었죠. 내가 그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마 한재옥 씨 친아버지, 한재옥 씨 알죠?

한재옥?

응.

누구신가요?

제주시 시의원 했었고, 한일여객 버스 만드신 분.

예, 그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한재옥 씨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아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재옥 씨 아버지?

내가 자세한 거는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성산마을에 가니까 이분의 후손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안 살아요, 다 이사 가버렸으니.

다 어디로 가셨나요?

성산의 한 씨 집안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현원조는?

그분도 마찬가지. 성산에 현 씨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집안은 나도 잘 모르겠어.

마을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네요. 사실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하면 자손이라고 할까, 후손 되시는 분, 그분들을 제주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식들, 후손이 누가 계신가를.

마을에 그때 유지였거든. 재력이 있었던 분들이.

예, 그거 알아요. 작년에도 월정리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좌읍에서는 처음 생긴 초등학교인데 100주년이 됐거든요. 작년에 설립 100주년, 구좌중앙초등학교. 그래서 교육감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 구좌초등학교 설립을 또 우리 할아버지가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 우리 할아버지 친형님이예요.

친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구좌중앙초등학교에 기부하신 분의 성함이?

김성률이라고.

김성률.

그래서 그분이 감사장도 받았거든요. 작년에.

구좌중앙초등학교?

구좌중앙초등학교 작년에 100주년 했습니다.

100주년. 이 구좌중앙초등학교도 제가  
말아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김성률, 형  
님 되시는 분?

구좌중앙초등학교에 가보면 공덕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손이 있습니까?

자손들은 부산에 살아요.

부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긴 없어요. 취재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 주면 거기 아드  
님 전화번호를 말해 줄게요. 구좌읍에서 구좌중앙초등학교  
가 제일 첫 번째 설립되었고 100주년 됐어요.

100주년.

제주도에 100주년 된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동남초등학교가 100년 조금 넘었고.

예 예. 동남초등학교도 100주년이 넘었어요.

예. 100년 조금 넘고 별로 없지요. 북초등  
학교 정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  
릴게요. 구좌읍 조사할 때요.

전화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아드님, 내게는 숙부가 되시  
는데, 그분 부산 연락처를 말해 주겠습니다.

예,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상황 보면서 부  
산에 한번 갔다 오든지, 아니면…….

그 김성률 할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인데. 제주농업고등학교 1  
회, 옛날 농업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고.

옛날 농업고등학교 많이 알아줬죠.

예. 고등학교 중에 처음. 거기 나오면서 아마 고향에 초등학  
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했죠.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렇고. 김성률은 큰할  
아버지 되시는 건가요?

예,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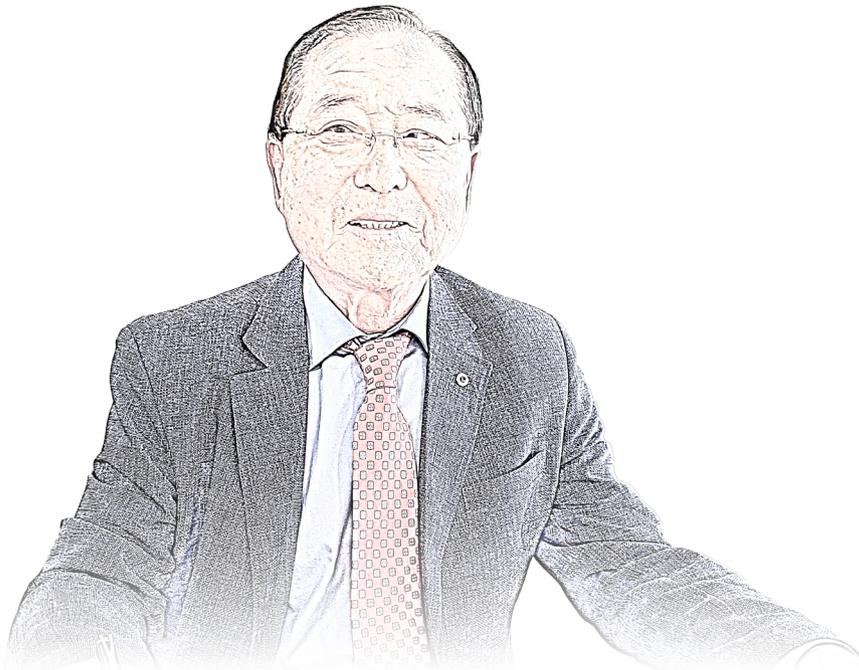
모두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07

## 김항근 우도중학교



### 공헌자·제보자 김항근 1944년생, 공헌자 본인

김항근은 1944년에 대마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창진은 일본과 영국을 오가는 무역선장이셨고 일본에서 작고했다. 해방 후 해녀였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 우도로 이주했다. 김항근은 우도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공부했다. 이후 우도중학교 서무과에서 11년 근무했고, 이직과 함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제주 시내로 이주하게 되었다. 김항근은 마을과 학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학교 정비에 토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2차례나 두말없이 토지를 기부했다고 한다. 또 1967년 하우마을문고(현 우도작은도서관)를 창립했고, 도서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등 우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썼다. 본 조사를 위한 면담 중에 우도초·중학교와 관련된 공헌자 관계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었다.

## 우도중학교 정문 입구 토지 1차 기부

---

우도중학교에 본인이 직접 기부하신 것 같은데, 우도중학교 몇 년 도에 생길 때 하셨던 겁니까?	거기에는 저도 근무했었어요.
우도중학교에 근무한 적 있으세요?	예.
선생님께서서는 몇 년생입니까?	44년생.
44년생, 그럼 지금 81세?	82세.
1944년.	10월 22일.
22일, 82세고. 우도중학교는 49년에 생기고, 54년에 연평중학교 3년제, 그다음에 56년, 61년, 62년 그 기부를 할 때가 몇 년도인지 알겠습니까?	그 토지가 이렇게 S자로 된 상황인데, 그게 74년 3월쯤 될 것 같아요.
74년 8월 30일에 교실하고 관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 무렵에 1973년경에 이 토지를 기부하신 건가요? 학교 운동장이 꼬불꼬불 되었나요?	그렇죠. 이렇게 토지가 됐으면 학교 운동장 들어가는데 이렇게 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토지가 그때 약 120평쯤 들어갔어요.
120평 정도에.	이걸 구짜 <sup>3)</sup> 페우면서. <sup>4)</sup>
구짜 페우면서?	도로가 이렇게 S자로 휘어졌어요. 학교 도로가.
학교 도로가?	학교 정문 도로, 정문 입구.

3. 구짜는 제주어로 ① 곧장. 옆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② 곧게. 굽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르게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②의 의미로 쓰였다.

4. 페우면서는 '페우다' 즉, '퍼다'를 뜻하는 제주어 동사이다.

학교 정문 입구 도로가 S자로 돼 있어서?

S자로 휘어졌는데 그걸 일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토지를 기부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그냥 구썩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이게, 기부를 하신 게 1970년?

그때 고용성 과장이 74년도 5월에 이것을 제게 줬는데, 기부는 아마 74년도 한 1월인가 2월쯤 되는 거 같아요.

2월 즈음에 기부를 하시고.

74년 5월에 등기가 됐어요.

74년 5월에 등기?

그것이 1차고요. 또 2차 했어요. 두 번에 했거든요.

## 우도중학교 운동장 토지 2차 기부

---

2차 또 했습니까? 2차는 언제?

학교 운동장 이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이게 저희 밭이고 이것을 평평하게 해달라고 해서 육성회장이 오셨는데. 이게 약 50평이에요.

2차는 50평?

50평인데 그게 비석문 안에 보니까 80년 12월 토지 기증으로 나왔더라고.

80년 12월 토지 기증.

2차는 맨 구석에 학교 부지 보면, 여기 이게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부해 달라고 해서 여기 50평인데. 지금은 학교 운동장이 일직선으로 다 됐죠.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셨고?

그게 비석문 안에 보니까 12월 기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김항근 장학기 녘비' 해서.

이 학교 토지 문제로 해서 기증을 해달라고 한 것은 누가 그 부탁을 하셨습니까?

학교장이 육성회장을 통해서 저에게.

당시에 육성회장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인인데요, 1차 토지 기증할 때는 한두영 씨라고.

한두영.

예, 한두영 고인입니다. 한두영 육성회장. 또 2차 토지는 고이택 씨.

고이택. 이분은 우도에?

아니, 고인입니다.

이분도 고인. 2차 때.

2차 때 육성회장. 교장 선생님은 잘 모르니까, 그 학교 육성회장한테 학교 부지를 그 김항근 씨에게 부탁해서 토지 기증해 달라고 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받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했어요.

전화 받고?

예, 뭐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 고이택 씨는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고인이지만은 '형님 그렇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 여기 왕 안 봐도 되겠냐?' 그러기에 '아 볼 게 뭐 있습니까? 저 형님 믿습니다' 그분이 아주 참 정직하고 좋은 분인데……. 그래서 '얼마 들어간 거 나중에 보내고, 등기 나오면 등기도 보내마' '예' 그렇게 해서 등기도 왔더라고요. 서무과장이 직접 왔었어요. 이 고용성 서무과장 잊어버리지 않죠, 우도중학교에 있다가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아마 발령받고 갔던 것 같아요.

도 교육청, 예.

도 교육청으로 발령받고 간 때인데, 등기 문서 나왔다고 해서 만나서 받고 그분이 '덕택에 잘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기 문서를 건네주셨다.

예, 건네주신 분이 고용성 과장, 그 당시 행정과장?

행정과장님. 육성회장님이 '기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기부해야 되나?' 이런 망설임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육성회장님이 또 선배님이고, 3회 선배예요.

## 학교에 대한 기억

---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 가면 운동장을 1, 2, 3학년 당시에 바작[밭채] 지고, 삽 들고 그 평탄 작업을 했어요.

학교 학생들이, 일꾼이 없잖아요.

44년이니까, 14살 하면은 58년, 59년 정도에?

중학교 1, 2, 3학년은 무조건 삽, 괭이, 바작 들고 가서 평탄 작업을 했다고 생각 돼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해서. 뭐 바작?

예, 삽, 괭이 바작. 바작이라면 지는 거, 흙을 지는 거.

운동장 평탄 작업?

평탄 작업을 했죠. 수업하다 내버리고 그 평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굴곡이 심하고 임야라서 그것을 평탄 작업이 필요해서 삽 하나 정도씩은 파내야 돼요. 얇은 데로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몇 명 정도 학생 수가 있었나요?

그때 학생 수가 110명 정도 됩니다. 1, 2, 3학년 전부해서.

그러면 1, 2, 3학년이 전부 다 나와서 그 작업을?

예. 한꺼번에 100명 다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일이 잘 안되니까 학급별로.

이 구간 저 구간?

체육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오후 1시 되면 1학년 가서 1시간 정도 하고, 또 3시쯤 되면 2학년 가서 1시간 정도 하고, 또 5시쯤 돼 가면 3학년 가서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동

네별로 다 우리 학생들 모아서 한꺼번에 작업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평탄 작업을 학생이 했어요.

*기억상으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 많이 걸렸죠. 그게 한 3개월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 평탄 작업에 매진했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 활동을 할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탄 작업을 해야 하니까, 체육 선생님 지시하에 그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 1회나 2회나 뭐 이런 분들이 고생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생했지요.

*몇 회입니까?*

우리가 4회입니다.

*우도 중학교 4회, 4회 기수들이 많이 고생 하셨네요.*

그때 4회, 5회, 6회 학생들이 그 평탄 작업에 다 참여했죠.

*예전에는 기계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 학교 가면 교복 다 벗어 자치고, 그냥 동네별로 일도 하고 또는 체육 시간마다 나와서 평탄 작업을 하고. 그때 그게 야산이고 임야라서 그 체육을 할 방법이 없었잖아. 그래서 일단 평탄 작업을 해야 우리가 공차기도 하고 뭐 하니까, 수업시간 할애해서 평탄 작업을 많이 했어요.

## 공헌자 김항근의 생애

---

*대마도에서 출생했어요?*

출생은.

*그러면 아버지가 대마도 가셨던 겁니까?*

일본에 사셨죠.

*거기서 44년에 태어나서 언제 제주도에*

저는 해방되니까 들어왔죠. 왜 들어왔냐 하면 해방될 때 일

오신 겁니까?

본 사람들의 정책이 '조선인들 다 나가라'였어요. '조센진[朝鮮人, 조선인의 일본어 발음]들 다 나가', 조센진들 다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제로.

강제 퇴거?

그래서 일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남아 있고, 영주권 없는 사람은 그냥 전부 내보냈어요.

그때 어머니랑 같이?

예,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랑 둘만 우도로 와서?

예 예. 고향이 우도니까.

어머니도 우도입니까?

어머니는 육지입니다만 아버지 고향 우도로 왔어요.

선생님은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도초등학교.

우도초등학교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도중학교.

우도중학교, 결국에는 우도중학교를 나오셨네. 그다음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대학교 행정학.

제주대학교에서 우리가 교육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도중학교 나와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 했죠. 우도중학교 서무과에 입사해서 학생들 수업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래 하긴 했는데 그게 몇 년 근무했는지……?

몇 살 정도부터 해서 몇 살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64년도부터 해서 한 11년 근무한 거 같아요.

11년 근무. 그러면 우도에서 생활하시고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오래 우도에 사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주시로 옮긴 겁니까? 제주시로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직장도 그렇고 애들도 진학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제주시내로 이사했어요.

애들 학교 문제로 제주시로, 제주시에서는 그냥 계속 화북에서만 살았나요?

건입동에서 살다가 화북으로.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어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영국까지 가는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아버지는 거기, 영국은 복리후생이 잘 돼서 6개월씩 쉬어요.

아, 그렇구나.

네. 6개월 동안 영국에 있으면 비행기로 일본까지 실어다 줍니다. 6개월 딱 되는 시점에 정확히 철저히 해요. 일본 사람들이 행정을 정말 철저히. 그러면 6개월 동안 월급 그대로 주고, 연탄도 그대로 주고 그냥 생활하도록 했어요. 6개월 지나면 또 배 타서 배가 영국에 있다면 비행기로 가고, 일본에 와 있다면 일본에서 타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하고 일본만 왕래했는데, 일본 제품을 영국으로 가져가고 또 영국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을 또 일본에 가져가서 상공업을 했죠.

아버지가요?

무역선, 무역선을. 큰 배죠, 아주. 그러니까 좀 한 파도도 관계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 선장했죠.

그러면 선장하시면 몇 년 정도까지 아버지가, (김항근은) 일본에서 4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 이미 아버지가 그전에?

전이죠. 한 20년 전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배를 한 20년 정도 탄 것 같아요.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김 창자 진자.

김창진.

예, 김창진.

그래서 20년 정도 무역업?

일본에서 영국으로 가는 무역선 선장.

아버지는 일본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몇 년도에? 아버지 김창진은?

아버지는 저 낳고 돌아가셨죠.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신 겁니까?

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일본에 가계셨던 겁니까?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안가고요. 아버지 때 갔는데, 처음에 아버지는 일본에 해상업 하러 가고, 어머니는 해녀로 가고.

해녀로?

어머니도 해녀고, 우리 작은어머니도 해녀고. 이렇게 해서 사시다가 6개월 동안 쉬잖아요. 쉬니까 심심하잖아요. 일본에는 혼자 타는 작은 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혼자 안 타잖아요. 혼자 타는 배로 오징어 낚으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배가 전복돼서, 파도에.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배가 엎어졌는데 이렇게 신발 위에 올려놓고 헤엄쳐던 것 같아요. 헤엄쳐서 살려고.

배 엎어지니까, 신발 위에?

예, 올려놓고. 그런데 시체는 못 찾았죠.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몇 남 몇 녀입니까? 형제분은? 장남이시고?

장남. 딸 하나 우리 누이동생.

누이동생하고 1남 1녀구나.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기 와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60 넘어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원래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 물질을 하셨네요.

예, 예. 어릴 때부터 물질했어요.

물질하셨구나. 우도 분은 워낙 강해서.

예, 강해서.

*우도에 교포들이 많습니까?*

교포들이 많은 이유는 우도의 자원이나 이런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밭도 별로 없지, 그리고 바다에만 의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트인 분들이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트인 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 가서 기술 배워서 살아야 되겠다. 그 우도가 척박하니까 일단 일본에 가서 공장 생활하면서라도 생계유지를 하려고 처음에 가신 거예요.

*거의 일제강점기에 갔습니까?*

예, 예.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가신 거구나. 우도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면이 아닌데도 재일교포들은 엄청 많아요.*

예,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근거리잖아요. 대마도도 많이 갔어요. 저도 대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 또 다른 공헌자 윤행준

---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다들 학교 부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보십시오. 누구 알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이분(윤행준)은 하교수동이에요.

*하교수동.*

이분은 그 학교 부지, 운동장 전체 부지를 내놓으신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이분 같은 분들은 아마 비석이 어딘가 학교에서 있을 거야. 학교 가면.

*비석은 있는 건 다 조사됐고요. 이분의 자손이 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알죠, 윤부국이라고. 근데 애는 잘 모르죠. 형이 있었는데 형이 돌아가셨어요. 윤부국이는 동생인데, 이 윤행준 씨가 그 부지를 전부 기증한 건 저희들이 알죠. 이 윤부국 씨 만나보실 거예요? 저기 핸드폰 번호도 말해드리고, 제가 통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나도 애는 잘 모를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으면 만나고, 잘 모르겠  
다고 하면 전화상으로만 해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님 그 관계 그걸  
좀알수 있는지?

(윤행준 아들 윤부국과 전화 통화)

한번 저기 통화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동생이니까 괜찮  
아요.

모를 거예요, 어려서. 그 형은 우리 1년 선배니까 양국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서 버리니까.

윤부국: 여보세요, 삼촌.

김항근: 부국아, 난데이, 우리학교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있  
는데, 전수 조사하는데 우도중학교 부지를 윤행준  
아버지가 기증했거든. 니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  
는 거 이시냐?

윤부국: 그 내용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할아버지 비석 세우  
고 했었는데, 중학교도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전  
혀 우리가 육성회비만 제가 면제해서 다녔거든요.  
그거 외에는 전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김항근: 그거는 양국이 형이 잘 알 건데 양국이 형 돌아가서  
부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이?

윤부국: 예.

김항근: 양국 형이 살아계셨으면 그 내용을 잘 알 건데, 내  
가 학교 서무과에 근무할 때 아버지 윤행준 씨가  
그 운동장 전체를 다 내놓으신 거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윤부국: 그러니까 그 학교 부지를 내주면서 그때 당시는 조건  
이 애들 육성회비를 면제해 주는 거였죠.

김항근: 육성회비 면제해 주는 것.

윤부국: 그거 면제해 주는 것만 해가지고 학교에서 해준 거.  
우리 중학교는 육성회비는 면제하고 수업료는 냈습  
니다.

김항근: 그렇지. 수업료는 교육청에 내는 거니까 학교 육성회

비는 학교 자체고.

윤부국: 예 예, 학교 자체고, 그때 삼촌도 서무과에 근무할 때고.

김항근: 그렇지, 내가 서무과에 근무해서 다 알지.

윤부국: 그 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요.

김항근: 그렇지 맞아.

윤부국: 초등학교는 비석이 세워져 있고. 중학교는 '부지를 했다'라고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육성회비만 면제받아서 학교 다녔어요.

김항근: 내가 우도중학교에 행사 있어서 갔었는데. 내가 민 회장으로서 그때 초대 받고 갔었는데, 보니까 내 비석이 있더라고, 그래서 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혹시나 그 학교 운동장 들어갈 때 보면 왼쪽에 비석이 한 여남은 개<sup>5)</sup> 있어.

윤부국: 그거 확인 못 했어요.

김항근: 그래 그거 장학기념비라고 해서 세워 있더라고. 나는 내가 해당되는 것만, 나 이름하고 비석만 찍어 왔는데. 윤행준 삼촌 비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안 봤주게.

윤부국: 내가 이다음에 가면.

김항근: 혹시 가서 봐보라. 그것도 후손들에게도 나중에 자료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 알고, 너는 지금 몇 년생 이냐?

윤부국: 60년생.

김항근: 1960년 몇 월생?

윤부국: 8월 21일.

김항근: 8월 21일. 너는 그때 부산에 살아버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후손들만 육성회비 면제하는 거로 해서 끝난 거잖아. 기부해 버리니까.

---

5. 여남은 개는 열이 조금 넘는 수를 의미한다.

윤부국: 예, 예.

김향근: 알았다. 너네 아버지가 우도초등학교에는 1,069 평방미터고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2,102 평방미터 기부했더라. 이거랑 써 놔두라.

윤부국: 나 지금 뭐 메모할 게 없는데 나중에 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윤부국 씨는 차남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기부하셨네요.

있습니다.

323평이고 초등학교는?

323평.

예.

그다음에 중학교는 2,102평방미터, 636평 많이 한 거죠.

## 또 다른 공헌자들

---

그리고 정찬경?

정찬경 씨는 큰 형은 돌아가시고. 정학범이 큰아들은 돌아가 버리니까, 정학범이 동생 이름이 정양범이라고 있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나? 제가 이거 한번 다 찾아 드릴게요. 하우목동 정양범인가 일 건데, 김향육은 상우목동, 오영돈이는 하우목동 다 그 근처니까, 현경원은 모르겠어요. 현경원이 누가 누군고?

이분도 학교 부지를 4,316제곱미터 꽤 많이 기부했습니다.

맞아요. 중학교예. 이런 거는 오히려 학교에 대장상으로 남아 있지 않을 건가.

초등학교도 좀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어요.

요즘은 서류 같은 거 보는 것이 옛날 같지  
가 않아서 조금 예.

재일교포로 많이 가버리니까.

재일교포가?

예, 많이. 우도에 재일교포가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포 명단이 너무 많아요. 교  
포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 방법은 저기 친족들.

친족분 계시면 좋지만, 친족분이 누가 계신  
지도 알기 힘들어요.

예.

우도초등학교의 문덕진 씨는?

문덕진 씨는 부산에서 무역하시다가 종달리에 거주하셨는  
데, 우도에 사시다가 아드님도 돌아갔습니다. 무역업을 했는  
데 부산, 제주.

부산하고 제주?

무역업을 했는데. 심지어는 부산, 제주, 중국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신설란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신설란입니까?

신설란 알아집니까? 신설란은 울타리에 씨를 심으면 이렇게  
썩 올라오는 것인데, 굳작하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  
을 가을 돼서 익으면 베서 두드려서 밧줄을 만들어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막 두드리면 풀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실처럼 남  
잖아요. 그것을 새끼 꼬는 거죠. 그래서 한 2, 300미터 해서  
당겨서 짝 놔가지고 그걸로 낚시했고. 그것에 감물 먹여서 하  
면 바다에서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 신설란을 중국에서 가져다가 심어서 보급을 했는데, 저립  
낚시줄로 많이 이용했어요.

감물 들여서?

감물 들이고 막 바래고 하면 더 질겨져요. 그래서 바다에 내  
려가도 짠물에 녹지 않고 썩지 않으니까, 감물 들여서 저립

남짓줄로 사용하게끔 한 사람인데. 부산, 제주, 중국까지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면서 큰 배를 운영했는데, 이분이 우도에 사시다가 종달리 가서 사시고, 나중에 부산이 거점지가 됐지요. 중국, 제주, 부산 이렇게 하니깐 부산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천 엔이나 기부하셨네요.

예.

이거는 다 학교 부지고. 오영돈 씨는 그 오애리라고 하우목동에. 면사무소에 이 따님이 근무해요.

지금 면사무소에?

퇴직했어요.

오영돈 씨는 722평방미터면 218평쯤 기부했어요.

218평.

여기 보면 중학교에도 오사카, 동경 제일 교포들이 있습니다. 이름 혹시나 알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김항주는 우리 일본, 아니, 저 어딘데, 이거 우도입니까?

예. 우도중학교.

김항주는 우리 형님입니다.

형님입니까?

우리 6촌 형님이죠.

6촌 형님. 이분도 일본, 지금 오사카에 계신 걸로?

오사카에 계신 걸로 되신가?

오사카에 체류하셨던 분, 이거는 동경에 체류하셨던 분.

오사카에?

오사카 아십니까?  
누구라구요?

오사카에는 아닌데? 김두환이는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김두환.

김두환. 오사카에 계셨습니까?

예. 오일주도 하우목동인데, 오일주. 아드님이 일본에 있고.

아드님이 일본에 있어요?

예. 오광석이라고.

오광석.

최경문이는 비양도. 도쿄 정찬욱 씨는 조카 손자 정승범이 있고.

예.

고운배하고 고운하는 형제. 서귀포시장을 역임한 고계추 시장이 친척입니다. 김항산은 영일동인데, 거기 집안에 사람이, 이분은 여기 와서 회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 형님뻘이거든요.

김항산?

근데 지금 답변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많은데. 일본에서 오시면 학교에 무조건 이렇게, 그때는 학교가 어려우니까 초창기니까, 다 200엔. 200엔 이렇게 다 기증을 했을 거예요.

마을에 오셨을 때는?

예. 그러면 학교에 기증하고, 마을에도 기증하고.

우리는 지금 학교만 하고 있는데, 마을도 기증 많았습니까?

예. 마을에 전기 가설이나 이런 거는 다 재일교포들이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전기 가설도 전부. 재일교포 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보내와서 전기 가설도 하고.

재일우도친목회나 이런 모임이 있었나요?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에?

네. 일본에 있죠.

예. 그런 데 있을 겁니다. 우리 장인이 살아 있을 때는 회장을 했는데 자꾸 그 말을 해요. ‘모아서 보내고, 모아서 보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정찬흡 씨도 굉장히, 학교에도 많이 기부했지만 우리 마을에도 기증 많이 하고.

우도중 기부자 정찬흡 씨?

정찬흡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요. 우리 마을에 물이 없어서, 우도는 물이 없잖아요.

예.

그 정찬흡 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쓰십시오. 우도는 원래 물이 없어 봉천수를 먹었으니까. 하우목동에 물이 없으니까,

서천동에 부지를 사서 물통을 만들었어요. 빗물 받는 물통.

봉천수?

빗물 받아서 먹을 때니까 큰돈을 기증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하우마을문고라고 있어요.

하우마을문고?

예. 하우목동이니까 하우마을문고. 그거 제가 창립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장가가기도 전이죠. 저는 명함에 보시면 봉사활동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하우마을문고.

서강새마을문고?

그게 옛날에는 하우마을문고인데, 서강새마을문고로 돼서 그다음에는 우도작은도서관으로 발전했어요, 우도작은도서관.

지금도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창립했는데 제가 호텔에 정찬흡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책을 그때 200권 (기부)했구요.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50만 원인가 그때 기부했을 거예요, 우생당에. 제가 가니까 책명을 다 써오라고 해요. 책명을 다 쓰고 그 가격을 다 써서 리스트로 해서 가져가니까, 그 책값이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줄게, 가서 책 사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하우마을문고 개장을 시켰죠.

그래서 하우마을문고 하다가, 서강마을문고 하다가, 지금 우도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우도작은도서관에서 어제도 메시지 왔는데요. 뭐 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거 합니다만,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책도 빌려주지만, 외부 초청 강사 그것도 하고, 작은 음악회라든지, 미술 전시회……. 같이 모여서 여러 행사를 하는데, 오늘 오실 줄 알았으면 놔둘 건데 그거 지워 버렸네.

우도 마을에는 지금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자주 안 가시겠네요?*

면민회장 당시에는 행사가 있으니까 초청장 오고 연락 오잖아요. 자꾸 갔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갈 일도 없고. 형님네들도 다, 자식들도 다 여기 와서 살아 버리고, 명절도 여기서 하고, 제사도 여기서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자주 안 가시네요?*

자주 못 가요. 체육대회 할 때는 가는데, 체육대회 때 갔었어요. 근데 체육대회도 이제는 이쪽에서 하거든요. 이번에 11월 22일 날인가 하는데, 조천 운동장에서 우도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해요.

*여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08

## 이병문 귀덕초등학교



이우백

### 공헌자 이병문 1908년생, '이홍덕'으로 개명, 호는 화산

이병문은 1908년 1월 14일 출생, 1970년 1월 24일 작고했다.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교토에서 공예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형제 친척들 모두 함께 일했다. 해방 후 사업을 정리하고 배 2척을 사서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태우고 귀향했다. 귀향 후 강원도에서 목재를 사 와서 한림읍 귀덕리에 집을 지었다. 하지만 곧 4·3이 발생했고, 위협을 느껴 장남을 데리고 군산으로 이주했다. 군산에서는 포장 상자 사업을 했고, 작고하기 2년 전쯤 귀향했다. 귀덕초등학교 설립 당시 기성회 대표였던 독립운동가 홍순옥의 권유로 거액의 의연금을 희사했다.

### 제보자 이우백 1945년생, 이병문의 아들

이우백은 1945년 8월 25일생이다. 이우백 포함 8남매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고, 해방 후 부모 친척들과 함께 아버지가 산배를 타고 제주로 이주했다. 제주로 이주했던 1946년 당시 이우백은 갓난아기였다. 8남매가 제주에서 함께 살았던 한림읍 귀덕리 1205번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다. 이우백은 귀덕국민학교, 애월중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아버지가 계신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또래보다 늦게 대학에 진학하여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제주로, 군산으로, 다시 제주로 옮겨 사는 동안 마을과 관계된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결혼 이후 고향에 정착하면서 아버지의 공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저희는 제주도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설립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일일이 찾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아드님이나 손자분이나 조카분들을 찾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카분(이승학)을 먼저 뵈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병문 씨가 삼촌이고 아드님이신 4촌 형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947년에 이병문이 의연금으로 거액을 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이병문인데 이름을 개명했어요. 호는 화산이고 이홍덕입니다. 4남 4녀를 두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님은 몇 년생이십니까?

1908년 1월 14일에서 태어나서 1970년 1월 24일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니까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형제분들은 몇 분이셨습니까?

일본 간 분이 큰아버지 이태민. 작은아버지 이갑생. 외삼촌, 다른 삼촌도 가고.

## 아버지 ‘이병문’에 대한 기억

---

그럼 일본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일본에는 18살인가, 아, 19살인가에 가셨습니다.

그럼 군대환 타고 가셨습니까?

예, 군대환.

일본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사카로 가셨습니까?

경도.

아, 교토. 가실 때는 혼자 가셨습니까?

여기서 결혼해서 어머니와 같이 가셨습니다.

처음에 일본 가실 때는 일본에 아는 분이 계셔서 간 겁니까?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처음에 어머니와 두 분이서만 가셨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네,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시 버스가 없을 때니까 귀덕에서 모슬포까지 걸어서……, 결혼하려고.

그럼 어머니가 모슬포세요?

아니, 어머니는 금성인데,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걸어서 다녀왔다고요. 결혼자금 빌리려고. 이런 이야기는 10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만 일찍 했으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전부 폐교되다시피 되었잖아요.

그럼,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까?

8남매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친족들 모두 우리 밑에서 일했어. 그래서 해방되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배 2척을 사서 친족들 모두 데리고 온 거야. 그것이 우리가 결정적으로 망한 계기가 된 거야. 뭐 망한 것도 없지만, 재산 털면서 아이들 교육시켰지.

선생님은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45년 8월 25일생. 해방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술품, 공예품 만들어서 파는 거.

유리공예 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림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누님이 살아계셨으면 알았을 텐데.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어요.

여기 귀덕에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까?

예. 이 책(『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활동 기초조사』)은 언제 나온 겁니까?

작년에 조사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비석이 5개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눕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요. 학교 설립 당시에 이병문 이 거액의 의연금을 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금액은 몰라요.

네, 그러면 학교에 돈을 내실 때는 누가 고향에서 돈을 좀 내라고 했던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홍순옥 할아버지.

네, 당시 기성회 대표셨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부추긴 모양이에요, 부자고 하니.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요. 홍순옥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예요. 삼일절 때마다 오고, 나도 기미독립선언문 알아요.

홍순옥 할아버지가 일본 가서 동네 잘사는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하셨군요.

(책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뭘니까?

1966년에 관동지구 친목회에서 돈을 냈던 모양입니다.

김문평 씨 아들이 김정업인데 나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귀덕에 회사를 많이 했어요.

네, 아무튼 귀덕에 기여하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홍순옥, 혹시 이분 아드님이 후원 표세요?

그분 아들이 후원표.

그런데 당시에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학교 짓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내셨습니까? 귀국하기 전에도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교통이 나쁘니까 오기가 힘들었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해방되니까, 지금 말로 하면 애국자지. '일본에 있을 필요 없다, 한국에 가자' 해서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친척들 모두 배 두 척에 태워서 돌아왔지. 당시 한림읍에 기와집이 몇 채 없었는데, 귀덕에 기와집이 몇 채 없었는데 우리집이 제

일 큰 기와집이었어. 지금도 있는데, 기와가 무거워서 기와를 걷어서 슬레이트로 바꾸고. 밖거리는 기와가 그냥 있어요. 1205번지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공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 8남매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나는 그 당시 학교를 귀덕 (국민학교) 14회, 애월중학교 14회, 군산상고 19회 (졸업생).

## 귀국 후 군산으로

---

해방되고 바로 돌아오셨습니까?

예. 내가 45년도에 태어났는데 46년도에 배를 타고 왔으니까. 나는 갓난아기였는데 죽다시피 했지. 46년도에 우리 8남매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두 그 배를 타고 왔지.

그럼 아버님이 일본 가서 사업하면서 아버님 형제분들도 다 부른 겁니까?

예.

46년도 계절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와서 여기서 보리밥을 겨우 먹었어요. 보리밥만 먹으니까, 애들이 설사 나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일본에서 사업이 잘 나갔을 때니까, 정리해서 오셨으니 돈이 있으셨을 텐데요.

돈이 있었으니까 강원도에 가서 나무를 사 왔죠. 목재를 사다가 집을 지었어요.

돈이 정말 많으셨나 봅니다. 강원도까지 가서 목재를 사 오실 정도면. 그러면 그때 보리밥 드셨다는 건 여기가 보리밖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보리밖에 없었지. 보리도 우리집 정도나 먹었지. 초목근피(草木根皮)라고 나무뿌리……. 그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밥이 없어서 전분 공장의 고구마 찌꺼기 그거 해다가 죽 끓여서……. 선생님은 그걸 이해 못 해요. 쌀밥은 한참 후에 먹기 시작했지. 나는 61년도에 군산 가서 고등학교 다녔어요.

아니 어떻게 군산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4·3 때, 아버지가 워낙 돈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마침 군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하게 되니까,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를 나와서 대학은 74년도에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했어요. 원래는 69년도에 졸업해야 하는데 군대 가는 바람에 5년 후배들과 학교 다녔어요. 군대 3년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아버님은 언제 군산에 가셨습니까?

4·3 바로 직후에.

4·3 직후에 가셨으면, 선생님은 계속 여기 (귀덕리) 계셨다가 나중에 가신 거세요?

맞아요. 혼자 있다가. 우리 큰형이 군산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군산에서. 아버지하고 가서. 당시 전라북도는, 우리 한국은 군산, 목포, 부산, 속초, 원산, 인천 이렇게 항구 지역이 전부 큰 도시였어요. 군산이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산으로 갔지.

그러셨구나. 그러면 아버님은 군산에서 무슨 장사를 하셨습니까?

군산에서 큰 가위 공장에 포장 박스 납품을 했어요. 그거 하다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거기서 졸업하고 2년 만에 제주도로 왔지.

거기서도 사업이 잘 되셨어요?

예, 그냥 뭐. 그 당시 군산 가서 처음으로 쌀밥을 먹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제사 때나 조금.

아버님이 귀국하신 후에 동네일을 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겠네요. 오셔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군산에 가버리셨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농사도 전혀 지을 줄 몰라요.

사업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군산에서 돌아오셔서 2년 만에 돌아가셨다니.

전혀 농사를 몰라.

그럼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제주대학까지 나오시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수협에 한 10년 근무하고, 전두환 정권 잡으니까 숙청 당해서 1년 있다가 제주신문사 들어갔다가 다시 제민일보에 들어갔지.

솔직히 이런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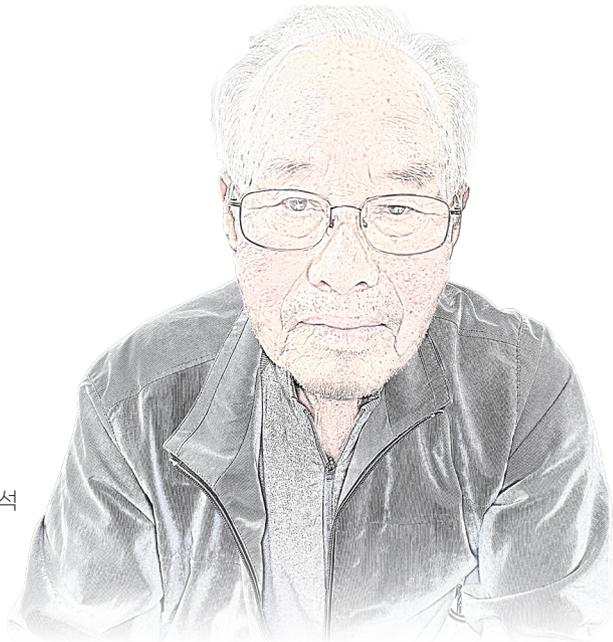
우리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대학 졸업한 후에도 모르고, 대학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안 거지.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기부해서 학교를 설립하시고 나중에 귀덕초를 다니시게 된 거잖습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 09

## 이병추

한동초등학교



이원석



### 공헌자 이병추 1916년생

이병추는 1916년 구좌읍 평대리에서 태어났다. 4·3 때 마을이 불타 한동으로 피난했고, 곧 다시 일본 오사카로 이주했다. 제주에서 낳은 아들이 둘, 일본에서 낳은 아들이 셋 있다. 제주의 가족들과는 소식이 끊겼다가 1964년 즈음부터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고, 1968년 12월 15일 한동초등학교 설립 시기에 소파 3개를 기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80년대 말 귀향하여 3년 정도 살다가 작고했다.

### 제보자 이원석 1939년생, 이병추의 아들

이원석은 1939년 9월 29일 구좌읍 평대리에서 태어났다. 공헌자 이병추의 첫째 아들이다. 4·3 때 마을이 불타 이원석의 할아버지가 계셨던 한동리로 피난했고, 이후 현재까지 살고 있다. 아버지 이병추는 4·3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했고,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 1980년대에 귀향하여 3년쯤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원석은 한동초등학교 설립 당시 아버지가 물품을 기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본 조사를 통해 아버지의 공헌을 알게 되었고, 자식으로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김승규 님을 만나 면담 중, 공헌자 이병추 님의 아들 이원석 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다. 더불어 마을 주민 오인수 님이 함께 대화를 나눠주셨다.

## 공헌자 이병추의 생애

아버님이 이병추. 아드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석.
이원석 님은 몇 년생입니까?	39년.
월, 일도?	9월 29일.
9월 29일. 혹시 아버님 생년월일 알겠습니까? 몇 년도인지?	(노인회장 김승규) 16년은 아니우파? 우리 죽은아방네 갑장이라고 하는 거 같았는데.
16년생. 이원석 선생님은 39년 9월 29일이고, 아버님은 대충 1916년생이고, 그러면 아버님은 이 한동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 본적은 평대, 이웃 동네.
본적은 평대인데, 아버님이 한동으로는 언제 오셨나요?	4·3사건 때 집이 다 불타버리니까.
불타버리니까, 소개하셨구나.	한동으로 우리가 이주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한동에 살고 계셔서 우리는 한동으로 옮겼어요.
4·3사건 때에 한동으로 이전해서 여기서 살고.	예.
이병추 아버님은 언제 일본으로 가신 겁니까? 선생님 몇 살 때?	태어나서 두세 살 때. 그때도 4·3사건 때라서 잡히면 다 죽었으니. 도망으로 일본 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도피를 하신 거죠, 4·3 때에. 그때 아버님이 1948년, 한 30대에?

그랬죠.

30대에 가신 거네요. 그때 오사카로?

오사카로 가실테주.

오사카쪽으로예. 아버님하고 계속 연락은?

그 후에 시국이 좀 편안해 가니까 한 번 들어와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라.

그러면 아버님이 일본으로 도피한 후에 한 동안 여기 오시지 않았다가, 기억상으로 선생님 몇 살 정도에 아버님이 처음 오신 것 같아요?

한 스물다섯, 스물 셋인가?

23살 정도예. 23세 때 아버님 그때.

우리 결혼할 때도 안 봐시난게.

결혼을 몇 살에 했습니까?

우리 스물둘에 일찍 했주.

22세 때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참석을 못 했네요. 아버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우다. 여기 왕래가.

교통이 막아져 노니까.

막아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비자 문제도 있고.

이병추 아버님은 형제분이 몇 명입니까?

독자.

독자. 선생님네는 형제가 몇 입니까?

여기 둘, 일본에 한 서이쯤 있고.

제주 2명, 일본에 3명. 그러면 어머니는 계속 여기 계셨고 아버님이 거기서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예, 예.

2명이면, 제주에 있는 분은 아들만 두 명  
입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여기 와서 또 결혼해서 또 아  
들 하나 생기고.

그러면 여기 2남이고, 일본은 3명?

3남.

아들만 있는, 옛날 같으면 완전 복 있던 하  
는 집이네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습  
니까?

돌아가신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디 와서 돌아가셨주.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제주도에는 아버님이 언제 정도에 오신 겁  
니까?

요것이 68년도니까, 한 65년도부터 중간 중간 오고.  
(마을 주민 오인수) 아니 64년부터 와실 겁니다. 내가 아는  
거라 64년, 왜냐? 내가 65년도에 제대해서 갔거든. 그 전에  
왔어.

64년부터 제주 왕래를 하셨고, 그리고 제  
주도?

(마을 주민 오인수) 학교 지을 때 그 회사한 것도 내가 알아  
어느 정도.

64년부터 제주도 왕래를 하면서 회사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돌아  
가셨다는 거는 몇 살 때 아버님이 제주도  
에 아예 돌아와서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까?

하여튼 제주에 온 지는 한 3년쯤.

3년쯤.

네, 3년쯤 살다가 제주에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혼이 되니  
까 온 거고.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그제.

선생님 나이로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 때  
돌아가신 거 하면 딱 연도가 나오니까.

한 70대 될 거우다.

75세 정도에. 75세면 한 80년대 말 정도에 들어오셔서 사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버님 묘가 여기 계시다는 거네요.

예, 예.

묘도 전부 여기 계시고. 그러면 제사도 선생님이 하십니까?

제사도 우리가 하고.

지금 제사도?

큰아들이니까 해야주.

아버지 제사는 몇 월 며칠인가요?

11월 1일.

아버님 제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제사를?

제사도 하고.

일본의 형제들과는 어떻게 지내나요?

거긴 거기대로 뭉쳐서 살고.

예. 연락은 통 안 하시고요?

연락도 간혹 한 번씩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만나고…….

## 아버지의 공헌 내용을 처음 듣다

---

68년에 기부를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어떻게 기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몰랐는데 어쨌든 이디 오니까, 한동 유지자들이 막 끌어다니는 건 봤고.

그러면 학교를 설립할 때, 여기 한동 분들이 친목회가 조직됐다는 거네요.

이 조직으로다가 희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버님은 소파를 개인으로 했고, 이 친목회는 누가 했는지?

친목은 안 들었을 겁니다.

친목은 안 들어있을 거라고요?

예. 이게 평대하고 한동이거든. 평대에서 친목을 들지 한동으로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평대가 본적이라서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님이 한동에 계셨기 때문에 한동초등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연락을 받고서 기부하셨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현금으로 기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송덕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저를 통해서 처음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진짜로 몰랐어. 나 공덕비도 안 보고…….

그게 조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혀 몰랐다가 저희 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 닮은 사람이로구나.

학교 가보면 송덕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동을 위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왕래는 그 후에 계속 왔다 갔다는 하신 겁니까?

예. 요 시절부터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아버님이 희생한 것은 사실 오늘에야 알게 됐다는 건데, 오늘 알게 된 소감을 좀 말해

소감이나 마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돈도 있는데, 사실상 나는 이거 처음 보니까 뭐 어쩔

주십시오.

바도 모르겠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마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 지시는 거 아닐까요?

예.

갑자기 아버님 이름이 나와서 당황스럽겠 지만.

우리가 평대에서 한동으로 와서 사니까 그걸로 봐서도 더 마음이 들어서 뭘 한 거주만은.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큰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덕비에도 이름이 올라갔고. 그 당시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당시에는 정말 학교의 시설들이 없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교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지요.

그 당시야, 어느 마을이든지 교포 덕이 많아십주.

아버님 이름 딱 보는 순간 기뻐지요?

예.

전부 다 한동초등학교 나오셨나요?

(노인회장 김승규) 아니, 한동 나온 게 아니고 우린 평대 나 완. 한동은 68년도인가?  
(마을 주민 오인수) 개교한 게.

예, 개교?

(노인회장 김승규) 우리는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 10

## 이정렬 하귀초등학교



이용도



### 공헌자 이정렬 1900년 이전 출생으로 추정

이정렬은 1928년, 하귀초등학교의 전신인 진흥서당 교사를 신축할 때 약 500평의 부지를 기증했다. 양 씨와 결혼했지만 일찍이 사별하여 자식이 없었고, 홀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일궈다. 이후 양아들을 두었다. 서당을 신축할 당시 향장(鄕長)이었던 이정렬의 동생, 이규성의 권유로 부지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을 기록한 비석에는 처음에 이정렬의 이름만 새겨져 있었으나 후에 시대인 양 씨 측의 항의로 양 씨 가문이 언급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제보자 이용도 1938년생, 이정렬의 조카손

이용도는 1938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출생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사업을 도모했던 아버지가 귀향하여 야학을 운영했는데, 이 때문에 일본 순경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감시를 피해 제주도를 세 바퀴 돌아 정착한 곳이 남원읍이었다. 이용도의 가족은 해방과 전쟁 이후 고향이었던 애월읍 하귀리로 돌아왔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부유한 가문이었고, 마을의 유지였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모두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 화목했다고 한다. 이용도 또한 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마을 일에 관계하고 있다.

## 학교 설립과 하귀1리, 2리 간의 갈등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용도입니다.

하귀1리에서 태어나서 쪽 사셨습니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옛날에는 나이를 줄여서 출생신고를 해서 실제로는 37년생인데, 주민등록은 38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귀초등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이야기 해주세요.

하귀초등학교 발상지가 여기거든. 여기 옛날 서당이 변천해서 초등학교, 임시, 옛날에는 사립이지, 공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귀일리에 두었다가 그다음에 공립이 된 거지.

예, 맞습니다. '1946년에 하귀공립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잠깐 전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하면서 휴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귀심상소학교.

우리 동네에 4·3사건 희생자가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제주도 역사가 4·3사건으로 많은 변동을 가졌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뭐야, 제 공해 주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좀 틀린 것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니. 옛날에는 억세고 힘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귀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오래된 얘기인데요, 28년에 이정렬 여사가 토지를 기증해서 서당 교사를 건축하고 진흥서당을 운영하는 기성회를 조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흥서당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진흥서당입니다.

하귀심상소학교 설립 시에 고창옥, 문기택 등의 공로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문기택은 하귀2리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귀2리 사람이예요. 본래는 가문동이고.

그리고 40년 전 자리로 학교 이설 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4·3사건 때는 경찰이 주도권을 가졌거든요. 하귀 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억압을 받지. 그러니까 귀일리 사람들이 세력은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약해지고. 옛날에 일제시대는 외도 지서가 바로 여기 있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이 일제시대 지서를 이렇게 두려고 하니깐 반대한 거지. '사돈하고 뒷간은 멀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쫓겨가서 생긴 것이 외도까지 가서 지서가 생겼고 그래서 이 동네가 피해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1949년 4·3으로 교사가 전소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었잖아요. 전소된 후에 그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서 뭐 마을 주민들이 도와서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해준 겁니까?

중간에 선배들도 두 마을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전에 하귀1구, 2구라고 했는데. '하귀'자를 빼기 위해서 동귀, 귀일리라고 이렇게 리명 자체를 변경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하귀' 명의를 독차지하려고 한다면서 다시 싸움이 난 거야. 당시 내가 개발위원장<sup>6)</sup>이었는데, '안되겠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하귀1리, 하귀2리로 명의를 바꾸자'고 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저 하귀발전협의회가 우리 당시 이장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두 마을이 합쳐가지고.

1955년도에 3개 교실 석조 건물을 증축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하귀1리와 2리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출장소 있잖아요. 주변 마을에서 돈 모아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뒷처리를 못하니까, 귀일리에 다 뺏긴 거야. 권한을 다 쥐버린 거야. 알고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고 행정 처리를 못했다,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하귀초등학교 세워지고 나서는 어쨌거나 하귀1리, 2리 사람들이 다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거지요? 중학교는 2리에 두고.

응. 그러다가 여기가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서 학교가 생기니까 우리 마을에서 초등학교 이름을 뭐로 해야 되느냐 해서 하귀동초등학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중간에 당시 귀일리

6. 개발위원장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의 일상적인 대소사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성격의 개발위원회를 이끄는 직책이다. 마을총회나 개발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상북도는 이장이 겸임하도록 규정한 반면 전라북도는 이장과 역할을 분리하여 이장이 간사를 담당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구자인, 「(재단칼럼) 농촌 마을의 개발위원회 제도를 생각하다」, 2022.(<https://krdf.or.kr>)) 개발위원회는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격의 조직으로, 부회장·총무 등 임원진과 감사, 청년회·노인회·부녀회 등 연령조직 및 자생단체 대표, 영농회·어촌계·목장계 등 경제공동체 대표, 각 자연마을 대표, 장학회·마을문고회 대표, 공동자원 개발 법인 등을 포괄하여 마을회 산하에서 일상적인 마을 대소사를 논의·결정하는 핵심 협의기구이다(월간 주민자치(<http://www.citizenautonomy.co.kr>)).

이장이 진정서를 내서 교육청에서도 옥신각신. 감정만 자극한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추천한 명의를 번복시킨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학교명이 하귀일초등학교가 된 거지.

귀일중학교는 하귀2리인데 굳이 귀일중학교라고 썼네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이 동네 사람들이 하귀초등학교 학생도 외도초등학교로 보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정 대립으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희생했지.

아, 예전에 그런 과거가 있었었네요.

예. 지금도 1리와 2리가 감정이 조금.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좀 그럴 거예요.

하귀초등학교 설립 당시에 동네에서 부지를 기부하거나 성금을 희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학교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함바까지 있어서 자갈 깔아서 공부했거든. 당시에 강시욱 선생이라고 우리 담임이 있었는데, 교육자가 그 정도는 돼야 해. 그 분은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학생들이 배우고 싶으면, 다 집에 올라 이거야. 집에 가서 마당에 명석을 깔고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또 학교 나가고. 그러니까 그 선생은 방학이고 뭐고 없어. 배우는 학생만 있으면 언제든 받아들였으니까. 그 선생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그분은 어디 분이십니까?

귀일리 사람. 하귀2리. 초등학교에서 선생했고, 귀일중학교 와서 또 선생하고. 시청에도 근무했을 거라.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줬죠. 요즘은 자기 혼자 일찍 출세하려고 힘쓰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옛날 선생님들이 참 많은 노력들을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일교포 공덕비 같은 것들도 보이던데 저거는 언제 언제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까? 6, 70년대인가요?

예. 김대홍 씨도 있을 거고. 이정렬 할머니.

## 1928년 진흥서당 부지 기증 배경

- 예. 이정렬 할머니는 1928년에 처음 교육 시설 부지를 기증하신 분이시죠.** 우리 할아버지 누님인데.
- 아, 고모할머니십니까? 여기 보면 이정렬 여사가 1928년에 토지를 기증해서 개량서당 교사를 신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이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당시 향장<sup>7)</sup>이었어요. 일제강점기 구장, 할아버지 성함이 이규성이었는데. 하귀 1구장 하셨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여자분이 토지 기증을 하시게 된 겁니까?**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아들을 들였거든. 근데 이 할머니가 생활력이 강해서 땅도 사고 돈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거지. 뭐 하나 표시를 해나라.
- 할아버지들이 여동생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로 가까운데 살았거든. 우리 동네도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기도 하고.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오형제 모두가 다 부자 노릇을 지금까지 했어요.
- 그럼, 할아버지 형제분은 삼형제시고 고모 할머니는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많았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본처 말고 첩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두 어머니의 자식들이 한 어머니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화목했거든.
- 네. 그럼, 누가 양자로 간 겁니까?** 양 씨 집에서. 양을봉이라고. 남원에서 살았어요. 나도 4·3사건 전에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와서 여기 있다가 일본 순경도 찾아오고 해서 (피하느라) 우리 아버지는 제주도 세 바퀴를 돌았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7. 향장(鄕長)은 1896년 광무개혁기에 지방자치기구의 장으로 설치된 직책으로, 조선시대 향약의 좌수와 같은 역할을 하며 군수를 보좌하고 군민을 총 대표하여 관민 간 일체 공무를 승접하는 지위였다(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 역사 여행』, 2019, 54~59쪽). 제주지역의 경우 토지조사사업(1910-1918) 이전의 마을 조직이 향장, 경민장(警民長), 존위(尊位), 농감(農監), 기찰(讞察), 동장(洞將), 임(任)의 체계를 갖춘 소위 향회(鄕會)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이장 중심의 근대행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다(정선영,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2쪽). 당시 향장은 마을의 최고 연장자나 덕망 있는 인물을 추대하여 마을 공동체의 권위적 대표자로 세우는 전통적인 자치조직의 장이었으며, 과도기적 조직인 '향장(鄕長)-이장(里長)-반장(班長)'의 조직체계가 성립되기 이전 구공동체조직의 수장으로서 포제를 비롯한 마을 공동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문무병, 『포제』,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하니 제일 어두운 곳이 남원이라, 거기서 정착해서 포목상도 하고……. 옛날에 일제강점기에는 모두 배급제거든. 그러다가 4·3사건 나니까 그게 다 잣덩어리가 돼버리고.

*그럼, 언제 하귀로 오신 거세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큰아들 이니까 집을 맡으라고 하니 돌아온 거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6·25가 터졌어.

*예.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그럼, 아버지는 일본에는 언제 가셨던 겁니까?*

일본 가서 얼마 안 살고 왔어.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보내라고 했는데 돈을 안 보낸 거야. 공장들은 모두 예약을 해놨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화가 나서 술만 먹다 보니 병이 난 거야.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귀로 돌아오시고 나서 결혼도 하시고*

야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걸려서 도피를 한 거지.

## 공헌자 이정렬의 삶과 묘비명 변경

---

*네. 그 이정렬 고모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자를 들이고나서 돌아가시고. 양을봉의 아들 양시우. 거기 도 죽고, 이제 양창범이라고 용담 살아요. 할머니의 증손자지. 근데 거기도 엇그저께 죽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정렬 여사가 기증했다고 했는데 보통은 남편이 양 씨니까 그러면 보통은 남편이 기증했다고, 남자 이름으로 넣는데 어떻게 할머니 이름으로 넣었습니까?*

고모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양 씨 집 내용을 안 쓰고 이정렬 할머니가 기증한 걸로만 되었었는데, 나중에 양 씨 집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네 집안과 관련이 없다면서 항의해서 비명도 바뀌었어요. 양 씨 누구의 마누라로.

그러니까 남편, 시댁 쪽에서 항의를 하신 거네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느냐고. 그럼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는 얼마나 일찍 돌아가신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도 없으니까 혼자서 억척스럽게 재산을 일군 거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세 배가면 연실을 사라고 돈을 줬거든.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가면 돈을 받아본 조카가 하나도 없었대.

네. 돈은 억척같이 벌었으면서도 풀지도 않으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지를 내놓으셨을까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형제간에 서로 의가 좋았어요.

네. 하긴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겠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오빠들이 ‘너 혼자이고 하니 이거 땅이라도 기부해서 흔적을 남겨라’ 했다는데, 그럼 양자를 들인 후에 (기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하신 거세요?

살아 있을 적에. 양자 들인 후에. 여기 집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기증한 거지.

여기 보면 1928년도에 기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8년도에 마을 청년회장 고훈두, 마을 청년회에서 교사를 건축하여 개량사숙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이때 땅을 내놓으신 게 이정렬 할머니이신거죠? 그렇게 약척같이 버셨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돈을 안 쓰셨을 거 아닙니까?

증손자가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도 친척들이 ‘할머니가 번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못 쓴다’ 한 거야.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번 거니까 너 마음대로 못 쓴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이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산을 지켜준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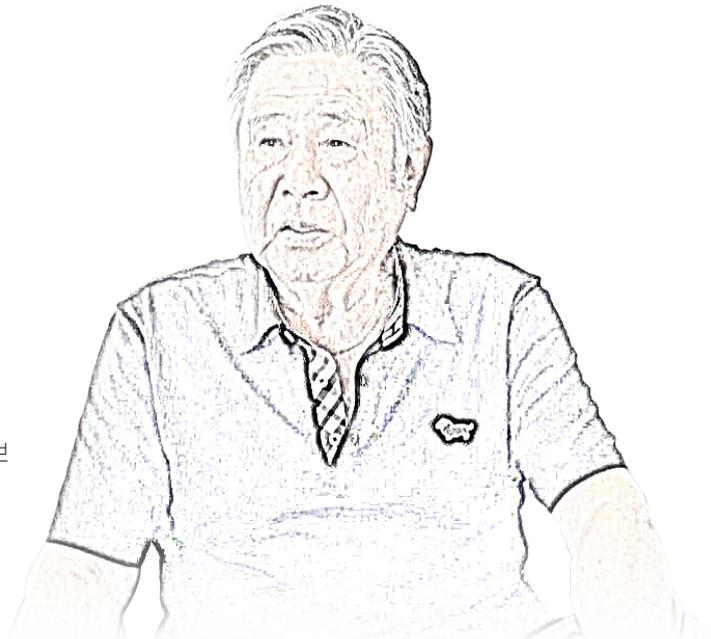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모두 역사인 거지요. 감사합니다.

# 11

## 진중팔

납읍초등학교

진창보



### 공헌자 진중팔 1915년생, 개명 전 진희빈

진중팔은 1915년에 애월읍 납읍리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0대에 결혼하고 딸을 낳았지만,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가족을 꾸려 1남 3녀를 낳았다. 일본에서 개명하여 진중팔로 살았고,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 ‘협립변관주식회사’를 세워 크게 성공했다. 1946년, 납읍리에서 학교를 설립할 당시 2만원을 기부했다. 또 납읍리에 처음으로 감귤 묘목을 보냈는데, 덕분에 주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되었다. 10년 동안 매년 2천 본을 보내 총 2만 본의 농장을 구상했지만, 묘목을 보내기 시작한 4년 차인 1967년 타계하셔서 계획은 중단되었다. 작고했을 당시 마을에서 추도식이 개최되었다.

### 제보자 진창보 1945년생, 진중팔의 조카

진창보는 진중팔의 4형제 중 셋째의 아들로, 진중팔의 조카다. 진창보의 아버지는 3형제가 일본으로 이주했을 때, 유일하게 제주에 남았다. 하지만 진창보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찍 작고했고, 이후 10대 후반에야 제주에 방문한 큰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큰아버지였던 진중팔이 작고한 후 4촌 형제들과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진중팔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큰아버지, 백부이십니다.

아버님 형제분은 몇 분이십니까?

아버지 형제가 4형제, 4남 1녀입니다. 아버지는 셋째입니다.

그럼 일본에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위로 둘하고 막내. 그러니까 큰아버지, 셋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갔습니다.

세 분이 일본에 가셨다면 처음에 큰아버지  
가 먼저 가셨습니까?

예. 연령으로 봐서 아마 결혼했을 때쯤입니다.

큰아버지 연세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죽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살아 계시면 백 열넷  
이나 다섯 살쯤일 겁니다.

그럼 큰아버지가 일본에 가신 건 해방 전  
이겠네요.

예. 일제 때 갔습니다.

몇 살쯤 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열대여섯 살쯤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은 여기서 하고서 얼마  
살지 않고 갔습니다.

아버지만 일본에 안 가시고 다른 세 분은  
일본을 가셨다는 거네요. 일본 어디로 가  
셨습니까?

동경으로 갔습니다.

동경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뇨,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사람들이 많이들 가니  
까. 돈 벌러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갔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까 그 사진에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 ‘협립변관주식회사  
(協立弁管株式会社)’. 나는 어려서 잘 모르고 무슨 플라스  
틱 파이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던데.

그럼, 가서서 플라스틱 공장을 하셨고, 결  
혼은 여기서 하셨으면…….

결혼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여기서는 안 살고. 일본 가서  
다시 결혼해서 1남 3녀를 낳았어요. 남자 동생 돌아가시고

나서는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4촌 남동생도 돌아가시고 해서 연락이 끊어지셨군요.

예,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럼 큰아버지 동생분들도 큰아버지 회사에 계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셋아버지는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연락도 안 되고,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가 조총련에 뭔가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네. 큰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한국분하고 하셨습니까?

예. 낚음 사람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고향에 자주 왕래하셨네요. 혹시 여기 별초할 때나 이럴 때 오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두 번 정도 왔었습니다. 6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 일제강점기 기록으로 잇는 가족사

\* 주요 관련 자료는 다음 장에 수록함

여기 이거는 통지표인데 소화 18년도.

네, 통신부(通信簿)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애월공립국민학교, 제5학년 보호자....., 누구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자는 진승윤인데요.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육지에 다니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증조할아버지가 호주가 되니까.

이거는 소화 14년도. 그러면 1939년도  
입니다.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다 보관하  
고 계시네요, 안 버리시고. 소중한 기록인  
데. 그런데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  
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통지표인데 우리 큰아버지 중팔이 이름 같아  
요. (상장을 가리키며) 요건 우리 셋아버지. 이걸 소화 5년에  
나온 건데.

이거는 사령(辭令)<sup>8)</sup> 풍전용문(豊田隆文,  
토요타 타카후미 추정] 제3학년 제5학급,  
소화 16년 4월 4일, 애월공립국민학교,  
진희수?

그건 우리 셋아버지.

셋아버지 진희수가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상장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 큰아버지. 이름을 중간에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찾기가 힘들었구나. 진희빈이  
있습니까? 소화 3년.

어릴 때 이름이 희빈이었고 일본 가서 나중에 이름을 중팔  
로 바꿨습니다.

소화 3년이면 1928년인데, 그때는 아직  
일본을 안 가셨다는 거네요. 진희관은 누  
구세요?

그건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진희빈(후에 진중팔로 개  
명), 셋아버지 진희수, 작은아버지 진희관. 우리 아버지는 공  
부를 나처럼 못했어.

이건 소화 17년. 1942년도. 풍전용문(豊  
田隆文, 토요타 타카후미 추정].

이거 풍전은 당시에 일본식 (창씨개명)으로 하라고 해서.

8. 사령(辭令)은 じれい[지레이]로 일제강점기 학교에서 급장(級長) 등 임원에게 주는 임명장이다.

## 학교 및 마을에의 공헌

*그러셨구나. 그럼, 그때, 이것이 1946년도 당시 기부자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은 안 오긴 했지만, 올 때마다 마을에……, 옛날에는 비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이렌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도 일본에서 가져오시고.

*학교에 가져오신 겁니까?*

학교에 줬는지, 마을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 마을에 뒀다가 쓰고 학교에서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납읍초등학교 개교가 46년도인데, 그러면 해방 전에 가신 건 분명하네요.*

맞아요. 해방되기 훨씬 전에 갔습니다.

*해방 전에 (일본) 가서서 사업도 성공하셨고, 그래서 마을에서 학교 만든대니까, 여기 (납읍리)에 부인과 따님도 계시고 해서…….*

부인은 생각도 안 하고.

*67년도면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마을에서 추도식까지 할 정도면 마을에 다른 기여를 크게 하셨습니까?*

예. 감귤나무를 보내왔습니다. 1년에 2천 본씩 보내줬습니다. 10년 동안 해마다 2천 본씩 보내준다고 했는데, 세 번 보냈는데, 한 번은 여기 세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반쯤시켜 버리고. 두 번째 보낸 건 여기 마을에 들어와서 심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0년 동안 총 2만 본을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돌아가서 버리니까 못 보낸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귤나무가 많이 들어왔죠.*

납읍 사람들에게 이름만 올려서 동참 해주면 묘목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참해달라고 한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관 문제가 있어서, 납읍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기부받으면 세관 통과가 수월하니까 처음에만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큰아버지가 묘목값을 모두 부담해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해야 세관 통과

가 수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묘목을 보내면, 열 본 보내면 다섯 본은 돈 낸 사람이 갖고, 다섯 본은 마을 공동으로 해서 돈을 안 낸 사람도 한 본씩이라도 심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기부받으려고 한 사람씩 찾아다녔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아버님이 고향에 혼자 계셨으니까, 아버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셨겠네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대여섯 살 때쯤 돌아가셔서버려서 모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큰아버지는 제가 열일곱 여덟쯤에야 제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46년도에 인가받는데, 교사 건축을 위해서 재일동포들이 희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납읍에서도 일본에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77명의 명단이 공덕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안 가도 어느 정도는 가셨을 겁니다.

## 공헌자 진중팔 작고 후 고향과의 단절

*학교 설립 관련해서 김순현 선생님이 대략적인 말씀은 해주셨고, 그중에 진중팔 씨 조카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는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분을 찾아서 당사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큰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내가 1945년생이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큰아버지가 196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느 정도 왕래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는 일본과 전화도 안 되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1965년 이전에는. 그러시면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업은 아드님이 물려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사위도 있고, 동서가 같이 근무했던 모양입니다.

아드님에게로 안 가고 동서에게로 간 겁니까?

아들은 어리고, 딸은 여기서 낳은 딸인데, 나중에 일본에 가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친어머니도 아니고…….

큰아버지가 학교 설립에 기부도 하시고 또 납읍에 감귤 묘목을 처음 보내오시고 고향에 많은 일을 하셨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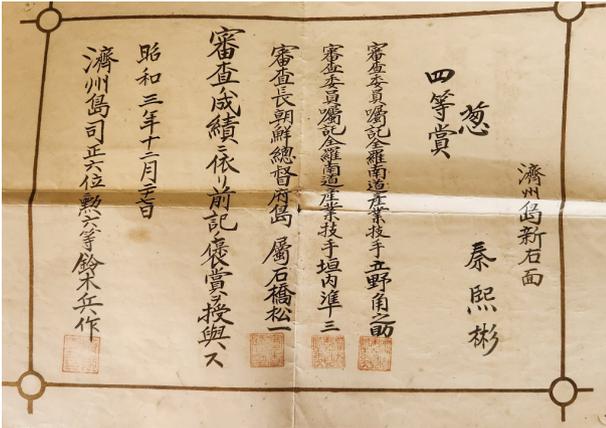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감귤 묘목도 계속 더 보내주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했을지도 모를 건데…….

네,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창보 소장 자료 목록

유형	시기	내용	비고
상장	소화 3년 (1928)	진희빈(秦熙彬)이 당시 제주도사 스키 헤이 사쿠[鈴木兵作, 1928.7.21.~1929.12.7.]로부터 수여 받은 상장	다음의 탈초 및 역문 참고
	소화 5년 (1930)	진희수(秦熙洙, 1학년)가 신우공립보통학교에서 수여받은 상장	賞狀 第壹學年 秦熙洙 右者品行方正學術優等二付 賞品ヲ授與シ茲ニ之ヲ表彰ス 昭和五年三月三十日 新右公立普通學校  상장 제1학년 진희수(秦熙洙)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등하므로 상품을 수여하고 이에 이를 표창함 소화 5년(1930) 3월 30일 신우공립보통학교
통지표 (통지부)	소화 14년 (1939)	진희관(秦熙官, 1학년)이 전라남도 제주도 애월 공립심상소학교에 재학 시절에 맡은 통지표	보호자는 진승윤(秦承允)으로 기록되어 있음.
	소화 18년 (1943)	풍전용문(豊田隆文, 5학년)이 애월공립국민학교에 재학 시절에 맡은 통지표임. - 학교장: 산중정치[山中貞治, 야마나카 사다하루 추정] - 담임: 삼신산존지[三神山尊之, 미카미야마 타카유키]	통신표 기록을 통해 당시 풍전용문[豊田隆文]이라는 인물은 진희관과 동일인으로 추정됨.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창씨개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희관 또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보임.
사령	소화 16년 (1941)	풍전용문(豊田隆文, 진희관 추정, 3학년)이 애월공립국민학교에 재학 시절에 받은 임명장임.	辞令 第三學年 第五學級 豊田隆文 □□□書ノ級長ヲ命ス 昭和十六年四月四日 涯月公立國民學校  임명장 제3학년 제5학급 풍전용문[豊田隆文] □□□ 위 사람을 급장(級長)으로 임명함 소화 16년(1941) 4월 4일 애월공립국민학교
기타	-	진희빈(秦熙彬) 관련 사진 모음 -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정우식(鄭雨湜, 재임 1966. 1. 29. ~ 1968. 2. 22.) 제주도지사 영접 사진 - 진희빈이 작고할 당시 장의·고별식 사진 등	총 14장

### 소화 3년(1928) 진희빈(秦熙彬)이 당시 제주도사 스즈키 헤이사쿠(鈴木兵作)로부터 수여 받은 상장



濟州島新右面

葱 秦熙彬

四等常

審査委員 囑託 全羅南道産業技手 立野角之助 [印]

審査委員 囑託 全羅南道産業技手 垣内準三 [印]

審査長 朝鮮總督府島 屬石橋松一 [印]

審査成績ニ依リ前記褒賞ヲ授與ス

昭和三年十二月二十七日

濟州島司正六位勳六等 鈴木兵作 [印]

총 4등상

제주도 신우면(新右面)

진희빈(秦熙彬)

심사위원 촉탁 전라남도 산업기수 타테노 카쿠노스케[立野角之助]<sup>9)</sup> [인]

심사위원 촉탁 전라남도 산업기수 카키우치 준조[垣内準三]<sup>10)</sup> [인]

심사장 조선총독부 도속(島屬) 이시바시 마츠이치[石橋松一]<sup>11)</sup> [인]

심사 성적에 의거하여 위 포상을 수여함

소화 3년(1928년) 12월 27일

제주도사(濟州島司) 정6위 훈6등 스즈키 헤이사쿠(鈴木兵作) [인]

9. 타테노 카쿠노스케[立野角之助]는 조선총독부 직원록(1928)에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그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관 중 지방관서(전라남도/부군도(府郡島)/제주도)에 소속된 직원이었으며, 관직은 기수(技手), 관등은 월(月) 2등, 직무는 산업기수로 기재되어 있다.

10. 카키우치 준조[垣内準三]는 조선총독부 직원록(1931)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그는 지방관서(전라남도/공립제학교(公立諸學校)/제주도통학교) 소속으로, 관직은 촉탁강사(囑託講師), 관등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월 수당 10원이었다.

11. 이시바시 마츠이치[石橋松一]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직원록(1928)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진희빈이 상장을 받던 소화 3년(1928) 당시 이시바시 마츠이치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관 중 지방관서(전라남도/부군도(府郡島)/제주도)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그의 관직은 속(屬), 관등은 5등, 공훈은 중7위 훈 5등이며, 서무계 주임을 맡고 있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한편 『조선총독부 관보』(제4116호, 1926. 5. 11. 발행)에는 “다이쇼 15년(1926) 4월 17일자로 제주도사(濟州島司) 마에다 전지[前田善次]를 제주도농회장에, 제주도속(濟州島屬) 이시바시 마츠이치[石橋松一]를 동(同) 부회장에 임명 하였다(大正15年4月17日附ヲ以テ濟州島司前田善次ヲ濟州島農會長ニ濟州島屬石橋松一ヲ同副會長ニ任命シタリ)”라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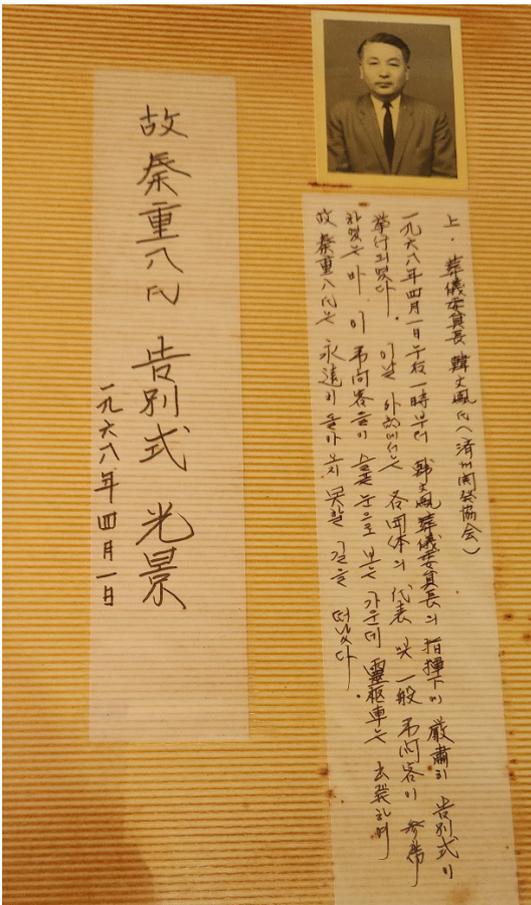
진희빈(秦熙彬) 관련 사진 자료



정우식(鄭雨湜, 재임 1966. 1. 29.~1968. 2. 22.) 제주도지사 영접차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의 진중팔 씨(중앙 좌측, 안경 쓴분)



협립변관주식회사 사장  
고(故) 진중팔전 장의·고별식장  
(協立弁管株式会社 社葬  
故秦重八殿 葬儀・告別式々場)



좌측(세로)

故秦重八氏 告別式 光景  
一九六八年四月一日

우측 본문(사진 아래)

上. 葬儀委員長 韓文鳳氏(濟州開發協會)

一九六八年四月一日 午後一時부터 韓文鳳 葬儀委員長  
의 指揮下에 嚴肅히 告別式이 舉行되었다. 이날 外部에  
서는 各 團體의 代表 및 一般 弔問客이 참석하였는바, 이  
조문객들이 슬픈 눈으로 보는 가운데 靈柩車는 去□하며  
故 秦重八氏를 永遠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 12

## 최신백

저청초등학교



최순화



### 공헌자 최신백 1911년생으로 추정

최신백은 1969년 저청국민학교에 부지 500평을 기부하여 학교 증축에 공헌했다. 최신백은 14살에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가나가와현 요코쓰카시 구리하마에서 '대화건설공업'이라는 사업을 일구고 크게 성공했다. 타계하신 후에 사업은 아들에게 전승되었지만 현재는 사라졌다. 1950년, 한경면의 저지국민학교(1946년 설립)와 청수국민학교(1947년 설립)가 통합 복구되어 저청국민학교로 개교했다. 1969년, 최신백은 말년에 저청초등학교 교실 신축 등 학교 증축 과정에서 토지를 기부했다. 아내 두 명이 모두 한림읍 금능리 출신이었고, 고향 제주에 자주 왕래했다. 학교와 마을에 감귤 묘목을 보내고, 전기가설을 하는 등 마을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 제보자 최순화 1945년생, 최신백의 이복 동생

최순화는 한경면에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 최중용이 첫 번째 부인과 사별 후 재혼해서 낳은 외동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8살에 작고했고,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머니는 4·3 때 피해를 입어 팔이 불구가 된 채 살다가 작고했고, 최순화 또한 칼에 찔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산다. 홀어머니와 딸로 구성된 가족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때문에 먼 친척들과도 가깝게 지냈지만, 가문의 일에는 깊게 관계하지 못했다. 최순화에 따르면 최 씨 가문 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었고, 기록에 남아 있는 최병삼, 최원일 등 친척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를 기부하는 등 공헌을 많이 했지만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공헌자 최신백은 30여 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최순화의 이복 오빠였다.

## 공헌자 최신백의 생애

최신백이 오라버니 되십니까?

맞아요. 오라버니입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청초 관련하신 분들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동생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 전화번호도 잘 찾았네요.

그럼, 오라버니가 살아 계시면 몇 살쯤 되실 건가요? 혹시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글쎄, 신해생인데.<sup>12)</sup>

그럼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세요?

그 집 조카가 나와 동갑이에요. 백 살은 넘었어요. 아버지뻘이죠.

그러셨구나.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중용. 내가 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8살에 돌아가셨으면, 최신백 오빠와 나이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신백이 오빠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재혼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흔 넷에 나 하나 낳은 거예요.

어머니는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61세에. 내가 열여섯일 때.

형제분은 몇이십니까?

형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예요.

조카분은 몇이나 되십니까?

아들 넷. 딸 둘. 올케들은 모두 금능리 출신입니다.

두 분 계신데, 금능이세요?

큰 부인이 홍춘화, 작은 부인은 양춘화.

12. 신해년은 1911년이다.

네? 이름이 같으세요?

양춘화는 딸 하나, 최인자. 그 딸이 남아 있어. 그리고 작은 아들 이름이 뭐더라,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여기 보시면 최신백이 1969년 10월 23일에 기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일본에 몇 살에 가셨습니까?

열네 살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삼촌도 일본 가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내 나이 스물여덟에 갔었어요,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오빠가 조카 데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서 버리고, 조카도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가 살아 있는데, 전화도 끊어져 버리고.

그럼 부부가 같이 가셨어요?

아니, 따로 갔어요. 남편은 군대 가고.

얼마나 있다 오셨습니까?

나는 5일만 있다 왔어요. 남편은 군대 다녀와서 두 달 정도.

남편분은 가서 뭐 하셨습니까?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왜 더하지 않고요?

그때는 두 달 하면 기한이 되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놀러 왔다 갔다만 했어요. 나중에는 아주머니(올케) 돌아가시고 49재 할 때 우리 다녀왔어요.

아, 그러면 오라버니 묘도 일본에 있습니까? 여기로 안 오고.

거기 있어요. 오라버니는 절간에 비석 세웠어요. 기부를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게다가 성품도 좋으신 분 같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면 그 아드님이 자식들 데리고 이곳에 오기도 했습니까?

큰아들도 왔었고, 셋아들도 왔었습니다. 서울 구경 갔다가 여기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모두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들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는 열네 살에 혼자 일본으로 가셨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지게 혼자 갔어요.

정말 그렇네요. 열네 살이면 아마도 군대  
환 다니던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방  
전에 가신 거지요?

해방 전에 왔습니다.

일본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경으로 왔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내려간 구리하마라고,  
요코스카시 구리하마.

요코스카시 구리하마에 계셨습니까? 그  
럼 열네 살에 가셨는데, 살아 계시면 100  
세 이상 되십니까?

넘은 거 같아요.

그럼, 가서서 무엇을 하셨던 겁니까? 사업  
하셨습니까?

사업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건설공업 주식회사. '대화건설공업'이라고.

그러시면 당시 사업이 번창하셨나 봅니다.

잘 되었어요. 이름을 날렸어요.

그럼, 그 대화건설공업 주식회사를 돌아가  
실 때까지 쪽 하셨던 겁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큰아들이 맡아  
서 하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셋아들이 맡아서 했는데 역시  
돌아가시고. 그 후엔 작은 아들이 한 것 같아요.

장남에서 차남으로 이어졌네요. 손자로 가  
지 않고.

손자로는 안 갔어요. 아들로만 이어졌어요.

지금도 회사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 학교 부지 기부 및 굴나무 식재

---

오라버니가 1969년도에 기부를 했다고  
하니 나이가 꽤 드신 후에 하셨나 봅니다.

칠십이 넘어서 했습니다.<sup>13)</sup>

일본에 계셨는데 어떻게 기부를 하시게 됐  
습니까?

고향에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을에서 먼저 부탁을 드렸을까요?

마을에도 기부했습니다. 전기 가설할 때도. 비석도 세워져  
있어요. 마을에도 하고 학교에도 하고. 그러니까 비석이 학  
교와 마을 두 군데 있어요.

학교에 토지를 기부한 거는, 돈을 주니까 마  
음에서 학교 부지를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밭 사고. 옛날에, 50년 전에 굴나무도 오빠가 보내줬어요. 그  
래서 학교에 심었어요. 우리도 제일 처음 심었습니다.

학교에도 심었습니까?

학교 밭 산 곳에 심었습니다. 옛날엔 굴나무가 모두 일본에  
서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도 오고, 학교에도 보내와서 심었습니다.

## 또 다른 공헌자들 이야기

---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네요. 굴나무도  
보내주고, 학교 부지 사라고 기부도 하시  
고, 전기가설도 해주시고…….

옛날에 우리 밭이 어디냐 하면, 학교 근처에 밭이 있었는데  
공출되어서, 그 밭을 팔아서 우리 친척이 학교 지을 때 내놓  
았습니다.

---

13. 제보자는 앞에서 최신백이 신해년(1911년)생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계산하면 1969년에 최신백은 50대 후반의 나이였다.

네? 내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최병삼.

네, 최병삼 씨 여기 있습니다. 저지리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밭은 어머니와 내가 하던 건데. 당시 나는 어렸지만 알고 있어요. 그 밭을 팔아서 학교 지을 때 내놓았다는 거. 어머니와 나만 살고,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친척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우리 삼촌뻘이고, 당시에 구장을 했었습니다.

아, 네, 지금의 이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네요.

우리가 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그 밭을 팔아서 내놓은 거지. 최원일은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우리 친척인데.

1961년에 토지 천몇 평을 기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한 건 아니고 다 우리 밭이었어요. 모두 우리 친척.

아, 그러세요. 여기 나와 있는 최 씨 분들이 다 친척이시네요.

예. 다 여기 살아요. 모두 우리 삼촌뻘입니다. 그런데 우리 밭인데, 마음대로 했어요. 여기 근처 밭도 우리 밭인데, 지서 지을 때 내놓았어요. 3천 원에 팔았어요.

아니, 어떻게 친척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홀어머니이고, 나 하나고, 누가 뭐라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 옛날 같으면 공출한다고 해서 재산을 빼가도 뭐. 어머니가 6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 나이가 스무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하고 먼 친척이 어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오빠도 일본에 계시고.

처음엔 여기 오지도 않고, 그때는 뭐 소식이 깜깜이었어요. 전혀 소식을 못 들었어요. 병삼이 삼촌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오빠가 왔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도 여기 왕래하면서 묘들도 한 군데로 이장하고……. 친척 삼촌들은, 원일이 삼촌은 살아계셔서 올 때는 같이 밥 먹고 옛날에는 식당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살았어요.

여기요?

여기도 신백이 오빠가 산 땅이에요. 일본 가도 궤쪽에 옷이랑 많았어요. 저기 농협 앞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거기가 4·3 때 빨갱이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집부터 불 질러버리고 우리 어머니는 날 안아서 이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로 찢러서 팔이 불구가 된 채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는 그 폭도에 게 칼을 맞았어요, 5살에. 당시에는 약도 없고 해서 내 생각엔 민들레 잎을 따다가 상처 부위에 붙인 거 같아요.

오빠는 일본에 계실 때잖습니까?

그래서 어땠는지 상황을 몰라요. 내가 어릴 때 갔기 때문에. 내가 서른 넘어서 봤어. 올케가 처음 왔어요. 오빠는 그 후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랑 같이 다니면 아버지와 딸처럼 보였지.

4·3 때 다쳐서……,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냥 나 하나만 불쌍하게 살았지.

여기 땅을 기부하셨다는 분들도 모두 친척이시네요.

다 돌아가셨어요. 학교 골목에 새장 밭이라고 그게 큰 밭인데.

그러면 정확히 친척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최병삼이 우리 최 씨 친척이지. 4촌이나 5촌은 아니고. 최원일도 마찬가지. 먼 친척이어도 밭이 많은 사람은 당시에 돈을 냈지.

1956년에 기부하고 1961년에 기부했으니까, 아직 어릴 때네요.

한 열두 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아는 겁니다. 누가 얼마를 했다는 기록만 보서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글로 다 남아서. 그래서 비석이 있으니까, 비석에 보면 몇 년도에 했는지 나와 있지. 땅도 그런데 돈을 내놓아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예, 잘 모릅니다. 60년대 이야기다 보니까. 혹시 강찬우라는 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분도 제일교포인데 저지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대판에 계십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많이 부자였지.

이분도 같은 해에 기부를 하셨는데 혹시 친척이라도 계신가요?

여기는 아무도 없고 모두 일본에 있어요. 저지 사람 중에는 강찬우, 김태문, 최신백이 제일 부자였어요.

마을에 뭔가 기부를 하셨습니까?

최신백이 선도해서 했지. 오라버니가 좀 썼지.

직접 와서 삼촌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아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뭘 했다고만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들  
 

## II. 설립의 기억: 학교가 세워지던 날의 기억

1. 김석만 | 하도초등학교

# 01

## 김석만

하도초등학교



### 공헌자·제보자 김석만 1927년생

김석만은 1927년 구좌읍 하도리에서 태어났다. 1943년 사립하도학교 20회 졸업생이다. 졸업앨범, 보습과 졸업 명단 등 하도학교 관련 자료를 귀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내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이었던 제주공립농업학교를 다녔다. 농업 학교를 다니던 중 해방이 되었고 3년제가 6년제로 전환되었는데, 결국 4년 차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초등교원양성소에서 1년을 더 공부한 뒤 국민학교 교사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이후 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교감·교장 선생님 생활을 30년 넘게 했다. 하도초등학교 세종대왕 동상 건립 당시 기부에 동참했다. 학창시절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모두 경험했고, 이후 교육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일제강점기 학교 생활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 일제강점기 하도학교 생활

어르신은 몇 년생입니까?

1927년생, 호적은 28년생.

1927년도 몇 월에?

8월 22일.

8월 22일. 초등학교 갔을 때는 36년, 그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부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1943년 20회 졸업식?

이거 봐요, 하도학교 보습과 졸업 명단이요.

보습과 졸업 명단?

이건 졸업 대장이요.

졸업 대장, 옛날 졸업 대장은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이거 박물관에 가야 될 기록입니다.

나 눈이 어두워서, 이거 나 명단이어. 요거 가네무라 사쿠만.



김촌석만(金村錫萬, 가네무라 사쿠만)  
1943년도 제20회 하도학교 졸업기념 사진첩  
(김석만 소장)

그때 일본어 이름으로 했습니까?

일본성으로 했잖아요.

이걸 가네무라, 가네무라로 읽습니까?

가네무라.

가네무라, 그러면 그때 일본어로 배웠습니까?

응, 일본어로.

일본어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일본어로 수업하고. 제20회 졸업, 쇼와 18년 3월 25일 3월에 졸업했습니까? 일본식으로요.

응.

그때 일본어를 많이 배웠습니까?

일본말만.

학교에서 일본말만 사용했습니까?

전부. 한국말 쓰면 벌금 냈어. 학생들이 벌금 냈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됐어요.

일본말로?

완전히 일본 사람.

이 가네무라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가네무라로 지은 겁니까?

그때 일본에서 '개명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리니까, 각 가문마다 성을 바꿨단 말이야.

성을 바꾸는데 그냥 김 자에다가 무슨 이름 하나를 더……, '촌' 자를 붙였는데?

같이 한 게 지금 이름 짓듯이 나름대로 다 만든 거라.

이름 짓듯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촌' 자를 붙이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친척 중에서도 좀 나은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줬어.

학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보통 그때 70명 정도.

학생 수 많았네요. 하도에서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가을 운동회? 성대하게 했네요. 이거 일제강점기때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도 학교 가을 운동회가 유명했어요. 악대부가 있어서요. 이 일대 다 구경 왔어요.

이 사진들을 다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 졸업 사진이야. 그 당시 이렇게 졸업 사진을 만든 학교가 없었어요. 왜정 말기에. 이것이 한 90년 전에 만든 졸업 사진이야. 부영(富永) 교장 때 우리가 졸업했어요. 1943년 제20회.

부영 교장 선생님.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신  
가 학생인가요?

이거 구좌면장 전인홍이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인가 설립자  
가 몇 명이었어.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와시마.

이거는?

도미나가.

도미나가……?

교장.

이게 원래는?

부가.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했네요.

응, 우리 선생이여.

그때 여자애들도 있었네요.

5명 있었어. 여유가 있었던 애들.

편집위원장?

이거 내가 만든 책이요.

당시에 편집위원장 하셨구나. 이거 몇 년  
도에 나왔습니까?

내가 만든 책.

이거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막 젊으실 때  
구나.

가만히 있어 봐요. 자, 읽어 봐요.

19년에 개성의숙을 개설하고…….

그런데 내가 참고로 말하겠는데, 해방 후에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설립에 대한 문서가 다 소실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경영에 의해서 각주가 좀 달라요. 문서가 없어졌어요.

문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교장이라.

교장이예요?

이거 사립학교 당시.

강공철, 최계순, 부영 세화리 출신이고 강공철 이분은?

이분이 사립학교 당시 교장이여.

강공철 이분은 하도 사람입니까?

하도요. 구좌면장이여.

구좌면장?

구좌면장하고 학교장이었어.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나중에 공립학교로 되었나요?

역대 교장이여.

이분은 일본인이네요. 한때 일본인이 교장이었습니까?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개편되면서 일본 사람이 왔단 말이여. 이 사람은 세화국민학교 교장 겸직 했어요. 세화교장 겸 하도교장 겸.

겸직을 했어요?

오쿠가와 슈케이라고.

오쿠가와 슈케이.

이거 봐요, 이거 하도국민학교 설립에 대해 다 올라있어요.

이거는 정말 일제강점기네요. 이거 뭐지요? 봉안전에 이거 뭍니까?

이거 뭐고?

이거 천황, 저기 신사 참배?

학교에 일본 (천황) 명령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예.

학교마다 봉안전에……, 먼저 싹, 여기에 모셨어요.

그거 하도학교에 만들었나요?

응. 학생들은 등교 때, 하교 때 꼭 90도 경례했단 말이여.

이거 하도학교에 만들었어요?

하도학교지. 봉안이 일본 천황 명령서가 여기 보관돼 있던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 시, 하교 시 90도 경례했어요.

하도학교 그 부지에 있었던 겁니까?

하도 교사 북쪽에. 하도학교 교사 옆에 있었어요. 학교마다 있었어요.

하도학교 내 봉안소(奉安所)



하도학교 사무실 전경  
1943년도 제20회 하도학교 졸업기념 사진첩  
(김석만 소장)



이거 언제 없었습니다니까?

해방 후에 없어졌주.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불태워버렸지.

그러면 어르신도 참배 했었습니다니까?

아, 그럼, 그렇지.

가서?

아침에 올 때, 갈 때, 퇴교할 때 90도 경례했어요.

학생들 전부 다 그렇게?

그리고 학교에도 매일 아침 조회 때 '동방예배'라고 해서 동쪽 향해서 90도 경례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90도 경례했어요.

90도로. 그 당시에 언제 설치된 거 알겠습  
니까?

우리가 한 3학년 때쯤.

3학년 정도에. 그러면 지금 어른신이 27  
년생이니까.

내가 3학년 때쯤 설립됐을 거야. 내가 43년도에 졸업했으니  
까 40년대 초반에 39년대 말쯤에 설립했어요.

아침에 가서 모든 학생이 절 안 하면 안 됐  
습니까? 두 번을 한다는 거네요.

등교 시 학교 올 적에 학교에 들어갈 때 꼭 한단 말이야.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는 뭘니까?

이 밑에 모이라고 해서.

1930년대 이후 학교 전경 아침 행사로서  
전교생이 아침 체조.

이거 봐 이거.

이거는 일제 수업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업 장면 아닌가?

예, 수업 장면.

6학년 때 수업. 가네오카 선생이라고.

그다음에 43년 졸업 사진이네요. 이거 어  
르신 졸업 사진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20회니까요.

이거 봐, 이건 무엇인고?

일제의 전시 훈련의 한 방편으로 고학년  
생도들에게 검도, 유도?

응.

이거 유도 장면?

그때 하도학교가 제주도에서 유명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여기 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나요?

중등학교 입학률이 높았어. 그때 하도마을이 제주도에서 사  
립학교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학교란 말이야. 그때 하도리 사  
람들이 한 8, 90톤 되는 화물선을 많이 운영했어요. 청진 가  
서 오징어를 운반했다는 거여.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학교에

하도학교의 검도 수업 장면  
1943년도 제20회 하도학교 졸업기념 사진첩  
(김석만 소장)



하도학교의 유도 수업 장면  
1943년도 제20회 하도학교 졸업기념 사진첩  
(김석만 소장)



많이 희사했던 말이야. 그때도 하도 학교는 교실 이외에 비품  
들이 있었어요. 고학년 학생에게 검도를 실시했어요. 유도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악대부가 있었어요.

*악대부원?*

내가 악대부원이었어요. 여기, 나 이름 찾아봐.

*어디지? 여기 있는 건 선생님들 같고.*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악대부가 있었던 말이야. 그래서 제주  
도 내 학교마다 운동회 때는 초청을 해요. 나 팔 붙어달라고.

그러면 이 악기들은 다 일본에서 가져온 겁니까?

가져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 온 거야.

그당시에 학생 수도 많았습니까?

학생 수? 학생 수도 많아. 그때 하도학교 학생 수가 종달리, 하도, 상도, 세화, 평대, 하도가 다 여기 다녔어.

한꺼번에?

나도, 우리 동생도. 종달리도 있고, 세화 있고, 평대 있고, 연평도 일부……, 다 있어요. 그 당시 이 근방에서 유일하게.

연평은 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도 초등학교가 일찍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전부 이쪽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많고, 그때 어떻게 해서 하도학교는 빨리 생기게 된 겁니까? 아까 그 절부 오 씨가 그 여성분들이 기금을 마련해 주셨나요?

이것이 사립학교 당시.

원래는 의숙에서 시작했잖아요. 하도 개성 의숙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 19년에 개성의숙이 생겼고, 1921년에 하도 보통학교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그렇지.

이것이 보습과 증설이 되고, 일제시대는 심상초등학교로 바뀌었고. 44년에 공립으로, 하도 공립국민학교로. 그리고 4·3 때 학교가 다 타버려서, 교실 8개 중에서 6개가 소실돼 버렸고, 52년에 소실된 학교를 복구 했네요.

응.

복구를 해서, 50년에 하도국민학교로 학교명을 바꿔서 지금까지 온 거네요.

## 하도학교 공헌자들

1921년부터 23년에 오재부라는 분이 250원을 기부를 하셨고, 부과효 이분이 310원을 했었고, 홍계춘 이분도 금전으로 기부한 것 같은데요.

하도학교 설립에 아주 노력하신 분인가?

예.

강공철, 고영근 요건 지은 사람이고. 여기 보면 학교 설립에 공헌한 사람 다 올라있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분 중에 지금 살아 계신 분은?

살아 계신 분이 많지.

여기예요?

응, 최근에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한 분도 있고.

옛날에 하신 분들. 여기 혹시 살아 계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이 절부 오 씨하고, 절 부부 씨의 후손?

이건 학교 설립 당시 희사한 분들이고.

희사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이게 절부 오 씨, 부 씨, 홍 씨?

그 당시 학교 설립에 납부해야 할 설립 기금이 만원이었어.

만원?

그 당시에 만원이면 큰돈이란 말이야, 이분들이 소위 지금…….

이분들이 설립?

과부 됐어. 과부.

과부들입니까? 남자 이름들 있는데요?

남자 있고, 여기 여자란 말이야, 여자.

절부 오 씨, 절부 부 씨, 절부 홍 씨 이분들이?

이분들이 설립 기금을 내봤어요. 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부항기, 김기일, 김두윤, 부문규, 부기안, 김두준, 부팽규, 김원일, 강기후, 임명천. 여기에 혹시 자제분 되는 분이 하도리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고말고.

누구 자손이 있는지요?

여기 있고말고.

부항기?

부항기 손자가 살아 있고. 김기일 손자도 살아 있고, 김두윤 손자도 살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손자들, 부문규, 부기안, 김두준, 부팽규?

응, 다 있어.

김원일?

다 있어. 이거 김원일이 김두준 씨 아버지야.

누구라구요?

김두준 옛날 도 의장 지낸 김두준. 이 강기후, 연평 사람이야.

연평이라구요?

우도, 우도.

우도예요?

그때 우도에도 학교가 있었는데 4년제였어요. 그러니까 4년 졸업해서 하도학교와서 공부했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부를 한 거야.

그러면 우도에서는 4년만 공부하고, 여기 와서 2년을 더 다닌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기부한 것이지.

그래서 학교에 기부하신 거예요? 자식이 이제 우도초에서 하도초로 오니까요?

응.

4년 마치고, 하도에 와서 2년.

임명천 손자가 부산이에요.

임명천?

임명천. 부산에 다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지금 살아 계신 분이 있을까요?

본인이?

본인이 살아 계신 분?

여기 살아있는 분들 많지.

누구?

양형옥이 일본에 있고.

양형옥 일본. 일본 어디에 있는 건 알겠습니까?

몰라. 조원기도 죽고. 부승일, 부승배도 살아있고.

부승배는 살아 계십니까?

부승배가 일본에 있는가?

일본예요?

이거 잘 몰라. 이거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거 봐봐 이거 다 이렇게 학교에 기부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 공헌자 김석만의 생애

---

여기 김석만 어른신도 있는데요, 세종대왕 동상 건립할 때.

나도 있단 말이야. 나도 기부했단 말이야.

그때 학교가 어떤 식, 처음에 학교가 불타 버린 겁니까?

하도학교가 두 번 불에 탔어요. 나 교장 때 탔어요. 내가 서른여덟에 교장 됐어요.

38세에.

38세에 교장 됐어요. 교직 경력 43년이요, 교장이 30년.

교장이 30년, 그러면 처음에 어디 학교로 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도국민학교.

하도국민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하도 학교 두 번. 세화 학교 두 번. 종달에서 두 번. 그다음에 송당 한 번.

송당까지 갔다 왔습니까?

한동. 그다음에 교육청 장학사.

장학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감은 언제 됐습니까?

나 평교사 6년밖에 안 했어요.

평교사 6년.

나 언제인지 연도를 몰라요.

평교사 6년 하고, 그다음에 교감, 교장을 30년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디 학교에서 마지막 교장님을 하셨습니까?

세화리.

세화리에서?

세화리 두 번에 10년간 했어요.

세화초등학교에서?

10년간 했어요.

10년 교장?

세화학교에서 정년 퇴임했어요.

그렇게 정년 퇴임하셨고. 학교는 하도초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왜정 때 농업학교 갔어요.

## 일제강점기때 중등교육은 농업학교뿐

---

농업학교. 농업학교는 저 제주 시내에 있는 농업학교를 말하세요?

저 광양에 있는 농업학교. 왜정 때 제주도에는 중등학교 농업학교 하나뿐이었어.

왜정 때는 농업학교가 하나뿐?

도내에서 제주농업학교 하나뿐이었어요. 우리 모집 정원이 1학급이 50명이었어요.

1학급에 50명.

5년이니까 250명. 제주도에서 중등 학생이 250명뿐이었어요.

왜정 때는?

농업학교 하나뿐이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교육을 극히 제한시켰어요.

학교 설립을?

응. 학교 설립을 인정 안 했어요. 일본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단지 몇 사람의 아동만 있어도 학교를 세웠는데, 한국 사람에겐 절대 학교 설립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정 때는 농업학교만 하나가 있었고?

국민학교도 맨 처음에 3개 면에 하나. 학교가 하나뿐이었어요.

어르신께서 농업학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농업학교 하나뿐이었으니. 농업학교 1년에 50명 모집하는데, 제주도 전체의 학생 수, 육지에서, 전라남도에서, 진도, 완도, 고성, 영광에서 학교 와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지원해요. 그중에서 5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어요.

어려워 보이네요.

그때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무슨 시험 봤습니까?

필기. 국민학교에서 배운 내용. 시험에 내가 합격해서 농업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야.

공부를 잘 했네요.

1학년 2학년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2학년 말에서 3학년 되니까 대동아전쟁이 나가지고 일본이 패색이 짙었잖아요. 그때 학생들 동원해서 전시 체제로 막. 우리가 비행장 잔디에 많이 종사했어요.

지금 비행장?

거기 지금 비행장에. 그 잔디를 입혀. 그다음에 저 한라산에 가서, 군인들이 그때, 일본군이 6만 명 입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부식을 우리가 캐 왔단 말이야. 그다음 겨울철에

솥을 만들어서 그걸 운반해. 그다음에 산지에서 군수물자를 운반했던 말이야.

*그게 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했습니까?*

농업학교 학생들이 한 거야.

*농업학교 학생들이?*

농업학교. 우리가 했던 말이야.

*농업학교는 5년제였습니까?*

5년제. 그런데 내가 3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농업학교 3학년 때. 그때 처음에는 3년제, 그다음에 5년제. 그다음에 일본이 패색이 짙으니까, 학생들을 군인으로 뽑기 위해서 4년으로 단축했어요. 4년제로 단축했는데 해방되니까, 미군정에서 6년제 고급 중학교로 개편을 했어요.

*미군정에서 6년제로 개편이 됐구나?*

해방이 되니까, 사회의 풍조가 학교에 유입돼가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사상운동에 빠져. 선생을 배척하고, 매일 수업은 안 하고, 막 데모도 하고, 학교가 아니었어요. 막 야단이란 말이야. 그때 해방되고서 자유주의 운동을 많이 하지 안 했? 거기에 가담되고, 학생들이 막 정치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학교가 아니었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됐었구나. 해방 후에.*

학생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학교를 그만 두어야겠다 해서 학교를 많이 자퇴했어요.

*그러면 농업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 버렸습니까?*

4학년 때 중퇴했어요. 그렇게 공부는 않고 매일 데모하고, 우리가 이럴 바에 차라리 그만 두자라고 해서.

*4학년 때. 1년만 더 다녔으면 졸업인데 중퇴를 해버렸구나예.*

많아, 많아.

*그렇게?*

반 정도 중퇴했어요.

반정도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나는 4년 때 중퇴해서 제주도 초등교원양성소 들어갔어요. 초등교원양성소 1년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도국민학교 정교사로 투입됐단 말이야.

그래서 4년 때 중퇴를 하시고, 제주도 초등교원양성소에서 1년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로서 간 거야.

그다음에 국민학교 교사로 출근. 국민학교 교사로 출근한 게 나이 상으로는 몇 살 때 입니까?

그때가 21살인가?

21살. 당시에는 이 제주도 초등교원양성소를 나오면 교사?

그러면 중퇴한 학생하고, 6년 과정 졸업한 학생의 사회 활동을 비교해 봐요. 오히려 중퇴한 학생이 더 좋대.

더 출세했나요?

내가 교장 때, 6년제 동급생이었는데, 졸업한 학생이 나 밑에 있었어요. 난 교장이고 그 사람은 평교사. 나는 4년 졸업해서 교장이고 그 동급생은 평교사로 살고.

그러면 농업학교 졸업해서 그분은 교사가 된 것이고, 어르신은 중퇴를 해서 교원양성소에서 1년 공부해서, 빨리 되신 건가요?

응, 빨리.

당시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집안이 좀 부유했네요.

좀 나왔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시킨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그런데 나는 촌에서 별로 뭐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기숙사에는 육지에서 온 학생들이 기숙을 했어요. 나는 1학년 때 들어갔는데, 한 방에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학년마다 한 명씩 들어가요. 나는 제일 밑에 1학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 고학년 학생들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한단 말이야. 저학년이니까.

그 당시에 농업학교의 학비는 얼마였습니까?

기숙사비가 20원.

기숙사 한 달에?

한 달에 20원. 하숙하는 학생들은 좁쌀이나 보리쌀 7말에서 8말 냈어요.

좁쌀로?

좁쌀이나 보리쌀 7말, 8말을 냈어요. 그 대신에 기숙사에는 한 달에 20원 냈어요.

좁쌀이나 보리쌀 일곱이나 여덟 말을 내는 대신에 기숙사비는 20원만 냈군요. 이것은 기숙사비고 학비는?

학교는 그때 월사금 얼마 없었어.

월사금은 별로 안 냈어요? 기숙사비가 비쌌구나. 그러면 집에 부모님은 하도에 계신 거잖아예? 하도에서 혼자 나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네요.

혼자지.

그것이 제주북교, 표선교, 대정교뿐이었어.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3·1운동 이후에는 일본이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1개 면에 하나. 그때 구좌면에서 생긴 게 김녕이예요.

김녕이 그래서 빨리 생겼구나.

김녕이 된 이유가 뭐냐면 김녕경찰관 주재소에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됐고요. 그러니 그때 하도리는 지역적으로 봐서 제일 동쪽에 있고, 공립학교가 1면 1교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강공철 씨가 사립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하도리예요.

강공철 씨가 학교를?

그때 면장이었으니까.

면장이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 버렸구나. 하도사립학교를 만들었네요.

응. 그러니까 하도교가 제주도에서, 사립학교 중에서 제1호란 말이야.

강공철의 자제분들은 하도에 없습니까?

서귀포에 손녀가 살아요.

서귀포에 손녀.

강진화라고. 그러니까 하도 학교 일찍 생긴 이유가 강공철 씨가 면장이고, 그 사람이 적극 추진해가지고 사립학교를 만든 거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  
들



### III. 공동체의 기억: 마을이 함께 세운 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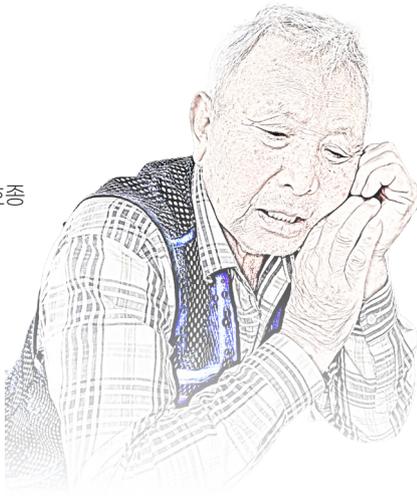
1. 김기황·김두홍 | 송당초등학교
2. 김두일 |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3. 김정옥 | 수산초등학교(성산읍)
4. 김창근 | 평대초등학교·세화중학교
5. 문창행 | 신업중학교
6. 임국립 | 저청초·중학교
7. 장권아 | 광금초등학교
8. 정양수 | 동남초등학교
9. 장응선 | 애월중학교

# 01

## 김기황·김두홍

송당초등학교

김호중



고수형



**공헌자 김기황** 1880년대생으로 추정, 김두홍의 아버지  
**공헌자 김두홍** 1900년대생으로 추정, 김기황의 장남

구좌읍 송당리는 예로부터 웃송당, 셋송당, 알손당 이렇게 세 개 동네로 나뉘어 있었다. 옛 웃송당은 광산 김씨 설촌이다. 송당에 학교가 없을 때 마을의 유지들이 '송당 전체에서 돈 좀 모아서 학교를 만들자.' 했고, 이에 10여 명이 동참하여 학교 설립에 필요한 땅 등을 기부했다고 한다. 김기황은 이 시기 마을의 동장이면서 동시에 기성회장이었다. 김기황의 5남 1녀 중 장남인 김두홍 또한 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 600여 평을 기부했다. 김두홍 외에도 김묘생 등 마을민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한 토지는 3천여 평에 달한다. 마을민들의 기부를 토대로 1937년 2년제 송당간이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고, 1944년 송당공립국민학교가 개교했다. 이후 김두홍은 아버지를 이어 마을 일을 맡아 했다.

간이학교 건축 당시 교래의 교회 건물을 뜯어다가 지붕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건물은 4·3 당시 불타버렸다. 1948년 11월,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중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집을 두고 해안가로 내려가야 했다. 송당 주민들 또한 해안가로 내려갔다가, 4·3 이후 마을로 복귀했다. 학교 건물이 불타 사라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평대국민학교에 병합되었다가 1950년 세화국민학교 송당분교장으로 다시 개교했다. 이후 1953년 송당국민학교로 승격, 설립 인가를 받아 또다시 개교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9~50년, 학교를 재건하는 시기에 마을 주민 고태석의 집 마당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한다.

 **제보자 김호중** 1942년생(주민등록상 1945년), 김기황의 증손이자 김두홍의 손자

김호중은 광산 김씨의 후손으로 구좌읍 송당리에서 출생하였다. 송당초등학교 공헌자 김기황의 증손이자 김두홍의 손자이다. 김호중의 생년은 주민등록상 1945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942년생으로 1949년에 7~8세의 나이였다. 4·3 이후 마을 재건 시기에 고태석의 집 마당에서 교육받은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후 학교 재건 시기 6학년 때 교실 신축을 위해 강도 높은 노동했던 일 또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오전에는 수업을 했지만, 오후에는 학교 지붕에 올릴 기와에 게워 넣을 흙을 날랐다고 한다.

 **제보자 고수형** 1947년생, 현 송당리 노인회장

고수형은 1947년생이고, 현재 구좌읍 송당리의 노인회장이다. 송당리 학교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자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공헌자의 후손 김호중 님을 동반하여 조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수형은 4·3 이후 학교 재건 시기에 2~3학년의 나이로, 제보자 김호중과 함께 교실 신축을 위해 흙을 날랐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교 설립에 공헌한 마을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 공헌자 김기황·김두홍 부자, 학교 토지 기부 과정

김기황이 증조할아버지?

내가 증손.

그러니까?

(노인회장) 증조.

증조부고 그다음에 김두홍이 조부시고, 선생님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김호중.

김호중. 이 이름 어디서 나왔던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도 오라가라 해부난.

김기황이라는 증조부님이 학교 설립 당시에 기성회장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이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동장.

(노인회장) 아니지, 기성회장은 학교.

아니, 동장이 돼서 기성회장도 된거라.

(노인회장) 기성회는 학교를 위한 단체아니이?

게메, 내가 그 말이라.

당시에 마을의 동장이면서?

기성회장도 된 거지.

학교를 설립하게 되니까.

(노인회장) 주모자가 돼서…….

기성회장님이 돼서 활동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조할아버지가 되시는 김기항의 자식 되시는 분이잖아요, 김두홍이. 예?

(노인회장) 그렇죠.

김두홍이라는 분이 토지 600평 정도 기부를 하시고 이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1937년에 간이학교 설립인가 2년제를 받았어요.

(노인회장)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44년에 송당공립국민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46년에 기와 3개의 교실을 신축했네요.

예, 예.

김두홍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기부했는지 그건 아시나요?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동 이장이었거든요.

동 이장.

여기 송당은 동네별로 책임자가 있었는데, 송당에 학교가 없으니까, 유지되는 분들이 ‘송당 전체에서 돈 좀 모아서 학교를 만들자.’ 거기에 동참해서 부지 내놓는 사람, 또 건물에 대한 거 내놓는 사람, 여러 가지 해서. 한 열 사람이 단합을 해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설립을 했다가, 4·3이 일어나니까 불타 버렸거든요.

그러면 4·3 이전에……. 저희 기록상으로는 1937년에서 39년인데. 학교 기부 땅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때 학교가 다 타 버렸다는 겁니까?

(노인회장) 그러니까 희사를 받고 건물을 지을 때, 교래 가서 무슨 건물을 뜯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교회 건물을 뜯어다가 지붕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은 학교 집터 거기 간이학교 때. 그게 4·3 사건 때 불타 버린 거지. 그거 간이학교가 없어지면서 집을 지었는데…….

## 4.3 후 공부 시설로 활용한 고태석 집 마당

고태석님 집에서 학교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노인회장) 여기는 4.3 사건 이후에 마을이 복구되면서, 이 집 마당에서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시설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이 사람 그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4.3 사건 이후에 마을이 복구되면서요?

(노인회장) 예.

그래서 고태석 집에서 공부했다, 이 집을 제공해 줬다는 거네요?

(노인회장) 고태석이는 부지를 기증하거나 그건 없었고, 이 마당에서 우리가 공부해 난 건 4.3 사건 이후에 마을 복구해서 올라오자마자.

4.3 복구 후에 곧 올라오자마자. 초집(초가집)에서?

(노인회장) 초집 마당에서 그것도 땅바닥에서 그냥.

그 초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는, 그 집이 넓었습니까?

집 지언. 마을에서.

마을에서 집을 지었어요? 고태석님의 땅인데, 마을에서 그 집을 지었다는 겁니까?

(노인회장) 간이 시설로 만든 거죠.

간이 시설로 만들어서.

(노인회장) 거기서 공부했어.

고태석네에 집을, 마을에서 집을 지었잖아.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철거해서 그냥 버려두고 판 데로 다시…….

한 몇 년 정도 공부했습니까?

거기서 한 2년쯤 했을 거라. 2년쯤.

2년 정도 공부.

2년, 3년.

복구가 거의 한 50 몇 년에 했습니까?  
48년에 4·3이 일어났잖아예. 그다음에  
복구가?

50년도였구나.

50년에.

(노인회장) 1년도 채 못 돼 올라왔주게.

금방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49년에서  
50년.

가을에 내려가서 봄에 올라왔어.

봄에. 그러면 49년?

49년 내지 50년 됐을 거라.

4·3 때 교사가 전소돼서, 폐교돼서 평대초  
등학교로?

(노인회장) 예, 예.

그 당시에 여기서 학교 다녔던 초등학생들  
이 평대국민학교에 가서 학교 다녔다는 겁  
니까?

그분들은 거의 돌아가셨고…….

근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니까, 평대로?

아니, 그다음에 여기 학교를 설립해서.

(노인회장) 아니, 아니, 불타 버린 후에는 학교가 없으니.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닌 거네요?

(노인회장) 응.

마을 복구한 후에 송당으로 올라왔어요.

1949년 고태석이라는 분 집에서 공부했  
고요?

땅이지 땅. 땅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했지. 집은 마을에서 지  
었던 거고.

일단 땅을. 그러면 이 땅은 개인 땅이잖아  
요. 사유지인데 그 후에 교육청 소속은 안  
되고요??

안되고.

(노인회장) 빌려 준거라, 장소 제공.

장소 제공을 해줬고. 그때 간이학교 한 몇

그거 얼마 안 되지, 태석이네 집이 몇 평정도 되나? 그때 얼

평 정도의 공부할 공간을 만들었습니까?

마 안 됐어.

(노인회장) 한 17평에서 25평. 25평이면 막 큰 거고, 한 20평 정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막 어려운 때였고.

20평 정도. 근데 그 집을 짓는 거는 마을에서 부담했다는 거잖아요?

(노인회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혹시 학생수가 몇명이었는지?

(노인회장) 내가 1학년이 들어갔으니까……, 몇 명 안 될 거라.

1학년으로요? 김호종 선생님은 지금 몇 년생입니까?

45년.

1945년생, 그때가 당시에 1학년?

아니,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 들어간 거죠. 몇 년 후에.

그래서 49년에 여기가 세화국민학교 송당분교로 인가를 받았네요.

그 당시에 세화, 평대 했다가, 올라가서 북군 학교 이전 한. 저 어디 동문에 가니까 세화분교가 돼버렸지.

(노인회장) 우리 마을 안에서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옮겼나, 학교를?

학교를 마을 안에서만 많이 옮겼네요.

여기가 세 번째.

지금 학교가 세 번째. 이 학교 부지를 메워서 3개 교실 신축이 1952년에 됐는데?

(노인회장) 예, 요거 지금.

그것이 송당리 1371-1번지에. 이게 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네요.

(노인회장) 지금 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학생들이 전부 다 기와 올리면서 그때 지었잖아.

제가 6학년 때에 학교 와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니까. 기와 집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저 흙 있잖아요. 기와 올리려면 흙을 게워 올려야 했거든요. 학부모들은 매일 가서 하지 못하니까 우리 6학년들은 그 당시 다 연령이 많은 때고 일도 잘 할 때거든. 그래서 학생들, 6학년들은 수업 없이 그냥 그 일을 도와서 지게로 흙 지어 올라가서 지어주고 이렇게 했지.

(노인회장) 오전에는 공부하고 수업하고, 오후에 무조건 작업했으니까.  
엄청나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작업 하셨다, 그럼, 고수형 회장님도 연세가 꽤 드셨네요.

(노인회장)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생 입니까?

(노인회장) 47년생.

47년 2년 차이구나. 김호종 선생님은 몇 월 며칠 생입니까?  
1월 23일생.

1월 23일이요.

난 이거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됐지만, 연령이 3년이 더 해 부니까 그 당시에 학교는 일찍 다녔어.

원래는 42년생.

(노인회장) 저보다 4살 위에.

## 공헌자 김기황·김두홍의 생애

---

개인적 이야기로 들어가서 김기황 증조할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냥 농사를 지었나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노인회장) 농사 지어십주게. 축산도 하고.

그래도 동장님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글을 익히거나 당시에 뭔가를 하셨던 분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웃송당이라는 이 마을은 우리 광산 김씨 설촌이에요. 이 마을에서 우리 할아버지 김두홍을 동장으로 추천하고 마을 일을 보라고 해서……, 우리 기자 황자 증조 할아버지 아들이거든.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이 김기항 조부님의 자식은 몇 명입니까?

6남매.

6남매, 김두홍이 장남? 할아버지가.....?

우리 당 할아버지.

김두홍이?

3남 6녀.

3남 6녀.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5남 1녀.

5남 1녀 중에 김 두자 홍자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장남이고. 김기항이나 김두홍 할아버지들은 다 송당에서만 계속 살았던 건가요?

그렇죠. 토박이죠.

송당에서만 계속 사시고. 4·3 때는 어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얘긴 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평대에 가 있고.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평대로 다, 조카하고 내려갔다가, 시에 갔다가 송당으로 복귀했죠.

송당으로 복귀가 좀 빨랐네요. 49년?

그렇죠.

(노인회장) 1년 조금.

1년 안 됐지. 가을에 가서 뒷해 봄에 돌아왔으니까. 1년 안 됐지. 한 6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때 초토화 작전이 48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되었거든요.

그래, 6개월 동안이라, 6개월 동안.

(노인회장) 그런데 여기 그때 복구해서 올라올 때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폭도라고 하는 사람 그분들이 있을 때.

있을 때지계, 있을 때지. 폭도 없다고 할 때는 굉장히 요근래야, 우리가 아는데.

김기항 증조할아버지 동장 시절에 기성회장으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 김두홍 할아

아이고, 옛날 조상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해주니깐 우리가 이만큼 사니깐 뿌듯하죠.

버지가 적극적으로 땅도 기부하시고, 증손으로서 또 손자로서 마을에 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하겠네요.

조상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인터뷰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뿌듯한 일이지요.

결국에 마을 어르신들이 또 학생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학교를 설립했네요.

(노인회장) 그 당시에, 그 학교 설립 주동을, 같이 돈 모으고 기증하고 한 분이 10명 있어요.

열 명, 혹시 이름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중이 있잖아이?

(노인회장) 거기 여기 나왔수다.

나왔지이. 대중이도 있고,

(노인회장) 고봉선 씨,

영배 아버지,

(노인회장) 영배 아버지? 영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일본 갔나?

아니.

(노인회장) 허혁이라는 분이 계셔요. 허혁인데.

아까 고봉선은 누구?

(노인회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송당 저기 당 있잖아요, 당.

예, 본향당 말입니까?

(노인회장) 예, 본향당. 저 본향당 제일 처음에, 이분이. 우리 그 뭐라고 하나, 거기 심방. 심방인데, 그분은 좋, 시간 되면 치는 중, 학교 중을 회사했어요.

학교 중을?

지문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를 회사하고 뭐를 했다는 거.

(노인회장) 중도 하고 현금으로도 많이.

현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조형 알겠습니까?

이조형은 저기 선생이 가시 아방.

신생이 가시 아방?

신생이 가시 아방 이름이 이조형일 거라. 그분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여기 동장이었거든.

아, 이조형도? 당시에 마을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허혁?

허 씨죠? 내가 알기로는 영배 부친이 그이인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듣기를, 허영배 부친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이름을 자세히 외우지를 못해. 우리 비문이 여기 다 있었거든요. 지금 비문을 파묻었을 거예요. 저기 있다가 학교 여기 오면서 보존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여기 세웠다가 또 땅에 파묻혔는데.

그러니까 '1938년에 세운 비석이 넘어져 깨져서 새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1981년?

영배 아방 이름이, 허 뭘 건데 말이여.  
(노인회장) 영배아방 이름 허두진.  
허두진이 아니고 허……, 그 이름이 있어. 영배 아방 이름.

아까 얘기 고봉선 이분은 학교 종을 찢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학교 치는 종을 사 가지고 회사를 했다는 것이지.

학교 종을 사서 회사했다는 분. 교육 물품을 회사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재용이라는 분은?

이재용은 저, 누구인고?

학교 설립 기금을 냈는데요.

정철이 각시 외하르방,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은 동장을 했던했어. 여기 셋송당, 옷송당.  
(노인회장) 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김 홍자 기자. 김흥기 이분은 모르겠습니까?

(노인회장) 이분은 아드님이 여기 살고.

아드님이 살고 있어요?

(노인회장) 김용수라고.

김용수, 아들?

(노인회장) 거기 여기.

아닐거라, 우리 삼촌 아니여, 흥기.

(노인회장) 기우다게. 여기 이거 할 때 한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저 땅 저거.

부지 50평?

그러면 이거 지금 학교 부지 앞에.

(노인회장) 그 앞에 땅이 작년에 한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팔고 다른 데 땅 샀는데…….

응 맞아.

(노인회장) 그 넓은 땅이 있어. 그래 그걸 좀 잘라가지고 했을 거야.

1970년에 부지 50평을?

(노인회장) 예, 예.

맞아. 여기 앞에 밭.

김용수입니까?

(노인회장) 아들, 아들.

이분은 연세는 얼마나 됐나요?

지금 60 몇이고?

아 젊으시구나?

(노인회장) 젊어요.

## 또 다른 공헌자 김묘생, 3,100평의 땅을 기부하다

---

그다음에 김묘생이라는 분은?

(노인회장) 이분 돌아가셨고요.

그분의 자손이나 누가 없습니까?

(노인회장) 있습니다. 김학수라고 이분의 증손 될 건가?

김학수?

(노인회장) 예. 증손.

이 김묘생이라는 분은 3,100평 정도를 기부하셨는데?

(노인회장) 그분은 땅을 회사하신 분이죠.

땅을 회사했어요. 이분이 땅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까?

(노인회장) 옛날 '김부자'라 해가지고.

김묘생이라는 이분이 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당시는 땅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 까, 마을에서 그 유지되는 분들이 의논해서 '학교를 설립하자' 하면, 공동체에서 다 회사 했다고요.

1939년에 그 당시 3,100평 정도 기부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노인회장) 예, 맞습니다.

그 땅을 그냥 탁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노인회장) 지금 현재 그 땅이 있어요. 저기 학교 부지로. 교육청에 가면은 그 서류가 있어요. 교육청의 것이 돼서 여기 사람 손도 못 댈니다마는. 그게 문제라 여기 사람이 회사한 건데, 지금 다 거기…….

그러니까 교육청 땅이 되는 건데, 학교 부지에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 부지로 돼버렸어요.

교육청 부지. 그게 다른 데도 보니까 다르게 되십니까.

(노인회장) 그렇게 된 데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 그게. 그 부지들이, 그것만이 아니고 한 5천 평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것까지 다 해서.

## 송당국민학교장 김석만의 공로

---

김석만 선생님 만났어요.

(노인회장) 나도 한두 달 전에 저 오일장서.

99세.

그 교장 선생님이 송당에 두 번 왔는데, 제일 훌륭하신 분이  
예요.

지금도 말씀 잘하십니다.

이 비문을 보존해 줬어요.

여기 적혀있습니다. 송당국민학교장 김석만.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저 비문을, 학교에 관한 역사를, 우리  
자손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 비문까지 다 조립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시오” 요구하니까, 석만 교장 선생님이 다 알아  
서 해줬어요. 그는 참 공이 깊은 분이거든요. 이 교장 선생님  
은 상당히 공로자예요.

두 번 왔었습니까?

두 번 왔었어. 첫 번 온 때는 임시 한 몇 년 살다가 갔는데. 두  
번째 온 때는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의논해서, 이 학교 건  
립에 담당을……. 그 비문 관계도……. 우리 할아버지 자손  
들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았어요. 많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비문을 철거해 왔대요. 철거해서 이 학교 앞에  
세웠다가 박물관인가 짓게 되니까, 자리 없으니까 그거를 철  
거해서 한해 안에 (다시) 만들겠다고 석만 교장님이 딱 해서,  
이 비문이 저 위에 세워났는데, 요번엔 보니까 여기 와 있더  
라고 여기.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그냥 없어져 버  
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무관심하면 우리도 무관심할 거고. 그분이 ‘송당리  
학교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으니까 좀 협조해 주시오’  
요구해서 우리 그 당시에, 지금 김묘생의 증손자…….

아까 말씀하신?

학수 아버지하고 저하고 가서, 그 당시에 영배도 있었어. 가  
서 그런 내용을 말 하니까, 다 만들어 주고 가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임기가 있잖아요. 몇 년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힘든데, 그래도 당시에 본인이 교장으로 계실 때 그 일을 해 두시고?

(노인회장) 그 선생님이 굉장히 생각이……, 관심도 많고. 관심도 있었어요. 송당 역사를 막 알려고 한 분이예요. 그 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로서는 지금까지 송당에 와서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었네요.

(노인회장) 강창하 선생님도 그렇고. 강창하는 그다음이고.

(노인회장) 그다음이라도 교장 선생님 세 분이 그렇게…….

굉장히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다는 거네요.

강창하는 우리 젊었을 때 체육에 관한, 태권도 교사라나서. (노인회장) 아이들 공부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체육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하고. 원래 김녕이니까. 송당하고 김녕은 옛날에는 세화보다 ‘가근하게’ 지냈어요.<sup>14)</sup> 학생들이 전부 김녕중학교를 갔으니까.

여기 초등학교 졸업하면 김녕중학교 갔습니까?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구나.

해방이 되고 차차 나아지니까 세화로 가기 시작했죠.

세화로?

세화 간 이가 우리 졸업반일 때 가실 거라. 갑준이네부터. (노인회장) 근데 김녕중학교를 가게 된 원인이 세화중학교가 회비를 360원인가 받을 때 김녕중학교는 225원인가 받았어. 백 얼마를 (적게) ……; 옛날에는 교포들이 많았거든 거기. (노인회장) 그래서 교포 사회에서 뭘 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 그때 어려운 시절이라서 1원이라도 싼 데 가려고 그쪽으로 간 거지. 많지 않지. 있긴 있는데.

송당은 교포가 별로 안 계시구나?

김녕이 많지.

14. 제주어 ‘가근하다’는 ‘가까이 지내어 친하다’는 뜻이다. 한자어 ‘가근(可近)과 접미사 ‘-후다’가 만나 만들어졌다.

김녕하고 세화는, 조사를 해봤더니 (교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녕이 교포가 많아 농협 설립이 먼저 됐어요. 이금전 은행이. 그 당시에 한 10년쯤 있고서 세화 농협이 생겼지.

교포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기부했다라고요.

(노인회장) 제가 16회인데 저희들이 끝나고 한 2, 3년 있다가 그때부터 그 보조도 없고 하니까 다 일반적으로 세화나 김녕이나 똑같은 월사금을 내야 되니까.

저 사람만 김녕이지, 그다음에 다 세화 갔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송당에서는 김녕을 가든, 세화를 가든 중학교는 그렇게?

(노인회장) 예, 예. 시내 가는 아이들 몇 사람 빼고는.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 송당초등학교를 다니셨네요. 4·3 때 올라오면서 학교가 빨리 복구가 됐고. 4·3 끝나고 나서 학생 몇 명 정도 있었던 거 알겠습니까?

(노인회장) 학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송당이?

(노인회장) 하여튼 100명 이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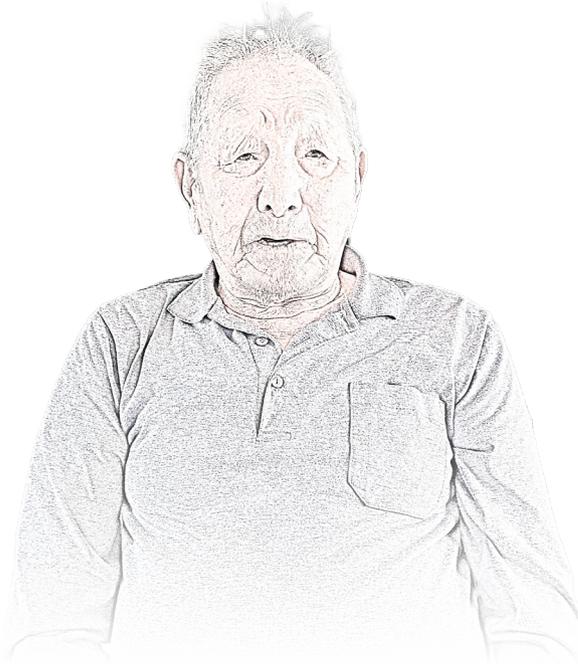
우리가 다닐 때는 150명 다녔거든, 동문에 다닐 때는.

1953년에 송당국민학교로 승격 설립 인가를 받았네요. 빨리 받은 거지요. 53년에 받아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02

## 김두일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김갑생



### 공헌자 김두일 1910년대생 추정

김두일은 1910년대생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 양 씨와 결혼 후 홀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공장에서 일을 배웠고, 일본인이 세운 공장의 공장장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자리 잡은 후 가족을 불러 아내와 첫째 아들 김갑생(당시 나이 6세) 그리고 둘째(당시 나이 3세)도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고, 일본에서 2남 1녀를 더 낳았다. 해방둥이였던 막내아들은 일찍 사망했다. 1945년 해방 후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제주로 돌아왔고, 이후 김두일도 1946년 11월에 귀향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4·3으로 인해 마을이 다 불타버렸고, 주민들은 마을을 복구하고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1952년,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설치 인가를 받던 시기에 김두일은 3~40대 젊은 나이임에도 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로 활동했고, 이후 육성회장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공헌했다. 1966년 12월 27일, '학교발전 및 운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덕비가 세워졌다.



### 제보자 김갑생 1934년생, 김두일의 아들

김갑생은 1934년 10월 3일생으로 구좌읍 동북리에서 태어났다. 김두일의 아들 김갑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6세 나이에 부모 형제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고, 일본에서 잠시 학교도 다녔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해방 전 일본에서 공습 폭탄을 피해 겨우 살아낸 기억과 해방 이후 제주에서 4·3을 겪은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 격동하는 시대,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라 국민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고 한다.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회고하지만, 아버지가 학교 설립과 마을 발전에 공헌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마을 이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공헌 내력을 상세히 기억하고 전했다. 특히, 학교 설립 시 고학년 학생들이 운동장 평탄 작업을 손수 진행한 일과 마을 어촌계에서 톳 수입의 일부를 학교 기금으로 사용한 것 등이 잊혀지는 것을 아쉬워했다.

성함은? 김갑생.

몇 년생이십니까? 1934년생.

34년 몇 월 며칠? 10월 3일.

## ‘굴묵밭’에서 시작된 학교

---

동북분교장이 있는데, 저희 기록으로는 52년에 만들어진 거로 돼 있습니다.

52년 맞아요.

52년에 설치인가가 되고, 57년에 동북국 민학교로 승격인가. 그렇게 해서 학급이 늘어나다가, 83년에 김녕초등학교 동북 분교장으로 격하되었어요. 4학급으로 되었네요.

학생이 줄어들어 버린 거지요.

줄어드니까 그렇게 된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학교가 있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까? 동북분교는?

분교는 처음은 저쪽 ‘굴묵밭’이라고 한데.

‘굴묵밭’이라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아니고?

지금 위치는 나중에 올라온 거고. 52년 당시에는 저쪽 ‘굴묵밭’이라고. 지금 집이 들어섰지만 거기에 그 텃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하셨구나예.

예.

그때 추진위원회가 김하수?

예. 그 당시에 이장님이 됐었을 거예요.

김하수가 이장님. 그다음에 김두일?

우리 아버지는 육성회장.

아버지세요?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육성회장?

네, 그때 기성회장이죠, 육성회장이 아니라.<sup>15)</sup>

예. 기성회장이시고. 김두일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연세가 51년에 한 50세 가까이 됐나?

50세 가까이예요.

거 좀 못 됐을 거예요.

아버님이 몇 년생이신지는 모르시고요?

1921년생.

1921년이면, 52년에 활동 했으면, 이때가 서른한 살 때인데요?

31살 때? 51년에 내가……,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두 살쯤에 아마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sup>16)</sup>

왜냐하면 1921년…….

51년이니까, 6·25 다음 해네.

다음 해니까?

내가 16살인가?

예, 16살 정도. 지금 (학교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굴묵밭’에서 출발했네요.

‘굴묵밭’에서.

‘굴묵밭’에서 얼마 동안 하셨어요?

거기서 한 2, 3년 했을 거예요.

‘굴묵밭’에서 2, 3년에.

그 2, 3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때 군대 갔다 온 걸로 생각해.

그러면 이 2, 3년 학교가 할 때, 김갑생 어르신께서는 군대 갔다 왔다.

예, 내가 53년에 군대 갔는가?

15. 제주교육박물관, 『우리학교 공덕비 이야기』, 제주교육박물관, 2017, 316쪽. 비문에 따르면 김두일은 1957년도부터 15년간 육성회장이었다. 1952년 4월,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설치 인가를 위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김하수와 김두일이 추진위원대표였다. 제보자 김갑생이 당시 직함을 기성회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16. 김갑생은 자신의 생년을 1934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 김두일이 1921년생이라고 하면, 아버지는 13~14세에 김갑생을 낳은 것이 된다.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공헌자 김두일의 생애

---

아버지 김두일께서 김갑생 어른신이 두 살 때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 ‘가다도리[型]通’, 본뜨기/틀을 뜻하는 일본어] 공장이라고 일본 말로.

예, 가다도리?

응. 지금 말로 하면, 무슨 제품, 이렇게 쇳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장. 거기에 가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섯 살에 일본에 가가지고.

아, 선생님께서도?

예, 예. 6살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일본에서 7살에 학교를 붙었는데, 일본 가서 붙으니까 그때 뭐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잘 되지도 안했고. 그래서 1945년도 해방돼서…….

김갑생 선생님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오신 거고……. 7살에 일본 학교 들어가서 좀 다녔습니까?

예.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들어오시고.

일본 가서도 45년에 해방됐으니까, 44년도, 그러니까 5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그 피난 다니느라고 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 자체가 다 피난.

피난 다니느라, 그때 공습경보가?

막, 공습이 심해가지고. 특히나 우리 공장 있던 데하고 우리 살던 데는, 그 부두를 끼고 있었어. 그래서 폭탄 때려버리니까, 학교 자체가 전부……. 한 집에 한 열 사람씩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살아났네.

예, 해방되면서.

해방되는 해, 1945년 10월에 우리는 제주도에 왔고, 우리 아버지는 46년도 11월에 별도로,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일본 어디 가셨습니까?

오사카 츠모리[津守,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소재].

오사카 츠모리에 아버님이 먼저 가서서, 가다도리 공장에서 일했고.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서 공장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친척이 하고 있던 그런 공장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주.

아버지가 일본에 가셨을 때는 일제시대에 가신 거다예?

일제시대에 간 거주.

일제시대에 거기 가서 일하시고, (그다음은)?

혼자 있게 되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어머니를 부른 거주.

어머니하고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지내고, 그리고 7살에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먼저 (들어)오신 겁니까?

네,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

동생?

동생이 한 살 때, 아니 세 살 때 나하고 같이 갔고. 일본에 가서 또 동생 서이 낳고.

여기 있는 동생 세 살 때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또 남동생 하나.

남동생 2명, 여동생 1명.

해방동이 마지막. 그래서 여기 건너왔어요.

남동생 한 명이 해방동이.

죽었지만, 지금 살았으면 80 됐나? 80 안 됐나?

45년이니까 (살아계셨다면) 81세. 그래서 일본에서 동생 세 명을 보고, 45년에 어머니와 동생 세 사람하고 같이?

같이 왔죠.

네, 다섯 명이 같이 오고, 아버지는 1946년 11월에 제주도에 오셔서, 오자마자 학교 기성회장을 하셨나요?

오자마자 아니고.

예, 한 몇 년 있다가?

한 4년. 왜냐하면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4·3 사건이 48년에. 우리 동네가 다 불타버렸단 말입니다. 이 동네.

48년에?

48년에 전부 타버리니까. 그때 복귀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걸렸잖아. 그러니까 한 4년 후엔가 그러다 보니까 52년, 그렇게 됐네.

예, 52년에 아버지가 30대 초반인데 학교를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학교 일을…….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뭘 했냐면, 여기 와서 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만 주로 가졌고……, 또 외가에는 일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가에 제사, 명절, 벌초 또 학교일에 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입학금도 못 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입학금 마련해서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6학년 2학기에 4·3 사건이 일어나서 전부 불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지, 돈도 없지 하니까 학교를 못 다닌 거지.

6학년 2학기 때 4·3이 나는 바람에 학교도 못 다니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요? 그럼 국민학교 졸업을 못한 겁니까?

국민학교 졸업을 못 했어요.

못 하고…….

6학년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못 한 거죠. 월사금을 못 내니까.

월사금을 못 내니까.

매일 학교 가서 손들어서 서 있어야 하고, 도저히 학교를…….

그래도 아버지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하셨고요?

아버지는 조천초등학교 1회예요.

조천초등학교 1회.

예, 1회요. 우리 어머니한테 장가간 후에 아마 학교 다닌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결혼 후에.

학교 다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디 마을 출신입니까?

동북이요. 동북 양 씨.

동북에 양 씨. (아버지는) 결혼 후에 (조천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아버지가 (동북분교장) 학교 일을 열심히 했지만,<sup>17)</sup> 김갑생 어르신은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고. 동생들은 어떻게 학교 다녔습니까?

우리 두 번째 동생까지 못 했죠.

두 번째 동생까지 학교를 못 다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동생은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다음 우리 누이동생도 못 하고.

누이동생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해방둥이도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도 못 다녔어.

초등학교만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넉넉한 경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 일에는 굉장히 충실해서 학교 발전하고 운영 지원 같은 것을 하셨네요. 선생님들하고?

교체된 교장 선생님만 해도. 내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백 교장, 임 교장 뭐 한 네다섯 분이 동북에 교체되면서도, 그 당시에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유대관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잘 통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랬어요.

아버님은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가 96세인가, 97세인가에 돌아가셨어.

17. 조천초등학교는 1922년 11월 1일 조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38년 조천공립심상소학교로, 1941년 조천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이후 1950년 조천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김갑생의 구술에서 아버지 김두일이 결혼 후에 학교를 다녔고, '조천초등학교 1회'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에 가깝다. 구술 내용과 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공헌자 김두일은 1950년대 초반 3~40대의 나이에 조천국민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설치를 위해 힘쓴 것임을 알 수 있다.

96세인가 97세에 돌아가셨으면, 2018년?

예, 예. 그 정도. 2010 한 몇 년 조금 넘었나?

2018년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지 한 7, 8년밖에 안 됐으면요.

한 10년 정도 됐을까?

96세에, 장수 집안이네요.

우리 집안은 우리 큰고모님만 일찍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90세 다 지났어요.

아버님은 조천초등학교 나오시고?

조천초등학교 1회.

조천초등학교 1회.

그 당시에 학교 다닌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네 나이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천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조천에 우리 큰아버지가 살았었어요.

조천에 큰아버지가, 그래서 거기 가서?

큰아버지가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 같은 거는 아마 거기서 같이 하시고.

거기 왔다 갔다……; 연고지가 있어서 거기서…….

그 당시에 학교가 4년제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버님이 마을 일에는 되게 열심히 공헌을 하셨네.

마을에는 일을 많이 했어요. 노인회장…….

노인회장도 하시고?

노인회장 1기생이 우리 아버지라.

노인회장 1회.

1회.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마을에서 하신 것이 노인회장을 하고 이장은 안 했습니까?

이장은 안 하고.

김갑생 어르신은 마을에서 뭐 안 맡았습니까?

나는 72년도, 73년도 이장 한 2년 7개월 했어요. 노인회장은 안 하고.

## 아버지 김두일에 대한 기억

김두일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내가 일본에서 와서 여기서 열여섯 살부터 소 물고 밭갈이하고 계속 살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자식한테 사랑 확 주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졸업장은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졸업한 중학교 다닐 땐데, 중학교 가고 싶어서 우리 갑장하고,<sup>18)</sup> 그 당시에 신승현이라고, 제주시 농협장 하다가 돌아가셨주마는…….

신승현?

응. 요래 가서, ‘이 사람아, 나 중학교 막 가고 싶은데, 국민학교 졸업장 없으니까, 이 중학교도 못 가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졸업장은 걱정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학금만 준비하랜.

입학금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때야. 가만히 보니까 위조해 가지고 뭐……, 1학년은 다녔으니까. 1학년은 다녔으니까, 졸업장은 필시 만들 수 있으니까, 입학금만…….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첫 말이 ‘동생들 다 굶어 죽는다’ 이거 였어.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다음부터 16살부터 딱, 나하고 부승연이라는, 지금 살아 있지만은.

18. 제주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갑장(甲長)’은 나이가 같음을 넘어서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동년배 집단을 뜻한다.

부승연?

예, 거기가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모님하고 살 텐데, 그 사람은 알 거예요. 16살부터 같이 우리 ‘잔대’<sup>19)</sup> 지영 가서, 쇠 몰아당 밭 갈고,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 원망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건 없어요.

낳아 주신 것만도.

아버님이 그래도 마을 일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 어느 면에서는……. 사실 이 자료에 보면 김두일 공덕비도 세워져 있잖아요. 이 거는 대대손손 여기에서 전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손녀 하나 여기 있어요. 그 조천에 사는 데. 여기 와서 유치원에 다녀요. 여기서 인원 모집해서 학교로 승진시키려니까, 학생들을 모집해야 해서. 오늘 토요일이라서 여기 왔는데……, 4시~5시에 끝나는데, 4시 되면 지 할머니가 자꾸 데리러 가요. 그리고 어머니도 데리러 가고요. 한 번은 내가 손녀를 데리고 오다가 ‘너, 저 비석에 쓰여 있는 할아버지 김두일이 너네 왕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7살인데 유치원 가서 공부하다가 나오면서 거기 오다가 꼭 절해요.

아이고, 착하네요!

아들 자식들도 아니 허는데, 저 어린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했지만, 그래도 대대손손 손녀들한테, 증손들한테라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거 대단한 거지요. 그 비석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서 할아버지로서도 자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 ‘잔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를 약재나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다.

## 마을이 함께 세운 배움터

김 정자 중자, 김정중 이분의 자제분들은  
여기?

몰라요.

김정규 이분 자제분들도 모르고? 그다음  
에 김원보?

김원보는 지금 여기 아들들 살고 있고.

김원보 자제분들은?

네, 더러 시내에도 살고.

여기 살고 있는 자제의 이름 혹시 아십니  
까?

김창만.

김창만, 몇 번째 아들입니까?

김창만이가 두 번째.

두 번째 아들. 혹시 이 김창만의 연락처나  
이런 거 좀 알겠습니까?

김창만은 우리의 8촌 아들인데. 나하고는 창만이는 9촌이  
고, 그 아버지하고는 8촌이고.

김창만이라는, 김원보 자제분이 계신 거  
고……, 이 김원보 이분은 교포는 아니지요?

여기 동네 사람.

동네분이고요.

말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말.

말을?

조랑말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길렀었지. 또 소 장사도 좀 해  
서 돈 좀 벌었죠.

그러면 축산 쪽으로 성공하신 분?

축산 쪽으로 많이 성공한 분이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학교에 땅도  
내놓고, 그 집터를, 아예 새로 생기는 학교  
에, 집터를 내셨구나.

그때는 뭐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뭐, 다.

그래도 선뜻, 학교를 '골목밭'에서 이리로 (현재 자리) 옮기겠다고 하니까 기부를 하신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건데.

이 '골목밭'은 위치상으로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전에 지었던 사무실.

리사무실?

바로 밑으로.

바로 밑에, 거기는?

집이 한 서너 채 지금 지어버려서.

리사무소 지금 막 뜯고 있던데, 그 사무소?

지금 뜯고 있는 리사무소(동북로 50-1) 바로 북쪽으로 그 커피숍 있잖아. 그 커피숍 있는 자리가 옛날 리사무소였어요. 내가 이장할 때 거기서 사무 봤고, 그래서 우리 후배가 또 새로 터 사가지고 짓겠다고 하길래, 그걸 동네에서 일부는……, 그것도 하나의 마을 재산인데 또 팔려고 한다고 막 하는 거, 내가 억지로 팔게끔 만들어서. 그때 3천만 원 받아서 거기 보태 가지고.

지금?

아니 전에.

전에 집터에?

지금 한 32년 됐나, 저게.

그러니까 지금 그 커피숍 바로 밑에 학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커피숍 바로 그 막 밑에, 그 옆으로 보게 되면 골목이 있어요. 아래쪽 내려가는 골목 쪽 아래로.

그학교가 지금 있는 데로 옮겼다는 거네요.

이 학교 지으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 말이예요?

예, 큰 학교.

선배들이?

저기 그 바닷가에 가서, 전부 돌 깨서 지게로 지어 날라서 학교 지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운동장이 없었잖아. 그러

- 니 전부 돌……. 끌로 망치질하면서 저거 운동장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 그러면 선배님들이 학교 지을 때 바닷가에 가서 돌을 해서 그걸 지어나르고?
- 지어다가. 지금은 그런 흔적이 안 남았지만, 전부 새로 지어 버리니까.
- 그리고 운동장도 평탄 작업이 안 되고?
- 예. 안되니까.
- 선배들이 다?
- 전부 그냥, 돌. 끌로 망치질해 가지고 때려서 전부……, 저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 고생……: 1회, 2회요?
- 아, 뭐, 10여 년 동안 고생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 몇년?
- 한 10여 년 동안 그 운동장 만드느라고 고생했다고.
- 그럼 선배들이 엄청 고생해서 학교 터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 후배들은 거기서 공도 차고, 이렇게 하는 거죠.
- 그때 학교 정비할 때?
- 그 당시에도 학교 운동장 그거 다 평탄 작업했는데, 학교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 손수 다했구나?
- 내가 이장할 때인데, 공도 하나도 없어서 공도 못 차니까, 내가 공을 두 개 사다 줬어요. 지금도 우리 후배들 보면 ‘삼촌이 그때 공 사다 주니까, 우리 공 차고 잘 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 어느 학교도 보니까, 옛날에 학교 지은 데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운동장 평탄 작업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 다 했어. 안 한 데가 없을 거예요.
- 본인들 학교를 본인들이 닦았으니.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 우리가 한 40년 이쪽저쪽에서 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했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학생들이. 운동

장은 필시 있어야 될 것이라서요. 그래서 전부 먹을 거 못 먹 으면서 고생을……. 우리 선생님도 몰라요. 우리 동네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해서 고생한 줄 몰라요.

대부분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고생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그렇게 해서 운동장으로 만들 었느냐,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거 정말 기록해 놔둬야겠어요. 요즘 같 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할 거우다.

우리는 직접 했고 또 눈으로 봤기 때문에.

## 학교를 위한 톳, 마을 어촌계의 공헌

---

어촌계에서 학교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창식이 어촌 계장 할 때인데.

이창식, 어촌계장.

우리 동네가 4동으로 이렇게 나뉘져 있어요.

4동으로요.

바다도 4동으로 나뉘져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앞 섬.

섬?

섬. 거기서 나는 톳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값이 막 비쌌잖아요.

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학교 재정도 막 모자라고 하니까, 그 어촌계에서 1 년에 100만 원씩 학교에 기부했지.

100만 원씩! 학교 톳이구나예?

팔아가지고, 기금으로 100만 원씩. 그게 1년에 한 번씩 돌아 가니까.

마을 4개에?

4동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했을걸.

마을 4동이 1년씩 돌아가면서 100만원씩 학교 기부를 했네요. 그릇?

자금으로.

그게 한 몇 년 정도 했습니까? 10여 년?

한 10여 년 했을 거예요. 73년인가 74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70년 말까지는 하지 않았나. 80년대 들어서서 경제가 조금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전에는 뭐 정말 어려웠고.

그래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 바당이 이십이다. 온평리도 그렇고 거기서 생산되는 기금을 갖고서 학교 운영에 좀 보탬이 되는데, 동복리도 그렇게 했네요.

동복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우리 한 3년 전인가,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학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촌계에서 회사받은 걸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식이 그때는 살 때니까 나왔던데, 이창식이 어촌계장 할 때, 우리가 그 회사도 받으면서 학교 운영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창식이 어촌계장을 하실 때,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셨다는 거네요. 대단하시네. 그리고 또 해녀분들도 동조하시니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해녀가 아니라도 동별로.

예, 동별로.

그러니까, 해녀가 아니라도 한 동에 한 40, 45세대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45명 이 중에 해녀는 35명쯤 될 거예요. 해녀 아닌 사람은 한 10명. 그리고 그분들도 톳 같은 거 하나. 그게 알고 보면 자기 배당금도 학교에 다 회사하는 거죠.

톳 채취해서 그 배당금을 학교에 기부하신 거니까, 어느 면에서 여기에 있는 할머니들이, 지금은 다 할머니가 되셨는데 다 학교에 기부하신 거네요.

근데 지금 노인당에 있는 할망들, 몰라. 옛날 거 다 잊어버려서.

## 또 다른 공헌자들

---

김용옥이라는 분은?

그 용옥 씨는 부산에, 무진 회사.<sup>20)</sup>

부산에 무진 회사요?

증권회사, 그런 은행 회장이었었고, 또 천초 공장.<sup>21)</sup>

예. 천초 공장을 하셨어요?

미원 회사 운영해서 사장님이었어요.<sup>22)</sup>

사장님. 이 동복 출신이라서 그때 학교 할 때 기부하셨고. 근데 이분이 제일교포이십니까?

아니에요.

제일교포가 아니라고요? 근데 제일교포로 나와 있는데.

어릴 때 아마 동복 떠나서 부산에서 살았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서.

그때 교실 신축 기금으로, 59년에, 김용옥이라는 분이 한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비석 지금 세워 있어요.

예, 비석 세워져 있는데, 제일교포는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에?

사업가였죠.

사업가에. 그러면 이분 자제분들은 부산에?

예, 부산에 무슨 대학교 교수인가 했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후에는 뭐 전혀.

그러면 여기 친척들도 없어요?

친척은 딱 한 분 있어요. 다 육지 살아서.

---

20. 무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도입한 상호 금융 조직이다. 1947년 늘어나기 시작했고, 1948년 전국적으로 성행했다. 1948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만 49개의 무진체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106개 업체가 영업을 했다. 무진의 이자는 고리채에 비해 낮았으나 시중 은행의 이자보다 높아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에 1949년에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국사편찬위원회, '무진의 쇠퇴와 계의 증가', "우리역사넷").

21. 우뭇가사리를 제주에서는 '우미' 또는 '천초'라고 부른다. 천초는 일제강점기 전쟁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대규모로 채취되었다. 제주에서 또 한 해녀들이 채취하는 주요 해산물 중 하나였다.

22. 미원 회사는 1956년 설립된 한국 기업이다.

그러면 1952년에 학교 부지를 기증한 김정중? 김정중은 학교 토지를?  
김정중. 예. 저 집터.

집터를 기증하셨나요?  
자기가 살던 그 집터를 희사했죠.

살던 집터. 그 집터라는 게 지금 학교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어있는 학교예요.

지금 학교?  
그 김원보 씨하고, 원보가 있을 건데.

김정규가 있습니다.  
정규도 있고, 원보도 있어.

김원보, 그다음에 김정규 이 세 분이 학교 터를 기증했나요?  
토지를. 자기네 집터를 내놓은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가 이분들의 집터에 다가마련한 건가요?  
응 집터. 한 몇 분이 아마 돈 받아서.

아, 김원보도 계십니다. 학교 부지를 이경화?  
이경화.

예. 김원보, 고정옥?  
고정옥. 예, 예.

이 세 분이 학교 부지도 내주셔서 이분들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경화라는 분은?  
김원보 비석은 세워 있고.

예. 김원보, 이경화 씨도.  
응.

고정옥?  
고정옥 심방. 심방 해난, 할망.

심방했던 분.  
큰심방이었어요.

이분도 학교 부지를 같이 내놨었나요? 이  
경화는요?

이경화는 돈으로 내놔서.

돈으로.

조금 좀 사니까 그 당시는.

김원보는 땅을 내놓으시고.

김원보는 땅 내놓고.

그다음에 김정규는?

김정규도 땅 내놓았을 거고.

재일동복리 출신 친목회 이양근이라는 분  
은요?

이양근이라는 분은 있는데, 그분이 비석이 있던가?

비석은 없습니다. 근데 동복친목회로 같이  
됐을 거 같아요.

이양근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교포인 줄 아는데.

예. 교포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난 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양근은 재일교포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  
요.

황태유 씨는?

황태유?

어 황태유인가, 황태윤인줄 아는데 교포입니다, 그분은.<sup>23)</sup>

황태유, 이분은?

이분은 교포인데 지금 비석도 세워 있고요.

비석은 세워 있고요.

예. 회사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건 잘 아는데. 이양근 씨는 여기  
한 번 다녀가 본 적도 없고.

23.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 교정에 세워진 비석 가운데 「재일교포 황태유기념비(在日僑胞 黃泰裕記念碑)」가 있다. 비석에는 1973년 5월 당시 동복국민학  
교육성회에서 건립하였다고 새겨져 있다. 이름은 황태윤이 아니라 황태유가 맞다.(제주교육박물관, 『우리학교공덕비이야기』, 2017, 317쪽.)

그렇게 활동하시고 또 재일교포 이창림이라는 분이 계시우다.

이창림이 있었어.

이창림 이분은요?

그분도 왔다 간 거로 아는데.

왔다 갔고요. 그럼, 여기 이분은 교포인데 어디 살고 계신지?

이창림이라는 분은 계신 거는 아는데, 어디 사는 건 좀 모르겠어. 어릴 때 다 가고 우리 선배님들이랑 간 사람들이라 모르죠. 어디 사는지.

아까 말씀하신 황태유 이분도 비석 있습니다. 운영기금하고 비품 기증을 했어요.

그분은 열심히 여기 자주 왔었어요.

여기 부모님이 계셨나요? 한국에.

부모님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이 동북에서 태어나서 언제 일본에 가셨는지는 모르고요?

예. 저희들 보다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0년 선배쯤 됐을 겁니다.

김갑생 어른보다 10년쯤 선배?

우리 아버지보다는 밑에 있고.

황태유 이분은 마을에 와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왔다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3년. 그럼, 자주 만났었다는 거네요?

자주 만날 때 제가 뵈 분이니까.

그러면 와서 마을을 방문하고.

예, 예.

리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서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다음에 신영준, 신자 영자 준자.

예. 이분도 교포예요.

아, 이분도 교포?

그분은 자제분들 여기 있었고.

이분은 마을 발전 기금을 내고, 마을 전기 가설, 학교 발전 기금을 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형제뻘이죠.

김두일 아버님하고는.

성은 다른데, 거기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였어요, 작은할머니.

여기 어머니가 작은할머니.

나의 작은할머니 되었지. 배다른 형제간이지.

아버지하고 배다른 형제간이라는 말인가요?

아버지에게 작은어머니가 되는 거. 우리 당주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가 그 당시에 홀로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2차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살았었어요. 4·3 사건까지. 신영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작은마누라로 온 거죠.

신영준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작은 부인으로 오신 거네요.

그 할머니 손들이 지금 많이 살아 있어요. 그 가족의 사촌들까지 하게 되면 많이 있어요.

신영준 이분도 교포이시고, 어디 계셨어요?

일본서 장사, 된장 공장.

된장 공장?

일본서 했었어요.

신영준 이분은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된장 공장을 어디서 했었습니까?

그분도 다 오사카에.

아버지와 동북학교에 대한 이야기 등등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03

## 김정옥

수산초등학교(성산읍)



김석범



### 공헌자 김정옥 1900년대생 추정

1900년대생으로 추정되는 김정옥은 1957년 2월, 성산읍 수산리의 수산초등학교 4개 교실과 교무실을 개축할 당시 기성 회장이었다. 성산읍 수산리는 경주 김씨의 집성촌이었는데, 20~25가구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김정옥은 마을의 큰 어른이었고, 일찍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1935년경 도지사로부터 ‘유서당’이라는 2년제 교육 과정 설립 인가를 받아 학교 취학 전 아동들을 교육했고, 김씨 집안의 청년들 또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직접 교육했다고 한다. 제주도 학무위원, 유서당 후원회장을 역임했다. 1960년대 중반 작고했다. 생전에 궁대오름(궁대악)에 당신의 못자리를 직접 정했는데, 후에 지관으로부터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묘 없이 관리 보존되고 있다. 생전에 가족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 제보자 김석범 1961년생(주민등록상 1962년), 김정옥의 손자

김석범은 1961년생으로 성산읍 수산리에서 출생했다. 김석범의 아버지 김두표는 1929년생으로, 김정옥의 3남 중 막내였다. 김정옥의 첫째 아들은 육지로 이주하여 왕래 없이 지냈고, 둘째는 요절했다. 김두표는 제주에 남은 유일한 아들이었으므로 종손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를 이어 김석범 또한 종손 역할을 하고 있다.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 가족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마을의 존경을 받았던 김정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김석범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마을 이장을 역임했다. 당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정책이 제안되었고, 수산초등학교가 1순위로 지정되었다. 김석범은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는데, 교육청 보조금 50%, 마을 자부담 50%의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마을로 유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최대 80여 명의 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후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수산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세 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다시 떠올리며

---

수산초등학교 설립 당시에 할아버지이신 김정옥님이 기성회장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설립 당시 공헌을 하신 분,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많이 돌아가셨고 생존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토지도 기증하고, 금전적인 기부, 물품 기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들. 지금 저희는 그분들의 후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만나서 혹시 그 공헌하신 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산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산리에서 한석중 박사님을 만났더니 이 자료를 주셨어요. 아마 수산리지를 만들 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범 선생님 만나면 이 자료의 몇 분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몇 년생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년생인지도? 이 자료에 보면 1935년 경에 '유서당'이라는 유치원 설립 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았고, 제주도 학무위원이면서, 유서당 후원회장으로 2년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교에 취학 전 아동들을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산초등학교의 기성회장님으로서 추진하면서 이 학교 설립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신 거 같은데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는데요.

몇 년생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연배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또 동네 분들한테 그냥, 얘기 들은……, 그런 내용 전해 들은 거밖에 없어서.

지금 몇 년생이십니까?

61년생입니다. 소피.

61년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8일.

12월 8일.

주민등록상에는 62년으로 돼 있어요.

주민등록은 62년. 그러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계셨습니까?

나 세 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두자 표자입니다.

김두표.

예, 우리 아버지는 29년생이고.

1929년생,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32년 됐습니다.

32년.

32년 전에.

32년 전에, 93년?

93년도인가, 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김두표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아까 말씀하신 학교 설립할 때라든지, 학무위원인가 그 학무위원으로 막 다니고, 뭐 그런 얘기들만 (들었어요). 큰 틀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 들은 건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교육에 굉장히 헌신을 하신분이잖아. 그거는 아버님한테 들었습니까?

예. 아버님한테 듣고,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지요.

동네 어르신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네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을을 위해 일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당시에 어떤 교육이나……, 할아버지가 서당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나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집안에 제사 먹으러 오면, 방을 차려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야, 내일랑 우리 집에 다 오라” 하면, 와서 앉아서, 구학문을 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구학문으로 하니까. 제사 때나 우리 집안에 큰일 대소사 때 앉으면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처음에 꺼내요. 반 정도는 우리

할아버지 얘기로 꼭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로 돌아가고 하는데. 하여튼 집안에서도, 우리 대 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종손 집안이라서……. 우리가 종손 가지라서 우리 집에서 대소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면 그게 뭐 거의 법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말씀이? 그럼 할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존경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예. 통솔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약간, 이렇게 좋았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 어른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 집안에 큰일이란, 대소사를 말씀하시는데, 집안에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면 아까 할아버지 얘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김석범 선생님네?*

우리 집안, 우리 친척들.

*집안 친척들. 친척들 수산리에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구 수로 하면은 한 20가구, 한 25가구 정도 돼요.

*무슨 김?*

경주 김씨.

*경주 김씨 집안이네요. 할아버지네가 종손 가지이고예.*

예.

*할아버지께서 수염에다가 한복 입고 계시는 걸로 보서는.*

늘 그 복장밖에 없어요. 집에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그런 까만 후리메<sup>24</sup>에 하얀 수염. 검은 털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런 백발로. 다 그런 사진만 몇 개 있습니다. 다른 복장은 하나도 없고.

24. 후리메는 두루마기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 공헌자 김정옥이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

집 안에 큰일이 났을 때 모이면, 사람들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엄청 자긍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수산에서.

예, 그런 거는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떤 품위라든지, 어떤 행동 하나도 좀 조심스럽게 해지죠. ‘누구 손지[손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고 또 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 닮지 안허영. 저추룩 햄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조심성도 가져져요.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할아버지 묘를 지금도 이묘 안 해서 그냥 원 그 자리에 모신 채로 있어요. 저도 희한 지게, 몸이 아파 보지는 안 했지만, 뭐 답답하거나 아니면 꿈자리가 이상하다 하면, 별초 기계를 갖고 할아버지 묘에 갑니다. 그냥 한 다섯 번을 별초합니다. 할아버지 묘만. 희한지게.

그러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묘는 할아버지 당신이 “나 죽으면 여기 왕 묻으라” 해서 사전에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관들이 와서 그 못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는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해서. 다른 묘는 전부 다 윗대 조상들, 우리 가족분들은 모셨는데, 할아버지 묘만 그 얘기를 듣고 옮기기가 좀 꺼림칙해서요. 제가 답답하거나 꿈자리 이상하면, 별초 해 오면 참 편안해지고……. 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옮기지 않길 잘 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땅을 누군가 한 사람이 사서 4등분해서 다 팔았어요. 명지관을 모셔 가서 그거를 샀다고 하는데. 원래 산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묘를 딱 보고 거기에 이름이 정자 옥자 할아버지 있고, 교무위원이란 직함을 옛날 그 비석에도 교무위원, 학무위원…….

예, 학무위원.

학무위원, 정자 옥자, 이렇게 직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산 사람이 우리 동네 부동산 하는 분한테 전화 와 가지고 혹시 산 이름이 궁대악인데……, 그쪽에 궁대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혹시 정자 옥자라는 할아버지 명함 가지신 분 혹시 알아지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촌 형님이 우다.” 우리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요?” 하니깐, 지관 모셔서 우리 그 땅을 샀는데, (김정옥 할아버지가) 어떻게 거기 가서 못자리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직접 가서 고른 자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땅을 사긴 샀는데 그 묘는 절대 옮기지 말고 그냥 모셔 놔두면, 자기네가 그 땅에 한 치라도 등기를 하게 해주겠다고, 절대 이묘하지 말라고. 그분이 이제 터주대감이니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 해서 그냥 놔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지관이 봐서 굉장히 좋다고 해버리니까, 옮길 수가 있어야지. 모든 게 그냥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할아버님 모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곳에?

우리 공동묘지에 다 이묘했어요.

할아버지만 안 옮기셨구나. 옮기지 마랑 그냥 놔두세요. 대대손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들까지는 할 걸로 봐 지는데, 그다음 이 문제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꺼라? 뭐, 그냥 별초 안 해서 내버릴 건데.

자식에게 말하고 또 다음 자식한테 말해서 대대손손 좋으니깐.

자식들한테 그런 거를 막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걸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손, 삼손 되면 힘든 일 하려고 안 합니다.

김정옥 할아버지는 형제분이 몇 분이었습니다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독자입니다.

독자. 아버지 형제는?

아버지 형제는 세 분이었는데, 큰아버지, 셋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세 번째인데.

막내?

예. 큰아버지는 교편 생활을 했는데, 그 기록은 내가 못 봤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큰아버지가 대한민국 최연소 교장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요?

대한민국 최연소 교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기록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듣기만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목포가 처갓집입니다. 우리 큰어머님이 목포인데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년 공부를 해야 될 거 닳다, 머리가 있으니까”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해서 목포 간 거라예. 목포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큰어머님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육지에서만 선생님을 했어요. 제주도는 한 번도 안 내려와 보고. 우린 큰아버지 얼굴도 잘 몰라 마씨.

거의 왕래가 없었구나?

우리 큰 사촌 형님들은 다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그 최연소 교장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기록은 못 보고요.

그다음에.

셋아버지는 총각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의 집에서 살면서 종손 노릇을 헌 거라 마씨.

종손예.

그래서 내가 태어나니까 나도 독자. 나도 이제 종손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석범 선생님도 종손?

종손 가지가 되는 거니까.

아버님은 뭘 하셨나요?

아버지는 농사를 했지요.

무슨 농사했나요?

옛날에는 그냥 밭농사하다가, 최근에 밀감이 도입되니까, 밀감 농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긍심 이랄까, 또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바로 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 수산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기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한 느낌은 없었는지요?

어렸을 때는 그런 불편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거는 잘 못 느꼈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마을에서는 어른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어른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느꼈지, 어릴 때는 그냥 무관심했죠.

어른 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예.

그래서 또 새롭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럼 제사나 이런 것도 다 모시고?

예, 제가 모십니다.

## 존폐 위기에 놓인 수산초등학교 살리기

---

김석범 선생님,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은 몇 년도에 하셨나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그때가 처음이지요. 제주도 통폐합 대상 학교 중에 수산초등학교가 첫 번째로 되십니다.

통폐합 학교예요?

통폐합 학교 대상자로.

통폐합 대상 첫 번째 수산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세 학교가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대상?

그때 전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도의회에. 우리가 향의 방문하고……. 양성언 교육감 당시인데, 양성언 교육감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해서 찾아가니까, 이건 정부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고.

그때 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28명.

28명. 지금은 한 50명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48명. 요번에 졸업식 할 때 가보니까 48명. 내가 지금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입니다. 졸업식 때 가보니까 48명이었어요, 나 이장할 때 60 아니 82명, 82명까지 올렸습니다.

이장님 할 때요?

예. 그때 서귀포시에서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발전계획서를 고민하다가 우리 마을이 산촌이니까, 학교 생각이 나서, “야 이거 학교 살리는 게 마을 발전이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을 발전 계획을 학교 살리기 계획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양성언 교육감 향의 방문하고, 교육청 앞에 가서 계속 막 시위하고 또 이석문 교육위원을 찾아가서 하니까, 이석문 교육위원이 관심을 딱 가져 줬어요. “아! 이거 살려야 됩니다. 위원님, 교육감이 학교를 없애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주도 전체가 학교 살리기 하면서 막 불이 일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이 일어났구나예.

예. 그때 이석문 교육위원하고 저하고 제주도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장을 했어요, 초대로. 우군민 지사 때인데, 우군민 지사를 방문해서 “지사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해 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하게 50% 지원해 주십시오” “얼만데?” “한 10억까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부담 10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억 만들고, 마을에다가 20가구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마을이 처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2명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 가구가. 이장님이 몇 년  
부터 몇 년까지?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 당시에 그걸 했기 때문에 조금 뭐한 마  
을에 가면 임대주택들이 있었구나.

예. 그게 시초지요.

그렇게 해서 수산 다음에?

그다음에 송당했어요. 어느 마을도 학교 살리겠다고 하면,  
도에 계획서 내면 50%씩 보조해 주고 다들 지었죠.

임대주택이 50% 보조, 마을 자부담이  
50%. 그러면 보통 가구는, 임대주택 가  
구는 몇 가구 정도했나요?

우리 처음에는 4가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8가구, 그다음  
에 8가구 해서 다해서 20가구.

20가구. 최종적으로 20가구. 그러면 사  
람들이 왔나요?

다 육지에서 오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안 된다, 육지에서 오  
시는 분만 받자…….

육지에서 오신 분, 외지에서 오신 분?

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만.

외지에서 오신 분 위주로 해서.

그런데 이제는 마을 주민들,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  
나 있구나. 결국은 다 나가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도 줄어들  
었지만, 젊은 사람들이야 촌에 잘 있으려고 안 하고. 그때  
도 다 촌에서 시에 가려고 하면 그래도 뭐 조그마한 과수원  
을 팔아서 아파트라도 사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들도 외지인, 전부 다 외지인들만 들어가 지금  
껏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50명 정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학생이. 학교 살리기 운동은 잘 됐  
네요. 그래도 잘 했습니다. 제주시의 복교,  
남교도 무너질 판인데요.

그러니까, 제주시예.

제주시 그 역사 깊은 학교도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왔는데, 시골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지금 복교 몇 명 안 됩니다.

처음에 학교 살리기 하면서 우리 자부담금을 5억을 만들려고 하니깐, 처음 1차 할 때는 마을 공금 있는 거 5억을 자부담으로 쓰고, 2차 할 때는 돈 없으니까 성금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때 2차까지도 내가 대책위원장으로 하고 5억 목표인데, 그때 6억 2천인가 모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십시일반 전부 다, ‘야, 이걸 우리 아들 직시여’<sup>25)</sup> 하면서 100만 원, ‘이건 딸 직시여’ 하면서 50만 원, 이걸 누구 직시여 하면서 30만 원. 그래도 촌의 사람들 동참을 잘 합니다. 왜 우리 촌에 뭐 잔치나 대소사 나면 이거 딸 직시, 아들 직시 하지 않습니까.

이중 부조도 하고.

부조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명단에 올리려고 참석을 한 거라. 진짜 눈물 나게 시리. 참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살린 거 아닙니까. 없 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25. 직시는 제주어로, 깃이라고도 하며, 나누는 물건의 한 몫을 뜻하는 명사다.

# 04

## 김창근

평대초등학교·세화중학교



김성화



### 공헌자 김창근 1919년생

김창근은 1919년 11월 10일 구좌읍 평대리에서 태어나 2001년 5월 8일 작고했다. 사립중앙보통학교(1924년 개교, 현 구좌중앙초등학교),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1936년 개교, 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전신)를 다녔다. 4·3 당시 구좌 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고, 4·3이 종료된 후 구좌면장이 되었다. 구좌면장이 되기 전, 1951년에는 세화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진정서 연명에 동참했고, 교사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좌면장 시절 1952년 5월 평대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 기성회장으로 활동했고, 장학금으로 금 50돈을 희사하여 지역 교육에 공헌했다. 이후 북제주군교육청 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 제보자 김성화 1935년생(주민등록상 1937년), 김창근의 아들

김성화는 1935년생으로 구좌읍 평대리에서 태어났다. 4세 때 어머니가 작고했다. 이후 아버지 김창근은 재혼해서 3남 4녀를 낳았다. 때문에 김성화는 외동아들이었지만, 이복형제가 7명 있다고 한다. 해방될 무렵 제주도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김성화는 전라남도 구례로 피난을 가게 된다. 아버지 김창근은 집안을 지키는 명목으로 제주에 남아 면사무소 직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김성화는 3년 정도 구례에 살다가 제주에 돌아왔고, 작은아버지 두 분과 함께 세화국민학교를 다녔다. 이후 김녕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교사가 되어 38년간 교직 생활을 했다. 교육감 표창, 문교부장관 표창, 교육부 장관상, 대통령상 등을 받았다. 마을 노인회장을 역임했다.

## 공헌자 김창근의 생애

- 아버님이 김창근입니까? 예.
- 아버님 김창근은 몇 년생인지 알겠습니까? 예, 1919년.
- 1919년. 족보에 나와 있습니까? 예.
- 아버님이 예전에 면장을 하셨나요? 예.
- 아버님이 몇 년도에 면장을 하신 겁니까? 4·3 사건 그 무렵에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 면장을 하시고, 또 50년대에 기성회장이 돼서 학교 교실 증축을 추진했네요? 예, 한 것이 많습니다. 세화중학교 설립할 때도 기성회장인가 했고요.
- 세화중학교요? 예.
- 아버님 그 공적을 조금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성회장,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기성회장.
- 기성회장 하시고, 저희 기록으로는 금 50 돈을 장학금으로 회사했다고 하는데, 그 것도 아드님이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금 50돈을 회사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세화중학교 하실 때도 기성회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아버님은 1919년? 1919년 11월 10일생.

아버님이 학교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초등학교는 구좌중앙초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서귀포실습학교라고 있었습니다.<sup>26)</sup>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졸업하고, 2년제 졸업을 하고, 학력은 그걸로.

그다음에 주로 하신 일이, 아버지 직업이?

아버지 직업은 4·3 사건 당시 구좌면사무소 직원.

면사무소 직원.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4·3 사건이 끝나자 구좌면장을 했습니다.

구좌면장을 하시고, 몇 년간 면장을 하셨어요?

한 3년.

3년에. 그다음에는 면장 끝나고 나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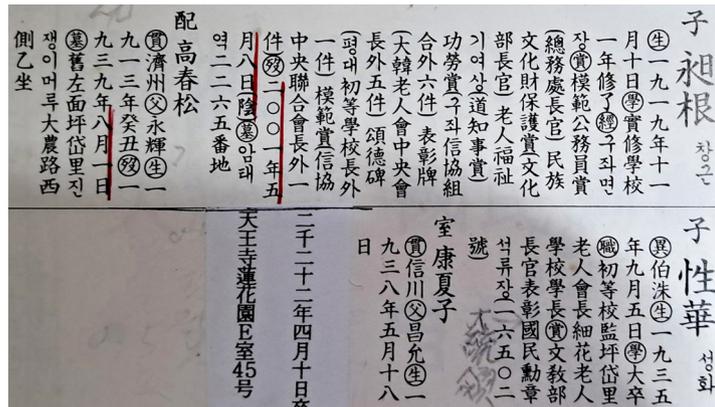
면장 끝나고 나서는, 교육계 관리과장으로, 제주도 교육청인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거기 그런 거 적혀 있나요?

여기 조금 적혀 있습니다.

그거 (족보)<sup>27)</sup> 사진 하나 찍을게요.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나주김씨 인충공파세보』 속 김창근, 김성화의 기록\_김성화 제공

26. 서귀포실업학교는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통칭 서귀실수학교(西歸實修學校)]'로 보인다. 서귀실수학교는 실업보습학교로서 1936년 5월 29일 서귀리 121번지에 개설된 산남 지역 중등 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수업 연한은 1년이며 재학생은 35명 정도의 소규모 실업학교였다. 1941년 4월에 2년제로 개편 승격되어 학급 당 50명으로 편성되어 2개 학급이 완성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2011, 105~106쪽)

27. 족보 기록에 따르면, 공헌자 김창근은 실수학교 1년을 종료하고, 구좌면장을 지냈다고 한다. 모범공무원상(총무처장관), 민족문화재보호상(문화부장관), 노인복지 기여상(도지사상), 송덕비(평대초등학교장 외) 등을 수상하였다. 2001년 5월 8일(음)에 작고했다.(『나주김씨 인충공파세보』 참고)

그러면 아버지가 교육계 관리과장을……; 그거는 제주시?

제주도.

제주도 교육계에 계속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계다가 서귀포도…….

갔다 오시고.

그때 처음에는 제주시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북제주군 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서귀포도 갔다 오고요.

전근해서 이동을 자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버님은 제주시에서 살았습니까?

제주시에서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살았고, 우리는 여기서 살았고.

그다음에 자식이 성화,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누구입니까? 일본 주소인데요.

일본입니까? 아니, 지금 천왕사에 가 있습니다.

천왕사에.

천왕사에 안치돼 있습니다.

아, 천왕사에 아버님이 안치되어 계시구나.

우리 식구들이 거의 안치돼 있습니다, 천왕사에.

천왕사에 안치.

제주시에 저기, 천왕사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연동 위에.

연동.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1919년에 태어나서 2002년?

2001년 5월 8일.

2001년 5월 8일.

5월 8일 이렇게 여기 (족보에) 적어져 있네요.

예.

사시는 건 좀 어땠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돈이 조금 있었는데, 해방될 무렵에 일본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피난 가야한다, 해서 전라도에 피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요?

예. 지리산 밑에 전라남도 구례에 피난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기 혼자 면사무소에 다니면서 집안을 지키겠다고 해서 혼자만 남고. 우리가 일제 말엽에 구례 갔다가 3년 거기서 살다가, 해방도 완전히 됐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자식이라곤 나 혼자.

혼자입니까?

예, 구례에 가면서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왔습니다. 팔아서 가서 거기서 집과 논밭을 사서 살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제주로 오려고 하니까, 그 갈 적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산 거면 50만원도 안 주고 그러니까, 겨우 오는 여비만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 하나만 남고…….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 타서 모은 돈으로 우리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죠. 근데 아들은 나 혼자지만 동생들이 또 있습니다.

여동생들?

아니, 우리 동생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동생.

아버지 동생,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을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할머니네는 돈도 없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전부 형제들 도와주고, 학비 같은 것도 도와주고. 또 봉급 타면 그것도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밭도 무슨 모래땅, 농사도 안 되는, 그런 데라도 산다고 해서 한 몇 군데 사 놓고 해서 “거기 농사를 지어서 사십시오” 하니까 농사지어 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나하고 우리 작은아버지 둘하고 세화초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김녕 가서 세 삼촌 조카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부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오현고등학교 나하고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둘이 입학을 했고. 우리 또 작은아버지 한 분은 농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또 거기서 자취하면서 살다가 졸업했어요. 저는 38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문교부 장관 표창도 있고 또 교육부 장관상이니 대통령상, 이런 상들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노인회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는 교육감 표

창까지 받고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근, 면장님 당시에 기성회장으로서 평 대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를 설립하는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혹시 좀 기억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를 모금하러 다닌다거나,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요?

세화중학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모금 같은 것도 하고, 또 기성회장도 했어요. 평대초등학교는 기성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평대초등학교보다는 세화중학교에 공적이 많이…….

세화중학교에 아버지 공적이 많으시구나.

예, 공적만 해도. 그때 당시는 돈을 모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면장으로 있으니, 돈 얻기가 좀 쉬웠습니다.

면장님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세화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할 때 도움을 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면장님 할 때가 몇 살 정도? 김창근 면장님 될 때가 4·3일 때니까, 여기 나와 신가?

거기 나왔을 겁니다. 그런 자세한 것은 잘 없고.

예.

15대 면장일 겁니다.

15대 면장예. 그 당시에 4·3이니까 1948년, 해방된 후에 1950년 6월에 세화중학원 발기 기성회가 조직이 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아버님이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 9월에 인가 신청을 하고, 10월에 설립 인가를 받았고, 개원을 했네요. 이때 설립 활동을 하실 때 아버님이 많이. 근데 여기 세화중학원 발

네. 부대현 씨가 거기서 교육감 했습니다마는.

기 기성회 조직에서 당시에 부대헌?

예. 그때 구좌면장 하면서 기성회를 만들어서 하셨네.

그다음.

아버지 다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 전입니다.

아버지 전에. 그다음에 아버지가 또 기성회장님을 하셨나요?

예, 뭐 전부 기성회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주로 면장이나 이런 분들 그 직책이 있는 분들이 돈을 모으고 했어요.

1951년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학교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내 이장 및 지역 유지 연맹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김창근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각 마을에 가서 이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금씩 돈 모으고. 일본 교포들 아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한테 모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성회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예.

김창근 아버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 줄 수 있는 업적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도 공적으로 해서 비석도 있고. 그다음에 절.

절?

여기 그 성림사라고.

성림사?

예, 절에 비석도 있고.

원래 불교 집안이십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는 가는 데마다 그 비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땅이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아니우다.

## ‘김창근의 아들’로 살아온 삶

그러면 아버님에 대한 기억도 갖고 계시는데, 본인 아버지로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이런 분이시다’ 해서.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셨구나.

‘김창근의 아들’로.

원망은 안 드나요?

자식들보다 더 밖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형제들?

그럼 김창근 면장님이 제일 큰아들, 밑에 남동생 여동생 있었습니까?

몇남 몇녀였습니까? 아버지 형제는?

그러면 4남 3녀?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고 나 혼자지만, 자식보다는 형제간 또 마을에 좀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교육청에 있으면서도 서귀포 교육청에 있으면서도, 평대 사람들, 노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근무하도록 했구요.

임시 직원이니 뭐니 하면서 많이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는 누굽니다’ 하면 김성화라는 선생보다는 그 선생의 아버지.

예. 나이 많은 분들은 ‘저 김창근 면장 아들입니다’ 하면 다 알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힘쓰신 분입니다.’ 했어요.

원망은 안 됩니다.

예. 자식들한테는 욕을 듣습니다. ‘왜 자식보다는 형제간을 많이 도와줬느냐’ ‘자식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는 동생, 자식도 물론 결혼을 시켜 주셨지마는…….

동생들까지도 전부 해서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네.

아버지 형제가 남자 동생이 셋, 여동생이 셋.

4남 3녀.

김창근 면장님의 자식은 김성화 선생님 혼자?

아니, 혼자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저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혼하시고?

재혼해서 아들셋, 딸 넷.

아들 셋, 딸 넷.

그래서 여덟.

재혼을하시고서 4남 4녀.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새어머니에게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다는 거네요. 물론 아버지 제사는 선생님이 하시고요?

제가 하다가, 아들이 합니다. 지금 제가 91살입니다.

그렇게까지 35년.

35년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깐 37년생으로 호적을 줄였습니다.

원래는 몇년생인데요?

아니, 35년인데 37년으로 올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세화는 공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제 나이가 돼야 하나까.

1937년으로?

1937년으로 나이를 내려서 학교를 갔어요. 지금은 병원·약국이 많지만, 그때 당시 의사들이 없었을 적에는 아이들 낳으면 보통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좀 낮춰서 호적에 올려놔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저 길에 가다 보면 길에도 아기들 무덤이 많았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1935년 9월 5일생이네요. 김성화 회장님은 여기서 평대초등학교 나오셨고?

아닙니다. 일제 말엽에 여기는 평대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화.

아, 세화?

세화초등학교에. 여기는 2년제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1년하다가 그다음에 저는 세화로 또 전학을 갔습니다.

1년은 어디서 다니시고?

여기 평대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는 4년제밖에 없어서. 보성서당이라고 해서, 4년제 밖에 없으니까. 4년 졸업해서 세화에 갈 수가 없으니까, 1학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갈 때 세화로 가서 또 세화초등학교로 가서 1학년에 입학을 해서 6년간.

6학년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세화?

저 말입니까?

예.

김녕중학교입니다.

김녕중학교.

그때는 세화중학교가 없어서.

그래서 김녕중학교, 그다음에 김녕고등학교?

아니요. 오현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제주대 나오시고?

예.

제주대학 무슨 과 나왔습니까?

수의과입니다.

수의과요? 수의과 선생님이시네.

아니 졸업할 때 되니까, 4년제니까 교직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강사로 조금 근무하다가 저 위미초등학교 근무하다가, 그래도 계속 한 3년 근무했지만, 자격증은 있는데 정식 발령이 안됐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남기 때문에 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 봐서 그거 합격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육지로, 경북 선산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경북 어디예요?

선산입니다.

거기서, 육지에서 선생님이 하셨구나?

거기서 3년 하다가 교환 선생님이로 여기로 어떻게 해서. 제가 장손이고 그래서 여기로 보내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왔습니다.

같이 살면서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교사 생활 전부하면 38년 동안.

38년 교사로 정년퇴임 하셨네요.

예.

## 또 다른 공헌자들

---

혹시 김행태라는 분 아세요?

예.

김행태. 평대 분이십니까?

예.

이분의 혹시 자제분이나 누가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름은 몰라요.

김행태 이분도 세화중학교 할 때 운동장 830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분은 동동. 세화 바로 붙은 마을. 우리 평대긴 평대입니다 마는.

아, 평대?

그런데 여기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평대초등학교 교사할 때 그 딸은 제가 가르쳐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예, 근데 그 아들은 그 애보다 선배인데,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죠.

김행태라는 이분이 땅을 830평을 세화 중학교에 기부했어요.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세화중학교 할 때 김호종?<sup>28)</sup>

네, 호종.

---

28. 앞에서 언급된 제보자 김호종과 동명이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다.

김호종 이분도 평대 분으로 나와 있는데.

평대 이장도 했고.

예. 평대 이장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평대 이장님 전에 읍의원.

읍의원?

지금과 같으면 군의원, 도의원 하듯이, 읍의원 하면서 아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이장할 때는 4·3사건 당시인데, 그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한 거 같고…….

김호종 이분이 4·3 당시에?

예.

그러니까 세화중학교는 세화 사람들만 아니라 평대 분도 기부하셨네요.

예. 각 마을에 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예, 그렇게 했네요. 그다음에 김도준은 모르시겠습니까?

김도준 씨는 도의원.

도의원.

도의원 하면서 도의회 의장까지 했었는데. 근데 거기는 참 잘 살다가 어떻게 집안이 안 되려고 하니깐. 지금 세화에도 자식들은 없을 겁니다.

이분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 도의회 의장하면 지금도 도의회 의장 하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참 우리 평대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구좌읍에도 그분이 도움을 많이 줬을 겁니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보니까 여기저기.

여기서 김경학이 활동하듯이, 진짜 도의회 의장을 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여기 세화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저 제주시에 가서 살았어요.

강경순, 현을생은?

강경순입니까?

강경순, 현을생은 보성서당 부지 매입기금?

그분들의 자손들은 여기 없을겁니다마는. 저기 그 비석이 있습니다.

예, 비석에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비석에 있고, 그 옆에는 체육에 대한 거든지, 또 기성회 그런 공적들 저희 부친님의 비석도 있습니다만.

예. 양기찬, 허순기 이분들도 보성서당?

그분들도 아마 보성서당. 그 현 누굽니까?

양기찬, 허순기 보성서당 건립할 때?

예. 그 세 분이 비석 3개가 있을 건데요.

예, 예. 숙인 김 씨 기념비라고만 돼 있는데, 김 씨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광산 김씨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아, 이거 여자분입니까? 여자분들이니까 이름 안 써서 그냥.

예, 보통 돌아가셔도 이름을 안 쓰고 성만.

광산 김씨. 이분이 학교 부지도 많이 내놓고 했는데 이름은 모르시구요?

예.

그다음에 고용자 우자, 고용우.

고용우라는 분은 일본 교포인데.

일본 교포예요?

교포인데 그분이 4·3사건 후에 평대초등학교에 일본에서 여기 같으면 기성회식으로 일본에서 돈 같은 것도 모여서 여기 보내주고. 또 약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분 혼자서 약기니 뭐니 그런 걸 한 것이 아니고.

합쳐서예?

합쳐가지고. 거기도 일본에서 여기 같으면 기성회장이죠.

그러면 이분은 오사카에 계셨던 건가요?

예, 오사카에.

오사카에 평대리 친목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

거기 교포들이 많았습니까?

예, 지금도 많습니다.

평대에. 그럼 지금 평대 친목회가 오사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안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70년대나 80년대에 이 친목회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돈을 많이 보내주고.

예, 많이. 지금도 보냅니다.

지금도 보내와요?

예, 지금도 보내와서, 리사무소 앞에 가보면 비석이 있고. 우리 경로당에도 돈을 좀 보내줘서 경로당 사무실 짓는 데도 조금 보태주고.

지금도 항상 기부는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예.

개인적인 기부가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친목회 단위로 기부하시는 것이 많아요?

지금 비석을 보면 개인 부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부조가예. 강자 운자 봉자, 강운봉? 4·3 때 돌아가셨어요?

강운봉. 거기는 4·3 사건 때 돌아가셨지예. 예.

이분도 토지를 내놨어요. 학교 부지를 내놓으신 분인데, 이분 자제분들이 누가 있는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두만. 김 두자 만자, 김두만.

김두만은 이름은 들어났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이장님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제가 김두경이 있는데. 김병원 이분도 재일교포인 것 같아요.

김병원. 이분은 아마 저 대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걸로 보는데.

대전에서요? 제일교포가 아니고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제일교포 중에 고자 용자 택자  
고용택.

고영택이가 그 아까…….

고영우.

고영우.

고영우하고 고용택하고는 무슨 관계?

형제간일 겁니다.

형제간예.

그분들이 한 번씩 오면 회사도 하고. 학교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대충 언제 일본에 갔는지는 알아  
지겠습니까? 일제시대에 넘어갔을까요?

일제시대에 넘어갔주.

일제시대에 넘어가니까 자손들은 다 일본  
에 있겠네요. 그래도 이분들은 생전에 마  
음에 자주 왔다 갔다 많이 하셨고.

예.

# 05

## 문창행 신엄중학교



### 공헌자·제보자 문창행 1926년생(주민등록상 1927년)

문창행은 1927년생으로 애월읍 신엄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신엄중학교 설립을 위해 애월읍의 네 개 리(신엄, 구엄, 중엄, 용흥)가 합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문창행은 5~6년간 신엄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장직 직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약 3년간 추진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1971년 3월 3일 신엄중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활동 기간 네 개 리의 이장들로 간사와 총무 등 역원을 골고루 구성했고, 재일교포들과 연계하여 '재일설립기성회'를 조직했다. 역원들은 우선 토지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을 했다.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사정하고 설득하여 결국 5,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했고, 이후 일본에서 자리 잡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 건축 관련 모금을 했다. 재일교포 포함 학교 설립을 위해 애 써주신 분들 모두 초청하여 개교 기념식도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 1973년 백정혁(재일교포)의 동상을, 1983년 이오만(재일교포)의 송덕비를, 그리고 1986년 문창행의 송덕비를 세웠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927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해 줄여서 1926년 생입니다.

신업중학교 설립 기성회 역원 명단에 위원장 문창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 기성회 역원이 되셨습니까?

여기가 4개 리(신업, 구업, 중업, 용흥)인데, 4개 리 인원이 전부 모여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할 때 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마을의 직책을 맡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이장을 한 5, 6년 했습니다. 그만둔 직후였습니다.

## 신업중학교 설립을 위한 4개리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

설립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습니까?

재일교포 백정혁 씨가 일본에 살면서 관동과 관서 양쪽 지부의 책임을 맡았고, 저는 고향에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관동과 관서에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서도 관동과 관서에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서도 관동과 관서에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성회를 만들자고 한 건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마을에서입니까, 일본에서입니까?

구업국민학교에서 4개 리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 위원장이 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본에도 신업 사람이 많이 갔고, 또 여기도 신업 마을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고, 신업 사람이 일본에도 많이 살고 신업리가 크니까 부지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업에서는 '그럽시다' 해서 부지는 신업에서 내놓고, 소소한 비용들은 4개 리에서 조금씩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부지는 동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사정해서 100

평씩 기증받았습니다. 일부는 모슬포까지 가서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모슬포에 살았거든요.

토지 기증자 중 김예직, 이종혁, 이용만, 고한섭, 이인옥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대판에 계셨던 이종혁이 토지 961평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토지를 직접 낸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밭 전체를 사지 못하니까 규격 맞춰가지고 끊어서 샀습니다. 전체가 약 5천 평 되니까, 100평이 필요하면 50평씩 끊어서 하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고한섭 씨는요?

고한섭은 여기 신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임리 김예직이 240평을 내놨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슬포에 사는 분인가. 당시에 모슬포에 가서 밤새워가며 사정해서 샀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임2리민 일동이 토지 3,554평에 110만원을 희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신임리민들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 직접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다니면서 엄청 사정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개교할 때까지 얼마 동안이나 추진되었습니까?

대략 3년 걸렸습니다. 제가 43세에 시작해서 46세 무렵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1971년 3월 3일 개교)

3년 동안 계속 사람들 찾아다니며 희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회의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사정하면서 술도 가져가서 먹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동네 학교를 위한 건데요?

동네 사람들도 일부는 함께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쓰셨겠네요. 개인 돈으로 술도 사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돈이 그때는,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일이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매입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시작되니까 각 마을별로 얼마씩 모여서 매입했습니다.

*위원장이 문창행이고 부위원장이 강성중, 고성중, 하순봉인데, 다 돌아가셨습니까?*

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흥 사람, 중엄 사람, 구엄 사람인데, 부회장은 각 마을에서 한 명씩 골고루 안배했습니다.

*강성중은 어디입니까?*

구엄입니다.

*고성중은요?*

중엄입니다.

*하순봉은요?*

용흥입니다.

*명예회장 김순범은 어디 분입니까?*

거진 중엄입니다.

*각 마을별로 골고루 역원들을 안배하셨네요?*

네 구엄 사람, 중엄 사람, 신엄 사람, 모두 이렇게 안배했습니다.

*고문인 박항은 어디입니까?*

신엄입니다.

*문창규는?*

중엄입니다.

*문영백은?*

구엄입니다.

*강갑능은?*

용흥입니다.

*김두길은?*

신엄입니다.

*강재윤은?*

중엄입니다.

*백흥관은?*

신엄입니다.

- 백흥관이 백정혁 씨의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 백정혁 씨가 일본에 계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 본처의 아들입니다. 일본에 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한 겁니다.
- 백정혁 씨가 왔다갔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여기 간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고승종은 어디입니까?      구엄입니다.
- 박성인은?      신엄입니다.
- 현상엽은?      신엄입니다.
- 고재윤은?      중엄입니다.
- 강진현은?      신엄입니다.
- 강순범은?      구엄입니다. 간사들은 다 그때 당시 이장들입니다.
- 임두식은?      중엄입니다.
- 양두길은?      용흥입니다.
- 간사들은 다 이장들이셨구나. 보니까 골고루 안배를 잘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일을 추진 할 수 없습니다.

## 재일교포와의 협력

---

일본 쪽에서는 총대표가 백정혁이고, 관동 지구에서는 이오만인데, 이분이 성공하셔서 돈을 많이 보탬나 봅니까?

많이 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돈을 내놨습니다. 1개 교실 값을 내놨습니다.

아네, 100만원을 내놨다고 했는데, 100만원 내신 분이 여럿 있습니까?<sup>29)</sup>

예, 그렇습니다.

이춘식(관서지구 책임자)도 100만원, 박종식도 100만원, 이창부도 100만원을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 모두 신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임에서 일본도 많이 가 있고, 그러다보니 성공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신임에다가 학교를 할 수밖에 없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백정혁 씨가 총대를 메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랑 같이 조율해서 한 겁니까?

한 2, 3년 걸쳐서 일본에 가서 고향에 와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학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 쪽에서 와달라고 우리가 초청해서 왔다 갔습니다.

개교 기념식 할 때 초청해서 오셨습니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그때는 한 번에 모두 오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한 20명쯤 왔을 겁니다. 차례(次第)에 고향에도 와보고, 우리가 초청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오신 분들은 민단 사람들입니까?

예, 모두 민단입니다. 기부자들은 모두 민단 사람들입니다.

조총련 쪽도 그때 일본에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요?

조총련은 연결을 안 했습니다.

---

29. 신임중학교에 세워진 장학탑에는 학교 설립 당시 재일교포들과 마을 주민들의 기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재일교포 기부 내역의 '100만원(圓)'은 당시 1970년도 일본 화폐 단위라고 표기 되어 있다(양정필 외,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제주학연구센터, 2024, 152쪽).

일부러 안했습니까?

예, 만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때 한 사람들이 전부 민단이었습니다.

민단으로만 하셨군요. 이오만의 아들이 나중엔 로베로(호텔) 사장이 된 겁니까?

이오만의 아들이 이시만입니다.

관동지구 쪽엔 백창해, 정진양, 문두하, 이경순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문두하는 우리 8촌간입니다.

문두하는 총무를 하셨네요. 아, 8촌이십니까. 그럼 자손들은 거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손들은 여기에 옵니까?

아니요, 안 옵니다. 당시에 한 몇 번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습니다.

묘도 다 일본에 있습니까?

예, 일본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진위원회 만들고 나서요?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모금운동을 해서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모금운동을 하는데, 돈 모금을 여기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밭 사는 것만 우선 찾아다니면서 사정해서 사가지고 했습니다.

밭을 다 마련한 후에는요?

밭 사는 건 우리 신업에서 내고, 완전히 밭을 다 마련한 후에는 학교 건물을 만들어야 하니까 일본에서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는 신업에서 책임지고, 그다음 학교 건물 만들 때 교포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교포 중 맨 처음엔 백정혁 씨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때 이오만 씨가 있는데, 우리하고 외가로 사촌간도 되고, 사정해가지고 개인별로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체를 조직하기 전에 개인별로 부탁을 해서, 거기서 단체가 고향에 학교 짓는 것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해서 거기서 추진위원회인가 기성회인가를 조직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마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오만 씨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거 학교를 하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관동과 관서로 나뉘서 만든 겁니까?

그걸 할 때는 백정혁 씨가 관동지구 기성회 총대표를 했습니다.

백정혁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오고 일본에서도 동경도 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도 왔다 갔습니까?

그때 처음에 부교육감이 현지 와서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학교를 만들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했는데, 후에 여성인 최 교육감이 함께 여러 번 왔다 갔는데, 시골에 와서 “아이고 이거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최 교육감이 말하기를 “국민학생이면 모르지만 중학생은 이렇게 날카로운(자연 환경이 거친) 곳에서 키워놔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감이 막 후원도 해주고 해서 부교육감도 “그러면 우리 해줍시다” 했습니다.

## 구엄초등학교 설립 이야기

---

혹시 구엄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좀 아십니까?

구엄초등학교는 맨 처음에 사립 일신학교(日新學校)라고 했습니다. 중엄에서 했는데, 그때가 신엄이 합해진 때입니다. 신엄 사람 중 성여흥(成呂興)이라는 어른이 그 터를 내놨습니다. 그분이 아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밭 두 개니까 막 내 받을 했던 겁니다. 터를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

성여흥이 신엄리 출신입니까?

예, 신엄입니다. 손자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백창유(白昌由) 씨가 희사했다는데 여기도 신엄 사람입니까?

예, 신엄 사람입니다.

신엄 사람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많이 역할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백창유 씨가 중엄으로 가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엄 분인데 왜 중엄으로 갔습니까?

중학교 때는 거기로 가서 사셨습니다.

# 06

## 임국립

저청초·중학교



조인숙



임안순



### 공헌자 임국립 1910년생

임국립은 1910년생으로 한경면 청수리에서 태어났고, 1995년 작고했다. 당시 구우면이었던 지역이 한림면으로 개칭된 이후 한림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역의 유지였고, 지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았다. 1946년 3월 청수 2구장이었던 양세증과 함께 청수국민학교를 세우기로 합의하고 가마오름의 일본군 강도 진지의 목재를 이용하여 3개 교실을 신축했다. 하지만 4·3을 겪으며 학교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마을을 재건하며 저지리의 최병삼 등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저지국민학교와 청수국민학교를 통합·복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임국립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저청교 설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지리 1515번지 주변을 학교 부지로 정하고 1950년 5월, 저청국민학교로 인가받아 6월 1일에 개교했다. 1961년 또 다른 공헌자 최원일이 500평에 달하는 토지(4,959m<sup>2</sup>)를 학교에 기부했는데, 이 또한 임국립의 제안으로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 임국립은 1964년 개교한 저청중학교 설립 당시 기성회장을 역임하여 일을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기성회 공로비가 세워졌다. 이 외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썼다.

### 제보자 조인숙 1936년생, 임국립의 며느리

임국립의 며느리 조인숙은 1936년 한경면 조수리에서 나고 자랐다. 지금은 폐교된 조수국민학교를 다녔다. 결혼 전, 학창시절부터 시아버지의 명성을 익히 들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였던 임국립은 성인이 된 후에 한림국민학교 명월분교장을 다녔고,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였다고 한다. 이후 저청국민학교 설립에 앞장섰으며, 기타 지역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아버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시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1961년 시아버지의 권유로 최원 일 씨가 학교에 토지를 기증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 제보자 임안순 1959년생, 임국립의 손자, 조인숙의 아들

임국립의 손자인 임안순은 1959년생이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지만, 교육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할아버지의 모습만큼은 기억하고 있다. 임안순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청중학교 설립에 힘썼으며, 지역에서 가장 척박한 땅을 사들여 경지 정리를 한 뒤 다시 분할·배부하는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경면 청수리 일대의 곳자왈 개발에 반대 운동을 펼쳐 지금의 ‘반딧불이마을’을 만들어 냈다. 임안순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제주를 떠나 육지에서 살다가 1997년, 17년 만에 귀향했다. 귀향 후 자녀들이 다니게 된 조수중학교가 학생 수 미달로 통폐합 대상에 선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여 폐교를 막아 냈다. 이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웃뜨르권역추진위원장, 제주시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위원장, 청수리장,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국립은 시아버지 되십니까?

(조인숙) 우리 시아버님 맞습니다. 임자 국자 립자.

혹시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임안순) 살아계시면 백열여섯. 1910년생입니다.

(조인숙) 우리 시아버지가 팔십여섯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 가까이 됩니다.

## 저청초·중학교 설립 활동

그럼 1946년에 학교 설립 활동을 하셨으니까 당시 30대셨겠네요.

(조인숙) 예. 시아버지가 30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저는 조수리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주위에서 시아버지 같은 분이 없었어요. 학교 육성회의 때 큰 말을 타고 갔는데, 일본어로

다스리는 개가 따라갔어요. 우리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일본 제국 시대일 적에 사람들이 ‘저분이 청수에 사는 임국립 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마을에서 유지이셨나  
봅니다.

(조인숙) 한경에서는 아주 알아줬습니다. 당시는 한경면이 아니고, 한림면…….<sup>30)</sup> 관내에서 우리 시아버지가 한림협회의 회장을 했어요.

학교를 만들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인숙) 저는 어렸고, 우리는 조수니까 조수국민학교를 다녔어요. 한림 관내에 두모, 신창, 고산보다 조수에 학교가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저칭학교……, 저칭이라고도 안하고 저지에 학교를 지었는데, 학교를 만들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만 들었지 잘 모릅니다. 일하던 사람이 다쳐서 사고가 났다고. 그 당시에 우리 시아버지가 학교를 만들고, 중학교도 나서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4·3 때 마을이 많이 불에 타고  
나서, 마을을 재건한 후에, 저칭교 설립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두 마을이 공동으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저지리 최병삼 씨 아십니까? 이분과 함께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인숙) 아니, 이름만 알지, 잘 몰라요. 최병삼 씨가 마을에 협조를 많이 했어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지리에는 최병삼 씨, 청수리에는  
임국립. 이렇게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통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려고 할 당시에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들은 기억이 있습니

(조인숙) 어렸을 때는 4·3이 나고 어려운 때니까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협조를 했고, 그렇게 협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때니까, 위낙 힘든 때니까요.

30. 현재의 한경면은 과거의 구우면(舊右面)에 속하는 지역이다. 과거의 구우면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 한림읍 서부 지역과 한경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1935년 한림면으로 개칭되었고, 1956년 한림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한경면이 분리 신설되었다.

까? 돈을 모으러 다녔다거나 부지를 기부  
했다거나 하는…….

시아버지는 혹시 마을에서 어떤 직책을 맡  
았다던지,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조인숙) 구장을 했고, 협의회장도 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시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  
아버지가 그 옛날에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했어요. 여기는 학  
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월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  
교.<sup>31)</sup> 그래서 명월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제주시로 가서 농업  
학교를 다녔지. 그게 지금은 대학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이  
산간에서 농업학교 나온 분이 우리 시아버지 외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관심  
도 더 많으시고 마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  
교, 중학교 만들 때도 앞장 서셨네요.

(조인숙) 중학교는 학교가 없어서 인가를 못 받았어요. 학교  
인가를 받아야 중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민학교라고 있었어요

공민학교요?

(조인숙)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못 간 사람들을 보낸 거죠.  
공민학교라고, 애네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들 잘라다가,  
그것도 돌로만 쌓아가지고, 이제 공민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조인숙)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하는 말이 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  
어서. 그때 저지의 최원일하고 최병삼하고 같은 집안의 숙질  
이에요. 최원일 그분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거길, 최원일이네 집에 가니까 그분이, 형님이 ‘우리 집에 무  
슨 일로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사정할 일이 있어서 왔  
어요.’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저한테 사정할 일이 뭐가 있습  
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중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당신이 생각하기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

31. 제보자 조인숙이 기억하고 있는 명월학교는 현재는 한림국민학교에 통합, 폐교된 명월국민학교다. 명월국민학교는 1955년 한림국민학교 명월분교장으  
로 인가를 받고 개교했다. 1967년 명월국민학교로 승격했으나, 1993년 한림국민학교에 통합, 폐교되었다. 임국립이 학교를 다녔던 때는 명월국민학교 승  
격 이전 시기인 것으로 짐작된다. 설립 직후 다녔다고 해도 40대 중반의 나이이다.

렇게 마주치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좀 협조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니, 얼른 대답하기를 '아이고, 형님 좋은 생각행' 얼른 대답을 해. 그 우리 시아버지 하는 말이 그분이 그렇게 너무나 고맙고,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요.

네, 최원일 씨가 토지를 기증하신 게 중학교, 초등학교?

(조인숙) 중학교 인가가 안 났을 때 고등공민을 만들었는데, 땅을 기부받으니까 교육청에서 중학교 인가가 나왔어요. 중학교 인가가 되니까.

최원일 씨가 아까 토지 기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인숙) 최원일이가 그 땅을 내놨어요. 저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 말을 그렇게……, 어른, 훌륭한 분이라고……, 시아버님이 가서 사정하니까 두 말 없이 땅을 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너무 훌륭한 분!' 아버지가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시아버지가 저청중학교 기성회 회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조인숙) 우리 시아버지는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사람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학교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 공헌자 임국립의 철학과 마을 활동

---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격은 어떠셨어요?

(조인숙) 우리 시아버지는 공적인 일이라면 집의 일을 생각을 안 해요. 가정을 생각 안 하고, 오직 공적인 일이라면 앞장섰어. 마을에선 어떤 일이 있어도……, 농촌에서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기술자 협회에서 오랫동안 회장을 했어요. 농업기술자협회. 가정은 생각 안 하고, 공적인 일이라면, 당신이 필요할 때 어디라도, 무슨 일이라도, 나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86세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이런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인숙) 우리 시아버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한 분이 정말 없어. 우리 시아버지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농업학교 다닌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시아버지 한경면에서 제일 먼저 갔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봐요.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없습니까? 이제 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요.

(임안순) 일단 할아버지는 한학자라고나 할까? 굉장히 유식 하셨고, 옛날부터 독서를 많이 하셨고. 제주도 그때 당시에는 배움의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토론하고 연설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들 모아놓으면 항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거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이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늘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죠. 집의 일은 아예 안 하시고. 아침 되면 무조건 나가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아놔서 얘기하는 걸 무척 좋아하셨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많이 알려진,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 정치 쪽에 관심 있으셨던 건 아니요?

(임안순)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DNA가 저한테까지 물려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뭔가 활동도 하셨습니까?

(임안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임명하는 의원 제도가 있었나? 옛날에 대통령 간접 선거를 할 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유신의 유산이죠.<sup>32)</sup> 그런 것도 아마 하셨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마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감귤 농사를 가장 먼저 하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단감, 복숭아, 배, 과수원을 하셨었고, 그러

32.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새로 설치되었다. 국민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었다. 이후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기구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조직의 근거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현행법률로 남아 있다가 2018년에 들어서야 폐지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 덕을 ‘낭밭(나무밭, 과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도 ‘낭밭’ 손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 그래서 농업기술자협회를 초창기에 유석창 박사하고 같이 설립을 하셨고,<sup>33)</sup> 제주도 지부장을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즉, 모든 재산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머리에 들어 있는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던 분이예요.

## 폐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손자의 ‘학교 살리기’

*아버님도 혹시 뭐 이제 학교 관련해서 뭔가 하신 적이 있으니까?*

(임안순)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으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주축이 돼서 학교를 유치하고 나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축조 공사를 하거나, 그런 데는 아마 가장 앞장서서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여기에서 농사를 하셨습니까?*

(임안순)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DNA,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DNA가 보존돼 있어서 집의 일보다는 밖에 일을 훨씬 많이 하셨고.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것은, 여기 보면 국민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밭이나 논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농사짓기 좀 불리한 환경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지역에 가장 척박한 땅들, 그 농사를 하기 어려운 땅들을 다 사서, 그것을 경지 정리를 해서 다시 다 분할 해서 줬어요, 국가가 하기 전에. 그래서 그 공로로 이 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는 지금 청수가 반딧불이 축제를 합니다. 제주개발공사에 골프장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95% 이상 찬성을 했는데, 저희 아

33. 1960년 10월,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부산 원예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963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창립되었는데, 유석창 박사는 초대 총재로 취임하여 4대까지 역임했다(전국농업기술자협회 누리집 <http://kafarmer.or.kr> 참조).

버지가 앞장서서 반대를 해서, 곳자왈을 지켜낸 것이……. 눈에 띄는,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고, 아버지가 또 물려받아서 이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셨고, 또 손자분이 이렇게 학교 살리기를 하시고…….*

(임안순) 저는 초등학교만 여기서 졸업을 하고, 97년도에, 17년 만에 40살 되는 해에 시골에 들어왔는데……. 왔더니 중학교가 폐교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큰 놈을 여기 전학을 시켰는데, 가보니까 폐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어디로 통합을 시킬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따라주질 않아쿠다게. ‘넌 여기 학교도, 안 나온 녀석이…….’(하며) 특히 후배들은 좀 더 큰 학교에 가면 더 경쟁력이 있을 줄 알고. 근데 농촌에 있는 교육시설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그런 구심점이지 않수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살리게 합시다’라고 해서 하는데…….

(조인숙) 학교 살리기 운동할 때 정말로 열심히 자리해 주니까, 학교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렸습시다.

(임안순) 정말 그때는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학교 살리기…….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또 손자분이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안순) 처음에는 대안이 없어서, 이미 폐교 결정이 됐기 때문에. 1997년, 98년, 99년 3월 1일 자로 폐교 결정이 되었다고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sup>34)</sup> (학생) 100명을 채워야 하는 미션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임안순) 그때 100명이 안 됐으니까, 중학교가. 그때 국민의 정부에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들 700명 모아서 꺾기 대회하고, 교육청 쳐들어가고,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 보내고, 그게 전부였었는데

34. 1998~1999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02년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안을 확정했다. 당시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 수 1백 명 미만의 모든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었다. 저청중학교 학생은 72명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타지역 사람들을 저지리 청수리로 불러오기로 결정했다(<중앙일보> 1998.10.16, 「정원미달 폐교위기 제주 저청중학교 주민이 살려냈다」; <중앙일보> 1999.04.14, 「제주도, 초중학교 5개교 통폐합안 확정」참조).

데, 1998년 8월 13일인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북제주군의 고(故) 신철주 군수님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sup>35)</sup> ‘저거다!’ 하고서 바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청중학교 살리기’와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라는 걸로 명칭을 바꾸고 나서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사업 계획을 썼죠. 우리 지역에 사람을 유치하면, 이 친구들한테 5년 동안, 그때 학교 운영회비 (지원)도 있었고 급식비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조인숙) 중학교 운동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멋진 운동장이 없어요, 정말로. 한라산이 보이고, 그렇게 멋져. 아이고, 이 학교가 지어지니까 저·청 학교 나온 아이들이 1년에 세 사람씩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유명해졌어. 학교 살리기 운동,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걸!

맞습니다. 아드님의 학교 살리기 말씀을 조금 더 들겠습니다.

(임안순) 그래서 ‘이거다!’ 하고. 근데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젊은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지 청수 양 리의 현재 이장과 역대 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합시다!’라고. 근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한) 신철주 군수님 방송을 듣고 나서 사업개요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은 급식비와 학교 운영회비 그리고 5년 동안 집을 무료로 빌려준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주겠다. 그때 IMF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짜 가지고 신철주 군수님한테 가서 “1억만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많은 사람들 유치해서 학교도 살려내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사업비를 1억을 준 겁니다. 개인 통장에다가.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저희가 기세등등해져서, 양 리의 주민들, 그때 한 300명 정도 모았어요. “우리가 일단 행정에서 지원금 1억 원을 받았으니까, 여

35. 신철주(申哲柱)는 1995년 제주도 북제주군수 첫 당선 후, 1998년 재선에 성공했고 3기까지 연임했다. 2005년 작고했다.

러분들 학교 사회를 위한 출자를 좀 해 주십시오. 출자를 해주면, 그 돈을 5년 동안 우리 지역 신협에 각자 기부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기 예금을 하고, 우리는 이자만 쓰겠습니다. 5년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출자를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약 4억 정도의 약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신협에서 약정이자가 연 7%였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이 축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양 리의 이장님을 동원해서 지역에 있는 빈집 창고 38채를 무료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각 단체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수리 작업들을 맡겼죠. 왜냐면 돈을 안 쥐도 되니까. 그래서 그 집들을, 총 38세대를 고치면서 고맙게도 신철주 군수님이 우리가 낸 계획서를 가지고 전국에 127개 기초단체에 문서를 뿌려줬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했더니, 전국에서 무려 2,100세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공간이 38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인터뷰를 했죠.

직접 인터뷰한 세대가 한 300세대 정도. 수시로 찾아와서 하니까, 저는 집안일을 아예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봐야 하니까.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자녀가 많은 집. 그래서 가장 자녀가 많았던, 6남매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38세대 137명을 유치해서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처음에 수많은 매일매일의 과정들을 전국의 중앙 일간지, 그때는 전부 메이저 일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보내도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딱 하나, 제주도의 한라일보에 있던 그 친구가 몇 번 써줬어요. 계속 보도 자료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모든 일간지에서 다뤄주는 거예요.

(조인숙) 그런데 섭섭한 게, 1년에 서울대를 3명씩 들어가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산간 벽지학교로 해서, 선생님이 여길 왔다 가면 승진이 빨리 돼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만 왔다 갔어요. 그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서울대 가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지켜

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학교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몰라줘.

(임안순) 그리고 공중파도……. 저희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한 지 한 5개월도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입주하고, 2년에 걸쳐서 입주를 시켰는데, 전국에서 여론도 끓고 그러니까, 1998년 9월에 교육청에서 저청중학교 폐교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도 보내오고,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전부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출자한 것은 5년 후에 원금 다 돌려드렸고. 그리고 아직도 그 수익금이 남아 있어서 저청 육영 자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해마다 애들한테 장학금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이거 정말, 3대의 DNA가……!*

(임안순) 중요한 거예요. 그런 DNA가.

*맞습니다. 그게 잘 이어지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임안순) 저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밖으로만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적응을 못해서, ‘이건 옛날 환경으로 되돌려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DNA가 있어서,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을 올해 7월 5일까지 해서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3대에 걸쳐서.

*정말이지 가족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07

## 장권아 곽금초등학교



장봉문

### 공헌자 장권아 1905년생

장권아는 1905년 5월 17일 신우면(현 애월읍) 곽지리에서 태어났고, 1985년 2월 12일 작고했다. 스스로 남긴 기록에 따르면 1914년 신우면 곽지리에 있었던 의숙에 1학년으로 입학했고, 1919년 5학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1920년 공진학교(公進學校)를 2년 다녔고, 1922년 제주시에 있는 제주관립보통학교(현 제주북초등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하여 5~6학년 과정을 마치고 1924년에 졸업했다. 이후 1926년 중면(현 안덕면) 덕수리에 설립된 일진의숙(日進義塾)으로 발령을 받아 교사 생활을 했다.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제자들이 동창회 사진을 찍어 제주로 보내오기도 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축산주식회사와 관련된 일을 했지만, 해방 닷새 전에 해임되었다고 한다. 1946년 곽지리 1, 2구와 금성리 2구민 대회를 개최하고 곽금공립초등학교 설립 기성회가 만들어졌다. 설립 회장은 김행옥이었고, 이후 교사 신축 시에는 장권아가 회장을 맡았다. 장권아는 1952년에 애월읍 면의원, 1953년에 북제주 교육구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56년에 면의원과 교육위원을 추가로 역임했다고 한다. 장권아가 교육 발전에 공헌한 바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 독비를 세우자고 제안했으나, '비를 세우면 부숩 버리겠다'며 반대하여 세우지 못했다. 대신 큰 비석의 한쪽에 '기성회장 장권아'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 제보자 장봉문 1958년생, 장권아의 아들

장권아의 아들 장봉문은 장 씨 가문과 관련된 기록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대한제국 시절 제주향교의 명륜당 교원이었던 장선홍 어르신에 대한 것부터 아버지 장권아와 관련된 자료 등이다. 대대로 이어지는 교육자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제주교육박물관 개관 당시 소장하고 있던 자료 다수를 기증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애월읍 소재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지 장권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애월읍 곽지리에서 훌륭한 교육자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곽금초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던 장영주 선생님께서 소개받았습니다. 찾아가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거기는 우리 일가의 형님입니다.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요? 1905년생이신데.

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이었는데.

아버님은 곽지에서 태어나신 거지요?

예. 아버지가 고무신 신고 '투표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시내 넘어오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 공헌자 장권아의 생애

이 종이가 아주 옛날 종이입니다. 우리 부친이 1905년생이니, 고종황제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끔 들은 것 말고는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무슨 용도로 써 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이력서를 이렇게 써 냈더라고요. 이게 복사본입니다. 여기 보면 본적 제주도, 성명 장권아, 생년월일 1905년 5월 17일생, 본적 애월면 곽지리 1886번지. 경력 사항에 보면 서기 1914년도에 신우면 곽지리, 의숙 제1학년 입학,<sup>36)</sup> 1919년도에 일진의숙 제5학년 과정 수료,<sup>37)</sup> 1920년 신우면 사립공진학교 제1학년 그 후 제2학년

36. 과거 신우면(新右面)은 현재의 애월읍이다. 제보자가 언급한 교육 기관과 가장 근접한 사례는 신명사숙(新明私塾)이다. 장선영의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에 따르면 신명사숙은 1916년에 설립되었으나 인근에 심상소학교가 건립되면서 학생들이 이전하여 1925년에 폐지되었다. 『學區鄉土誌(涯月2)』(1986)에서 또한 곽지리 최초의 교육 시설을 향사에 설립된 신명사숙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 설립연도가 1919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명확한 설립 년도와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당시 의숙이 사숙으로 발전하거나 공존했던 시대상을 배경으로 공헌자 장권아가 남긴 기록을 다시 보면, 신명사숙 설립 전 교육 결사 형태의 의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37.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두 개의 자료에서 언급되는 '일진의숙(日進義塾)'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926년 설립되었고, 한학 교육을 넘어 근대식의 여러 교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개량 서당'이라 불렸다. 1938년 현재 덕수초등학교가 있는 위치로 이전했고, 해방 이후 1946년 덕수공립국민학교로 인가받아 개교했다. 1996년 덕수초등학교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공헌자 장권아는 1914년도에 곽지리에 있는 의숙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1919년도에 5학년 과정을 수료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 시기 덕수리의 일진의숙 설립(1926년) 전이라는 점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역민들이 계몽에 대한 열의를 담아 교육 운동을 펼쳤던 맥락으로 짐작하건대 곽지리에 또한 덕수리와는 별개이지만 동명의 '일진의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정 수료,<sup>38)</sup> 22년도 제주공립보통학교 제5학년 편입.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제주공립보통학교가 국공립학교일거예요. 우리 부친이 제주북국민학교 8회를 옛날에 했거든. 제6학년 졸업. 192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이때 우리 큰 형님이 난 해 거든요. 1924년생.<sup>39)</sup> 1926년도에 제주도. 이거 섬 도(島)자 썼잖아. 그때는 중면 이 덕수리 일진의숙 교사 피명. 일진의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덕수공립국민학교 인가 전에 거기 가서 선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일진의숙에 아버님이 선생님으로 계셨네요.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 피명. 1944년도에 조선축산주식회사 한림출장소 피명. 이거는 아마 옹포에 있던 돼지 잡는 공장이었을 겁니다.<sup>40)</sup> 그곳에 44년도 1월에 갔는데 45년도 해방 닷새 전에 그만뒀습니다. 이거 보면 해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다음이겠네요. 52년이면.

1952년도에 애월읍 면의원 당선. 북제주 교육구 교육위원 당선. 이거 끝나니까 다시 56년도에 면의원하고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네, 교육계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네요.

이거는 다른 건데, 왜 여기에 낙관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집안 분 (장선홍)인데, 장 교원이라고 불렀는데, 고종황제 때 명륜당 교원이라고 해서 지금의 교육감 비슷한 거 같습니다.<sup>41)</sup>

38. 1920년 당시 신우면 주민들의 모금으로 개량 서당 공진학교(公進學校)가 설립되었다. 사립 공진학교로 불렸다. 이후 일제의 「서당규칙」(1918)에 따라 공진사숙이라고 칭했다가, 1922년 「제2차 교육령」이 시행되면서, 1923년 공진사숙을 기반으로 신우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한다.

39. 제주북국민학교는 현재 제주북초등학교의 전 명칭이다. 1907년 제주도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서 전남제주관립보통학교로 설립되어, 1938년 제주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년 제주북공립국민학교가 되었다가 1951년 제주북국민학교가 된다. 공헌자 장권이가 학교를 다녔던 1922~1924년도는 설립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제주관립보통학교 시절이다. 당초 4년제로 운영되다가 1920년부터 6년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922년에 5학년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40. 조선축산주식회사(朝鮮畜産株式會社)는 1939년 전쟁 자원 확보를 위해 조선 내 축우 증식과 기타 가축 자원의 유통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37년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식량뿐만 아니라 각종 원료 자원의 부족도 심각해졌기 때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한림면 옹포리에 있었던 통조림 공장은 1920년대 중반 일본인 기업가 다케나카 신타로(竹中新太郎)가 설립하여 해방기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적산(敵産)으로 분류되어 '대동식품' 등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어패류(소라 등) 통조림을 생산하다가 이후 쇠고기, 완두콩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했다(고광명, 「일제강점기 竹中缶詰製造所의 제주도 진출과 사업 전개」, 『2015년 제주학회 제43차 전국학술대회』, 2015, 81~98쪽). 하지만 이 두 개 사업체의 직접적인 관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제보자 장봉문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1. 명륜당(明倫堂)은 '인륜을 밝히는 당'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성균관과 학관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던 강당을 칭하는 말이었다. 명륜당은 서울의 성균관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교에도 있었다. 제주에서 또한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제주향교 안에 유학을 가르치던 명륜당이 있었다. 1965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2002년 복원되었다.



제주향교 명륜당 앞에서 찍은 이 사진은 본 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애월중학교 공헌자 장응선 관련 조사 중 발굴되었다. 1941년 11월 1일 찍은 제주도 청년단 분대장 제1회 강습회(濟州島青年團分隊長第一回講習會) 사진이다(장도현 소장).

아, 원래 조상님 때부터 계속 교육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오셨네요.

그 덕수도 학교 생기기 전에 아버지가 가서 선생 하다가……, 교육위원 할 때, 저, 광금 학교가 몇 년도쯤이었지?

개교 연도가 1946년도입니다.

46년도. 이후에 4·3이 발발하니까. 아버지가 기성회장을 하면서 거기 보면 광금학교 60년사인가 보면 1회부터 십몇 회까지는 매년 교장 선생님 옆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두루마기 입고.

혹시 당시 사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졸업사진 찍을 때는 학교에서 모시러 왔어요. 그럼 두루마기를 입고 가셨죠.

졸업사진 찍을 때마다 초청하셨던 겁니까?

예. 교육위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서 오면 인사 오고, 애월중·고등학교 교장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옛날에 일본에 있는 아버지 제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일진의숙동창회, 1957.10.20. (장봉문 소장)

1957……, 시부야? 시부야 사진관이면,  
아, 이거 도쿄네요?

시부야 사진관. 보통은 오사카가 많은데,  
여기는 동경이네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곽지 출신들 아닌가요?

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기부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일본서 찍어서 보낸 거라니까요. 1957년도에.

덕수, 일진의숙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쓴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1957년도에 일본에서 제자들이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일진의숙 동창회. 이렇게 아버지 사진을 놓고 제자들이 모셔서 찍은 겁니다. 덕수에 가면 그 사람들이 누구네 할아버지인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일본에 많이 들 갔습니다.

기부는 별로 안 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일본에 아버지보다도 나이 든 제자도 있고, 고향에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학교 설립과 그 후의 이야기

여기 보면 설립 시기에 재외마을 출신 향우들의 지원이 있었다, 금전 기부가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 일본이나, 재외곽지향우회원 명단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아버님이 혹시 학교를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노력했다거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성회장님이셨으니까 교사 신축을 위해서 학구민 대회에서 기성회를 개편했다, 그래서 이때 회장인 장권아가 설립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네. 광금초는 뭐 교포들이나 이런 건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냥 대체로 마을에서 설립 활동을 하신 모양입니다.

광금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그 자료관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자료를 잘 보존하긴 했습니다. 옛날 자료가 많았습니다.

이천수는 이성숙 씨 형이고, 신성욱 씨는 신영민 씨 작은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학교가 없을 때 의숙에서 사실상 학교 선생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겠죠. 1926년도에서부터 선생을 했었으니까, ‘학교는 있어야 되겠다.’ 장선홍 이 양반이 아까 글씨 쓴 향교 교원. 명륜당 장 교원 장 교원 하는……. 이 동생이 고봉식 교육감 처조부입니다.

예. 광지 사람들이 한 거죠. 또 광지는 교포가 많진 않습니다. 그때 이분이 명륜당 교원 하면서 서예도 가르치고. 글을 다 동네 후배들에게 그 교육을 하니까. 이분이 한 글자 한 글자 떼 놓으면 한석봉만큼 잘 쓴다는 양반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네도 여기서 글을 배우고 가서 선생도 하고. 광지가 선생이 최고 많았던 곳입니다. 김제관 교장 같은 경우는 집안에 다섯 형제가 선생이었나……? 전부 선생이, 한 집 건너 선생, 김찬옥 그 향토 사학자, 거기도 광지이고. 김인권 교장도 광지이고. 교장은 셀 수도 없어요. 평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흔넷하고 마흔하나인데, 애네들이 아라초등학교 다닐 때, 교육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니까, 혹시나 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옛

날에 등사했던 거, 광금학교 짓는 데 사백몇십원인가 들었던 거, 그 자료들을 다 보냈는데, 한 번 교육박물관 들러보니까 전시는 않고, 거기 사료실에 아마 보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쥐버리고……. 우리 동생이 촌에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지러운 거 다 정리한다고 하면서 버려버리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뭐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인데, 남은 게 없어요.

학교 설립 후에도 8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후에도 뭔가 뭐 하신 일들은 없었습니다. 1960년까지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농사나 짓고, 그랬죠, 뭐.

## 그 밖에 학교와 관련한 일화들

광금초등학교 가면 교정에 비석이 쪽 있습니다. 거기 제일 큰 비석에 학교 설립이 끝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독비를 세우자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걸 세우면 나는 가서 돌을 부순다고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하니까. 제일 큰 비석 왼쪽 위에 보면 기성회장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비석의 글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쓴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그, 저, 뭐가 있어요. 그 좌창선 공적비인가? 좌창선 씨가 글은 못 배웠지만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똥고 하면, 요즘은 말이 좋아서 무장대지 폭도들이예요. 4·3 때 학교 지을 때 폭도들이 학교가 거의 되어갈 때 책상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폭도 바닥에 막 그을려서 탔던 자국이 있었어. 그 폭도들이 불을 붙일 때 그 좌창선 그 양반은 뭘 했냐면, 화약 전문가인데 어디 일본 군함이 가라앉은 곳에 가서, 그 양반만 아는 데가 있었는지, 어디 가서 자꾸 화약을 건져 와서는 폭약

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든. 화포라 그래가지고. 송어떼가 들어오면 ‘뽕’ 던지면 송어 떼가 둥둥 뜨고.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폭도들이 와서 불붙일 때 기어가서 화포를 던지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폭도들이 다 도망갔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가 살았는데, 그래서 그 좌창선 씨 비석을 세워줬고.

학교 지을 적에는 목수가 대림 양반인가, 대림 사람이 와서 지었는데. 아버지 보고 그 양반도……, 막 불안한 세상이니 까, 이제, 그, 정보를 캐고 다녔겠죠.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아버지한테 ‘당신 어디 가서 며칠 있다 오라’고 해서 아버지가 시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폭도들이 와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야. 그때 우리 1924년생 큰 형이 경찰관 할 때거든. 그러니까 폭도들이 오면 그쪽에서는 척살 대상이야, 이게. 아버지든, 경찰관 가족이든, 그래서 그때 살았던 얘기.

그 금융조합인가 은행이 없을 때 학교에 그거, 몇 백원인가? 그걸 그 당시 수표도 아니고, 이 포대 자루에 돈 들고 오다가, 친구 딸이 잠깐만, 하루인가? 며칠만, 뭐, 어찌고 맡겨달라고 해서 맡겼다가, 사기 당하는 바람에 그때 코피나게 그 돈을 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조금 파니까 그나마 그 금액은 채울 수 있었다는 얘기. 뭐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시간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 08

## 정양수 동남초등학교



정신권



### 공헌자 정양수 1891년생

정양수는 1891년 서귀포시 정의면(현 성산읍) 고성리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1949년에 작고했다. 1923년 정의면에서는 성산공립보통학교(현 동남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성산, 오조, 고성, 수산, 온평 5개 리에서 '매호당 3원 50전씩'의 현금을 모아 건축비 일 만원을 마련했다. 학교 설립 당시 기성회가 함께 조직되었는데, 정양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고성리 대표로 기성회 활동을 했다. 또 1927년 5월, 정의면의 연합청년회가 개최한 씨름대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총무 관련 직책을 역임 중이었다고 한다.<sup>42)</sup> 이 사건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고성리 마을과 관계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하지만 정양수뿐만 아니라 다른 공헌자들과 주민들의 노력 등 학교 설립 과정과 공로에 대한 기념비는 현재까지도 부재한 상태다.

### 제보자 정신권 1961년생, 정양수의 손자

정양수의 손자 정신권은 1961년생으로 현재 제주시 삼도2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정신권의 아버지(공헌자 정양수의 장남) 정성순은 성산면장을 역임했고, 셋아버지 정성태 또한 성산면이 성산읍으로 승격되었을 때 초대 읍장을 역임했다고 한다.<sup>43)</sup> 정신권은 3남 4녀 중 막내인데,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성산읍 연합청년회장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할아버지 정양수의 양민증 등 옛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한자 공부를 하며 그 내용을 풀이하고 정양수 일대기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42. 과거 정의면(旌義面, 현 성산읍) 씨름대회 사건을 말하고 있다. 1927년 5월 16일, 정의면의 연합청년회가 청년들의 친목과 단결을 위해 개최한 대운동회 날이었다. 씨름대회가 한창인 와중에 풍랑을 피해 성산포에 정박한 일본 선박의 선원 200여 명이 몰려와 참여를 원했다. 대회 중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500여 명에 달하는 성산 청년들이 봉기하여 항일 의거로 확장되었다. 일본인 1명과 일본 선원으로 일하던 외지인 1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당대에 이 사건은 신한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었다(<제주의소리>, 2025.08.13, 「씨름이 불러온 항일 의거 “우릴 못살게 하는 왜놈 추종자 끝까지 추격하라” 참조).

43. 현재 서귀포시 성산읍은 1910년에 제주군 정의면이었는데, 1935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성산면으로 개칭된 후 1946년 남제주군 성산면이 되었다. 1980년 성산면이 성산읍으로 승격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로 이어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이 되었다. 때문에 시기에 따라 마을 대표는 면장이기도 하고 읍장이 되기도 했다.

## 공헌자 정양수의 생애

---

할아버지가 정양수 님이지요?

예.

정양수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옥고도 치렀어요.

옥고도 치르고 그럼 독립유공자?

아니, 지금 그 사건을 도의회나 여기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전에 KBS도 한번 왔다 갔고, MBC PD도 왔다 갔어요, 여기에.

여기 와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냐고 해서. 내가 할아버지 일대기 쓴 거 하고, 그때의 자료 있는 거 좀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은 안 받으셨고, 이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재조명한다고, 잊혀진 사건을.

예, 잊혀진 사건을 재조명한다…….

예전에 성산에 씨름대회 하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예, 유명하주마씨.

그 사건을.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른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많죠. 저희가 그때 성산 마을지 만들어 주면서 그 내용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많이 적어 왔습니다.

(씨름대회) 할 때에 연합청년회에, 지금으로 보면 총무부 회장인가, 총무부장인가를 할아버지가 했던 모양이에요. 체육대회 진행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고성리 청년회 조직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년회 조직해서, 기념 체육대회 한 그 사건이 성산 그 사건입니다.

이 씨름대회 내용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신문에 많이 났지요. 일본어 신문에

(일본인이) 죽었잖아요.

내용이 나와 있고, 조선일보나 매일신보 이런 데에도. 30년대에 크게 부각이 돼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일본어 신문에서도 (보도했어요) 이 씨름대회에서 성산을 사람들이…….

그러면 할아버지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주로 활동하신 건가요?

할아버지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백종진 선생님, 거기 문화원에 백종진 선생님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풀니다.

풀었구나.

푼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은 뭔가요?

양민증이 있군요.

할아버지는 1891년에 태어났습니다.

옛날 분이라서……. 할아버지 자료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이 책 말고는. “이력급 가정 사기 정양수”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한자하고 한글하고 막 이래 해서, 이제 우리 작은 형님이 제주문화원의 한자 공부에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그걸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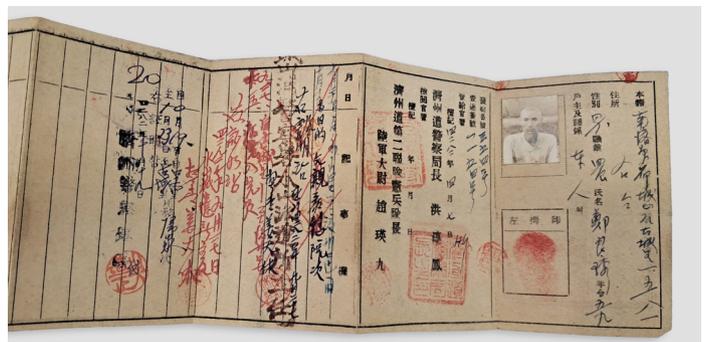
이제 풀어서……. 거기에 내용에 기증한 거 있다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할아버지 양민증, 지금으로 보면 주민등록증이죠.

이게 할아버지.



양민증 전면



양민증 내용

아, 이거 귀중하니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박물관에 기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증해야 되고, 책자도 기증해야 되고.

아, 이거 박물관에 정말 기증해야 되겠어요. 1891년.

예, 1891년.

제가 이걸로 파악해야 할 것 같네요. 몇 년도 태어나셨는지요?

정확히 그걸 푸니까, 1891년.

예, 출생하시고 돌아가신 건 언제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거는. 1891년 태어나셨고요. 1949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58세, 빨리 돌아가셨네요?

환갑 때 돌아가셨어요.

58세 정도니까…….

예전에는 거의 다 환갑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60 됐는데, 이제 50 몇 살 되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막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뭐 그 정도에 다…….

정양수 할아버지는 형제가 몇 분이십니까?

둘이요.

할아버지는 두 분. 그러면 정양수 선생님께서 큰아들. 그다음에 또 아들입니까?

문자 평자.

문자 평자, 문평, 정문평은 작은할아버지.

또 여동생도 있겠죠. “어디에 시집 갔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동남초등학교가 언제 설립됐냐 하면, 1923년에 성산공립보통학교로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1923년 개교가 됐을 겁니다.

개교가 1923년 9월 1일.

예, 맞아요.

할아버지 몇 살 때 이렇게 (학교 설립 기성회 활동을) 했나요……?

1923년이면, 34살 때.

32살, 34살 때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활동은 하셨네요. 정양수 할아버지가 무척 기질이 센 분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분?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우리 종친회 관련 이야기 들으면,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는 기골이 대단하셨고, 또 굉장히 멋졌다고.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지금 손자를 보니까 할아버지도 정말로 잘생겼을 것 같고!

저는 못 생겼고, 저희 형님들이랑…….

이렇게 키도 크시고……. 어떻게 보면 기부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집안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부유했다고 해야 되나? 정양수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하셨나요? 장사나 아니면 무슨 일들? 그냥 발만 갖고서 뭔가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사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집안이 우리 가지의 종손 집안입니다. 우리 고성에 여러 종친 중에 나의 8대조 할아버지 때부터가,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종손. 우리 집안이 종손 집안인데, 소위 말해서 땅도 많고 그랬던 거 같아요.

종손 집안에 땅이 많고, 그래서 그 일부를 학교를 위해서 기증도 하시고, 땅이 많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향을 위해서…….

이장도 하시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기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헌신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읍장도 하시고 면장도 했었으니깐. 어느 면에서는 그 동네에서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독립운동하시고, 씨름대회에서도 불의에 타협을 안 하시고……, 그런 집안인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 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까?

사실, 동남초등학교는 공덕비가 학교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이름을, 공덕비를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초등학교는 지금 100년이 넘으면서 성산리 분들도 다녔고.

또 온평에서도 다녔고. 그러니까 학교 설립기성회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장이신 강승보, 강승희, 고은삼, 정양수 등이 공로가 매우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설립할 때, 할아버지로부터 조금이라도 무슨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한 거 보니까…….

서울에서?

할아버지는 성산읍 고성리 청년회도 조직했었고, 고성리 청년회를 조직해서 자기가 회장이 되니까, 읍 연합청년회를 조직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설립 할 때에 땅을 기부했다는 얘기. 또 할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죠.

예, 그게 요번에 100주년 할 때에 처음으로 ‘그 자료, 그냥들 이렇게 놔둘 거냐?’ 하면서 그때야 그게 좀……. 할아버지만 기부한 게 아니고, 그때 기부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말해 줬어요.

아버님이 처음에 읍장이 아니고, 경찰. 열여섯 달인가? 서울에, 지금으로 보면 경복궁 경호대, 대통령 경호대. 거기에 근무하셨다가 낙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열여섯 달 경찰 생활하다가 내려와서, 지소에도 근무 많이 하셨고. 4·3 때 또 아버지도 애들 많이 살렸다고 그러셨어요.

4·3 때에?

성산과출소에 있을 때, 트럭에 태워가지고 죽이러 가는 사람들, 너네가 뭐 아냐며 일부러 차 바깥으로 막 때리면서 바깥으로 던졌다고 해요.

던졌대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4·3 때 마을 사람들을 많이 구했구나.

그때 그 증언을,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도 하고 또 옛날 어른들도 ‘동네 사람 많이 살렸다’고 말해요.

## 정 씨 가문 구성과 제사 분담

---

정신권 사장님께서는 몇 년생이신지?

61년생이요.

몇 월 며칠 생입니까?

1961년 6월 18일. 동남초등학교 47회.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고, 그러면 형제분이?

정정아, 그 다음 정정희, 정정숙, 정정열.

딸이 많구나. 다 딸이지예?

4명 다 누나들이고. 큰누나가 여고 5회.

여고 5회.

정정희가 신고.

그거 다 알고 있네요?

신고 6회. 정정숙이가 신고 9회.

신고 9회.

정정열 누님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남자 셋 정보권.

정보권.

네. 정삼권. 우린 권자 돌림. 그다음에 정신권.

정신권. 이렇게 해서 3남.

제가 이런 거 잘 가져 있는 이유가 제가 집에서 막내여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성순.

이름 정성순, 아버지께 들었구나예.

아버지도 성산면장도 했었어요.

성산면장도 하시고.

또 작은아버지 정성태.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신양리.

어머니 성함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기정.

홍기정, 신양리.

외삼촌이 서울대 홍종림 박사라고. 청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홍종림, 외삼촌.

서울대 국문학 박사예요. 청주대 교수는 그만뒀어요. 서귀포에 삽니다.

정년 퇴임하셨구나.

예.

정양수 할아버지의 제사는 누가 하십니까?

네, 그거는 큰 형님.

큰형님이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작은 형님.

작은 형님.

나는 증조하다가 지제했습니다. 작년에.

다나눴구나예.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명절은 추석은 내가 하고, 정월 명절은 큰형이 하고.

나눠서. 제주도의 특징이우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것이. 그렇게……. 제주도의 특징이, 큰아들은 아버지 제사하면 작은 아들은 어머니 제사하고 이

그때는 막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가 종손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딱 하더라고.

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자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어요.

정성태.

읍장도 하셨고.

읍장을 하셨어요?

성산읍, 아버지 때는 면장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는?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읍으로 된 때에, 아, 작은아버지가 아니  
고, 셋아버지네요.

셋아버지 정성태.

읍장, 초대 읍장으로 왔대요.

그렇구나. 정성순 아버님 경우에는 형제분  
이 몇 분입니까?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제일 위에 큰고모.

큰고모.

그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셋아버지.

셋아버지.

그다음에 고모 정만순, 지금 살아계시고.

정만순.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정성태, 읍장 하셨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성중.

아이고, 많구나.

정성중 작은 아버지는 1932년생으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형제 중에는 정만순 작은 고모님이 지금 101살.

동남초등학교 나오셨구나. 그러면 거기서  
사시다가 시내로. 그러면 형제분들이 다  
동남초등학교를 나오셨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우리 형제들은.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는?

손자 되시잖아요? 손자 되시는 입장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교육이나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지금 우리도 조사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손자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하셔서?

마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뭔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도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예, 예.

아버지네 형제들은 초등학교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 얼굴……, 제사만 모시니까. 그때 1960년대 찍은 영정 사진 보면 굉장히 늙게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잘 접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크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손자로서 (나는) 아버지만큼 못했던 것 같고, 할아버지만큼은 도저히……, 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성산읍 연합청년회장도 했었고,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굉장히.

헌신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 바람은 아니고요. 느낀 점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각 어느 초등학교든 어느 중학교든 뭐 고등학교는 잘 몰라도. 각 마을이나 아니면 읍 단위에 있을 때, 전부 거기에 있는 독지가들 또 그분들이 헌신하고 (재산을) 내놓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뭐 그런 조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표창이나 그것에 대한 고마움 표시 하나 없이, 전부 교육청 재산이, 도 재산이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근데 정작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을 저희가 한번 쓰려고 해도 쓰질 못해요. 주민이 내놓은 땅을 주민이 못 쓰는 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민이 기부해서 초등학교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재산 가져가서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항상 행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하는 이유가 기물이 뭐 (훼손)된다고 하고. 기물이 뭐, 땅이 꺼지는 건 아니

잖아요?

관리 차원에서들 다?

복잡하니까 안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 요새는 일부러 운동장도 만들어서 국민 체력도 키우고 그러는 시대에. 일선에 있는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해놔야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운동장’이 되도록.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잔디가 죽으면, 동네에 얘기해서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잔디 보기 좋게 키워서……; (관상용)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저도 인화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는데, 보면 주민센터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거 하던데요, 여기는 안 하고 있나요?

아니, 하는데. 그런 게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어렵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거기 무슨 조직들이……, 청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초등학교에 조기 축구회 다 있었어요. 이제 조기 축구 못하잖아. 공도 못 차.

이거는 저희가 보고서 쓰면서 제안 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땅을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도, 뭐 할 때는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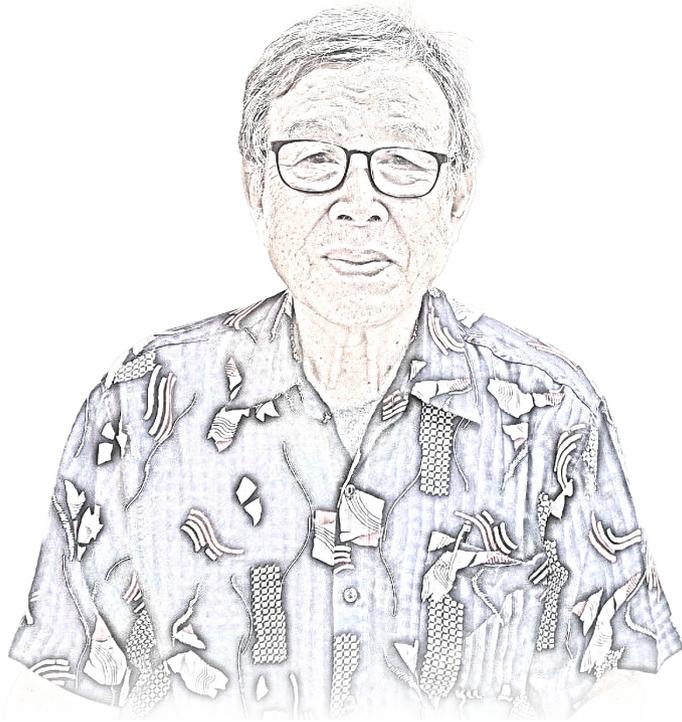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동호회라든지 뭐, 함께 쓰면 좋잖아요.

# 09

## 장응선

애월중학교



장도현



### 공헌자 장응선 1898년생

애월중학교 공헌자 장응선은 18세기 『표해록』을 작성한 장한철의 후손이다. 1989년 애월읍에서 태어났고, 15세에 결혼하여 첫 자녀를 낳았다. 신우면(현 애월읍) 서기로 잠시 근무했으나 이후 일본 오사카로 홀로 유학을 떠났다. 다섯 형제가 있었지만 시대의 풍랑 속에 모두 요절하고 장응선만 살아남았다. 간사이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로 돌아와 1946년 애월중학원 설립에 앞장섰다. 1947년 중학교 설립 기성회 및 공립중학교 추진회가 조직되었는데 당시 면장이었던 김도현 등과 함께 애월공립초급중학교(현 애월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개교 이후 장응선은 초대 교장을 역임하며 학교의 기틀을 다졌다. 이 외에도 한림중학교 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1950년 애월농업중학교(현 애월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당시 송덕비가 세워졌다. 1959년 작고했다.

### 제보자 장도현 1943년생, 장응선의 아들

장응선의 아들 장도현은 1943년 애월읍 애월리에서 태어났다. 장도현 또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등 교육계에 관계하며 살았다. 아버지 장응선의 생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친족 고(故) 장봉영 씨가 쓴 책 등을 찾아 읽는 등 가족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해방 이후 교과서도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했던 기억을 전해 주었다.

## 공헌자 ‘장응선’의 생애

아버님이 몇 년생이십니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898년생입니다. 6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95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월 3일이 환갑이었어요. 음력 6월 29일. 애월중학교에 비석 세운 게, 환갑 때 세운 겁니다. 그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1 때였습니다.

아버님에 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시절에는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출장이 많았고, 술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5형제인데 아버지만 남고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세요. 아버님도 환갑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가 한의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큰아버지와 셋아버지가 먼 서기하다 돌아가셨지. 세 번째는 아까 말한 해방되는 해, 음력 3월 25일. ‘군대마루’,<sup>44)</sup> 그거 탔다가 목포로 가다가 추라도 앞에서 B29에 폭격 당했지. 그 아래는 열 네살에 돌아가신 동생, 열아홉에 아파서 스물하나에 돌아가신 동생.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의원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럼, 일본에 가실 때는 그냥 유학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가셨다가, 대학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 그냥, 공부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의원을 하셨으니, 집안이 유복하셨겠네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유학을 가게 되신 건가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학비 한다고 고모에게 20원을 꾸였어요. 우리는 본적이 ‘애월 1552번지’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sup>45)</sup>

44. 군대환[君が代丸]을 일본어로 ‘기미가야마루’라고 불렀는데, 제보자 장도현은 ‘군대마루’라고 기억하고 있다. 일제는 1925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일전쟁(1904~1905년) 당시 군함이었던 이 배를 구입하여 개조 공사를 했다. 그리고 1926년부터 오사카와 제주도를 오가는 민간 여객선으로 활용했다. 구체적인 기항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일본과 한반도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항로이자 거점이었던 목포항 추라도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군대환이 격침당한 날짜와 위치는 불명확한데, 신문 기사에 따르면 ‘1945년 4월 중순 오사카의 아지가와[安治川]이다. 제보자가 말하는 “해방되는 해, 음력 3월 25일”은 정확한 날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격침 위치에 대한 기억이 상이하다(<제주의소리>, 2010.07.29, 「무정한 ‘군대환’, 왜 날 태워와 고생만 시키나요…」 참조).

45. 공헌자 장응선은 18세기에 『표해록』을 작성한 장한철의 후손이다. 현재 ‘애월읍 애월로길 26’ 위치에는 ‘장한철 생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보자 장 씨가 본적이라고 말한 ‘애월(리) 1552번지’와는 도보 20분 거리다. ‘장한철 생가’는 실제 살았던 집이 아니라 살았던 마을로 추정된 곳에 초가를 새로 지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후손들의 본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본에 유학을 갈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닌가 했습니다.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유학을 갔으니까요. 관서대학(関西大学, 간사이대학)을 나오셨다는 거는 오사카 쪽으로 가신 건데, 그곳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유학할 생각으로 가신 겁니까? 대단하시네요. 몇 살에 가셨습니까?

15세에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살다가 아들 낳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당을 다니다가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가서 관서대 예과, 지금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예과 마치고 본과 들어가서 독어독문학과인가 졸업하고는 조선인 법학사 1호로 졸업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당시 앨범을 보니까 ‘장웅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한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고등문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느라 신경쇠약에 걸려서 환자였어요. 그래서 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당신은 요시찰이니 안된다’고 그래서 보험회사 좀 다니다가, 여기 돌아와서 도청 직원 하다가 대정면장 하고, 해주 갔다가 해방되어서 여기 돌아왔습니다. 와서 애월중학교 만들고 초대 교장을 한 겁니다.

아버님이 오사카에서 어떻게 혼자 학교도 들어가고 했지, 힘드셨을 거 같은데…….

일본 가시기 전에 신우면(현 애월읍) 서기를 조금 했어요.

일본 가시기 전에 면서기를 잠깐 하시다가, 일본에 가셨구나……. 그럼, 나이가 좀 있을 때였나 봅니다. 그럼 일본에는 ‘군대환’을 타고 가셨나요? 아니면 부산으로 해서 가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산지항에서, (배가) 나오면 일주일인가 며칠 걸려서 사람들 태워서 갔다고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군대환.

군대마루. 그거는 1948년 5월, 음력으로 3월 26일. 우리 말 젓아버지 병원장이 그거타고 가다가 추자 앞바다에서 돌아

가셨어요. 그때 네 사람이 댔는데. 그 배가 그 미군이 폭격이 있을 거라고 해서 출항이 늦어졌어요. 그 내용이 ‘장봉영’ 씨가 쓴 책에 나와요. 애월에서 우리 말젓아버지(막내아버지)하고 다른 세 명하고, 우리 집안에서 네 명이 댔는데 ‘장봉영’ 씨만 살고.<sup>46)</sup> 그 책에 공습했던 내용이 나와요. 정신차려 보니까 어느 해수욕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럼 관서대학을 나오신 후에 돌아오셨는데, 학교와는 어떻게 관련되신 겁니까?

해방이 되어서 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에서 돌아오니까 신우면(현 애월읍)장 했던, 마을 유지였던 김도현 씨가 애월중학원 발기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도와서 애월중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sup>47)</sup> 솔직히 당시에는 학교 출신들이 없었어요. 중학원이 그때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랬어요. 중학원은 돈이 없으니까 1회, 2회 졸업생들은 지금 리사무소가 아니라 옆에 애월향사에서 공부했어요. 졸업사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월중학교장으로 있다가 한림수산중학교(현 한림중학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1950년 6월 1일에 입학했고. 6월 25일에 6·25 나고, 8월 1일 날 한림중학교로 갔어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4대 교장이다. 그 시절 한림중학원에서 학생 4명이 4·3사건으로 운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수습하러 간 거지. 그래서 1950년도에 한림중학교 갔다가 1951년도에 다시 또 애월로 왔지.

그럼, 1946년도에 설립 활동을 하셨고 ‘다음 해에 학교가 개교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마씨. 설립 활동에 이제 아버님께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니까? 어떻

그거는 마을에서 한 겁니다.

46. 제보자가 말한 고(故) 장봉영 씨는 생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기록을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내 고장 역사 찾기’ 수집 기록물 자료 모음 1권 『제주의 숨은 보물』(2014)에 따르면 2004년 『장봉영 회고록 책자』가 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제보자가 언급한 장봉영의 책은 이것으로 짐작된다.

47. 1946년 애월초등학교 일부 교실을 사용하여 애월중학원이 개설되었다. 1947년 애월면 중학교 설립기성회 및 공립중학교 촉진회가 조직되는데, 당시 면장이었던 김도현 씨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박두선 등 49명이 회사금을 내고, 재일교포 박대경이 교지 1,544평을 기증했고 장응선 등의 노력이 있었다. 1947년 애월공립초급중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개교했으며, 이후 1950년 애월농업중학교로 교명 변경, 1951년 애월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양정필 외,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제주학연구센터, 2024, 156~157쪽 참조).

게 해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아버님께서 학교 설립을 주도하시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지식인 입장에서 앞장서서 추진하셨던 겁니까?

아, 그분이 여기 출신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4·3사건 때 애월중학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덕준 소장이라고 있었는데, 제1훈련소장.<sup>48)</sup> 그분이 아버지한테 왔어요. 선배님 찾아서.

아닙니다. 육지에서 왔죠. 6·25 때 훈련소장입니다. 별! 그 시절엔 그런 사람이 찾아와주면 든든했죠. 애월은 4·3 관계로 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니다. 한림중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시대의 신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이 4명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려고 (아버지가) 한림중학교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초중고는 애월과 한림이 꼭 같습니다. 내가 한림국민학교 31회면, 애월국민학교도 31회. 한림중학교 12회면, 애월중학교도 12회. 한림공고 8회면, 애월상고 8회.

네. 초중고가 모두 같은요.

예. 고등학교는 제주상고, 애월상고, 한림공고가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설립을 같이 했어요. 고3 때는 1961년에 5·16이 발생하니까 1962년 2월 9일에 졸업했습니다. 우리 1년 선배는 유도도, 한자도 배우고 그랬지만, 우리는 안 하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우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 나온도 몰랐다니깐요. 그런데 학예회는 있었어. ‘개미와 베짚이’인가 그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아버님께서 초대 교장을 하셨고, 그후에도 계속 학교에 계셨습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이. 내가 1976년에 애월 서무과장으로 가면서 중·고가 분리되었어요. 중학교는 M자, 고등학교는 H자 이렇게 캐비닛에 썼어.

48. 1952년 8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3대 소장으로 취임한 오덕준은 부산 출신이다.

작년에 일단 저희가 1차로, 연혁이나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 기 보면 성함이 나와 있고, 이런 뭐 송덕비 내용도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 떤 분인지, 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게 없어서요.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 줘서!

일본에서요?

지금 그 편지 남아 있나요? 버리진 않으셨 을텐데요!

그 편지가 있었으면 귀중한 자료가 되었을 텐데에.

네, 맞습니다. 그쪽은 모두 동경입니다. 친 목회가 동경에서 활발합니다.

누구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부대현 교육감 시절에 국가직 1호예요. 교육청, 재무직, 교육위원회에서 위임받아서 재경직 으로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에 시험 봐서 1969년 3월 1일 부터 재경직으로 교육청 근무. 15년 했어요.

내가 군대를 다녀와서, 대략 1965, 6년도에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간사이대학에서. 그런데 동네에서 그 편지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시절에 일본에 와서 간사이대학을 나 왔으니 당신이 조선에서 큰 인물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 로 편지가 온 거라. 동네 사람에게 가서 이걸 해석해달라고 하니깐, 표준어로 안 쓰고 사투리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일본 도 옛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 버지는 이미 1959년에 돌아가셨고. ‘당신이 나의 편지 내용 을 알고 싶으면 대사관에 찾아가서 편지를 해석해달라고 해 라’ 그런 식으로 적혀있었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1969년부터 직장생활하면서 돌아다 니다보니까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애월 옆에 고내리 아이들은 모두 동경이라. 다 동경에 있어.

동경에 고내리 살던 우리 동창 네 명이 살고 있어요.

홍광호. 김택선. 전화번호 알려 드릴까요?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들  
 

## IV. 그밖의 기억: 못다한 이야기들

1. 강희정 | 성산중 · 고등학교
2. 김진현 | 한림공업고등학교

# 01

## 강희정

성산중·고등학교



강동은



### 공헌자 강희정 1912년생으로 추정

강희정은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912년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해방 전 오사카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고, 해방 후에 다 함께 귀향했다. 이후 목선으로 수산업을 했는데, 부산과 일본 등을 왕래하면서 해녀들이 채집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생필품을 구매해 오는 등 운송 판매 업무를 주로 했다. 강희정의 아내 장오순은 '정의골 원님'이었던 가문의 다섯 번째 딸이었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 가문의 힘을 빌려 성산읍 고성 동남에 있는 연못을 간척해서 논을 만들고, 쌀농사를 지었다. 수확한 곡식을 담고 가공할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했다. 1948년 성산중학원 개교 당시 학교 교사로 비어 있던 공장 창고를 제공하여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 제보자 강동은 1945년생, 강희정의 아들

강희정의 아들 강동은은 1945년 4월 1일생으로 성산읍 고성에서 나고 자랐다. 2남 4녀 중 차남이다. 동남초등학교, 성산중학교, 성산수산고등학교를 다녔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귀향하여 양식업, 제조업,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 현재는 구좌읍 김녕리에서 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다.

## 공헌자 강희정의 생애

성산에 가서 물으니까, 김녕에서 아주 크게 양식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고성입니까?

예, 고성.

고성.

고성리 동남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4천 평짜리 연못이 크게 있었어요. 그 연못 가운데,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바다를 막아서 간척 사업을 해서 논을 만들었어요. 그때 논을 거의 만 평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넓게요?

그땐 논을 만들면, 곡식을 수확해서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워낙, 우리나라 생활이 어려워서.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다 왔어요. 일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주로 해산물. 전복, 소라를 싣고 일본 가서 팔고, 또 생필품 같은 것도 갖고 오시구요.

아버님 성함이 강희정이고, 몇 년도 출생인지 아세요?

몇 년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 정도 되시는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0살.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53세로 돌아가셨어요.

53세에.

지금 내가 81세이니깐요. 6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61년 전에 53세면?

61년 전에 53세면?

지금 살아계시면 113살.

2025년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1912년생 정도 나오네요.

1912년?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1945년생이거든요.

1945년생, 1945년 몇 월 며칠이세요?

저는 4월 1일이고요.

강희정 아버님은 형제분이 몇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그다음에.

몇 남 몇 녀?

3남 1녀.

아버지가 큰아들.

그다음에 강희규라고 해서, 그분은 결혼해서 금방 돌아가서 버렸고요. 그다음 강희경이라고 해서, 작은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다음에 고모가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아버님이 일제강점기니깐,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셨나요?

예. 해산물. 전복하고 소라를 주로 일본에 가서 팔았어요.

성산에서 채취한 소라, 전복을 파셨네요?

예, 성산에서 채취한 것을 수집해서. 그때 목선 배가 있었거든요. 운반선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거 갖고 왕래했지요.

그때 아버님은 계속 해산물 사업만 하셨니까? 해방한 후에는 무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주로 그거를. 해방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일본에서 무슨 콩나물 공장인가 뭐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일을 도와주셨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에 사셨나요?

아니, 해방되니까 다 들어오셨죠.

들어오시고, 해방 전에 일본에서…….

해방 전에 일본에서 콩나물 공장 하셨고.

일본 어디서 사셨다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오사카 이쿠노구?

오사카 같아요. 우리 교민들 있는 데가, 오사카? 대판?

예, 대판에서. 콩나물 공장 하다가 해방 후에 다 들어오시고요.

아버님은 목선을 갖고 계셨으니……?

예, 배로 주로 일본 가고. 또 부산에 해산물 신고 가서 생활 필수품 사 오고. 해녀들 태워서 어디 또 물질하는 데 가고. 주로 수산업을…….

수산업 쪽에 종사하시면서 해녀들 배 태워서 물질 나갈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해산물 채취하면?

그걸 모아서 팔고. 잡는 어업이 아니라 주로 운반하고 판매하고.

중간에서 운반하고 판매하고, 그걸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하셨구나?

예, 예.

돌아가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1965년 정도에 돌아가셨을 거 같은데요.

내가 20살,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1965년.

1945년에서 20살이면 1965년.

아버님이 일본도 왔다 갔다 하시고 부산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네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 게, 우리 어머니가 여기 마지막 장용건이라고 고을 원님 딸이에요, 장정의.

장용건?

예. 정의골 원님 딸이에요. 거기 지금 어디 성읍리 가면은 팻말이 있거든요, 장정의. 거기에 딸 오순이라고, 다섯 번째 딸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가마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상당히 똑똑하고 요망졌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외가 쪽이 대단했지요.

정의골 원님이니까?

그때 이순이 이모는 김충희라고 도지사<sup>49)</sup> 부인이었고요. 또 거기에 또 사돈된 사람은 최판사라고 해서 거기에 사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백그라운드가 아주 막강했어요. 그

49. 김충희(金忠熙)는 제5대 제주도지사로서 임기는 1949년 11월 15일~1951년 8월이었다.

러니까 바다 막아서 개간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부탁하면  
은……. 그래서 거기 저쪽에 물을 막아서, 그 논 개간하고 그  
랬죠. 좀 크게 했어요. 동네에서는 삼륜차, 제주도에서 삼륜  
차 오토바이를 우리 아버지만 타고 다녔다고 해요.

삼륜차 오토바이를. 많은 걸 갖고 계셨지  
만, 그거를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많이  
베푸시니까 동네에서도 칭송을 받을만하  
셨던 그런 어른이시네요. 그리고 학교 교실  
모자라니까 창고를 제공했다는 거네요.

예, 예.

## 강희정의 공장 창고를 학교 교실로 이용

---

아버님께서 가마니 공장을……?

예. 거기 가마니 공장을 만든다고, 가마니 짜는 공장. 그래서  
집 3분의 1은 살림집이고, 나머지는 공장으로 해서 가마니  
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논에서 쌀이 나니까, 그거를 담으  
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잘 안되니까, 공장이 늘어서……. 우  
리는 어렸을 때 거기서 그네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학  
교)건물이 하나만 있었는데, 중·고등학교가 같이 들어오니까  
좁아서 우리 창고에서 한 반이 공부를 했어요. 가교사가 지  
어지기 전에 한 1년 동안 거기(창고)서 했어요. 그래서 건물  
이 다 지어지니까 거기로 갔죠.

그 창고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신산리  
에 현대립 선생님도 그 창고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  
시더라고요.

예. 가마니를 짜려고, 가마니 공장으로 그 집을 크게 지었어  
요. 그 가마니 공장에 기계랑 다 사다 났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니까, 비어 있을 때 학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했죠.

비어 있으니까.

공장용으로 크게 지어 놓은 거예요.

공장용으로 지었는데 비어 있으니까 빌려 썼다는 거네요. 학교 교실이 모자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수업을 하셨어요?

한 1년쯤 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나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라, 그때 중학생들이 공부한 것 같아요. 저보다 한 3, 4년 위에들.

성산중학교에서 그걸 사용했다는 거네요?

예, 중학교.

그때는 성산중학교가 교실이 하나만 있었습니까?

본교 있었고, 본교에 수산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수산고등학교하고 성산중학교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쪽에 가교사라고 부속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이 책에는 1948년으로 나왔는데, '1948년 강희정이 제공한 창고를 개조하여 성산중학원을 개교하였다'라고.

아니, 1948년이 아닐 거예요. 제가 1945년생인데? 또 6·25 막 지나서 학생들이 있었던 거 기억해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1, 2학년 때 아마 거기가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국민학교 1, 2학년 때면 지금 1945년생이니깐…….

그때 나는 7살에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1952년, 1953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2, 3학년, 53년에서 55년 사이일 거예요.

(1953년부터) 1955년 사이에만 창고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거기는 몇 년도로 됐다고요?

1948년에.

1948년이면 6·25 전이잖아요?

예.

가만있어 바라……, 그 중학교가……?

중학교 개교가 1948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공립수산초급중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고 개교를 했고, 1950년

그러면 1948년이, 6·25 전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거기서 공부 좀 한 거는……; 처음에 한 건 1948년일 거고. 또 6·25 터져서 거기에 뭐가 왔냐면, 반공 포로들이 와서

에 성산수산중학교로 명칭 변경이 됐고, 1951년에 성산중학교하고 성산수산고등학교가 분리되고, 성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라고.

막 하고. 그 군인들이 그 성산수산고, 거기에 있으면서 훈련도 받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교실이 모자라서 아마 또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초창기는 1948년이 맞을 거야 아마. 처음 개교할 때. 개교할 때 그게 맞을 거고. 내가 기억하는 건 중간에…….

6·25 후에?

6·25 후에 그 피난민도 내려오고, 반공 포로들 여기 와서 훈련들 받았거든요. 반공 포로들 와서 훈련받아서 다시 군인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그 훈련을 그 학교에서 받았는데. 교실이 모자라서 그때 와서 거기(창고)를 좀 쓴 것 같아요. 초창기는 1948년이 맞고.<sup>50)</sup> 그때 내가 국민학교 때, 학생들하고 가서 장난도 하고, 거기 학교 책상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학생들 앉아서 공부할 만큼, 창고는 좀 컸다는 거네요?

컸어요. 교실 하나 정도예요.

교실 하나정도?

예, 예.

그러면 한 몇 평 정도 되나, 교실 하나?

한 2, 30평 됐어요. 한 30평.

30평 정도. 거기에 책상들 조그마하게 놓아서…….

예, 나무 책상들 놓아서요.

나무 책상을 이용해서.

그때는 다 나무 책상 자그마한 것들이지. 둘씩 앉고, 서너씩 앉고 하는 거예요. 길쭉한 나무 책상 하면, 둘도 앉고 셋도 앉고 했어요.

50. 양정필 외,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제주학연구원, 2024, 89쪽에는 1950년 “교사 완공 전까지 강회정 댁 창고, 고성리와 오조리 향사 등에 학생 분산 수용”했고, 1953년에는 “학생수가 늘어나 성산리 툇 제조공장 건물 임시교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 강동은이 기억하는 공장 창고는 아버지가 기부한 건물이 아니라 툇 제조공장일 가능성이 있다.

길쭉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책상도 길쭉하고 의자도 길쭉하고, 거기서 두 사람, 세 사람 앉아요.

## 제보자 강동은의 생애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예. 성균관대학교 나왔습니다.

무슨 과를 전공했습니까?

수학과요.

수학과! 머리 매우 좋으셨네요. 초등학교는 성산초등학교? 그럼 성산초등학교?

아니, 그때는 동남초등학교요.

동남초등학교.

성산중학교, 성산수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에서 수학과를 나오시고 나서 고향으로 오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양식업을 계속하신 겁니까? 양식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그때 성산포에서 물려받은 갈대밭이 있었어요. 한 700~800평짜리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간해서 고기를 기르다가, 또 그다음에 벽돌 공장, 벽돌 사업하면서 모래 사업까지 했어요. 벽돌 공장을 하려니까, 모래가 떨어져서 모래 사업을 했는데, 그 모래 배를 하다가 배가 침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빛을 많이 졌어요. 이제 그 땅 있는 거 한 3분의 1 팔아서 빛을 물고 했지요. 그때 1975, 76년도에 6천 만원이 빛이 났어요, 6천 만원! 그래서 땅을 일부 팔아서, 한 40% 정도 팔아서 빛을 물고 나니까, 땅을 잘라서 파니까, 영 거기 있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구나?

거기서 누가 또 땅 팔라고 그러니까 팔고, 이제 신제주로 넘어왔죠.

강동은 선생님은 형제가 몇 분이십니까?

우리는 2남 4녀.

2남 4녀.

3남 4녀인데, 여기 4·3사건 때 인천 피난 갔을 때, 인천 가서 나하고 연년생 짜리가 3살에 식중독으로 운명했대요.

아, 연년생 동생.

네, 네. 바로 밑에.

그러니까 큰아들이시고?

아니, 나보다 위에 형이 있어요.

형이 있고, 그다음에?

나보다 7살 위에 형이 있고, 제일 위에 누나 있어요. 제일 위에 누나 그다음에 형 또 누나 그다음 나 본인, 그다음에 누이 동생이 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2남 4녀인데?

누이동생 둘.

네, 누이동생 둘.

그러니까 2남 4녀.

형이 계셨고,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하고 1살 차이의 동생은 4·3 때?

동생은 잃어버렸죠.

형제분들은 다 여기 제주도에 살고 계신가요?

큰 누나는 돌아가셨고, 형하고 누나는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누나하고는 다 제주도에 있어요. 막내 누이동생은 경북에 있고.

그러면 아버님 제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형수가. 형수의 아들이 또 있거든요. 그 손자, 내 조카가 모시죠.

형수 아들이. 그러니까 큰형님네에서 아버지 제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아버님이 그냥 그 창고를 내주시면서, '그래,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주변에서 좀 뭐라고, 칭찬이라고 할까, 뭐 이런저런 말들 있었나요?

그때는요, 거기 동네 사람들도 얼마 없었고, 사람들이 다 가족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본에 한 번 갔다 오든가, 부산을 한 번 갔다 오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잡으면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또 거기 그때는 목욕탕도 없는데, 큰 가마솥을 일본에서 갖고 오셔서 그 가마솥에서 목욕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검질 그러니까 땀감 갖고 와서 목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 뒤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좀 우리 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버님이 베푸시는 성격이시고, 성격이 좋으셨네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다 같이 먹고 할 정도였으면요.

그때는 쌀밥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제사 때는 꼭 쌀로 제사를 했어요. 논이 있어서.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떡도 돌리고 그랬죠. 옛날엔 그렇게 이웃이 다 한 가족이에요. 사촌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큰일이 있으면 또 모여들어서 하고, 그렇게 살았죠.

# 02

## 김진현

한림공업고등학교

김승철



### 공헌자 김진현 1912년생

김진현은 1912년, 한림읍 대림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본인에게 목수 일을 배워 해방 후 한림읍 한경면 일대 건축업으로 인정받았다. 지역에서 학교와 관공서 등 주택 외에 큰 건물 설립 시 관계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림공업고등학교 설립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사를 건축하여 기성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목판에 연필로 설계 도면을 그려 건물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건축일을 접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의 마지막 건축은 천주교 한림성당이다. 1954년 공사를 시작해 1955년 5월에 완공했다. 당시 목포를 거쳐 제주에 들어온 맥그린치[1928~2018, Patrick James McGlinchey] 신부의 청으로 본 건물 옆에 돌을 쌓아 3층 높이의 종탑을 지었다. 도시 계획에 의해 본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종탑은 보존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되었다.

### 제보자 김승철 1950년생, 김진현의 아들

김승철은 김진현의 3남 5녀 중 다섯째로, 1950년에 태어났다. 김승철은 천주교 한림성당 건축 시 4~5세였는데, 그때 아버지를 따라 건축 현장에 가서 나무 위에 앉아서 놀았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목수로서 지역에 이름을 알린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아버님은 몇 년생이시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912년생입니다. 87세 때. 3월 1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대림리에서 나셨습니다.

아버님 형제분은 몇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 우리는 8남매예요. 3남 5녀. 나는 다섯 번째예요.

아버님이 한림공업고등학교 교사를 건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957년도까지 건축업을 하셨는데, 마지막 건축이 한림성당입니다. 이후 성당을 신축했는데, 그 종탑은 쌓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흔쯤에 학교 건축을 하셨네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를 짓고,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해방돼 버리니까 일본 목수들은 다 가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모두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렇게 추진된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많이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죠. 한림국민학교, 두모파출소, 남읍국민학교, 광금국민학교, 하여간 한림과 한경의 큰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주교 한림성당을 짓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계속 건축업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서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대에서 건축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네요.

당시에는 맥그린치 임 신부가 처음 와서 그 사람이 24살 때 인가 제주 들어와서 한림성당을 지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21세에 목포에 들어왔는데, 목포에서는 교회를 짓다가 종탑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종탑을 지을 수 있겠냐’고 해서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놀라워하더랍니다.

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종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림성당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 그래서 도시 계획으로 (성당을) 신축하면서도 ‘이 건물(종탑)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아까운 건물인데……’ 길을 확장해야 되니까 본 건물은 허물더라도 종탑만큼은 놔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종탑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다행히 살아남았네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 당시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셨던 겁니까? 사업 규모가 그 일대에서는 가장 컸습니까?*

그렇죠. 한림, 한경의 큰 건물은 다 지었어요, 하여튼. 한림성당 지을 때까지.

*(아버님께서) 40대 초반까지 건축 일을 하셨으니까, 당시 아버님에 대해서도 좀 기억도 하시겠네요. 그때 당시에 학교 같은 거 짓거나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한림공고 본 건물 위에 2층 올려져 있을 거예요. 가보면 돌담으로 된 본 건물. 우리 아버지가 지은 본 건물에 2층 올린 거예요. 그때는 뭐 감리다 뭐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 2층을 올리려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문의해가지고 ‘이걸 2층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그 돌담으로 단단하게 쌓았으니까 ‘2층 올려도 괜찮다’ 해서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때 상담하러 와서 그때는 뭐, 그 시절이 그렇게 뭐, 전문가들이 와서 건축물을 진단하거나 뭐, 그런 거 못 할 때 아납니까? 그럴 때니까, 집으로 와서 물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금 가 보면은 한림국민학교 이런 데는 옛날 건물들 다 없애고 새로 했는데, 거기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1층 위에 2층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돌담이, 나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지금 다 철거해 버렸어요. 공고만 돌담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 건물의 설계 도안을 목판에 연필로 그리고 건물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계’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저 목판에다 그려가면서 했겠죠. 게다가 옛날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어요. 종이가 없으면, 나무에다가 연필로 그리면서 한 거지. 연필도 귀한 때지.

예, 맞습니다. 625 직후이고.

그러니까 옛날 목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목수들이죠. 도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좀 그려가면서 몇 평 정도만 해달라고 그러면 구상하면서 한 거죠.

설계부터 짓는 것까지 다 하신 건가요?

그렇지.

그 목재는 어디서 구한 건가요? 육지에서 가져왔나요?

육지에서 왔을 거예요. 성당을 지을 때는 아버지와 맥그린치 신부가 얘기하는데, 그 목재선이 제주로 들어와서 어디, 판포 바다에선가, 어디서 좌초되어서 침몰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접안시설이 없었으니까요. 목재도 막 귀하고, 이렇게 한 찰나에, 목재 실은 배가 어디 이 판포인가, 어디 금능인가 어디서 좌초되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로 해서 목재 확보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그럼 돌도 육지에서 왔나요?

아니죠. 돌은 뭐, 여기 걸로 썼지. 돌, 시멘트, 모래가 상당히 귀한 시절이어서.

그럼 당시에 집을 지을만한 나무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집 지을만한 나무는 제주도에 없었고, 제재소 자체도 없었어요. 학교를 지을 만큼의 나무들은 없었고, 일반 우리 주택들은 제주도 나무로 그냥 사용했지요. 학교 지을만한 나무는 없었고, 부수적인 나무는 여기 거를 사용했겠죠.

(아버님께서) 1956년에 한림중·고등학교 기성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받으시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건, 그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건물도 단단하게 지어주고, 공기를 맞춰서 학교를 개교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제때 딱 학교를 개학할 수 있게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잘 해줬다는 거겠죠.

그럼 (아버지가) 목수 일 하실 때 당시 일은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좀 늦게 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75세인데, 50년생이예요. 내가 한 4살, 5살 때 천주교 한림성

당을 지었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랑 거기 가서 좀 그 놀았던 기억이 나요. 나무 위에 앉아서 놀았던 기억, 그 기억밖에 안 나요.

*당시 아버님으로부터 학교 지을 때 뭐,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거나,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학교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힘든 거는 옛날에 나무 같은 거, 재료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 일꾼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는 그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는 구박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5살 때부터 일본 사람들하고 일하기 시작했겠지.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 목수 일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시의 한림 쪽 목수들은 모두 우리 아버지 밑에서 배운 거죠.

*그러면은 거의 아버님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기술을 배운 1세대 목수시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무튼 집안일이든 문중 일이든 뭐든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려면, 사람들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영장 문을 때 너무 꼼꼼하게, 산담도 단단하게 잘해 놓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더 힘들어요. 치우려고 하니 힘도 부치고. 철저한 집안이 그때는 좋았는데,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서 치우려니 너무 힘들어요. 대충 한 편이 치울 때도 좋아요.

*그렇게 철저하시니까 이 일대에서 소문나서 많이들 의뢰하셨나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틀림없다고 그러면, 틀림없었어.

*그럼, 살고 계시는 집도 아버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대림에서 살았는데 기와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지는 않고요.

*아버님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맥그린치 신부님 쪽에서 기념관도 짓고 있던데, 거기 책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내력이 나와 있어요. 한림성당 지을 때 그 시절에 장비도 없는데 종각을 쌓는다는 게, 신부님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포에서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맥그린치 신부님이 이거를 하고 나서, 한림에 있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이시돌 목장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고, 믿을만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하셨거든요. 그때 거절하신 거를 후회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니 못 갔는데, 그때 갔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편안했을텐데. 신부님도 그렇고, 나도 잘 뻘을텐데, 라고.

*아버님은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목수 그만두고 전분 공장을 했습니다. 동업하다보니 분쟁도 생기고 사업도 실패하고.

*당시에는 일을 받아도 돈도 별로 없었을 거고, 돈을 받더라고 조금밖에 못 받았겠죠.*

한림읍의 목수는 모두 우리 아버지 후배들입니다. 우리 대림리가 목수가 좀 많았고.

*아버님의 영향이셨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1세대니까.

*혹시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농사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는 일본 사람 밑에서 목수 기술을 배우고 해방이 되니까 일본인들은 돌아가고, 아버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게 된 거네요.*

일을 철저히 하게 된 거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교육받은 것도 좀 보탬이 되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근성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여 년을 같이 했으니까. 현재도 우리가 만드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한림에서만 하더라도, 서부두 방과제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때 만든 방과제는 안 무너지거든. 옛날에 모래와 시멘트 배합을 할 때도 '3대 7이다' 하면 일본 사람들은 정확히 하거든. 배합할 때도 옆으로 세 번 위로 세 번 물 넣고 배합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하거든. 지금도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철저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힘들었을텐데, 그거를 그냥 꼭 참고 버텨가면서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사대금은 기성회장 김창호 면장 책임하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면장이 사비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는 먹고살기도 빠듯해서 돈이 잘 안 모였겠죠.

김창호 면장님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서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이런 게 맞으니까, 돈이 잘 안 들어와도 공기를 맞춰서 하셨을 것이고, 김창호 면장님이 사비로 했다고 해도 아무래도 제대로 지급하기가 힘들셨겠죠.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한림공고가 옹포리 제약 공장에서 본교 교사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이 만든 우리 한림의 방과제만 보더라도 지금도 끄떡없거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 하다 보면 조금만 실수해도 망치로 팍 때렸다고 해요.

또 체구도 좋았고, 나보다 키도 더 컸고.

하다 보면 공기도 그렇고 돈을 제대로 못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이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김창호 면장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이 한림읍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요. 마을마다 길을 내신 분도 이분이실 겁니다.

제약공장?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일제 강점기 옹포에는 얼음 공장과 통조림 공장이 있었거든요. 한림읍이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물이 좋다고 해서,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얼음 공장을 여기다가 만들었고, 통조림 공장도 만들고. 군수시설을 해가지고……, 옛날에 비양도 앞바다에 군대환이 폭침당해서 가라앉았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일제 강점기에는 한림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죠. 한림은 옛날부터 물도 좋고 땅도 옥토라고 했어요.

한림은 밭이 자갈밭인데, 이 자갈밭이 좋은 땅이거든요. 비가 아무리 와도 배수가 잘되고 또 가뭄이 잘 안 들어요. 진흙 땅은 가물면 땅이 갈라지는데 자갈밭은 그런 게 없어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래서 한림이 농업이 발달된 곳이에

요. 특히 이곳 대림, 수원 이쪽 땅들이 좋은 땅이어서 옛날에는 부촌이었습니다. 한림천이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 몇 곳 없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  
들



# V.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과 기부 활동

#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과 기부 활동

- 구술 자료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양정필(제주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거의 모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부족했던 1970년대까지도 정부의 전액 지원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독지거나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한 큰 동력이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20세기 들어 근대 교육을 위한 학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재정 궁핍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제주목 소학교를 설립한 것이 확인되며, 일제는 강점 초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 각각 하나의 보통학교와 농업학교를 설립하는데 그쳤다. 1910년대에 와서도 그 이상의 학교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1운동은 조선총독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지배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 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제주도에서도 면별로 하나의 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학교 설립 허가가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학교 설립을 대폭 허용한 시기는 1930년대 중후반부터였다.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식민지로부터 물적·인적 자원 동원이 절실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교 설립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그래서 193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전보다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학교 설립을 정책적으로 조정하였으나, 학교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학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교육 발전은 당시 제주인들의 희생과 기부의 결실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학교 설립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기부 활동에 대한 조사와 기리는 작업도 요구된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양정필·김진철·신소연·현미애의 공동 조사·연구의 결과물로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조사』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구좌읍 13개교(폐교 포함, 이하 동일), 성산읍 13개교, 우도면 2개교, 애월읍 20개교, 한경면 11개교, 한림읍 11개교 등 6개 읍·면의 60개교에 대해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기부 활동을 문헌 조사하여 성과를 수록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성과를 이어 문헌 조사와 구술 채록, 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작년에는 문헌 조사만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문헌 자료에 기반한 조사와 기부 관련자에 대한 구술 채록을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 조사와 관련하여 작년에 다루지 않은 읍·면의 학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현대 신문 기사, 공덕비, 학교 기부 관련 자료와 저서를 조사하여 학교별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를 정리한 것이다. 작년 조사에 이어 올해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1970년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 상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기부 관련 구술 채록은 올해 처음 시도된 조사이다. 기부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생존자의 구술을, 기부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족 혹은 후손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이는 작년의 문헌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구술 채록은 문헌 조사의 공백을 메우고 기부자들의 구체적인 삶, 기부 배경, 후손들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조사의 특징은 바로 이 구술 채록에 있으며, 문헌 조사와 구술 채록은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어서, 이 두 작업을 통해 학교 관련 기부 상황을 훨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 조사는 대부분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업 등의 일부 정보만 알 수 있고 기부자들의 구체적인 삶이나 기부의 상세한 배경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 채록은 그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올해 구술 채록은 기부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추진되어 그 내용이 풍부함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존 기부자나 80세 이상 제보자의 경우 기부 당시 상황이나 관련 구술을 채록할 수 있었으나, 기부자를 직접 생전에 보지 못했던 세대의 구술은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구술 채록에서는 제보의 신빙성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보자의 나이, 제보 당시 환경, 기억력 쇠퇴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헌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제보의 신빙성을 살펴야 한다. 동일 제보자의 구술 내용 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한 구술 채록을 통해 기부자와 후손의 현재 상황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더 늦기 전에 학교 기부 관련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작년 문헌 조사 성과에 이어진 추가 문헌 조사보다는 올해 새롭게 시도된 구술 채록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 조사와 비교 검토하며 구술 채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술 채록이 기존 문헌 조사의 성과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증언 채록 성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올해 구술 채록은 작년 문헌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읍·면의 다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문에서는 동부지역인 성산읍과 구좌읍, 우도면 구술 내용을 기존 문헌 조사와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술 채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의상 두 학교를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구좌면은 일제강점기부터 학교 설립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므로 당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여 구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2. 일제강점기 구좌면의 학교 설립 운동

일제강점기 학교 설립은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였으며, 무엇보다 일제 당국의 인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즉 일제의 정책적 제한이 학교 설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는 ‘3면 1교’ 정책을, 3·1운동 이후 정책 변화로 ‘1면 1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1면에 1개 학교만 공식 인가하겠다는 의미로, 여러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한 곳만 공립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1900년대 중·후반에 한층 완화되어 학교 설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으나,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공립학교 설립이 총독부의 제한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제력의 확보였다. 조선총독부는 ‘1면 1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학교 경비를 거의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장과 교사 등을 모두 스스로 마련한 뒤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했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마을 단위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마을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제주도에는 많은 마을이 있었으나 학교 설립 과정에서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별 경제력 차이에 따라 학교 설립 시기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경제력이 비교적 나은 마을들이 더 일찍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마을의 경제력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주도 마을은 크게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로 나눌 수 있는데, 19세기까지는 중산간 마을이 경제적으로 우세하였으나 20세기 들어 해안 마을이 앞서게 되었다. 여기에는 해녀들의 물질 수입과 올해 제보에서 확인된 해안 마을 남성들의 화물선 운송업을 통한 수입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 해안 마을의 경제력 상승으로 그 주민들은 학교 설립에 앞장섰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920년대 전반기에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가 세 곳이나 되었던 구좌면을 꼽을 수 있다. 일제강점 초기 제주도에는 제주읍, 정의면, 대정면에만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다른 면에는 없었다. 3·1운동 이후 ‘1면 1교제’를 시행하면서 교육 당국은 공립보통학교가 없었던 구좌면, 조천면, 애월면, 한림면 등에 학교 설립을 허가하였고, 구좌면에도 한 곳의 공립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조천면, 한림면 등에서는 한 마을에서만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신청하여 그 마을에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애월면과 구좌면에서는 두 지역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구좌면에서는 김녕리와 행원리·월정리 연

합이 경쟁하였고, 하도리도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처음부터 사립학교 방향으로 정해 공립학교 유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즉 1920년대 전반 구좌면에서는 세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세 지역 모두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세 학교는 모두 마을 단위로 설립되었으며 해안 마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주민의 바람이었으나 실현에는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쳤고, 세 마을은 1920년대 전반 이미 학교를 설립할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같은 시기에 다른 읍면에서는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대부분 하나의 학교만 설립한 데 비해 구좌면은 세 개의 학교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경제 형편이 다른 지역보다 나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녀의 물질 수입 외에 남성들의 화물선을 활용한 경제 활동도 마을 경제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소요 경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하였으며, 그 명단은 작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에는 기부자들의 삶, 기부 배경, 후손들의 상황 등을 구술 채록하여 기부 조사를 더욱 완결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1938년에는 세화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구좌면에는 총 4곳의 학교가 생겼으며, 세화초등학교 설립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해방 후에도 구좌면에는 다수의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정부 재정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부가 여전히 중요하였다. 한 제보자가 말했듯이 1970년대까지는 여러모로 형편이 어려워 학교 설립에 주민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이처럼 주민들의 기부 활동은 학교 설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으며, 실제 기부자의 면면과 기부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제주 교육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구술을 통해 그러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3. 근·현대 동부지역 초등학교 설립 경험과 기부자에 대한 구술 분석

#### 1) 하도초등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 (1) 제보자 김석만 옹

하도초등학교의 기부자에 대해 구술한 이는 김석만 옹이다. 김석만 옹은 1929년 출생(호적상 1928년생)이며, 일제강점기 당시 사립하도보통학교에 다니다 1943년 3월 25일 제20회로 졸업하였다.<sup>51)</sup>

이후 제주농업학교에 진학하였는데, 미군정기 정국이 불안하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4

51. 김석만 옹이 입학할 당시는 사립하도보통학교(1921.4.5. 개교)였다가 1938년 4월 1일 사립하도심상소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김석만 옹이 졸업한 시기는 사립하도학교(1941.3.)로 교명이 변경된 이후로 보인다.

학년 때 중퇴하고 초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였다. 1년간 공부한 뒤 당시 하도국민학교 정교사로 부임하여 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 (2) 하도초등학교 설립과 초기 운영에 대한 구술

제보자는 김녕국민학교가 먼저 설립된 배경으로 김녕에 경찰관 주재소가 있었고 일본인 경찰관이 그곳에 주재하여 그를 통해 김녕국민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다.<sup>52)</sup>

하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하도가 구좌면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공립 김녕보통학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구좌면장이었던 강공철이 세운 사립학교가 바로 하도초등학교라고 한다. 다만 제보자는 하도초등학교 개교가 1921년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따라 현재는 하도초등학교의 개교 연도를 1921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sup>53)</sup>

제보자는 하도초등학교가 일찍 설립된 이유가 당시 면장이었던 강공철 씨의 적극적인 추진 덕분이라고 알고 있다. 강공철은 구좌면장이자 하도초 교장을 겸임하였으며, 제보자가 졸업 당시에는 부대현이 교장이었다고 하고, 전인홍은 1943년 졸업앨범에 구좌면장 자격으로 사진이 실려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보통학교 설립에 있어 면장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면장이 학교 설립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면장의 큰 역할을 기억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sup>54)</sup>

하도초등학교에는 종달, 하도, 상동, 세화, 평대, 연평 등의 학생들이 다녔다. 1940년대 하도초등학교 졸업생은 70명 정도였고, 중등학교 입학률도 높았다. 특히 하도초등학교는 당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로 유명하였으며, 1940년대 초 검도부, 유도부가 있었고 교실 외에도 비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제주도에 유일하게 악대부가 있었는데, 운동회 때 다른 학교에서 악대를 초청해 연주를 부탁하였고 악기들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제보하였다.<sup>55)</sup>

## (3) 기부자들에 대한 구술

하도초등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1923년 3월 학교 설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 1923년 12월 학교 교사 마련을 위한 기부, 1935년 학급연장을 위한 기부(가호

52. 당시 신문 기록에 따르면 김녕과 월정·평대 두 곳이 학교 인가를 놓고 경쟁하였다. 학교 인가 업무 담당자가 탈락한 마을에 위로금을 많이 지급하겠다는 마을에 학교 인가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녕과 월정·평대 두 곳에서 각각 상대 마을에게 줄 위로금을 적어서 제출했는데 김녕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여 김녕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신문 기사를 보면 경합한 두 곳 중 어느 한 곳을 편애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일본인 경찰관이나 김녕 출신 유력자의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록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 비교적 공정하게 학교 입지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53. 하도초등학교와 「학교연혁지」 등에는 하도초등학교가 1921년에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설립 연도가 1923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식 인가 학교의 설립은 일제의 교육 정책에 의해 제한을 받았는데, 1921년 무렵 구좌면에는 정식 인가를 받은 보통학교가 없었다. 구좌면의 공인 보통학교 설립은 1923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

54. 다만 면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다면 구좌면의 다른 지역에서 학교 설립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면장의 노력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도 중요하였다. 하도리는 이 두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면장의 주선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일찍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55. 북촌리에도 악대가 있었고 그 악기는 일본에 건너가 생활하던 북촌 출신들이 사서 보내준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하도초의 악기도 일본에 가 있던 하도 출신들이 보내준 것으로 짐작했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악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므로 필자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

별 지세에 따라 부과), 1940년 12월 교사 증축을 위한 기부 등이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하도초등학교 기부자는 신문이나 공덕비 등을 통해 이름과 기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확인된 기부자 수는 124명이다.<sup>56)</sup> 이번 조사에서는 두 명의 기부자에 대해서만 구술을 채록하였는데, 김원일과 강기후로 1943년 현금을 희사한 이들이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공덕비가 세워졌다.

두 기부자에 대한 김석만 옹의 구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원일: 1943년 30원을 기부한 김원일은 김두준의 아버지임. 김두준(1913년 출생)은 제주도의회 제4기 도의장(1959.04.08.~1960.05.03.사퇴)을 역임한 인물임.
- 강기후: 연평리 사람으로, 당시 우도에는 4년제 학교밖에 없어서 4년 졸업 후 하도초등학교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음. 이러한 연유로 강기후가 하도초등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보이며, 우도에 설립된 학교에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됨. 1938년 사립연평심상소학교가 인가될 당시에 설립 공헌자로 이름을 올렸고, 1940년 우도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로 300엔을 기부하였음.

김석만 옹의 기억에 의하면 강공칠, 고영근, 부한조(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등이 하도초등학교를 세운 인물들이다.<sup>57)</sup> 제보자 자신도 하도초등학교 교장을 두 번 역임하였고 세종대왕 동상 제작시 직접 기부하기도 하여 그 역시 기부자의 한 사람이었다.

#### (4) 하도리 사람들의 화물선을 통한 운송업

하도리가 하나의 마을임에도 매우 이른 시기에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마을 주민들의 경제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하도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경제 형편이 나아 초등학교를 일찍 설립할 수 있었다. 하도리 경제력의 원천은 해녀들의 물질 수입으로, 실제로 해녀들이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여한 바는 매우 컸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하도리 경제력은 해녀의 물질 수입만이 아니었으며, 화물선을 활용한 운송업도 큰 수입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하도리 사람들이 80톤 또는 90톤급 화물선을 많이 운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함경도 청진으로 오징어를 운반하는 등의 운송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 학교에 많이 희사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하도리의 경제력이 해녀들의 활동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김석만 옹의 제보에 따르면 화물선 운수업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하도리 경제력에 대한 새로운 구술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56. 양정필 외, 앞의 책, 2024, 40~45쪽(하도초등학교 부분) 참조.

57. 「하도사립학교 신청」, <매일신보> 1923. 2. 13. 기사에 제시된 설립자들 내용이 일치한다. “제주도 구좌면 하도리에서 교육 진도의 機를 隨하여 종래 영인 私塾을 확장하기 위하여 高瀛根, 金德浩, 夫智英, 康共七, 趙晋叔, 吳銀浩, 吳斗鉉, 林京千, 夫元敦 제씨의 발기로 기본금 만여원을 모집하고 도청 당국과 협의하여 사립학교 인가원을 1월에 제출하였는데 당지에서 호평판이 喧藉하여 一模範이 되었더라.(제주)”

다른 구술에서도 화물선을 활용한 운수업이나, 무역선 선장으로 활동하여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았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제주도 동부지역 마을의 남성들이 화물선이나 무역선을 이용한 운송업 등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므로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2) 동복초등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기부자에 대한 제보자는 김갑생 옹이다. 그는 1934년 출생으로, 1952년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 설립 당시 설립위원회의 두 명의 위원장 중 한 사람인 김두일의 아들이다. 제보자의 구술을 토대로 동북분교장 설립 상황 및 기부자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아버지 김두일에 대한 기억

김갑생 옹에 따르면 아버지는 조천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었다.<sup>58)</sup> 큰아버지가 조천에 살아 아버지가 조천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어머니와 결혼 후에 학교를 다닌 것 같다고 한다. 김갑생 옹의 어머니는 동복 양씨이다.

아버지 김두일은 김갑생이 두 살쯤(1935년 전후)일 때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일본어로 ‘가다두리’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가다두리’ 공장은 쇳물로 녹여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오사카 쓰모리[津守村,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서부]에 위치하였고, 15명 정도가 근무하며 아버지가 공장장으로 일했다고 회고하였다.

### (2) 본인에 대한 구술

아버지가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김갑생 옹도 6살(1939년경)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학교에 입학했으나 일본어가 서툴러서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1944년경 5학년 정도였으나 그때부터는 피난 다니느라고 학교 공부는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1945년에 해방 후 그해 10월 제주도로 귀환하였고, 아버지는 1946년 11월에 들어왔다고 한다. 4·3으로 집안이 모두 불타 가난해졌고 김갑생 옹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다녔으나 졸업하지 못하였다. 입학금을 어렵게 마련해 학교에 다니다 6학년 2학기에 4·3이 일어나 모두 불타버려 먹을 것도 돈도 없어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형제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58. 김갑생 옹은 아버지의 출생 연도를 1921년이라고 했다. 그러면 조천초 1회 졸업생이라는 제보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천초등학교는 1921년 6월에 설립 인가를 받고 1922년 11월에 개교하였고, 당시 4년제였으므로, 1922년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4년 후인 1925년에 제1회 졸업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921년 출생인 김두일이 1925년에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김두일이 조천초교 1회 졸업생이라고 하면 김두일이 1921년 출생이라는 김갑생 옹의 구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1925년에 11살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김두일은 1916년 이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갑생 옹의 제보에 의하면 아버지 김두일은 1921년 출생이고, 본인은 1934년 출생이라고 하므로 김두일은 김갑생 옹을 14살에 낳은 것이 된다. 반면 김두일이 1916년 이전 출생이면 그는 19살 이후에 첫 자식을 본 것이 되어 당시 결혼 연령대에도 비슷해 보인다. 이 문제는 호적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장황한 추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호적등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정해 보았다.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 등 몇몇 분이 동복리 마을을 돌아다니던 모습을 기억하며, 당시 선생님들과 유대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김두일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으나, 학교 일에는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 (3) 기부자에 대한 구술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 설립 및 운영 과정의 기부 상황을 정리하면, 동복분교장은 1952년에 설치 인가가 났으며, 추진위원 대표는 김하수, 김두일이었다. 기금 후원자는 김용옥, 재일 동복리 출신 친목회 이양근 외 56명, 학교 부지 기증자는 김정중, 김정규, 대표 한석이었고, 자문위원은 김시형(북군 교육감), 장제필(김녕국교장), 김도준(도의회 의장), 부대현, 김대흥이었다. 이들 중 김갑생 옹은 많은 기부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김하수: 설립 당시 추진위원장 중 한 사람이었음. 당시 동복리 이장이었다고 함. 다른 추진위원장은 김두일이며, 이후 기성회장도 역임함.
- 김용옥: 부산에서 무진회사(제보자는 무진회사를 증권회사나 은행 비슷한 기관으로 설명함) 회장으로, 천초공장, 미원회사를 운영한 사장이었다고 함. 재일교포로 기록되어 있으나 어릴 때 동복을 떠나 부산에서 돈을 벌어서 회사를 세운 사람으로 기억함. 1959년에 교실 신축 기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함.
- 황태유: 교포이며 회사를 많이 하고 2~3년에 한 번씩은 고향을 방문했다고 함.
- 김정중: 자신이 살던 집터를 희사하였는데, 현재 학교 터가 김정중 집터라고 함.
- 신영준: 교포로 일본 오사카에서 된장 공장을 운영하였음. 김두일과 배다른 형제이며, 신영준 어머니가 나중에 김갑생 할아버지의 작은 부인이 되었다고 함.
- 김원보: 김두일과는 8촌 지간으로, 김원보의 차남은 김창만임. 김갑생과 김원보는 9촌이며, 교포가 아닌 동네 사람으로 말을 많이 길렀고, 소 장사도 하여 돈을 벌었음. 축산 쪽으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제보함.

김갑생 옹의 기억으로는 김정중 외에 김원보, 김정규 세 사람이 자신의 집터를 내놓았으며, 이 외에 이경화, 고정옥 등도 학교 부지를 희사하였다. 고정옥은 큰 심방이었고, 이경화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돈을 내놓았다고 한다.

### (4) 동복초등학교에 대한 구술

동복분교장이 1952에 설립된 연유는 해방 후 4·3으로 모두 불타 3~4년이 지나서야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제보하였다.

학교를 이전한(1957년 동복국민학교 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후 학생들이 동원되어 바닷가에 가

서 돌을 깨서 나르고 학교를 지었다고 한다. 김갑생 옹의 선배들은 운동장이 없어 돌 끌로 망치질하면서 운동장을 만들고 1~2회뿐 아니라 학교를 옮긴 후 약 10년간 고생했다고 회고했다. 운동장 평탄화할 작업 비용이 없어 학생들이 직접 하였다고 했다.

이처럼 김갑생 옹은 운동장 평탄 작업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했을 것으로 짐작하며, 기계도 없던 시대에 운동장이 반드시 필요해 학생들은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고생했다고 전한다.

### (5) 동북초등학교의 학교 바당

1970년대에는 동북분교장에도 일명 ‘학교 바당’과 비슷한 지원이 있었다. 동북리는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마을 바다도 4개의 동별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당시 마을 앞의 섬에서 나는 톳을 일본에 수출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4개 동의 마을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톳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중 100만 원을 재정이 부족한 학교에 지원했다고 한다. 1970년대 약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1980년대 경제가 나아져 중단되었으나 이전에는 매우 어려웠으며, 이창식이 어촌계장 시절 때로 기억하고 최근 세대는 어촌계의 회사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톳 채취는 당시 해녀 35명 외에도 해녀가 아닌 사람도 10명 정도 참여하였으며, 각 동 40~45세대 중 그들이 받은 배당금을 학교에 희사한 셈이었다고 밝혔다.

## 3) 성산초등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성산초등학교 기부자에 대한 제보자는 김승석 옹(1949년 출생)이다. 김승석 옹은 성산초등학교 기부자인 김성은(1894년 출생)의 손자이며, 김길수(1912년 출생)의 아들이다.

### (1) 조부모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구술

김승석 옹의 제보에 따르면 조부모의 고향은 월정리였다. 1930년대까지도 주소가 월정리로 되어 있었다. 그 이후 어느 시기에 조부모는 성산으로 이사하였다. 할머니가 해녀였기 때문에 성산으로 이사 오기 이전에도 물질을 하였다. 특히 조부모는 출가 물질로 돈을 벌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함경북도까지 출가 물질을 하였으며, 주로 감태를 채취하였다고 했다. 일제가 일으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감태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감태를 채취하는 물질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밑천으로 성산으로 이사해서 점방을 차렸다고 한다.

김성은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성산포에서 점방을 하였다. 성산에서 점방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자 땅도 사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학교 지을 때 그 땅을 내놓았고, 점방의 주소지는 성산리 136~2번지였다.

## (2) 아버지에 대한 구술

아버지 김길수는 해방 후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 공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공장이었다. 당시 성산에는 통조림 공장이 두 곳 있었는데, 하나는 군납용 고등어 통조림 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라와 전복 통조림 공장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김길수가 소라·전복 통조림 공장을 불하받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 공장에는 부속 창고도 있어서 창고업도 함께 하였다고 한다.

## (3) 집안의 기부 활동

1946년 학교 운동장 부지로 토지를 기부한 사람은 당시 기록에 김길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토지가 할아버지 소유였다고 한다.

기록에는 1956년에 2개 교실 석조 증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보자의 기억에 따르면 석조 교사 신축 이전에 약 2년 정도는 아버지 창고를 교사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기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기부를 하셨고 나도 돈을 보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 (4) 기부자에 대한 제보

- 한행력: 제보자의 기억에 따르면, 한행력은 일제강점기 때 성산포에 있던 주정공장 사장이었으며, 그로 인해 재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한재옥의 친부로, 한재옥은 한일여객을 설립한 인물이라고 한다.
- 현원주: 현원주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산에서 유명한 현씨 집안이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기억에 의하면, 세 사람은 모두 마을의 유지로서 재력이 있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 4) 한동초등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 (1) 한동초등학교 설립 과정

한동리 주민들은 해방 직후부터 학교 설립을 준비하였다. 최초에는 평대리와 공동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문제가 생겨 당시 홍화국민학교가 설립되었고 한동리는 그 과정에서 제외되었다.<sup>59)</sup>

이후 한동리는 독자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956년에 ‘한동국민학교 설립 기성회’를 결성하고, 1963년에 다시 ‘한동국민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966년에는 다시 ‘학교설립기성

59.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평대초등학교(당시 홍화공립국민학교)를 한동리와 공동 설립하려 했으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에 평대리 단독으로 기성회를 조직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홍화공립국민학교’는 1945년 9월 1일 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8일에 개교하였다(양정필 외, 앞의 책, 2024, 47~49쪽(한동초등학교 부분) 참조).

회'를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호별로 분담금을 부담하였고 해녀들은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였으며, 재일교포들도 기부하는 등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에 힘을 보탰다.

그러한 헌신의 결과로 1968년에 한동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한동리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동장 3천여 평과 학교 건물을 마련하여 인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한동초등학교는 1968년에 개교하였지만 그 과정은 지난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제보자의 아버지 이병추는 1968년 12월, 학교에 당시 시가로 약 9만원 상당의 소파를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0)</sup>

## (2) 제보자의 가족에 대한 회고

제보자 이원석(1939년생)은 기부자 이병추(1916년생)의 아들이다. 두 사람의 본래 고향은 평대리였으나, 이병추가 한동초등학교에 기부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이원석의 제보에 따르면, 아버지 이병추는 자신이 두세 살 때인 4·3 당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sup>61)</sup>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4·3 때 평대리 집 등이 다 불타버려서 할아버지 주도로 가족이 한동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이원석은 한동리에서 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 아버지의 고향 방문

이후 시국이 다소 안정되자 이병추는 1964년경, 즉 이원석의 나이 스물다섯 살쯤 되었을 때부터 가족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이원석이 스물두 살에 결혼할 당시에도 아버지 이병추는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1964년에 고향을 방문한 후에는 비교적 자주 왕래하였다.

이병추는 일본에 가서 결혼하고 아들 셋을 두었고, 제주에도 이원석을 포함해서 아들 둘을 두었다. 이원석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친목회에 가입했다면 한동 친목회가 아닌 평대 친목회에 가입했을 것이라 하였다. 다만 한동초등학교 설립 시기에 기부한 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한동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 인연으로 학교에 기부하였을 것이라고 제보하였다.

## (4) 아버지의 기부에 대한 기억

이원석은 아버지가 한동리에 왔을 때 마을 유지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회상하였다. 이를 보아 한동리 유지들이 이병추에게 기부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원석은 한동초등학교 개교 이전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해서 평대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재일교포가 1960년대 세워진 한동초등학교에 기부하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례로 보인다.

60. 한동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제주교육을 도와준 사람들』(제주도교육청, 1995) 및 『애향의 보람』(제주특별자치도, 2007)에는 교실 건축비 및 학교 시설 등을 기증한 재일교포들의 기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이병추는 1968년 12월 15일 소파(90,000원)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1. 제보한 내용 중에 연대와 나이에 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원석은 1939년 출생이므로 그의 제보대로 아버지 이병추가 자신이 두세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그 시기는 1940년대 초반이 된다. 그러나 다른 구술처럼 4·3 당시 일본으로 피신하였다면 제보자 이원석의 나이는 대략 열 살 전후가 되어야 한다. 이원석이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194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4. 해방 이후 중학교 설립 경험과 기부자에 대한 구술 분석

### 1) 세화중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 (1) 제보자 김성화 옹

세화중학교 기부자에 대한 제보자는 김성화 옹이다. 김성화 옹은 1935년 출생이며, 평대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 설립 당시 기부자 중 한 사람인 김창근의 아들이다. 김성화 옹은 평대리 출신이지만 당시에는 평대리에 초등학교가 없어 세화초등학교를 다녔다.

평대리에는 1936년에 설립된 보성서당이 있었는데 2년제(혹은 4년제)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평대에서 1년 다닌 뒤에 2학년 때 세화로 가서 다시 세화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sup>62)</sup> 공립학교 입학 나이가 8세였기 때문에 1935년 출생하였으나 호적을 1937년생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세화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세화중학교가 없던 시기여서 김녕중학교에 진학해 졸업하였다. 이후 오현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졸업하였고, 이어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교직과를 이수하였으나, 졸업 후에도 정식 교사가 되기 어려워 검정고시를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첫 부임지는 경상북도 선산초등학교였다.<sup>63)</sup> 선산에서 3년간 근무한 후 제주도로 내려올 수 있었으며, 이후 중등 교원으로 38년간 재직하였다.

#### (2) 기부자인 아버지 김창근에 대한 기억

김창근은 구좌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통칭 서귀실수학교) 2년제 과정을 수료하였다. 일제 말기에 김창근은 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제보에 따르면 당시 집안에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일제 말기에 피난을 가게 되면서 어머니와 아들인 김성화 옹은 전라남도 구례로 이주하였다.<sup>64)</sup> 김창근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면사무소 직원으로 남았으나, 구례로 이주할 때 재산을 대부분 매각하여 집과 논밭을 구입하고 살았다.

3년 정도 지나 해방되자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으나, 그 과정에서 재산을 많이 잃었다고 한다. 돌아올 때는 여비 정도만 남아 있었고, 고향 집에는 밭도 재산도 없이 집 하나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월급을 모아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62. 당시 세화리에는 1938년 세화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고, 1941년에 세화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6년제 6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6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선산초등학교의 전신은 1908년 개교한 사립창선학교에서 시작하였다. 1911년 선산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후, 선주공립심상소학교(1938), 선주공립국민학교(1941), 선산국민학교(1945)를 거쳐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64. 제보한 내용 중에 다른 곳에서는 일제 말기가 아니라 4·3때 구례로 피난을 간 것으로 말한다.(다음은 구술 내용임. 4·3 때 부친인 김창근은 면사무소에 다니면서 혼자 고향에 남았고, 어머니와 아들인 김성화는 전라남도 구례로 피난 가서 3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옴. 피난 갈 때 재산을 정리하여 구례에 가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없어졌음) 그러나 제보한 내용의 흐름상 일제 말기에 피난을 간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김창근은 아들 김성화뿐만 아니라 남동생 세 명까지 함께 뒷바라지하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더욱 가계 형편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남동생 세 명과 아들 한 명, 총 네 명의 교육을 책임진 셈이었다. 이들 네 명 중 세 명은 세화초등학교 졸업 후에 김녕중학교에 진학하였고, 김창근의 막내 동생과 아들인 김성화는 오현고등학교로, 다른 동생은 제주농업학교로 진학하였다. 이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모두 지원했다고 한다.

김창근은 1954년 9월 1일부터 1959년 5월 10일까지 구좌면장을 역임하였다. 제보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제주도 교육청, 북제주군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등에 근무하였으며, 그중 하나로 관리과 관리과장 직을 수행했다고 한다.

제보자의 회고에 의하면 아버지 김창근은 혼자 벌어서 형제 세 명과 자식을 모두 공부시켰으며, 자식들보다 형제와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왔다고 한다. 마을 발전을 위해 힘써준 분이라고 평가하였다.

### (3) 세화중학교 설립 당시 김창근의 기여에 대한 제보

김성화는 아버지가 면장 직책으로 학교 설립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제보하였다. 세화중학교는 초창기에 아버지가 모금을 위해 돌아다니며 기성회장도 맡아 공적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면장 등 인사들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 부탁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금하게 하고, 재일교포 중 아는 사람들에게도 모금을 요청하여 기성회를 운영했다고 회고하였다. 면장으로 있으면서 돈 모집이 다소 수월했다고 하나, 이 구술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세화중학교 설립 과정을 보면 1950년 9월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1950년 10월에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즉 1951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1951년 구좌면장은 부대현이며, 김창근은 1954년부터 제9대 구좌면장으로 재직할 기록이 있다.<sup>65)</sup> 즉, 김창근이 면장으로서 세화중학교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 인가가 지연되자 제출한 진정서에 유지 중 한 사람으로 김창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설립 당시에는 면장이 아니었으나 유지로서 학교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후 면장이 되어 학교 운영에 공헌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보에 따르면 김창근은 4·3 당시 평대초등학교 교사가 전소된 후 재건할 때 기성회장으로 활동하며 돈을 기부하였고, 세화중학교 기성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고 한다.

65. 일제강점기 이래 1950년대까지 구좌면장 이름과 재직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	이름	재직기간	대	이름	재직기간
1대	이원화	1908~1913	6대	부대현	1946.5.1~1952.4.1.
2대	강공철	1913~1935	7대	고학수	1953.4.2~1953.5.23.
3대	고형중	1935.~1937.1.31.	8대	부대현	1953.5.24~1954.8.31.
4대	전인홍	1937.2.1~1945.11.30	9대	김창근	1954.9.1~1959.5.10.
5대	김창오	1945.12.1~1946.4.30.	10대	김남석	1959.6.19~1960.6.15.

#### (4) 기부자들에 대한 구술

세화중학교 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를 살펴보면, 1950년 6월 무렵 기성회가 조직되었고 그 임원진은 회장 부대현(구좌면장), 부회장은 김도준과 김호종이었다. 1951년에는 문필주가 교지 3,845평을 회사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이장 및 지역 유지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66)</sup> 포괄 지역은 한동리, 평대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송당리였으며 진정한 명단에는 구좌면장 부대현, 세화 이장 오군호, 하도 이장 김묘진, 상도 이장 부영석, 종달 이장 임병해, 평대 이장 김호종, 한동 이장 양창하, 송당 이장 김문생, 국민회 구좌면위원장 김도준, 대한청년단 면단장 홍운표, 그리고 지역 유지 김창근, 김시화, 홍순관, 김상호, 문태백, 오문극, 김맹언, 김호규, 조태룡, 김병후 등 총 20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1974년에는 학교 운동장 확장 부지 830평을 김행태가 기증하였다. 이상의 기부자 가운데 다음 인물에 대해서 김성화 옹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 김행태: 1974년 세화중학교 운동장 확장을 위한 부지 830평을 기부하였으며, 평대리 동동 출신으로 동동은 세화리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라고 함. 김성화 옹에 따르면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함.<sup>67)</sup>
- 김호종: 1950년 6월 세화중학교 발기 기성회 조직 시 부회장을 맡았으며, 1951년 설립 인가 지연 시 관내 이장 및 지역 유지들이 연명한 진정서 제출 때와 1952년 세화고등학교 설립 추진 시 평대리 이장으로 추진위원을 역임함. 이처럼 김호종은 평대리 이장으로서 학교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는 구좌읍 의원도 지냈으며, 매우 활발히 활동했다고 함. 특히 4·3 당시 이장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협조를 했다고 제보함.
- 김도준: 도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로, 도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의 권한 덕에 평대리뿐 아니라 구좌읍 전체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함. 당시 그의 집안은 매우 부유했으나 이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회고함.

김성화 옹은 이렇게 몇몇 기부자에 대해 단편적이지만 소중한 정보를 제보해 주었다. 그의 제보는 세화중학교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세화중학교는 세화 사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의

66. 1951년 7월 당시 설립 인가가 이뤄지지 않자 관내 이장 및 지역 유지 연명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진정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양정필 외,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제주학연구센터, 2024, 58쪽).

구좌면장	부대현	세화리장	오군호	유지	김창근, 김시화, 홍순관, 김상호, 문태백, 오문극, 김맹언, 김호규, 조태룡, 김병후
하도리장	김묘진	상도리장	부영석		
종달리장	임병해	평대리장	김호종		
한동리장	양창하	송당리장	김문생		
국민회구좌면위원장	김도준	대한청년단면단장	홍운표		

67. 김행태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김성화가 평대초 재직 시에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한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찾아다니며 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였다.”

### (5) 평대초등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 고용우: 고용우는 재일교포로,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였다고 함. 그는 일본에서 기성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4·3 이후 모금한 돈을 평대초등학교에 보내고, 악기 등도 함께 지원하였다고 함. 오사카에 평대 출신들의 친목회가 있었으며 회원도 많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고향 마을에 기부를 계속한 것으로 회고함.
- 고용택: 고용우와 형제 관계라고 함. 그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가끔 고향 마을에 머물 때마다 회사 하고 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함.

## 2) 우도중학교 기부자에 대한 구술

### (1) 기부자이면서 제보자인 김항근

김항근은 우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때 부모가 일본으로 건너가 대마도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일본에 계속 머물 수 있었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강제 출국당했다고 한다.

귀향 후 우도초등학교와 우도중학교를 4회로 졸업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하였다. 1964년부터 약 11년간 우도중학교 서무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학생 수업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2) 부모에 대한 기억

제보에 따르면 아버지는 해상업을 위해 일본으로 갔고, 어머니와 작은어머니도 해녀로 일본에 갔다고 한다. 아버지는 무역선 선장으로 일본에서 살았으며, 영국까지 왕래하는 무역선 선장이었다고 한다.

영국은 후생과 복리가 잘 되어 있어 항해가 끝날 때마다 6개월씩 쉬었고, 그 기간에 비행기로 일본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배를 약 20년 정도 타셨는데, 일본에서 6개월 쉬는 동안 홀로 오징어 낚시를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전복되어 돌아가셨다고 한다.

### (3) 기부의 동기

당시 우도중학교 교장은 학교 입구의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기 위해 김항근 소유 토지를 기부받고자 하였다. 교장은 김항근을 모르기 때문에 당시 육성회장이었던 한두 명을 통해 토지 기부 의사를 타진해 왔고, 이에 김항근은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한다.

1차 기부는 우도중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항근에 따르면 학교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기부할 수 있었으며, 육성회장의 존재도 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당시 육성회장은 3년 선배로 김항근과는 잘 아는 사이였고, 그에 대한 믿음이 기부의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김항근은 1974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토지를 기부하였다. 중학교 입구를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토지 120평 정도가 포함되었으며, 1975년 5월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 12월에도 학교 운동장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기 위해 김항근 소유 토지 50평을 추가로 기부하였다.

#### (4) 다른 기부자에 대한 구술

우도중학교는 1949년 1월 연평고등공민학교로 시작하였다. 1954년에 연평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개교하였으며, 이후 건물 신축이 이어졌다. 1956년에 2개 교실, 1961년에는 1개 교실, 1962년에 2개 교실, 1974년에 교실과 관사 각 1동 등을 신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기부가 이루어졌다.

고등공민학교를 세울 당시 고태주, 김필환, 강용전 등이 마을 유지들의 토지 무상 기부를 유도하였다. 정찬흡 등은 일본에 있는 연평리 출신들을 모아 증축기성회를 조직하여 5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개의 교사를 건축하였다. 또한 김성오 지사는 연평리 출신 타지 향민들의 후원을 모아 일본에서 건축 자재를 구입해 배로 우도에 운반하였다.

이후 1955년에는 윤행준이 2,102㎡, 김항육이 165㎡, 장찬경이 155㎡, 김항근이 198㎡, 오영돈이 722㎡, 현경원이 4,316㎡의 토지를 기부하였다.<sup>68)</sup>

김항근은 이들 기부자 중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보하였다.

- 윤행준: 우도중학교 부지를 전부 기증한 사람으로 기억함. 윤행준이 약 636평 기부하였으며, 그 아들 윤부국은 아버지의 기부에 대한 보답으로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면제받았다고 제보함.
- 정찬흡: 우도중학교 설립에 많이 기부한 인물로 정찬경과 형제 사이였다고 함.
- 문덕진: 큰 배를 운영하여 제주~부산 무역업을 하였고, 중국까지 무역을 했다고 함. 이후 종달리에 거주하다가 부산을 거점으로 삼아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음. 문덕진은 신설란<sup>69)</sup>을 가공하면 줄(끈)을 만들 수 있었고, 감물을 들이면 바닷물에 들어가도 썩지 않는 낚시줄이 되었다고 함.
- 김항주: 김항주는 김항근의 6촌 형으로 일본에 있었는데, 지역은 오사카인지 아닌지 불분명함.
- 김두환: 김두환은 김항근의 장인으로 일본 오사카에 있었음.

68.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을 도와준 사람들』, 1995, 682~683쪽.

69. 신설란(新西蘭, Phormium tenax)은 용설란과 식물로 상록 다년생 식물임. 뉴질랜드가 원산지인데, 특히 짠물에 강해 선박용의 밧줄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 있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참고).

- 고운배: 제주도청 농수산국장과 서귀포 시장을 역임한 고계추의 아버지임. 고운하, 고운송, 고운교 등도 같은 집안이라고 함.

### (5) 우도중학교 초창기 상황에 대한 구술

김항근이 우도중학교 다닐 당시 1~3학년은 무조건 바작<sup>70)</sup>을 지고, 삽과 팽이를 들고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운동장 부지는 야산이자 임야여서 체육 활동을 할 공간이 없고, 또 굴곡이 심해 삽 하나 정도씩 파내야 할 정도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체육 시간에는 무조건 평탄화 작업을 했으며, 체육 선생님 지시 아래 진행되었다. 1, 2, 3회보다는 4, 5, 6회 기수 학생들이 작업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1~3학년 학생 수는 110명 정도였으며, 학급별로 구간을 정해서 체육선생님 인솔 아래 오후 1시에 1학년이 한 시간, 3시에 2학년이 한 시간, 5시에 3학년이 한 시간씩 진행하였다. 약 3개월 정도 평탄화 작업을 하여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 5. 맺음말

20세기 제주인은 결코 여유롭지 않은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에는 아낌없는 기부를 하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제주도의 발전도 이러한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받은 세대들이 이끌어온 결과라고 본다면, 앞 세대의 학교 설립 활동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는 학교 설립 자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실상과 주민들의 기부 활동의 실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올해 채록된 구술 내용 전체를 분석하지 못하고 동부 지역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동부 6개 학교에 한정되고 제보자도 여섯 명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채록된 구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제보자의 가족에 대한 구술은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특히 가치가 크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제보자를 찾아 가족에 대한 구술 채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꽤 오래전의 일이라 학교 관련 기부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연세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학교 설립 및 기부와 관련해 일부 기억이 있지만 대체로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본인 가족에

70. 바작은 '밭체를 뜻하는 제주어로,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엮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을 의미한다.

대한 제보가 다른 기부자에 대한 제보보다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에 대한 제보가 그나마 구체성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제보자를 발굴하고 그들로부터 관련 구술을 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보를 통해 기부의 실상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구술 분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제보자를 발굴하고 구술을 채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기부 상황 외에 학교 설립 과정과 운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몇몇 제보자들은 학교 설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제보하였다. 그 내용은 문헌 조사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특히 문헌에 없는 내용은 현지 주민들이 학교 설립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예컨대 두 명의 제보자가 학교 설립 이후 운동장 평탄화 작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학교는 문을 열어 학생을 받았지만, 미처 운동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체육 시간을 활용해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제보는 학교 설립 초창기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 매우 흥미롭다.

한 제보자가 언급했듯이, 당시에 많은 학교가 운동장을 갖추고 있었으나 체육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되지 못했고, 개교 이후 학생들의 노력으로 운동장을 정비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주도한 학교 설립 당시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 기부자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제보에는 기부자는 물론 마을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제보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학교 설립이 마을 주민들과 기부자들의 경제력에 크게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해안 마을에서 해녀의 물질 수입과 일본에 건너간 고향 사람들의 송금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해해 왔다.

제보를 통해서도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던 고향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해녀의 물질에 대한 제보는 거의 없다. 이는 해녀들의 기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헌 속 기부자들이 주로 남성이고 그 결과 구술 채록 대상도 주로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에 대한 구술이 남성에 집중된 결과 당시 해안 마을 남성들이 주로 종사한 화물 운송업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여성들이 해녀 물질로 가게 경제에 기여했다면, 마을 남성들은 화물선을 구입해 다양한 운송업을 전개하며 그로부터 적지 않은 수입을 벌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구술 채록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기부자 후손에 대한 정보는 추가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기부에 대해 제보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적절한 제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섭외된 제보자들은 본인 가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보하나, 다른 기부자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으로만 제보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런데 해당 마을에 계속 거주하는 제보자들은 그 마을 기부자의 후손들의 현재 형편을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연락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보자들의 도움으로 다른 기부자 후손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수의 기부자 후손을 확인하고 그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술 채록한다면 학교 기부 사실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기부자의 공적을 기리고자 할 때 후손들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그럴 때 제보를 통해 확보한 후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은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교 설립 기부는 매우 오래전 일이고 당시 기부자들이 특별한 표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을이나 학교 차원에서 공덕비를 세우는 방식으로 기부자들의 공헌을 기억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근대 이후 제주도 초등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공헌이었음을 감안하면, 뒤늦게라도 그들의 기여를 기리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그럴 때 제보를 통해 확보한 후손들의 현재 상황과 연락처 등은 그런 작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 책임

---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공동 연구

---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원장)

김순임(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박민희(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김다현(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 집필 참여

---

양정필(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자료 협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역사자료총서 34

근·현대 제주 교육 발전 공헌 기록사(II) - 구술 자료집

##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들

---

발행인 김완병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기 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 작 디자인리더제주 pas0907@daum.net

ISBN 979-11-997065-4-5 9391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